

2021학년도 1학기
상명 에세이 경진대회
수상작 모음집



학술적 에세이 부문

대상	‘신서유기’를 통해 알아보는 예능으로서의 매력을 극대화해주는 자막	1
최우수상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속 민족주의적 서술의 오류에 대한 비판적 고찰	25
	우리는 어떻게 역사를 ‘문화’로 받아들이는가	35
	: 현대 사회의 문화적 요소인 “사극”의 성격 변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우수상	국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시스템의 현황 및 보안 문제 개선에 관한 연구	51
	: 핀테크 사례로서의 카카오, 네이버, 삼성페이를 중심으로	
	친일파 청산의 좌절 원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68
	: 이승만 정권을 중심으로	
	위클래스 상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8
	대학생의 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 방안	98
	영상 역사학 속 역사 다큐멘터리의 역할과 발전 방향	116
	전동킥보드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	127
	: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프로야구 AI 심판 활용 사례 분석 및 전망	140
	재직자전형 입학 학생들의 만족도 및 향후 계획 조사	150
	: 2021학번 융합경영학과 1학년 재학생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고교학점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63
	: 설문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택배기사의 과도한 업무 현황으로 인한 과로사 해결 방안	180
	청년세대의 자조적 표현의 유행과 의의	191
	판타지와 로맨스판타지 장르 한국 웹소설의 근황	207
	케이팝의 현황과 글로벌 성장 전략 분석	221
	: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를 중심으로	
	부캐(부캐릭터)의 활용 사례를 통한 성공적인 부캐 마케팅 홍보 방안 연구	236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 활용 방안 연구	247

비평적 에세이 부문

대상	너에게, 그리고 나에게 : <윤희에게>를 보고 참을 수 없어진 내가 269
최우수상	리틀포레스트는 시골생활 판타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 영화 <리틀포레스트>를 보고 272
	억압된 존재의 가치를 통해 본 그레고르의 삶 :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275
우수상	편의점을 통해 본 현대의 삶 속 적절한 공백 : 김애란 「나는 편의점에 간다」를 읽고 278
	한바탕 울 만한 곳을 찾아서 : 연암 박지원 『열하일기』를 읽고 282
	예언 속도를 중점으로 본 엔트로피 법칙 : 제레미 리프킨 『엔트로피』을 읽고 284
	자유의 탈을 쓴 억압의 현실, : <미안해요, 리키>를 감상하고 286
	배제를 넘어 연대의 역사학으로 289



2021학년도 1학기
상명 에세이 경진대회

학술적 에세이 부문







‘신서유기’를 통해 알아보는 예능으로서의 매력을 극대화해주는 자막

행정학과 이한*

목 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방법
2. 예능에서의 자막의 유형과 필요성
 - 2.1. 예능에서 ‘유행’으로 자리 잡았던 자막의 역할 확장
 - 2.2. ‘무한도전’을 통해 알아보는 자막의 일반적인 유형과 역할
 - 2.2.1. 자막의 유형 분류 및 자막의 ‘정보 전달’의 역할
 - 2.2.2. 제작진의 의도에 의해 수행되는 자막의 ‘재미 극대화’ 역할
 - 2.3. ‘무한도전’을 통해 알아보는 예능에서의 자막의 필요성
3. ‘신서유기’ 자막 분석
 - 3.1. ‘신서유기’의 유형별 자막의 특징과 효과
 - 3.2. 편집 방식과도 결합하여 수행되는 ‘신서유기’ 자막의 ‘재미 극대화’ 역할
 - 3.3. ‘신서유기’만의 ‘출연자의 특징’을 활용한 특색 있는 자막의 특징과 효과
4. ‘신서유기’ 자막이 가져온 영향
 - 4.1. 유행어의 생성과 관련 프로그램 형성까지
 - 4.2. ‘신서유기’ 외전 프로그램 시리즈와 채널의 확장
 - 4.2.1. ‘TV’ 프로그램인 ‘강식당’ 시리즈의 확장
 - 4.2.2. ‘아이슬란드 간 세끼’를 통한 성공적인 ‘유튜브’ 입성
 - 4.3. ‘신서유기’ 제작진들만으로도 유지 가능한 유튜브에서의 인기
5.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해, 인터넷 기술과 각종 대중 매체들이 발달한 상황에서 미디어 콘텐츠의 주를 이루는 예능 프로그램은 TV 채널을 넘어 유튜브라는 1인 플랫폼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예능에서의 경쟁이 공중파와 케이블 채널을 넘어 유튜브까지로 확장된 현재, 대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소재의 예능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때, 시대적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예능에 꼭 있어야 하는 요소로 '자막'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자막'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다. "이 예능 프로그램은 그냥 재미있는데 자막 때문에 더 웃기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만큼 예능에서의 자막은 예능이란 장르가 추구하는 재미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자 이를 도와주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예능 시장에서의 흐름을 통해, 예능 출연자들보다도 영상을 편집하여 자막을 삽입하는 제작진들의 역량이 예능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자막이 예능 프로그램의 재미를 극대화해준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해당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때, 예능에서의 자막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과정, 일반적인 자막의 형태와 역할에 대해서도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증명되어 현재 방영하지 않는 예능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 자막의 일반적인 형태와 유형은 무엇이고 이를 통해 자막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예능이 추구하는 재미가 자막을 통해 실현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현재 방영되고 있는 '신서유기'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자막이 어떻게 더 재미를 추구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서유기' 자막의 특징과 재미 실현 방법 등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신서유기' 자막의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이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유행어 생성'과 같은 현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인터넷 기술과 각종 대중 매체들이 발달한 정보화 시대라는 점에 주목하여,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다루어보고자 한다. 즉, 이전과는 달리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자막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해당 연구를 통해 '신서유기'를 대상으로 예능으로서의 매력을 극대화해주는 자막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신서유기'를 대상으로 예능으로서의 매력을 극대화해주는 자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 '신서유기'를 선택한 것은 '신서유기'는 현재까지 방영되고 있는 요즘 예능이자 '자막 덕분에 더 재미있다'라는 평을 받는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신서유기'의 자막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기 전에, 예능에서의 일반적인 자막의 유형과 역할, 예능에서의 자막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즉, 일반적인 자막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때, 일반적인 자막의 유형은 논문을 참고하여 분류하고, 해당 유형에 대한 예시는 '무한도전'의 자막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무한도전'은 고전 예능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자 약 3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막을 분석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예능에서의 자막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무한도전'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막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MBC 파업으로 자막 없이 방영된 136회'를 예시로 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자막 없이 방영된 136회'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과 대응 방법을 조사해봄으로써, 자막이 수행하는 역할로 인한 자막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알게 된 일반적인 자막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신서유기' 자막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때, '신서유기' 시리즈 중 '신서유기 4'를 대상으로 '신서유기' 자막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서유기 4'의 자막은 '신서유기' 1, 2, 3을 진행하면서 형성된 자막 스타일이 잘 드러나 있고, 해당 시리즈들보다도 가장 최근 시리즈인 '신서유기 8'의 자막 스타일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서유기 4'의 자막이 '신서유기' 자막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되어 해당 시리즈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논문을 통해 살펴본 유형들을 예시에 적용하여 분류해 보고, 해당 자막들의 특징과 그로 인한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후, '재미 극대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막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신서유기'의 자막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재미 극대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때, '신서유기'의 자막은 '신서유기 4'의 같은 에피소드의 자막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통일감 있게 다루어보고자 한다. 또한, '신서유기'만의 특색 있는 자막의 특징과 그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도 다루어보고자 한다. 특색 있는 자막의 경우, '신서유기'의 전 시리즈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신서유기' 자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서유기의 자막'이 '신서유기'의 예능으로서의 매력을 어떻게 극대화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막을 통해 극대화된 예능으로서의 매력을 바탕으로 '신서유기'는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때, 유행어 생성과 프로그램 및 채널 확장에 대해 다루어봄으로써, 인터넷 기술과 매체들이 발달한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예능에서의 자막의 유형과 필요성

2.1. 예능에서 '유행'으로 자리 잡았던 자막의 역할 확장

예능에서의 자막은 김영희 PD가 처음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¹⁾ 김영희 PD는 MBC 토크쇼 '놀러와'에 출연하여, 일본 연수를 하며 발견하게 된 예능에서의 자막을 계기로 도입을 시도하였음을 밝혔다. 그는 해당 자막이 생동감을 살리는 역할에 주목하여 그의 프로그램인 'TV 파크'에 처음으로 자막을 도입하였다. 그가 사용한 자막은 '자막은 영화나 텔레비전 따위에서,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비추는 글자로, 표제나 배역, 등장인물의 대화, 설명 따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정의에 초점을 맞춘 자막이었다.²⁾ 따라서 정보를 전달한다는 자막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출연자들의 말을 자막에 모두 담아낸 결과, 그는 시청자들로부터 '우리가 무슨 청각장애인이냐'라는 반응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은 4개월 만에 폐지되었고, 그는 경위서까지 작성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자막이 예능에서의 유행이 되었고, 그 결과 예능에서의 자막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의 자막은 시청자에게 보이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출연진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만이 아닌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까지 해주는 기능으로까지 정보 전달 역할이 확장되었다.³⁾ 또한, 재미를 극대화해주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자막의 중요성은 예능에서 더 커지게 되었다.⁴⁾ 그리고 프로그램의 진행을 수월하게 해줄 수 있다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진행을 위해서도 자막의 중요성이 커졌다.⁵⁾ 이때,

1) 네이버 나무위키, 김영희(PD), <[https://namu.wiki/w/%EA%B9%80%EC%98%81%ED%9D%AC\(PD\)](https://namu.wiki/w/%EA%B9%80%EC%98%81%ED%9D%AC(PD))>, 2021. 4. 15.

2) 국립국어원, 자막,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2021. 4. 15.

3) 드라마사전, 자막, 김광요 외, 문예림, 2010, 네이버 지식백과, 자막,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90341&cid=42612&categoryId=42612>>, 2021. 4. 15.에서 재인용.

4) 이영돈, 영상콘텐츠 제작사전, 자막,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네이버 지식백과, 자막,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50920&cid=58190&categoryId=58190>>, 2021. 4. 15.에서 재인용.

5) 드라마사전, 앞의 글.

이러한 자막의 역할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예능이 오프라인 자막을 사용하고, 현재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⁶⁾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팝온 스타일 자막, 전문 화면 대체, 글씨 기울임, 특수 문자, 효과음 등을 통한 맞춤형 자막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현재 몇몇 프로그램은 자신들만의 자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능에서의 자막의 역할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추가적인 설명과 재미 추구, 원활한 진행까지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자막은 고유한 스타일로 제시되고, 소리와 장면 편집과도 결합하여, 보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2.2. ‘무한도전’을 통해 알아보는 자막의 일반적인 유형과 역할

2.2.1. 자막의 유형 분류 및 자막의 ‘정보 전달’의 역할

예능에서의 자막은 주로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는 자막들이다. 이때 자막들이 담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자막의 유형을 나누면 ①정보안내 유형 자막, ②상황지시 유형 자막, ③행동/감정표현 유형 자막으로 나눌 수 있다.⁷⁾

우선, ①정보안내 유형 자막은 프로그램 제목, 인명, 지명, 추가정보 설명 등의 필요에 따라 놓여지는 자막이다.



〈그림 1〉 〈그림 2〉 무한도전 ‘명수는 12살’ 편 캡처⁸⁾

해당 자막들은 프로그램 시작 장면에 사용되어, 시청자들에게 현재 무한도전 멤버들이 ‘새 학기가 시작된 초등학교 5학년’이란 설정을 인식하게 해준다.

다음으로, ②상황지시 유형 자막은 영상 안에서의 분위기나, 상황, 특정 포인트를 설명하는 유형의 자막이다.



〈그림 3〉, 〈그림 4〉, 〈그림 5〉 무한도전 ‘명수는 12살’ 편 캡처⁹⁾

6) 네이버 위키백과, 자막,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B%A7%89>>, 2021. 4. 15.

7) 조수진, TV 예능프로그램 자막에서 찾아본 만화 표현기호 활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3쪽.

8) 유튜브, 무한도전, <<https://m.youtube.com/watch?v=68Nvp7IOqGk>>, 00분 04초, 00분 07초.

9) 유튜브, 무한도전, <<https://m.youtube.com/watch?v=68Nvp7IOqGk>>, 00분 16초, 00분 18초, 00분 24초.

해당 자막들은 출연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쓴 자막들이다. 이때, <그림 3>에서는 '엄마랑', <그림 4>에서는 '친구', <그림 5>에서는 '구명조끼'에 다른 색을 입힘으로써 해당 단어를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한 출연진이 다른 출연진의 모습을 보고 '엄마'라고 하고, 바로 뒤에 '친구'인데라는 자막을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다른 출연자를 한 출연자가 놀리고 있는 상황을 더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강조한 자막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상황지시 유형 자막은 주로 출연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쓴 자막에서 강조할 부분에 다른 색과 같은 포인트를 줌으로써 시청자에게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도와주는 자막이다.



<그림 6>, <그림 7> 무한도전 '명수는 12살'편 캡처¹⁰⁾

또한, ②상황지시 유형 자막은 출연자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만 하는 자막이 아니라 제작진들의 주관이 들어간 내용을 자막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 6>은 한 출연자의 보이스카우트 옷에 대해 나는 다른 출연자들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여 표현한 자막이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해당 자막이 제시되기 전 장면에서 나는 대화들이 부와 관련된 것임을 재확인할 수 있고, 한 출연자의 캐릭터가 부잣집 아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그림 7>을 통해, 다른 출연자의 캐릭터가 가난한 집 아이라는 것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해당 출연자가 왜 대화에 참여하지 못했는지를 시청자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때, '가난 때문에'라는 자막을 통해 시청자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작아지는'이라는 글자를 강조함으로써, 해당 출연자의 캐릭터에 대한 추측을 도와준다. 또한, <그림 6>과 <그림 7>을 통해, 제작진들이 두 캐릭터의 대조되는 특징을 자막으로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캐릭터에 대한 이해를 더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행동/감정표현 유형 자막은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통해 출연자의 행동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자막이다.



<그림 8>, <그림 9>, <그림 10> 무한도전 '명수는 12살'편 캡처¹¹⁾

10) 유튜브, 무한도전, <<https://m.youtube.com/watch?v=68Nvp71OqGk>>, 00분 32초, 00분 42초.

11) 유튜브, 무한도전, <<https://m.youtube.com/watch?v=68Nvp71OqGk>>, 00분 21초, 00분 25초, 1분 18초.

〈그림 8〉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출연자의 모습을 ‘공손’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출연자도 다른 출연자들 처럼 초등학교 5학년 같지 않은 모습의 출연자를 놀리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준다. 그 뒤, 〈그림 9〉를 제시함으로써, 놀림을 당한 출연자의 감정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이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림 10〉도 가난한 캐릭터를 맡은 출연자에 대한 놀림이 계속된 상황에 ‘울컥’이라고 해당 출연자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시청자들이 해당 캐릭터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행동/감정표현 유형 자막은 출연자의 행동이나 감정을 시청자들에게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일종의 정보 전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 해당 행동이나 감정을 유발한 장면 바로 뒤에 사용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고려해 볼 수 있게 해보고 해당 상황을 재확인시켜줌으로써, 시청자들이 해당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2.2.2. 제작진의 의도에 의해 수행되는 자막의 ‘재미 극대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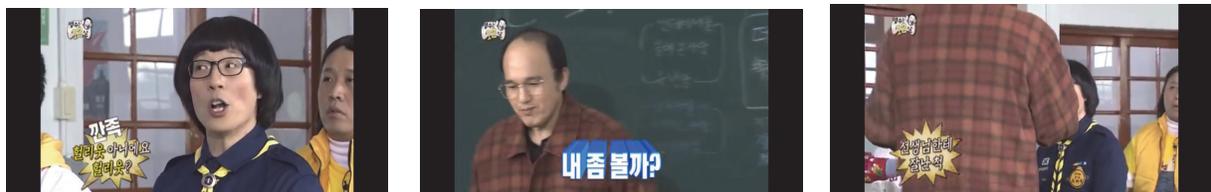
예능에서 자막을 통해 재미있는 상황에서의 재미를 극대화하는 방법에는 우선, 출연자의 말을 인용한 단어를 제작진들의 주관에 담긴 내용과 합쳐, 시청자들을 제작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있다.



〈그림 11〉 무한도전 ‘명수는 12살’ 편 캡처¹²⁾

〈그림 11〉은 선생님 역할의 출연자가 무한도전 멤버들에게 가하는 처벌이 ‘머리카락 잡아당기기’라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한눈에 보여주는 자막이다. 이때, 해당 자막은 제작진들의 주관에 들어간 내용을 ②상황지시 유형으로 표현한 자막이다. 제작진들은 출연자가 ‘머리카락’을 ‘잡초’라고 표현한 말을 인용하여, ‘잡초 뽑기’를 다른 색으로 표현함으로써, 처벌 방법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강조하여 인식시킨다. 또한, ③행동/감정표현 유형과 함께 사용된 자막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자막은 ‘다이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출연자의 모습을 표현하였고, 이때 해당 행동은 ‘혼신의’라는 주관에 담긴 내용과 연결되어 출연자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힘에 대한 시청자의 추측을 유도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센’ 힘을 상상하게 되고, 이는 고통받는 출연자의 모습과 연결되어, 이미 재미있는 상황에서의 재미를 극대화하여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앞에서 제시된 상황을 통해 인식된 정보로 인해, 시청자들이 해당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추측이 가능해짐으로써, 해당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무한도전 ‘명수는 12살’ 편 캡처¹³⁾

12) 유튜브, 무한도전, <<https://m.youtube.com/watch?v=68Nvp7IOqGk>> 08분 27초.

〈그림 12〉는 ②상황지시 유형과 ③행동/감정표현 유형이 결합한 자막이라 볼 수 있다. 출연자의 말을 그대로 자막으로 제시하며 ‘헐리웃’이라는 단어에 강조를 주었고, ‘간죽’이라는 단어를 통해, 해당 출연자가 ‘헐리웃’을 잘못 말한 출연자를 놀리고 있는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간죽’이라는 단어로 해당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뒤이어, 〈그림 13〉의 ②상황지시 유형 자막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제작진들이 시청자들에게 이어질 상황에 대해 상상해보라는 의도로 제시한 자막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자막은 출연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자막도 아니고 제작진들의 주관에 담긴 내용을 표현한 자막도 아니다. 따라서 해당 자막은 이어질 상황에 대해 상상을 해보라는 의미로 제작진들이 의도적으로 삽입한 자막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때, 앞에서 제시된 ‘선생님의 처벌 방식은 머리카락 잡아당기기’라는 정보를 시청자들이 떠올리게 되면, 해당 상황에 대한 상상으로 웃음을 짓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발된 웃음은 〈그림 14〉의 선생님 역할의 출연자에게 고자질하는 출연자의 말이 담긴 ②상황지시 유형 자막으로 극대화된다. 만약, 〈그림 13〉에서 시청자들이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 눈치를 채지 못한 경우, 〈그림 14〉가 〈그림 12〉의 ‘학생이 선생님을 놀리는’ 상황을 부각해주기 때문에 웃음을 유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진 자막이 앞서 제시된 상황에 대한 추측이 예상했던 대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나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자막일 경우에도 해당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15〉, 〈그림 16〉, 〈그림 17〉 무한도전 ‘명수는 12살’ 편 캡처¹⁴⁾

〈그림 15〉, 〈그림 16〉, 〈그림 17〉 모두 ②상황지시 유형에 해당하는 자막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출연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제시한 자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림 15〉는 ‘이발 준비’라고 자막을 제시함으로써, 이어질 행동이 ‘머리’와 관련이 있음을 시청자들이 눈치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자막이라 볼 수 있다. 그 뒤에 이어진 〈그림 1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막은 직전에 제시된 ‘이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해당 출연자를 ‘이발사’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옆머리 이발사’와 ‘작업 전’이라고 제시함으로써, 곧 있으면 선생님 역할의 출연자를 놀린 출연자의 ‘머리카락’이 잡아당겨질 것을 시청자들은 쉽게 추측하거나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시청자들은 출연자가 당할 고통의 정도가 앞서 처벌을 당했던 출연자의 고통과 비슷할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되어 웃음을 짓게 된다. 또한, ‘한껏 들떠 있는’이라는 제작진들의 주관에 의해 출연자의 감정이 표현된 자막은 놀린 것을 복수할 생각에 신이 난 출연자의 감정을 시청자들이 짐작해볼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자아낸다. 그리고 〈그림 17〉을 통해 이러한 상상을 명확히 확인하게 됨으로써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때, 〈그림 17〉을 〈그림 11〉과 시각적으로 비슷하게 표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해당 정보에 대해 더 명확히 인식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이는 뒤에서도 웃음을 유발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시청자들이 자막의 의도대로 이끌려지지 않더라도, 해당 자막들의 표현을 우스꽝스럽게 하고, 해당 자막들이 해당 상황에서의 분위기와 출연자의 표정과 어우러지는

13) 유튜브, 무한도전, <<https://m.youtube.com/watch?v=68Nvp7IOqGk>>, 09분 01초, 09분 06초, 09분 09초.

14) 유튜브, 무한도전, <<https://m.youtube.com/watch?v=68Nvp7IOqGk>> 09분 11초, 09분 14초, 09분 21초.

것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시청자들이 의도대로 이끌려 갔을 경우, 해당 재미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 ‘무한도전’을 통해 알아보는 예능에서의 자막의 필요성

무한도전이 MBC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해 편집자가 바뀌면서 자막 없이 방영되었다는 사례를 통해 예능에서의 자막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사례를 통해, 자막이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상황을 쉽게 인식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고유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파업으로 인해 자막 없이 방송된 회차 중 하나인 136회 ‘YOU&ME 콘서트’의 방송 이후, 무한도전 팬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무도빠들의 자막 만들기 프로젝트’(무도빠 자막)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해당 회차의 자막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해당 카페 운영자는 “자막 없는 무한도전은 앙금 없는 찌빵, 안테나 없는 DMB, 재석 없는 버라이어티 아니겠습니까?”라고 자막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히며, 카페 가입자들의 공감을 얻었고 이들의 참여를 구했다.¹⁵⁾

이때, 자막에 대한 아이디어가 담긴 카페 가입자들의 글을 보면, “1분 55초(타임 코드) ‘참은이 형 나이를 부록으로 드신 듯...’”, “46분 38초 ‘가봐야 알죠 (해골+효과음) 멤버 교체가 있을 수도 있고 (해골+효과음)”, “7분 06초 ‘공연 온 관객에게 단돈 19,900원씩 거둬들일 기세’”, “65분 35초 ‘이거 아마추어같이 왜 이래?’” 등을 삽입해달라는 요청이 담긴 글을 발견할 수 있다.¹⁶⁾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무한도전의 고유 분위기, 즉, 고유 스타일이 담긴 자막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막이 해당 분위기와 스타일을 형성하기 때문에 카페 개설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2천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찾아와 자막과 효과음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게시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자막은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해당 상황에 대해 명확히 인식시켜주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닌 해당 프로그램의 고유 분위기와 스타일을 형성시켜주기 때문에, 예능에서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신서유기’ 자막 분석

3.1. ‘신서유기’의 유형별 자막의 특징과 효과

‘신서유기’ 자막은 제작진들의 의도대로 시청자들을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큰 특징이 있다. 제작진들의 의도대로 시청자들을 이끌기 위해 먼저, 게임을 시작하는 등의 어떠한 상황이 시작되기 전, 해당 상황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자막을 통해 제공한다. 이때의 자막은 프로그램 제목, 인명, 지명, 추가 정보 설명 등의 필요에 따라 넣어지는 자막인 ①정보안내 유형 자막이다. 이러한 유형의 자막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상상을 쉽게 유도한다.

15) 이미혜, 무한도전팬 자막 만들기 운동, 뉴스엔, 2021. 4. 17.,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812310838041001>

16) 나란, 미디어스, 네티즌들 ‘유엔미콘서트’ 다시 만든다, 미디어스, 2021. 4. 17.,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8>>



〈그림 18〉, 〈그림 19〉, 〈그림 20〉 신서유기 4, 4회 캡처17)

〈그림 18〉, 〈그림 19〉, 〈그림 20〉은 ①정보안내 유형의 자막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그림 18〉은 ‘고깔 고깔 전격 해변 대작전’이라고 자막을 제시함으로써, 게임의 이름에 대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후, 〈그림 19〉와 〈그림 20〉의 자막과 함께 ‘고깔’을 이용했던 게임 장면을 보여주면서, ‘고깔을 이용했던 게임에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을 시청자들이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신서유기 4, 4회 캡처18)

만약, 시청자들이 해당 상황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거나 해당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작진들의 의도대로 시청자들이 이끌려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진들은 〈그림 21〉의 자막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시청자들은 ‘고깔을 쓴 출연자들의 시선’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엉망진창일 상황을 쉽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깔’과 관련된 기억을 불러일으킨 시청자들의 경우, 자신이 상상했던 상황이 곧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한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후, 제작진들은 〈그림 22〉와 〈그림 23〉의 자막을 통해, 해당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두 종류의 시청자 모두에게 ‘곧 있으면 상상했던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일종의 예고를 하고, 확신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그림 22〉와 〈그림 23〉의 자막은 영상 안에서의 분위기나, 상황, 특정 포인트를 설명하는 ②상황지시 유형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①정보안내 유형이 결합한 자막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2〉에서는 ‘평범한 젤리’에 강조를 주었고, 〈그림 23〉에서는 ‘이모냥’에 강조를 줌으로써, ‘평범한’ 행동도 ‘이모냥’으로 만드는 ‘고깔 게임’이라는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집약해서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명확히 인식된 “‘평범한’ 것도 ‘이모냥’으로 만드는 ‘고깔 게임’”이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쉽게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과감한 생략을 하는 편집 방식과 자막이 결합하여, 시청자들이 상황에 대한 간단하고도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있다. 이때, 상황에 대한 간단하고도 명확한 인식이 가능한 것은 과감한 생략을 하는 편집 방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신서유기’의 자막들을 살펴보면, 자막의 내용이 주로 출연자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기보다는 특정 단어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제작진들의 주관이나 의도가 담긴 내용인 경우에도 한 단어로 집약해서 자막으로 제시하기

17)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ekGFehBum8s>> 00분 02초, 00분 04초, 00분 10초.

18)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ekGFehBum8s>> 00분 16초, 00분 25초, 00분 28초.

때문에, 상황에 대한 간단하고도 명확한 인식은 한 단어로 집약해서 제시되는 자막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림 24〉, 〈그림 25〉, 〈그림 26〉신서유기 4, 4회 캡처19)

〈그림 24〉, 〈그림 25〉, 〈그림 26〉 모두 영상 안에서의 분위기나, 상황, 특정 포인트를 설명하는 ②상황지시 유형의 자막이다. 〈그림 24〉의 자막은 제작진들의 해당 상황에 대한 주관에 담긴 자막으로, ‘자유롭게 댄스’에 강조를 주어, 시청자들에게 해당 상황을 ‘자유롭게 댄스’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게 한다. 그 후, 〈그림 25〉처럼 화면을 블랙으로 하여 해당 상황을 과감히 생략하는 편집 방식과 ‘잠시 후’라는 자막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림 26〉의 ‘정체 현상’이라는 자막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라운드 후반에는 출연자들이 잘 움직이지 않았구나’라는 정보를 ‘정체 현상’이라는 단어를 통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해당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자유롭게 댄스’와 ‘정체 현상’이라는 대비되는 단어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그림 25〉의 편집 방식과 자막 덕분에 더 쉽게 할 수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해당 편집 방식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보인 해당 라운드의 게임 장면은 두 장면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자막을 통해 ‘자유롭게 댄스’하는 라운드 초반과 ‘정체 현상’이라는 라운드 후반의 상황이라는 대비되는 상황을 인식하였고, 해당 라운드의 장면이 해당 두 장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라운드에 대한 정보가 많을 때보다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통해 출연자의 행동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③행동/감정표현 유형 자막을 기호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제시한다는 것이 있다. 기호나 비유적 표현을 통해 출연자의 행동이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출연자의 행동과 감정 중 특정 포인트만을 강조하여 전달해준다. 이는 해당 표현을 통해 무언가를 연상할 수 있다는 점을 제작진들이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7〉, 〈그림 28〉 신서유기 4, 4회 캡처20)

〈그림 27〉은 고깔을 쓰고 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리번거리며 노란색 상자를 찾고 있는 출연자

19)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ekGFehBum8s>> 00분 48초, 00분 50초, 00분 52초.

20)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ekGFehBum8s>> 01분 09초, 04분 12초.

의 모습에 제작진들이 '닭 아님'이라고 자막을 삽입한 장면이다. '닭'이라는 비유적 표현에 의해, 시청자들은 '닭이 고개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걷는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닭의 모습이 출연자의 두리번거리며 걷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제작진들이 왜 해당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깨닫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은 닭의 특정 모습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상황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림 28>은 출연자의 감정을 '! '라는 기호로 표현한 자막이 사용된 장면이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노란색 상자를 발견한 출연자의 기쁨과 놀람 등의 복합적인 감정에 대해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출연자의 말이 있는 그대로 제시된 경우, 바로 뒤에 제작진들의 주관이나 의도가 담긴 자막이 제시된다는 특징이 있다. '신서유기'의 자막은 전반적으로 출연자의 말을 자막으로 제시하는 빈도가 낮다. 주로, 제작진들의 주관이나 의도가 담긴 내용을 자막으로 제시하고, 출연자의 말을 자막으로 제시하더라도 특정 단어만을 인용해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신서유기'가 출연자의 말을 그대로 자막으로 제시하고, 바로 뒤에 제작진들의 의도가 담긴 자막을 제시하는 것은 시청자들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게 유도하고자 삽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시청자들이 평범한 상황일지라도 장면에서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제작진들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9>, <그림 30> 신서유기 4, 4회 캡처²¹⁾

<그림 29>와 <그림 30>은 영상 안에서의 분위기나, 상황, 특정 포인트를 설명하는 ②상황지시 유형의 자막이다. 이때 <그림 29>는 출연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어떠한 강조의 표시도 없이 자막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자막을 통해, 시청자들은 해당 상황을 '음.. 그렇구나.' 정도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또한, 이는 게임 상황 중 한 장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작진들은 <그림 30>의 '멀리 보내버림...!!'이라는 자막을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함으로써, <그림 29>의 자막과는 대비되게 표현하였다. 즉, 시청자들에게 그냥 넘길 상황이 아니라는 일종의 신호를 빨간색이라는 시각적 표현으로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인식한 시청자들은 자막의 내용을 보고 출연자가 그런 말을 한 의도를 이해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포인트로 인해 웃음을 짓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 편집 방식과도 결합하여 수행되는 '신서유기' 자막의 '재미 극대화' 역할

'신서유기'의 자막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작진들의 의도대로 시청자들을 이끄는 힘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다. 이때, 제작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능이니만큼 '재미 극대화하기'에 초점을 맞춰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서유기' 제작진들은 출연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자막으로 제시하기보다는

21)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ekGFehBum8s>> 02분 28초, 02분 32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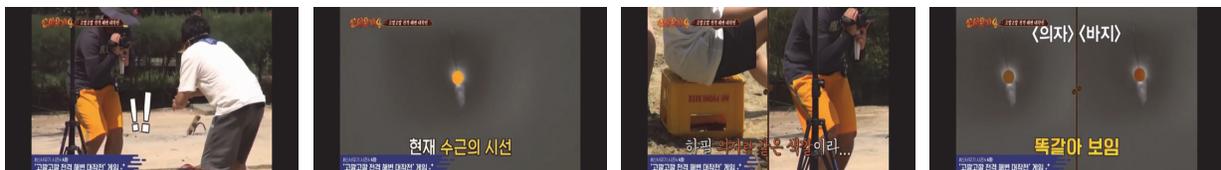
제작진들의 주관이나 평가와 같은 내용을 자막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이어질 상황에 대해 제작진들의 의도대로 상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편집 방식과 강조를 주는 시각적 표현과도 결합하여 상황에 대한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인식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놓칠 수 있는 포인트를 자막을 통해 제시해 줌으로써, 예상치 못한 포인트를 시청자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러한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도록 제시된 자막은 시청자들에게 ‘재미 극대화’라는 제작진들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안내자라고 볼 수 있다.

‘신서유기’ 자막의 해당 특징과 그로 인한 효과들이 결합하여, ‘재미 극대화’라는 목표를 잘 수행하는 예시로는 ‘고깔 고깔 전격 해변 대작전’에서의 장면이 있다.



〈그림 31〉, 〈그림 32〉, 〈그림 33〉 신서유기 4, 4회 캡처22)

우선, 〈그림 31〉, 〈그림 32〉, 〈그림 33〉의 자막은 제작진들의 의도대로 시청자들을 이끌기 위한 내용을 자막으로 제시한 ②상황지시 유형의 자막이다. 〈그림 31〉의 ‘노란색 의자 찾기’에 강조를 준 자막은 시청자들이 해당 출연자가 노란색 의자를 찾고 있다는 상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그림 32〉의 ‘...어디감?’이라는 자막을 통해 시청자들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눈치챌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그림 33〉의 ‘마치 뭔가에 홀린 듯이...’라는 자막을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림 34〉, 〈그림 35〉, 〈그림 36〉, 〈그림 37〉 신서유기 4, 4회 캡처23)

그 후, 〈그림 34〉에서 ‘!’를 자막으로 제시하여, 무언가 잘못된 상황에 대한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전한다. 이때, 출연자가 카메라 감독님에게 다가가는 이유가 노란색 바지 때문이라는 것을 눈치챈 시청자들은 웃음을 짓게 될 것이다. 이때, 제작진들은 눈치채지 못한 시청자들을 위해 〈그림 35〉, 〈그림 36〉, 〈그림 37〉의 자막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상황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와 이미 웃긴 상황을 더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때 〈그림 34〉의 자막은 기호를 활용한 ②상황지시 유형의 자막이고, 〈그림 35〉, 〈그림 36〉, 〈그림 37〉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①정보안내 유형의 자막이지만, 특정 글자에 강조를 줘 해당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②상황지시 유형과도 결합한 자막으로 볼 수 있다.

22)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ekGFehBum8s>> 01분 48초, 01분 49초, 01분 50초.

23)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ekGFehBum8s>>, 01분 54초, 01분 58초, 02분 02초, 02분 04초.



〈그림 38〉, 〈그림 39〉 신서유기 4, 4회 캡처²⁴⁾

〈그림 38〉, 〈그림 39〉의 자막을 통해, 제작진들은 해당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이때에도 제작진들의 의도가 담긴 내용의 자막을 활용하였고, 해당 의도는 '출연자의 생각과는 달리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기'이다. 〈그림 38〉의 '노란색이다.'라는 자막을 통해, 출연자가 '노란색 물체가 노란색 의자일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카메라 감독님을 향해 움직였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곧이어 〈그림 39〉의 '제대로 낚임'이라는 자막을 통해, 출연자의 확신에 대해 찬물을 뿌리는 듯한 느낌을 시청자들이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같은 정보에 대한 반복으로 시청자들은 해당 상황에 대해 더 잘 인식하게 된다.



〈그림 40〉, 〈그림 41〉, 〈그림 42〉 신서유기 4, 4회 캡처 23, 24, 25²⁵⁾

그 후, 〈그림 40〉의 '야, 이게 움직이는데?'라는 출연자의 말을 그래도 담은 자막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출연자의 당황스러움에 대해 시청자들이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출연자가 의자가 아닌 카메라 감독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청자들은 무언가 잘못된 상황에 대해 이제야 눈치챈 당사자의 모습으로 인해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야 이상함을 눈치챈 출연자에게 마치 해답을 알려준 듯한 '사람은 움직이는 거야...'라는 〈그림 41〉의 자막을 통해서도 시청자들은 웃음을 짓게 된다. 이는 그동안 당사자만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상황을 부각해주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블랙 화면과 함께 '이수근 탈락'이라는 자막이 담긴 〈그림 42〉의 장면을 통해, 시청자들은 해당 라운드는 끝이 났고, 결국 해당 출연자는 탈락했다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3.3. '신서유기'만의 '출연자의 특징'을 활용한 특색 있는 자막의 특징과 효과

'신서유기'만의 특색 있는 자막은 '출연자'와 관련이 있는 자막인 경우가 많다. 우선, 출연자의 캐릭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자막이 있다. 해당 자막들은 주로 '출연자만의 특징'과 관련 있고, 해당 특징을 극대화해서 시청자들에게 출연자들을 인식시킨다. 이를 통해 형성된 캐릭터를 바탕으로, 시청자들은 해당 출연자를 집약

24)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ekGFehBum8s>>, 02분 08초, 02분 12초.

25)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ekGFehBum8s>>, 02분 16초, 02분 18초, 02분 21초.

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먼저, 출연자의 캐릭터를 형성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자막 중, ‘출연자의 특징이 담긴 단어’와 ‘bgm’이 결합한 형태가 있다.



〈그림 43〉 신서유기 3 캡처²⁶⁾

〈그림 43〉은 해당 출연자의 ‘비관적’인 특징만을 극대화하여 보여주는 자막이다. 이때, ‘비관적 미소’에 강조를 주는 ②상황지시 유형의 자막을 사용하여, 시청자들에게 해당 특징을 강조하여 인식시킨다. 그리고 해당 출연자의 표정과도 단어 ‘비관적 미소’가 결합하여 시청자들은 한눈에 이러한 특징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bgm’으로 해당 출연자의 노래인 ‘광화문에서’를 틀어, 잔잔한 발라드 멜로디에 해당 특징은 더 극대화된다. ‘강조 단어’, ‘표정’, ‘bgm’이 결합하여, 해당 출연자의 비관적이라는 특징을 극대화하여 인식하게 된 시청자들은 ‘저렇게까지 비관적이지 않아도 될 상황’에 너무나 비관적으로 보이는 출연자의 모습에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출연자의 캐릭터를 형성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자막으로 ‘출연자의 특징’과 ‘출연자의 이름’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별명을 자막으로 제시하는 것이 있다. 이때, 이러한 별명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제작진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명 언급 후, 제작진의 의도가 담긴 자막을 제시하는 것이 있다.



〈그림 44〉, 〈그림 45〉, 〈그림 46〉신서유기 4 캡처²⁷⁾

〈그림 44〉, 〈그림 45〉, 〈그림 46〉의 자막은 해당 출연자의 별명인 ‘조정뱅이’를 자리 잡게 하기 위한 제작진의 의도가 담긴 자막이다. 이때 ‘조정뱅이’는 출연자의 성인 ‘조’와 ‘술을 좋아하고 잘 마신다.’라는 출연자의 특징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별명이다. 즉, 해당 특징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기 위해 ‘주정뱅이’라는 단어를 골랐고, 이때, ‘주’를 성인 ‘조’로 바꿈으로써 탄생한 센스 있는 별명이라 볼 수 있다. 해당 그림들이 보여주는 상황은 ‘조정뱅이’라는 그의 별명에 맞는 미션인 ‘소주 브랜드 맞추기’를 성공하여 출연자가 기쁨을 표현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림 44〉의 자막은 시청자들에게 그가 신께 감사를 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제가 조정뱅이입니다.’라는 자막은 ‘그가 미션을 성공했다는 사실’과 결합하여, 해당 캐릭터를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에 도움을 준다. 그 후, 〈그림 45〉에서 ‘아! 주여~’라는 출연자의 말을

26)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SnRki1j71C0>>, 06분 33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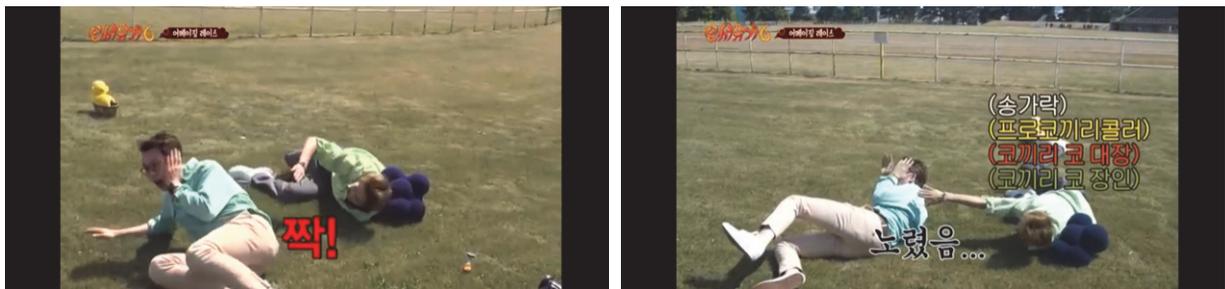
27)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nRnSeSAb8J0>> 09분 47초, 10분 02초, 10분 04초.

‘아! 주(酒)여~’라고 자막으로 제시함으로써, ‘주’가 신과 술로 해석되는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때, 시청자들은 출연자의 캐릭터를 또다시 인식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중의적 표현에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림 46>의 ‘간’에게 감사하다는 자막을 통해, 출연자의 특징을 시청자들이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하며, 해당 상황을 마무리한다.

또한, ‘출연자의 특징’과 ‘출연자의 이름’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별명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제작진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명과 관련된 상황일 경우 시즌과 상관없이 별명을 자막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 47> 신서유기 4 캡처²⁸⁾



<그림 48>, <그림 49> 신서유기 6 캡처²⁹⁾

<그림 47>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해당 출연자의 별명은 ‘송가락’이다. 이 별명도 출연자의 성인 ‘송’과 ‘어지러움에도 손으로 잘 짹는다.’라는 특징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별명이다. 즉, 해당 특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인 ‘손가락’의 ‘손’을 성인 ‘송’으로 바꿔 만들어진 별명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별명은 코끼리 코 15바퀴를 돌고 돌림판의 영역을 인주 묻은 손가락으로 짹으면, 해당 영역의 상품을 주는 게임에서 붙여진 별명이다. 이때, 매우 작은 영역에 고급 스포츠카가 쓰여 있었는데, 해당 출연자가 해당 영역을 모두 짹어 이 게임을 너무 잘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이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송가락’이라는 별명을 보면, 해당 상황이 떠올라서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이다. 해당 별명은 다른 시즌인 ‘신서유기 6’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이때 <그림 48>과 <그림 49>를 통해 알 수 있듯, 해당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의 뺨을 실수로 때린 상황에서 언급되었다. <그림 49>에서 제작진들의 의도가 들어간 ‘노렸음’이라는 자막과 그의 별명인 ‘송가락’이라는 자막이 함께 제시됨으로써, 시청자들은 <그림 47>의 송가락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이를 통해 연상된 ‘코끼리 코를 잘 돌고 목표를 정확히 짹었다.’라는 그의 특징이 ‘노렸음’과 결합하여, 해당 상황이 시청자들에게 ‘그의 목표는 뺨이었다.’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송가락 사건을 떠올리지 못한 시청자들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프로코끼리콜러’, ‘코끼리 코 대장’, ‘코끼리 코 장인’이라는 자막을 ‘송가락’과 함께 제시한 것이다.

28)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VJubpbEPcCY>>, 07분 26초.

29)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qRnG_tNhhj0> 03분 22초, 03분 47초.

마지막으로, 출연자의 말을 그대로 제시하는 자막을 해당 출연자의 발음대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자막이 있다. 발음대로 표현한 자막을 통해, 시청자들은 해당 출연자의 고향과 연관 지어 생각하게 되고, 발음대로 표현한 자막에 신선함을 느끼게 된다.



〈그림 50〉신서유기 8 캡처30)



〈그림 51〉신서유기 8 캡처31)



〈그림 52〉신서유기 8 캡처32)

〈그림 50〉, 〈그림 51〉, 〈그림 5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가마이씨’는 ‘가만히 있어’를 빠르게 말한 ‘가만있어’를 발음대로 표현한 것이고, ‘안 절거워’는 ‘안 즐거워’를, ‘머션 129’는 ‘무슨 일이냐’의 경상도 사투리인 ‘무슨 일이고’를 발음대로 표현한 것이다. 해당 자막들은 모두 가장 최근 시리즈인 ‘신서유기 8’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자막들이다. 그리고 출연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경상도 출신인 출연자를 통해 탄생하게 된 자막들이다. 해당 자막들을 통해, 시청자들은 그가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투리로 인해, 해당 발음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그림 50〉의 ‘가마이씨’는 ‘가만히 있어’를 빠르게 말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으로 ‘가만 있어’라고 말하게 되는 상황의 급박함을 시청자들에게 보다 생생하게 전해준다. 이때, ‘가마이씨’는 출연자들의 목소리 톤과도 결합하여 해당 상황의 급박함을 더 잘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그림 51〉의 ‘안 절거워’도 출연자의 목소리와 결합하여, 해당 상황에서의 출연자의 부담감과 같은 감정을 잘 느끼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그림 52〉의 ‘머션 129’도 출연자의 놀람이 섞인 목소리와 결합하여 출연자의 감정을 잘 느끼게 해준다. 해당 자막들이 목소리와 결합하여 해당 상황에서의 출연자의 감정을 생생하게 전해준다는 효과를 지녔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는 자막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발음대로 표현하였다는 표현 방식의 신선함도 웃음을 짓게 하는 요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시청자들은 예상치 못한 자막의 표현 형태에 ‘센스가 있다’라고 반응하였고, 특히 ‘머션 129’의 경우, ‘머신 일이고’의 발음과 동일한 발음의 숫자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은 특히 센스가 있다고 반응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30)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lhcyFH8kyJM>>, 01분 10초.

31)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kMYIja9m-no>> 29분 27초.

32)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rcK2WPTp8k>>, 02분 23초.

발음대로 제시된 자막은 상황의 생생함과 자막 표현 방식의 신선함이 결합하여 웃음을 주는 자막으로 볼 수 있다.

4. '신서유기' 자막이 가져온 영향

4.1. 유행어의 생성과 관련 프로그램 형성까지

'신서유기'의 가장 최근 시리즈인 '신서유기 8'을 통해 생성된 최고의 유행어로 '머선 129'가 있다.



〈그림 53〉 '머선129' 네이버 검색 화면 캡처



〈그림 54〉, 〈그림 55〉 '아는 형님' 244회 캡처33)

〈그림 53〉을 통해, '머선 129'라는 말이 기사 제목으로 사용될 정도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는 유행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방영된 '신서유기 8'의 '머선129'가 2021년 5월의 기사의 제목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해당 유행어의 영향력의 정도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54〉와 〈그림 55〉를 통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해당 유행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숫자를 활용한 '머선129'가 아닌 한글로만 표현한 '머선 일이고'이기는 하지만, 타 프로그램에서 해당 자막을 맞춤법에 맞게 '무슨 일이고'가 아닌 발음대로인 '머선 일이고'라고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신서유기'의 자막이 타

33) 유튜브, 아는 형님, <<https://m.youtube.com/watch?v=Vvk6a-1C5-rA>> 00분 54초, 02분 13초.

예능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타 프로그램이 ‘신서유기’ 자막의 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머선 129’의 영향력의 범위가 대중과 타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6〉 ‘머선 129’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화면 캡처 〈그림 57〉 ‘머선129’ 네이버 검색 화면 캡처

〈그림 56〉의 해당 유행어가 네이버 지식백과 중에서도 ‘시사상식사전’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 해당 유행어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닌 모두가 알아야 할 상식으로 취급될 만큼 유명하고도 영향력 있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해당 단어의 뜻을 지식백과에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머선 129’를 일상에서 쉽게 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를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인터넷이 발달한 정보화 사회 덕분에 가능한 것이고, 인터넷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유행어의 파급력이 이전보다 세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림 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신서유기’에서 ‘머선 129’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킨 출연자가 ‘카카오TV’의 웹 예능인 ‘머선 129’의 진행을 맡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인터넷 발달로 인해, 이전보다 세진 유행어의 파급력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유행어 ‘머선 129’를 통해, 유행어의 영향력과 인터넷 발달이 결합하여, 웹 예능 프로그램 형성으로까지 이어진 일종의 나비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4.2. ‘신서유기’ 외전 프로그램 시리즈와 채널의 확장

4.2.1. ‘TV’ 프로그램인 ‘강식당’ 시리즈의 확장

‘신서유기’의 첫 외전인 ‘강식당 1’은 2017년 12월 5일 tvN에서 처음 방영되었다. ‘강식당 1’은 ‘신서유기 4’ 이후 방영된 ‘신서유기’의 첫 외전으로 첫 방송에서의 시청률이 5.4%였다. 이는 ‘신서유기 4’의 최고 시청률인 5.1%보다 높은 수치로, ‘신서유기’ 시청자들의 대부분이 ‘신서유기’의 분위기를 기대하고 이를 시청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때, ‘강식당 1’의 시청률은 회차가 지날수록 점점 높아졌고, 8.3%라는 시청률까

지 찍었다. 이는 '신서유기' 스타일의 자막과 여기서 더 발달한 자막 덕분이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강식당'의 시리즈는 1, 2, 3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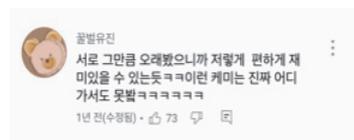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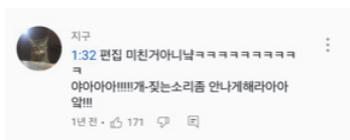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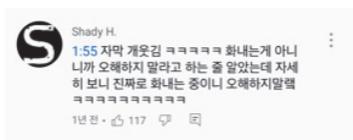
〈그림 58〉 강식당 1, 2회 캡처³⁴⁾



〈그림 59〉, 〈그림 60〉 유튜브 댓글 캡처

〈그림 58〉의 자막은 시청률 상승에 도움을 준 자막 중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과감한 생략을 하는 편집 방식과 자막이 결합하여, 시청자들이 상황에 대한 간단하고도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bgm과 결합하여 발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생략된 장면은 '출연자들끼리 갈등 있는 상황'이다. 해당 자막은 '잠시, 마음의 안정을 위한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라고 제시하며, 앞서 발생한 '출연자들끼리 갈등이 있는 상황'과 대비된 내용의 자막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출연자들끼리 갈등이 있는 상황을 환기하여 명확히 인식시킨다. 이와 함께, 시청자들은 해당 자막을 처음 마주했을 때, 해당 자막의 '갈등 상황을 대비를 이용하여 진정을 시키는 것 같으면서도 극대화한다.'라는 쓰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이때, 환기된 상황과 대비되는 밝은 멜로디의 bgm을 삽입함으로써, 더 잘 느껴지는 대비된 분위기로 인해 시청자들은 웃음을 짓게 된다. 해당 자막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그림 59〉와 〈그림 60〉을 통해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9〉를 통해, 출연자들끼리 갈등 있는 상황을 과감히 생략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60〉을 통해서도 출연자들끼리 갈등 있는 상황에 해당 자막과 함께 제시되는 bgm이 떠올라 웃음이 나온다는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bgm이 떠오른다는 반응은 bgm이 글자보다 직관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출연자들끼리 갈등 있는 상황에서 자동으로 떠올리게 되는 bgm으로 인해, 해당 자막이 보이기 전부터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과감한 편집 방식과 결합한 자막으로 인해, 처음부터 해당 자막의 의미를 시청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한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제작진들은 출연자들의 갈등 상황을 분명히 보여주는 자막과 갈등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법을 통해서도 시청자들이 웃음을 짓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웃음은 신선함으로 인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1〉, 〈그림 62〉, 〈그림 63〉 유튜브 댓글 캡처

34) 유튜브, 강식당 1, <<https://m.youtube.com/watch?v=stWO6rfmfXg>> 05분 25초.

〈그림 61〉과 〈그림 62〉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청자의 반응을 통해, 출연자들끼리의 갈등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자막과 상황이 결합하여 웃음을 짓게 만든다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웃음은 〈그림 61〉을 통해, 갈등 상황에서 ‘화내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자막이 아닌 ‘화내는 것이 맞으니 오해하지 말라’라는 예상치 못한 내용의 자막으로 인해 유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갈등 상황이 아니라는 내용의 자막을 삽입한다.’라는 고정관념에 허를 찌르는 자막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내용의 신선한 자막에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62〉에서 반응을 보인 자막 역시 이러한 효과로 인해 웃음을 유발하는 자막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막들이 주를 이루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그림 6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너무 친해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으로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이자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는 출연자들 간의 케미’라고 볼 수 있다. 제작진들은 ‘과감한 생략을 하는 편집 방식’과 ‘bgm’, ‘자막’을 이용하여 갈등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출연자들끼리 너무나 친해서 가능한 재미 요소’를 만들어내었고, 해당 출연자들과 제작진들만의 고유 스타일을 형성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첫 외전인 ‘강식당 1’을 통해 제작진들은 더 발달한 자막을 만들어 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또 다른 재미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다행히도 긍정적이었고, 그 결과 시청률은 꾸준히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강식당’ 시리즈는 1을 이어 2, 3까지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다.

4.2.2. ‘아이슬란드 간 세끼’를 통한 성공적인 ‘유튜브’ 입성

‘신서유기’ 제작진들은 신서유기의 새로운 외전인 ‘아이슬란드 간 세끼’의 방영을 위해, ‘채널 나나나’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다. ‘아이슬란드 간 세끼’는 ‘신서유기 6’ 이후 방영된 신서유기의 새로운 외전으로, tvN에서 5분 동안 방송된 후, 유튜브를 통해 풀버전 영상이 공개되는 구조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파격적인 구조를 통해, ‘신서유기’ 제작진들은 빠른 기간 내에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신서유기’ 제작진들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예고편으로 더 많은 TV 시청자를 확보하는 방법’을 역이용하여,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TV로 공개한 5분 영상의 시청자들을 유튜브 구독자로 유치시킨다.’라는 파격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수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제작진들의 ‘신서유기’ 스타일의 자막과 편집 실력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신서유기’ 출연자들의 예능감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5분이라는 시간은 출연자들의 예능감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20분짜리 영상을 5분으로 편집하여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해야 하는 제작진들의 역할이 구독자 확보에서 더 중요하다고 본다.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신서유기’ 제작진들만의 자막과 편집 방식을 통해, ‘신서유기’ 제작진들은 풀버전 영상이 공개되는 해당 유튜브 채널로 시청자들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채널 나나나’는 빠른 기간 내에 1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성공적인 유튜브 입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 물론, 빠른 기간 내에 100만 명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신서유기’를 통해 확보해 놓았던 마니아층 시청자들과 “특정 기간 내에 100만 명의 구독자 확보 시, ‘달나라 여행’을 가겠다.”라는 공약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신서유기’를 통해 확보해 놓았던 마니아층 역시, 제작진들의 자막과 편집 방식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자막의 순기능으로 발생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마니아층보다 ‘아이슬란드 간 세끼’의 방영을 통해 추가로 확보된 70만 명의 구독자가 100만 명 중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새롭게 확보된 구독자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달나라 여행’이라는 공약으로 발생한 호기심으로 인해 구독자들이 확보되었다고 보는 관점의 경우, 해당 공약은 채널 개설 직후에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반박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목표 달성 실패로 인한 공약 취소를 위해 구독자들이 구독 취소를 하여, ‘달나라

여행' 공약을 취소시키고 다시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바로 달성하였다는 점에서도 해당 관점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다. 그 결과, '신서유기' 제작진들은 구독자들의 애정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반성의 의미로 채널의 이름을 '채널 십오야'로 바꿔 해당 채널을 개편하였다. 개편한 채널을 통해서도 '신서유기' 제작진들은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들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제작진들의 센스 있는 자막과 편집 방식이 담긴 5분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을 구독자로 유치시키는 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자막의 영향으로 '아이슬란드 간 세끼'를 통한 성공적인 '유튜브' 입성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다.

4.3. '신서유기' 제작진들만으로도 유지 가능한 유튜브에서의 인기

'신서유기' 제작진들의 유튜브 채널인 '채널 십오야'의 최근 콘텐츠인 '출장 십오야'는 그동안의 콘텐츠와는 달리 '신서유기' 출연자들이 출연하지 않는 콘텐츠이다. '출장 십오야'라는 콘텐츠는 나영석 PD 중심의 '신서유기' 제작진들이 예능에 대한 경험이 적은 '배우', '가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종의 예능 배달 콘텐츠이다. 즉, 해당 콘텐츠는 '신서유기' 출연자들과는 달리 예능에 대한 경험이 적어 상대적으로 예능감이 적은 '배우', '가수'들과 예능을 진행하는 콘텐츠이다. 예능에 대한 경험이 적은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예능에서 추구하는 재미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출장 십오야'는 영상 공개를 한 지 하루가 지나면 100만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하는 것이 일상이다.



〈그림 64〉, 〈그림 65〉 '채널 십오야' 채널의 '출장 십오야' 캡처

〈그림 64〉로 확인할 수 있는 ep. 10-1과 ep. 10-2의 조회 수를 통해, 공개한 지 하루 만에 100만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한다는 것이 보통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64〉와 〈그림 65〉를 통해, 출연자에 상관없이 최소 100만이라는 조회 수를 기록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출장 십오야'라는 콘텐츠를 통해, '예능감이 많은 출연자'들 없이도, 해당 콘텐츠가 예능으로서의 매력을 충분히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신서유기' 제작진들만으로도 예능으로서의 매력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것은 ‘신서유기’ 제작진들만의 제작진들의 의도만이 아닌 편집 방식과도 결합하여 수행되는 자막의 ‘재미 극대화’ 역할과 출연자들의 특징을 이용하여 삽입되는 ‘캐릭터 형성’에 도움이 되는 자막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막을 통해, ‘신서유기’ 제작진들은 제작진들 콘텐츠만의 스타일과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고유성에 구독자들이 예능으로서의 매력을 느끼므로 유튜브에서의 인기 또한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자막의 일반적인 유형, 자막이 수행하는 역할로 인한 예능에서의 자막의 필요성, 예능으로서의 매력을 극대화해주는 자막이 지닌 특징 및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자막의 일반적인 유형과 자막이 수행하는 역할로 인한 예능에서의 자막의 필요성은 ‘무한도전’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예능에서의 자막은 ‘정보 전달’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능이란 장르가 추구하는 재미를 위해서는 ‘제작진들의 의도’가 들어간 자막을 통해, 시청자들을 의도대로 이끌어 ‘재미 극대화’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MBC 파업으로 인해 자막 없이 방영된 136회’를 통해서도 자막이 ‘프로그램만의 스타일 형성’이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능에서의 자막은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의 역할을 수행하고 해당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많은 유형의 자막이 존재하지만, ‘재미 극대화’와 ‘프로그램만의 스타일 형성’이란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예능에서의 자막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다.

예능으로서의 매력을 극대화해주는 자막이 지닌 특징 및 영향력은 ‘신서유기’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신서유기’의 자막은 기본적으로 출연자들의 말이 아닌 제작진들의 주관이나 의도가 담긴 내용을 자막으로 제시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신서유기’에서의 자막이 ‘재미 극대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적인 방법인 제작진들의 의도가 담긴 자막에 의해서만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편집 방식과도 결합하여 해당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신서유기’의 자막은 ‘재미 극대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진들의 의도’와 ‘편집 방식’이 결합한 자막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제작진들의 의도대로 시청자들을 이끌어감으로써, 추구하는 재미를 시청자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편집 방식과도 결합하여 보다 매끄러운 프로그램의 진행과 또 다른 재미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출연자들의 특징’을 활용한 내용의 자막을 통해, 출연자들의 캐릭터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막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해당 출연자의 캐릭터를 각인시키고 이를 ‘재미 극대화’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를 ‘재미 극대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는 ‘프로그램만의 스타일 형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신서유기’만의 스타일과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재미뿐만 아닌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까지 수행하여, 예능으로서의 매력을 극대화해주는 ‘신서유기’만의 자막은 유행어 생성과 외전 프로그램의 형성 및 확장이란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는 유행어의 인터넷 사전 기재 및 인터넷 플랫폼에 형성된 유행어를 이름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신서유기’ 제작진들의 성공적인 유튜브 입성과 유튜브에서의 인기 유지가 있다.

‘신서유기’를 통해 알아본 예능으로서 매력을 극대화해주는 자막은 기존의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과는 달리, 출연자들의 말을 재구성하거나 제작진들의 의도가 포함된 내용의 자막을 제시함으로써 일반적인 상황에서 재미를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존의 방식보다 다양하게 방식으로 자막이 표현된다는 특징도 있다.

예를 들어, 편집 방식과 결합한다거나 bgm과 결합한다는 것이 있다. 이러한 자막들을 통해, 예능이 추구하는 재미를 더 잘 실현할 수 있고, 원활한 진행까지 할 수 있게 되어 프로그램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과감한 생략'의 편집 방식과 'bgm'의 사용으로, 시청자들에게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있게 하여, 자막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의 기능도 보다 쉽게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막은 시청자들에게 쉽게 각인되고, 시청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만의 스타일과 분위기가 빠른 시간 내에 형성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해당 자막들을 통해 형성된 프로그램만의 스타일을 시청자들이 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결과로 '신서유기' 외전 프로그램의 확장, 유튜브에서의 성공적인 입성과 인기 유지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나난, 미디어스, 네티즌들 '유엔미콘서트' 다시 만든다, 미디어스, 2021. 4. 17.,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8>〉

이미혜, 무한도전팬 자막 만들기 운동, 뉴스엔, 2021. 4. 17.,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812310838041001〉

조수진, TV 예능프로그램 자막에서 찾아본 만화 표현기호 활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참고 사이트

네이버, 나무위키, 〈<https://namu.wiki/>〉

네이버, 어학사전, 〈<https://ko.dict.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참고 동영상

유튜브, 무한도전, 〈<https://m.youtube.com/watch?v=68Nvp7IOqGk>〉, 00분 04초, 00분 07초.

유튜브, 무한도전, 〈<https://m.youtube.com/watch?v=68Nvp7IOqGk>〉, 00분 16초, 00분 18초, 00분 24초.

유튜브, 무한도전, 〈<https://m.youtube.com/watch?v=68Nvp7IOqGk>〉, 00분 32초, 00분 42초.

유튜브, 무한도전, 〈<https://m.youtube.com/watch?v=68Nvp7IOqGk>〉, 00분 21초, 00분 25초, 1분 18초.

유튜브, 무한도전, 〈<https://m.youtube.com/watch?v=68Nvp7IOqGk>〉, 08분 27초.

유튜브, 무한도전, 〈<https://m.youtube.com/watch?v=68Nvp7IOqGk>〉, 09분 01초, 09분 06초, 09분 09초.

유튜브, 무한도전, 〈<https://m.youtube.com/watch?v=68Nvp7IOqGk>〉, 09분 11초, 09분 14초, 09분 21초.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ekGFehBum8s>〉, 00분 02초, 00분 04초, 00분 10초.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ekGFehBum8s>〉, 00분 16초, 00분 25초, 00분 28초.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ekGFehBum8s>〉, 00분 48초, 00분 50초, 00분 52초.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ekGFehBum8s>〉, 01분 09초, 04분 12초.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ekGFehBum8s>〉, 02분 28초, 02분 32초.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ekGFehBum8s>〉, 01분 48초, 01분 49초, 01분 50초.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ekGFehBum8s>〉, 01분 54초, 01분 58초, 02분

02초, 02분 04초.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ekGFehBum8s>>, 02분 08초, 02분 12초.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ekGFehBum8s>>, 02분 16초, 02분 18초, 02분 21초.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SnRki1j71C0>>, 06분 33초.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nRnSeSAb8J0>>, 09분 47초, 10분 02초, 10분 04초.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VJubpbEPcCY>>, 07분 26초.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qRnG_tNhhj0>, 03분 22초, 03분 47초.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lhcyFH8kyJM>>, 01분 10초.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kMYIja9m-no>>, 29분 27초.

유튜브, 신서유기, <<https://m.youtube.com/watch?v=rcK2WPTPp8k>>, 02분 23초.

유튜브, 아는 형님, <<https://m.youtube.com/watch?v=Vk6a-1C5-rA>>, 00분 54초, 02분 13초.

유튜브, 강식당 1, <<https://m.youtube.com/watch?v=stWO6rfmfXg>>, 05분 25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속 민족주의적 서술의 오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역사콘텐츠학과 이윤*

목 차

1. 머리말
 - 1.1.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정의
 - 1.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3. 연구 방법
 2. 민족주의적 한국사 교육의 배경과 문제점
 3. 한국사 교과서 속 민족주의적 서술의 오류
 - 3.1.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서술의 오류
 - 3.2. 자국중심주의적 서술의 오류
 4. 맺음말
- 참고 문헌

1. 머리말

1.1.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정의

민족(民族)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을 말한다. 이런 공통된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는 민족정체성이라고 한다. 민족정체성이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자기 민족만의 고유한 특성을 말한다. 과거에는 언어, 역사, 문화, 혈연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에 기초한 동질성을 중심으로 이해했지만, 오늘날에는 민족의식 또는 공동체 의식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추세이다.

민족주의는 민족에 기반을 둔 국가의 형성을 지상 목표로 하고, 이것을 창건, 유지, 확대하려고 하는 민족주의의 정신 상태나 정책 원리 또는 그 활동을 의미한다. 민족주의는 다른 이데올로기들과 쉽게 결합하였고, 또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였을 때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민족을 중심으로 여기는 사고를 말하지만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결합할 수 있고 민족이 이루고 있는 민족국가에도 영향을 줌으로써 자국중심주의, 자민족중심주의, 전체주의 형태로 나타나며 부정적인 방향으로 심화되면 타민족을 배척하고 혐오하고 자민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배타적 민족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1.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민족주의는 식민치하라는 상황에서 민족 집단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식민지 상황을 극복하는 이데올로기로 서 유의미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극복되면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면서 국경의 경계는 모호해졌고 민족의 의미 또한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주의는 구시대적이고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¹⁾ 민족주의적 역사서술에서는 국제 분쟁 유발, 대외 팽창과 연관된 문제점이 나타난다. 민족주의적 역사서술은 편향적인 서술이 주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역사에 대한 다양한 입장의 서술이 아닌 한쪽 입장만을 바라보는 서술로 나아간다. 이러한 배타적인 서술은 역사적 이해관계나 갈등관계를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제 분쟁까지 이어진다. 민족주의적 서술은 대체적으로 대외 팽창을 의도로 서술되고 이는 교과서의 서술에 반영되어 자신들의 영토 소유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규정하고 시마네 현으로 편입시킨 내용을 교과서에 서술하는 것, 중국 교과서에서 다오위다오(일본 명 센카쿠 열도)가 중국 땅이라는 내용을 강조해서 서술하는 것, 한국에서 간도에 대해 간접적으로 자국의 영토임을 부각시키는 등 이러한 교과서 속 민족주의적 서술들은 이런 대외 팽창의 의도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서술들은 과거부터 계속하여 비판받아왔다. 그러나 아직 교과서 속에서 과거 비판받아왔던 비슷한 오류들이 아직도 발견되었고, 그 외에 기존에 비판받지 않았지만, 민족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새로운 서술들도 발견되었다. 교과서의 이러한 문제점에서 지속적인 지적의 필요성을 느꼈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영토분쟁과 역사왜곡으로 인한 역사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문화 공정’이 이슈가 되고 있고 대한민국 국내에 침투한 중국 자본 등으로 인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그리고 이 분쟁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대외 팽창적인 성격을 지닌 민족주의적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민족주의적 서술을 지적함으로써 동북아의 역사적 갈등에 있어 한국이 지니는 문제점을 극복해보고자 하였다.

1)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서울: 소나무, 1999, 52-58쪽.

1.3. 연구 방법

연구를 위하여 한국사 교과서를 읽으며 민족주의적인 서술들을 찾아 표시해 두었다. 그 후 사료와 학술지들을 이용한 비교·분석을 통해 교과서에 담긴 서술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쓰인 것인지에 알아본 후 오류인 것들을 찾아내었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와 사료, 각종 학술지와 단행본이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모교를 통하여 구할 수 있었다. 사료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았다. 학술지는 상명대학교 학술정보관 홈페이지(<https://lib.smu.ac.kr/>)를 통하여 필요한 학술지와 학위 논문들을 열람할 수 있었고 단행본은 직접 구매하였다.

2. 민족주의적 한국사 교육의 배경과 문제점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근대적 역사교육은 개화기와 대한제국기 때 시작되었고,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교육운동이 민족을 계몽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민족주의와 한국사가 결합한 민족주의사학이 등장하면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한국사 교육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총 4차례에 걸친 조선교육령으로 인해 이는 어려움을 겪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민족주의는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분열된 민족을 결집시키고 일제에 대항하는 하나의 저항적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고 이는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유의미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반공 이념의 실현을 위해 민족주의를 역사 교육에서 이용하였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 박정희 정부와 그 지배층들이 민족중흥론을 생산, 유포하여서 그들의 존재와 행위, 지도권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납득 시키려는 의지의 표현이자 궁극적으로 대중을 동원하려는 의사의 산물이었다. 박정희의 민족주의는 반공, 근대화, 충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박정희는 악마화의 논리가 필요했기 과정에서 박정희의 종족적 민족주의는 다양한 민족주의 형상의 중요한 축을 형성했다.²⁾

과거 박정희 정부에서 강조되던 민족주의는 교과서 서술에도 반영되어 현재 깊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한국사 교과서의 단일민족 서술은 시대마다 변천되어 오며 한국인들의 역사의식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한국인들에게 고대로부터 단일민족으로 이어왔다는 단일민족신화를 심어주어 외국인들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민족 중심주의를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교과서의 서술은 근대에 생겨난 개념인 ‘민족’을 과거에 너무 끼워 맞추고 있다. 한국 고대사를 근대의 민족 개념에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고 되도록 당시의 실제 그대로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고대사뿐만 아니라 역사의 전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고대사에 대한 민족주의적 서술뿐 아니라 근현대사의 민족주의적 서술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현대사의 민족주의적 서술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도구화다. 역사(교육)논쟁 특히 근현대사 부분이 정치성을 띠는 것은 근대 역사학과 역사교육 자체가 국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³⁾ 국가가 역사교육을 수단 삼아 정치에 이용하면서 역사교육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였다. 결국 이런 민족주의적 서술들은 자신의 절치적 이익에 따라 다른 이념과 결합하여 변화하였고, 여러 모순을 낳으면서 이 시대의 민주시민을 길러낸다는 교육의 목적과 어긋나는 행보를 가지고 있다.

2) 김보현, 민족주의 권력과 ‘협동하는 국민’- 박정희 정부 시기 농촌새마을운동의 사례, 사학연구 116, 한국사학회, 2014, 543-577쪽.

3) 이신철, 식민주의와 민족주의의 함정을 넘어서: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육)논쟁의 본질을 향한 탐색, 역사와현실 100, 한국역사연구회, 2016, 129-169쪽.

3. 한국사 교과서 속 민족주의적 서술의 오류

3.1.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서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 중 민족주의적 서술의 오류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었을 때 그 첫 번째는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우리 민족의 독자성과 특유의 ‘우월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민족주의적 관점이 조금이나마 약해졌지만 여전히 민족주의적 서술이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았다.

먼저 고중세사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서술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에 의거하여 서술한 것이지만 어떠한 기준이나 비교 대상 없이 우월함에 대해 서술 하고 있다. 특히 고구려 민족의 우월성을 ‘고구려는 씩씩하다.’, ‘거칠지만 패기와 정열이 넘쳤다.’, ‘웅장한 기품’ 등 주관적인 요인들을 언급하면서 민족적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구려는 산간 지역인 압록강 중류 유역에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므로 식량 생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일찍부터 대외 정복에 나섰다. 이 때문에 고구려는 씩씩한 상무적 기품을 지니게 되었다.

(p.52 - 삼국 시대의 사회)

고구려의 놀이 역시 씩씩한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고구려 사람들은 고대의 축구라고 할 수 있는 축국을 즐겼고, 각저라는 씨름도 자주하였다.

(p.53 - 삼국의 문화 - 고구려 문화, 패기와 정열이 넘치다)

삼국 중 특히 고구려를 ‘씩씩하다.’, ‘정열이 넘친다.’ 등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민족주의적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고구려의 놀이를 근거로 ‘고구려는 씩씩하다’라는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서술이다. 놀이 중 언급된 축국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신라에서도 즐겨했던 놀이라는 기록이 존재한다.

처음 문희의 언니 보희(寶姬)가 서악(西岳)에 올라가 오줌을 누는데 그 오줌이 수도에 가득 차는 꿈을 꾸었다. 다음날 아침 꿈 이야기를 누이에게 했더니 문희가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꿈을 사겠어요.” 하였다. 언니가 말하기를 “어떤 물건을 주겠느냐?” 하자 문희가 “비단치마(錦縵)를 주면 되겠어요.” 하니 언니가 승낙하였다. 문희가 치마폭을 펼쳐 꿈을 받을 때 언니가 말하기를 “어젯밤의 꿈을 너에게 준다.” 하였다. 문희는 비단 치마로써 그 꿈을 갚았다. 10일이 지나 유신이 춘추공과 함께 정월 상오 기일에 유신의 집 앞에서 공을 찾다. 일부러 춘추공의 옷을 밟아 저고리 고름(襟紐)을 떨어뜨리게 하고 말하기를 “청컨대 저의 집에 들어가서 옷고름을 답시다.” 하니 [춘추공이 그 말을 따랐다. 유신이 아해(阿海)에게 “옷고름을 달아 드리라(奉針)”고 명하니 아해는 “어찌 사소한 일로써 가벼이 귀공자와 가깝게 하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이에 아지(阿之)에게 명하였다. [춘추공이 유신의 뜻을 알아차리고 마침내 문희와 [정을] 통하였는데, 이후 춘추공이 자주 왕래하였다. 유신은 아지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녀를 책망하여 말하기를 “네가 부모에게 고하지도 않고 임신을 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하고 이에 온 나라에 말을 퍼뜨려 아지를 불태워 죽인다고 하였다. 하루는 선덕왕(善德王)註이 남산(南山)註에 거동할 때를 기다렸다가 뜰에 땀나무를 쌓아 놓고 불을 지르니 연기가 일어났다. 왕이 그것을 바라보고 “무슨 연기인가?” 하고 묻자 좌우에서 아뢰기를 “아마도 유신이

누이를 불태우려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왕이 그 까닭을 물으니, 아뢰었다. “그 누이가 남편도 없이 임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이르기를 “그것은 누구의 소행이냐?”고 물었다. 마침 [춘추]공이 왕을 모시고 앞에 있다가 얼굴색이 붉게 변했다. [그것을 보고] 왕이 말하기를 “이는 너의 소행이니 속히 가서 그녀를 구하도록 하여라.” 하였다. 춘추공이 임금의 명을 받고 말을 달려 왕명을 전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 후 몇몇이 혼례를 올렸다.⁴⁾

위의 기록을 통해 신라에서도 축국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라에 대해서는 ‘신라 문화는 소박한 가운데 조화 있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같은 놀이를 한 두 국가이지만, 교과서에서 정해놓은 신라의 모습에 갇혀서 고구려와 달리 용맹함이 덜 표현되어 있다.

또한 서술에서 고구려의 독자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다. 고구려가 중국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고구려인이 앞서 언급했던 특유의 우월성을 가지게 된 것으로 서술한다.

고구려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국과 대결하면서 성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문화에 대한 비판 능력을 갖추어서 외국 문화를 보다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결과 고구려 문화는 다소 거칠지만 패기와 정열이 넘쳤다.

(p.55 - 삼국의 문화 - 고구려문화, 패기와 정열이 넘치다)

이러한 표현들은 사실에 의거하여 서술하였지만 독자성을 통해 얻은 우월성의 근거 또한 교과서 서술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단순히 주체적 수용을 통한 우월성에 대한 강조만 있을 뿐 우월성에 대한 기준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 이는 고구려인에 대한 근거 없는 용맹함을 심어주어 우리 민족이 뛰어났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서술임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부분에서는 민족의 우월성에 대한 근거 없는 찬양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민족이 타민족에 비하여 월등히 우월하고 신성함을 과시하고자 자민족의 성공을 드높인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특유의 성실성으로 불모의 땅을 개척하고 농장을 일구었다

(p.307 - 연해주의 한국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하다)

그러나 이 ‘특유의 성실성’에 대한 마땅한 기준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논리적이고 추상적이라 할 수 있다. 특유의 성실성이라고 서술한다면 다른 민족에게는 비교적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한국인이라는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실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아무 근거 없는 찬양적 서술에 불과할 뿐이다. 강제 이주라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불모의 땅을 농지로 개간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서술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서술은 단순한 찬양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부분에서는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을 근거로 저임금에도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었다고 서술하였다.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으로 우리나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는 경제 개발의 의지가 강한 정부가 외자를 도입하여 수출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높은 교육열과

4) 三國遺事, 권 제1 기이1, 태종 춘추공.

근면성을 지닌 국민이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p.361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다)

위의 서술을 보았을 때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을 지닌 국민이 저 임금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통해 국민에게 저임금과 헌신을 강요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국민이 원하지 않은 저임금과 헌신을 요구 한 경제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동권 침해마저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이라는 근거를 통해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민족과 국가 즉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말살하는 전체주의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로서 집단인 ‘국민’을 강조하고 개인을 억압하는 왜곡된 구조를 긍정한다는 문제가 있다.

3.2. 자국중심주의적 서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 중 민족주의적 서술의 오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그 두 번째는 자국중심주의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이나마 약해졌지만 여전히 민족주의적 서술이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았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 중 조선부터 개항기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자국중심주의적인 서술로 인한 오류를 찾을 수 있다.

자국중심주의적 서술의 오류의 첫 번째 특징은 인물에 대한 평가가 편향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대표적으로 세종에 대한 서술에서 찾을 수 있다. 세종은 한국사에서 유래 없는 성군으로 평가된다. 그가 창제한 훈민정음과 관련된 『세종어제훈민정음』에서도 그의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정책 중 애민과는 거리가 먼 것이 있었는데 바로 사민정책이다.

황희 등이 아뢰기를, “함길도의 함흥(咸興) 이북의 인민들을 먼저 뽑아 들어가 살게 하고, 부족하면 부근(附近)의 다른 도의 인민을 뽑아서 들어가 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⁵⁾

교과서에서 이 부분은 별 설명 없이 넘어가는데 이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가혹한 정책이었다. 난방시설도 부족하고 농경에 적합한 기후 또한 아닌 북쪽의 국경지대는 그들이 살기에 너무나 척박한 지역이다. 세금이 감면되는 등 혜택이 없지는 않았으나 사민 초기에는 가뭄과 흑한으로 가축들이 죽어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서술하지 않는 이유는 성군이라는 세종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의 이미지 붕괴를 우려하여 인물의 부정적 서술에 관해서는 배제하는 이러한 편향적인 서술은 자국중심주의적 서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에서 인물에 대한 평가는 공과 과를 나누어 비판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⁶⁾

세종과 관련된 오류는 대마도 정벌에 관한 부분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마도 정벌은 태종이 상왕의 자리에 있던 때에 진행된 것이다. 대마도 정벌은 상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이 직접 지시한 일이다.⁷⁾ 당시 조선의 군권은 태종이 갖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태종이 관여하였지만 세종 당시에 있던 일이라는 이유로 세종이 그 주체인 것처럼 서술하였다.

5) 世宗實錄, 권62, 세종 15년 11월 19일(戊戌) 1번째 기사.

6) 계승범, 우리가 아는 선비는 없다, 서울: 위즈덤 하우스, 2011, 17~30쪽.

7) 장준혁, 麗末鮮初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의 對馬島征伐,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6쪽.

세종 때 이종무가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p.150 - 여진·일본에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하였다)

이는 대마도 정벌이 세종의 뜻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대마도 정벌은 승리만 있던 것이 아니다. 이종무는 섬에 상륙하여 소탕전을 벌이는 계획을 세웠고 삼군 절제사 중 한명이었던 박실의 부대가 섬에 상륙하였다가 복병과 조우하여 패배하였다. 박실은 전쟁 도중 이종무에게 구원을 청하였으나 이종무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⁸⁾ ‘정벌’이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는 대목이다.

또한 개항기 때의 조선을 약소국으로 표현하고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강조하여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저해하고 있다. 역사 교과서의 서술은 객관적이면서 중립적으로 서술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개항기 당시 조선은 피해자이며 제국주의 열강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시선으로만 나눈다. 그래서 교과서 속 표현은 교과서를 읽는 시각의 초점을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그에 수탈당하는 조선에 두도록 유도한다.

때마침 양반들의 천주교 금지 요구가 거세지자, 흥선 대원군은 1866년 9명의 프랑스 선교사를 포함한 8,000여명의 천주교도를 탄압하였다.(병인박해)

프랑스는 선교사의 처형을 구실로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였다. 프랑스의 극동 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은 7척의 군함을 이끌고 1866년 9월 양화진까지 거슬러 올라와 지형을 살피고 돌아갔고, 10월에는 강화도에 상륙하여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병인양요)

(p.201 - 병인박해로 병인양요가 발생하다)

자국중심주의적 서술의 두 번째 특징은 한 사건에 대한 서술이 편향적이라는 점이다. 개항기 부분의 서술을 보았을 때 조선이 프랑스 선교사를 포함하여 8,000여 명을 처형한 것은 ‘탄압’이라 표현하고 이에 따라 조선에 온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상륙하여 한 행동은 ‘만행’이라 서술하였다. ‘탄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권력이나 무력으로 프랑스를 꺾지 못하게 했음을 표현하면서 자국의 강인함과 단호함을 나타낸다. 그와 반대로 ‘만행’이라는 표현을 통해 제국주의 열강의 행동을 야만스러운 행위로 묘사하면서 그들의 침입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어재연 장군이 신미양요 당시 광성보에서 패배한 사실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싸웠으나 점령당했다”라고 표현하였다.

광성보에서는 어재연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병사 수와 무기에서 우세한 미군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으나 점령당하고 말았다.

(p.203 - 제네럴셔먼호 사건으로 신미양요가 발생하다)

교과서에서는 광성보에서 미군에게 진 사실보다는 어재연과 그 병사들의 결사항전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자국중심주의적 서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에 대항한 우리 민족의 끈기와 용맹함을 나타내는 것을 의도한다. 그러나 실제 사상자 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치열하게 싸웠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신미양요의 사상자를 비교해 보았을 때 조선 측 사상자는 350명 사망이고, 미국 측 사상자는 3명

8) 世宗實錄, 권5, 세종 1년 8월 16일(戊子) 3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박실의 패군 원인이 이종무 등에게도 있음을 아뢰니 무난히 처리케 하다.

사망, 9명 부상이다. 이는 거의 100:1에 이르는 비율로 조선군의 처참한 패배라고 할 수 있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싸웠음을 강조하려는 서술은 우리 민족과 국가가 미국이라는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군사력 측면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여겨진다.

교과서의 내용 중 일제강점기와 현대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들도 아직까지 자국중심주의적 서술로 인한 오류에 빠져있다. 일본을 과도하게 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이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제는 전쟁 물자 수탈에 더욱 광분하였다.

(p.281 - 인적·물적 수탈을 강행하다)

일본에 대한 서술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국가총동원법에 관한 서술에서는 수탈에 대해 더욱 ‘광분’했다는 표현을 통해 일본의 약탈을 더욱 부각하고 이에 학생들이 좀 더 감정적으로 이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런 서술은 일본에 대한 악감과 혐오감을 기르는 데 일조한다.

3.1 운동 관련 서술에서는 행동 주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서술상의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3.1 운동 전개 과정 중 폭력적 성격을 띠는 농촌확산기에 대해 ‘습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에 비해 본군의 제암리 학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며 ‘총과 칼로 무자비하게 학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농촌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면사무소나 주재소를 습격하기도 하였다. 3·1 운동은 비폭력·무저항주의로 출발하였지만, 시위가 확산되면서 점차 폭력적인 양상을 띠었다.

일본 군경은 시위 군중을 총과 칼로 무자비하게 학살하거나 투옥하였다.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에서는 일본군이 교회를 불태우고 총격을 가해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과 교회 뜰에 있던 부녀자들을 학살하였다.

(p.284 3.1 운동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지다)

농촌확산기의 3.1 운동에 대해서 ‘습격하였다’라고 묘사하는 것은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당시 벌어진 3.1 운동 중 하나였던 화성군 장안면에서의 독립운동에서 농민들은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불태웠고, 총기를 발포하여 인명을 살상한 가와바다(川端太郎) 순사를 돌과 몽둥이로 때려 살해하였다.¹⁰⁾ 그러나 이러한 공격적인 내용은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지 않다. 반면 일본군의 행위는 자세히 서술한다. 이런 서술의 편향성은 일본의 비윤리성을 잘 드러나게 하여 우리 민족의 아픔과 고난을 좀 더 극대화하고 일본을 과도하게 적대하는 민족주의적 관점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두 번째 오류는 민족성에 대한 특유의 근거 없는 찬양이다. 이를 통해 자민족이 타 민족에 비해 월등히 우월하고 신성함을 과시하고자 하고 자신들의 성공을 드높인다.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오류는 한국의 역사왜곡과 영토 문제에 대한 서술 생략과 모순적 태도이다. 한국사 교과서에서 동북아의 영토와 과거사 문제 부분에서는 역사 왜곡 및 영토 문제로 말미암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역사 인식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는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 미화, 중국의 경우는 동북공정을 예시로 내세우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9) 강석화, 신미양요와 강화도 방위체제의 변화, 기전문화연구 39,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2018, 86쪽.

10) 이정은, 화성군 장안면·우정면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5, 73-93쪽.

일본의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 미화는 잘못된 국가적 자긍심과 국민 통합의 수단을 활용되고 있다. 중국은 국경 내의 모든 과거사를 중국사 일부로 편입하려는 자국 중심의 역사관을 주장하고 있다.

(p.379 - 역사 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하다)

하지만 동북아의 일원이자 분쟁의 원인이기도 한 한국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서술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한국의 경우에도 중국과 간도를 가지고 갈등을 빚었고 현재도 간도를 한국의 영토라 주장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2004년 국회에서 간도협약 무효 결의안을 마련하면서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고 간도 분쟁을 이어갔다.¹¹⁾ 그러나 한국도 일본과 중국처럼 자신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예시를 왜곡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간과하고 있다.¹²⁾ 동북아시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국의 역사왜곡과 영토문제에 대한 교과서 서술이 함께 들어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3국 중 한국은 언제나 ‘피해자’라는 입장으로 서술하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책임과 반성을 요구하지만, 반면 국군이 저질렀던 베트남 전쟁에서의 학살에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예로 베트남 전쟁에 대한 교과서 서술에서도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아들인 박정희 정부는 1965년부터 베트남에 전투병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 특수를 통해 한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베트남 파병으로 많은 젊은이가 희생되었고 고엽제 피해의 후유증을 남겼다. 파병 군인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 태어난 라이파이한 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p.354 - 베트남 파병을 결정하다)

오히려 베트남 파병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거나 한국의 입장에서 피해자인 군인들의 고엽제 피해를 서술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의 또 다른 피해자인 베트남 민간인들의 피해에 대한 서술은 교과서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배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모순적이며 일본이나 중국의 잘못을 비판하는 한국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이중적이다.

4. 맺음말

본 글에서는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적 관점의 오류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교과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민족주의적 관점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 해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문제점들을 크게 두 가지의 특징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고구려 민족의 과도한 우월성을 드러낸 서술, 고구려의 독자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술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일제강점기 부분에서 ‘특유의 성실성’이

11) 김선하, 국회 “간도협약은 원천 무효” 결의안 마련, 중앙일보, 2004. 8. 7.,

〈<https://news.joins.com/article/372772>〉

12) 이성환, 간도문제의 역사와 현재,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자료집,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08, 5쪽.

라는 민족성에 대한 근거 없는 찬양적 서술이 나타나고 현대사 부분에서는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이라는 근거를 통하여 노동착취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자국중심주의적 서술이다. 이는 크게 인물에 대한 평가와 사건에 대한 서술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인물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지 못한 세종에 대한 서술에서 나타난다. 다음으로 사건에 대한 서술은 제국주의 열강을 야만적으로 묘사하는 서술과 일본을 과도하게 적으로 설정하는 것, 행위 주체에 따라 서술상의 변화가 생기는 것, 또한 한국의 역사 왜곡과 영토 문제에 대한 서술 생략과 모순적 태도를 찾을 수 있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역사 서술은 그에 따라 바뀌지 않고 있다. 과거 교육과정들로부터 답습되어오던 민족주의적 관점의 오류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세계화 시대에 어울리는 글로벌 인재 양성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관점의 오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서술이 필요하고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며 글을 마친다.

참고 문헌

〈단행본〉

계승범, 우리가 아는 선비는 없다, 서울: 위즈덤 하우스, 2011.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서울: 소나무, 1999.

최춘재 외 4명,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리베르스쿨, 2014.

〈학술지〉

강석화, 신미양요와 강화도 방위체제의 변화, 기전문화연구 39,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2018, 85-97쪽.

김보현, 민족주의 권력과 '협동하는 국민' - 박정희 정부 시기 농촌새마을운동의 사례, 사학연구 116, 한국사학회, 2014, 542-577쪽.

이성환, 간도문제의 역사와 현재,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08, 2-31쪽.

이신철, 식민주의와 민족주의의 함정을 넘어서: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육)논쟁의 본질을 향한 탐색, 역사와현실 100, 한국역사연구회, 2016, 129-170쪽.

이정은, 화성군 장안면우정면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5, 67-94쪽.

장준혁, 麗末鮮初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의 對馬島征伐,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사료〉

三國遺事, 권 제1 기이1, 태종 춘추공.

世宗實錄, 권5, 세종 1년 8월 16일 (戊子) 3번째 기사.

世宗實錄, 권62, 세종 15년11월 19일 (戊戌) 1번째 기사.



우리는 어떻게 역사를 ‘문화’로 받아들이는가

: 현대사회의 문화적 요소인 ‘사극’의 성격 변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콘텐츠학과 전동*

목 차

1. 서론
 - 1.1. 연구 목적
 - 1.2. 연구 방법
 2. 본론
 - 2.1. 사실과 고증의 역사, 사극
 - 2.1.1. 해방 이후 역사학계의 방향성
 - 2.1.2. 20세기 후반 등장한 사극의 성격
 - 2.2. 사극의 변화와 원인
 - 2.2.1. 2000년대 초반의 ‘팩션’ 사극
 - 2.3. 문화로서 역사와 사극 미디어 매체
 - 2.3.1. 사극 미디어 매체의 문화적 양상
 - 2.3.2. 문화적 관점에서의 비판점
 3. 결론 및 제언
- 참고 문헌

1. 서론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및 사회 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획득된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다.” 대표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인류학 연구자인 스테판 타일러가 내린 문화에 대한 정의다. 여전히 대다수의 인류학자들이 동의하는 이 정의에는 오랜 기간 인간의 다양한 활동들이 분화되고, 이것들이 학습되어 후대에 남겨지는 역사성이 기록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행동하고 말한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되고, 학습되어 이어지는 일련의 문화적 흐름이 역사라는 존재와 그다지 무관한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역사’라고 부르는 유적, 기록물, 사건, 인물들에 대한 것들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과정들도 문화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학습하는 역사적인 내용들이 한국 사회의 문화로서 영위되어 왔고, 시대와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며 변화하는 과정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성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과정들은 때로는 새롭기도 하며, 때로는 오래된 것으로 한국 사회의 일면을 장식했다.

1.1. 연구 목적

역사학이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방식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TV 등의 방송 매체와의 결합일 것이다. 1980년대에 처음 공중파 방송국에서 ‘사극’이라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시작한 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인물들과 삶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 수업으로 접하던 역사라는 과목에 대한 벽이 상당히 낮아졌다. 또한 당시 사극은 철저한 기록에 근거한 사실과 고증을 우선 가치로 삼았기에 보다 현실감 있는 연출이 가능했으며, 제작자들과 시청자들은 보다 사실적인 사극의 내용을 만들어 가는 상호 작용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기록에만 충실한 사극들 속에서 조금씩 작가와 제작사의 상상력이 가미된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시청자들의 관심과 상상을 한껏 증폭시켰다.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물들의 새로운 관계나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는 매력적인 인물들의 존재는 그저 기록에 예견된 길을 가지 않고 여타 드라마들처럼 끝을 예상할 수 없는 즐거움을 사극에 주었고, 훨씬 많은 관심을 받게 만들었다.

하지만 사극은 어디까지나 역사를 주제로 했기에 허구와 상상의 측면이 강조된 내용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사실과 고증의 단계에서 비판하는 것이 무색할 만큼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이러한 사극 매체의 흐름은 학계에서 새롭게 연구되는 해석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20세기 말에 등장한 민족적이고 애국주의적 서사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같은 내용만을 반복하는 상황에 스스로를 가두게 만들었다. 결국 현대 한국 사회에 과거에 형성된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 역사 서술에 근거한 문화가 잔존해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앞으로 해방 이후 형성된 한국 사학계의 연구 방향성과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초기 사극의 내용을 일부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2000년대 초반 변화한 학계와 사극의 내용 구성의 변화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를 문화로 만들어 주는 중요한 수단인 사극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 사회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기본적으로 1960년대를 시작으로 1983년 MBC에서 방영한 ‘조선왕조 500년’을 거쳐서 2021년까지 방영했던 다양한 사극들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약 40년 동안 수많은 사극 프로그램이 존재했기에 모든 것들을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각 시대에 맞게 높은 시청률을 보였거나, 본 글에서 주장하는 가치들을 잘 담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사극 프로그램의

사례들을 추출해서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학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국 사학사(史學史)에 대한 연구 자료나 현대 연구자들의 자료들을 읽고 분석하고자 한다. 학계의 내용과 사극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여 흐름을 이어나가지는 않지만, 결국 그 둘의 변화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쪽의 내용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기에, 두 분석 간의 비교 역시 전개 과정 속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역사' 분야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극 매체로 활용되는 과정과 내용,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사회에 '문화'로서 자리 잡고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바라보는 인식을 중점으로 볼 것이며, 나아가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들이 단순히 사변적이지 않고 실제 우리 사회와 어떤 연관을 보이며, 유의미한 결론을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2. 본론

2.1. 사실과 고증의 역사, 사극

역사를 떠올릴 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중 하나가 '사실성'일 것이다. 특정 역사 서술이 실제 기록물에 맞는 것인지, 사실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이 오래전부터 역사를 서술할 때 중요한 가치로 자리했다. 마찬가지로 사극 매체에서도 동일하다. 초기 사극 매체나 KBS의 대하 사극의 경우 실록이나 여타 고전 기록물에서 소개되는 인물, 사건, 배경 등이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실제 방영되는 사극의 내용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다. 이러한 점은 해방 이후 역사학계에서 등장했던 사실주의적, 실증주의적 역사 서술의 흐름에서 비롯한 것으로, 우리가 허구와 상상력의 집합체인 드라마 매체에도 이러한 관점을 강하게 견지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사극이 만들어진 배경과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역사학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학계의 흐름과 사극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1.1. 해방 이후 한국 역사학계의 방향성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와 헌법이 발효되었으며,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며 한국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다. 하지만 전후처리가 이루어지고 1960년대에 들어서며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되자 한국 역사학계는 사회에 만연하던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 흔히 식민사관으로 알려진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론 등을 극복하고 '올바른' 한국사에 대한 인식과 이론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반공적이고, 일본과의 국교도 회복하지 못한 한국 사회였기에 역사 속에서 역경을 이겨낸 한국사의 위대함과 유구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자국 중심적인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서사가 중심을 이루게 되었고,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고대사에서 한국사는 기원전 2333년 전에 단군이라는 존재가 국가를 세웠다는 내용에서 시작하는 구조나, 역사 속에서 한국 민족이 '왜구'와 '오랑캐'의 '침략'에 맞서 싸워 승리했다는 해석과 이순신과 같은 난세 속 영웅의 발굴, 강조 등의 해석들, 19세기 말부터 본격화된 외세의 침략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시기에 대해 우리는 그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되었으며, 그럼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어 독립을 위해 투쟁했다는 타자화의 과정이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을 개발하고, 이를 공고히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며 찬란한 문명을 이룬 역사를 기반으로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워서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어냈다는 하나의 서사구조를 형성했다. 1970년대 이후 국가주의 역사학이 퇴보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진행되며, 이제는 민족의 일부로서 북한에 대한

연구나 본격적인 일본 식민지시기 연구와 친일행적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이른바 민중적 민족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극우반공체제와 분단체제를 반대하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 자주와 평화를 추구하는 독립국가 건립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민족주의 역사학이 진행되었다.¹⁾ 결과적으로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민족의 역사이자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이겨낸 국난극복의 역사이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위인으로 삼고 추구하는 애국주의적인 역사 서술이 학계에서 시작하여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히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TV 방송이나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대학에 들어와 역사학을 공부한 식자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나아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교과서를 보급하여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실시했고, 이것이 성인이 되어 서까지 이어지는 역사관을 성립하게 만들었다. 또한 박정희 정권에서 세종과 이순신에 대한 동상을 광화문 광장에 세운 것을 통해 대중들도 그들의 애민정신과 애국심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역사 인식이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기반을 만들게 되었다.

하지만 세계사에서 진행되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이 한국 사회에도 들어오게 되었고, 국내 민족주의 역사학에 대한 비판이 등장했으며, 임지현과 같은 다수의 학자들이 학계의 민족주의 서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족을 초역사적인 실재로 전제하고, 남북한 정권이 이를 분단적 이데올로기로 활용하면서 여전히 작용하는 맥락을 분석했다. 즉, 대중을 하나의 목적 아래에 모으기 위해 초월적인 존재로서 ‘민족적인 에토스’를 호소하는 방식을 각 이해집단이 사용해왔으며, 이것이 민족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만들어낸 것이다.²⁾ 또한 민족주의와 식민주의는 중요한 인식론적 태도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국민국가에서 민족은 타자와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인식론적 전환이 시도되었다.³⁾ 즉, 1990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민족주의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과 비판이 오갔으며, 이는 세계사에서 논의되던 포스트모더니즘, 또는 포스트콜로니얼 역사학이라는 탈근대적인 역사 인식을 받아들여 연구하는 방향성이 새로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역사 인식의 전환은 보다 역동적인 역사 서술이 가능토록 했으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토대를 마련했다.

2.1.2. 20세기 후반 등장한 사극의 성격

역사학과 사회 전반에 형성된 민족주의적인 역사 인식은 1980년에 ‘사극’ 드라마로 이미지화되며 본격적으로 문화로서 작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역사를 주제로 사용한 TV 프로그램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는데,⁴⁾ 1960년대 KBS가 개국했고 이때의 TV는 주로 정권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었다. 1964년 7월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설화를 그린 「국토만리」가 방영된 후 「수양대군」 등의 역사물이 방영되었다. 당시 사극 드라마는 사료(史料)에 바탕을 둔 역사물(歷史物)로서 제작되었으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역사드라마”의 성격을 강하게 보였다.⁵⁾ 1970년대에 들어서며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국가중심의 역사 서술이 확대되었고, 1976년의 문화공보부의 정책 방향성에 맞춰 ‘국난 극복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드라마가 진행되었다. 1970년대에 제작되었던 「명인백서」, 「맥」, 「역사의 인물」 등이 이러한 목적에 맞춘 사극드라마였다.⁶⁾ 근대국민국가를 달성하고 국민들의 통합을 위한 ‘충의(忠義)’ 등의 요소들이 강조되는 성격을 강하게 보였으며, 대중 간

1) 이윤갑, 한국 역사학의 새로운 길 찾기 민족주의 역사학의 전망, 한국학논집 35권,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7, 29~30쪽.

2) 이윤갑, 앞의 글, 35쪽.

3) 정다함, 역사학은 어떻게 예능이 되었나-2000년대 이후 한국사의 대중화와 TV 미디어의 여러 문제들, 한국사 연구 제183집, 한국사연구회, 2018, 108-109쪽.

4) 윤석진,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장르 변화 양상 고찰 1, 한국극예술연구 38, 한국극예술학회, 2012, 305-306쪽.

5) 위의 글, 306쪽.

6) 윤석진, 앞의 글, 307쪽.

공동의 기억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극 드라마가 활용된 것이다.

1980년대가 되면서 컬러TV가 보급되었고, 이러한 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사극 드라마의 완성도와 사실성의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대표적으로 1983년 MBC에서 방영한 「조선왕조 500년」은 90년대까지 장기간 방영하며 대하드라마의 시조격이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제작한 드라마가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나아가 한국 사회가 역사를 문화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사례다. 작가인 신봉승의 글을 보면 “역사소설은 문학적인 면면을 강조하여 사실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역사를 잘못 전달하는 위험을 지니게 된다. …잘못이 많은 사료를 바탕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역사적 사실을 잘못 기술하는 우를 범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였다.”⁷⁾ 즉, 그동안의 소설이나 드라마 등이 정확하지 않은 사료들을 기반으로 했기에 자칫 왜곡된 역사를 전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본인의 작품에서는 그러지 않기 위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공식 기록물을 기반으로 내용을 구성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역사학계에서 조성되었던 ‘사실에 근거한 역사 해석’이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아직까지는 ‘사극’이라는 미디어 매체가 가지는 허구성과 상상력에 대해 반대하며, 또 하나의 역사적 사실과 기록의 전달자로 보려는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또한 작가가 밝힌 집필 기준을 보면 “식민사관이나 다른 여건에 의해 잘못 평가되고 있는 인물이나 사건을 표면으로 드러내 재평가하려 했으며,”⁸⁾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식민사관에 의해 오류 되었던 한국사를 바로 잡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고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점은 드라마 방영 회차의 내용을 보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2부의 「뿌리 깊은 나무」는 세종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며, 5부의 「임진왜란」과 7부의 「남한산성」은 조선 중기의 양난을 그린 것이다. 세종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과 조선 초기의 과학과 문화적인 발전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사가 과학적이고 발전사적인 단계를 충실히 거쳐 왔다는 서사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양난의 주제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역사로써 일본 제국주의와의 식민지 역사와 대치시키는 존재로서 만들어졌다. 지금의 시각에서는 세 주제 모두 사극에서 보편적으로 다뤄진 소재들로 어색함이 없지만, 당시 이러한 장편 사극 드라마가 처음 등장한 점과 방영할 당시의 사회적 맥락, 그리고 위에서 서술한 작가의 표현을 종합하면 왜 이러한 주제들이 등장했는지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드라마의 구성이 조선 초기에서 흥선 대원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은 편년체적 서술을 따른 것임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역사적 흐름의 끝에는 현대 한국 사회가 있으며, 조선의 500년 역사를 지금의 대한민국에 가장 근접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역사의 발전과정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정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진화론적이고 발전론적인 전형적인 당대 역사학계의 해석을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제5부의 「임진왜란」을 제작한 유길춘 PD는 해당 편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에 대해 1986년 동아일보의 기사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여태껏 임진왜란은 우리에게 치욕적인 전쟁으로 인식되었는데 기존 관념을 깨고 우리가 승전한 전쟁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⁹⁾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역사에서 (식민사관에 근거한) 임진왜란은 ‘왜구’에 침략당한 치욕의 역사였지만, 실록과 여러 공식적인 기록물을 근거로 제작한 이 드라마를 통해 오히려 우리가 승전한 전쟁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높은 시청률의 기록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염원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인 것이다. 그 배경에는 오랜 기간 학교의 교육과정과 정부의 정책 등으로 민족주의적이고 사실주의적인 역사 서술에서 비롯한 사회의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20세기 후반 등장한 사극 드라마는 방식은 조금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다. 1960~70년대에는 정권 중심의 정책 사극으로서 국가주의적인 성격을 보였으며, 한국사가 발전과정을 거쳐 근대국민국가에 도달했다는 정당성의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 이후 1980년대에 등장한 「조선왕조 500년」의 경우 ‘민족’을 중심으로 시대적인 발전과정과 그 끝에 현대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발전론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세종과

7) 신봉승, 조선왕조 500년 1권, 서울: 금성출판사, 1985, 머리말.

8)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9) TV 壬辰亂 왜 많이 보나, 동아일보, 1986. 1. 27, 7쪽.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소재를 통해 식민사관에 의해 왜곡되었던 역사를 정사(正史)를 통해 바로 잡는다는 목적으로 민족주의적이고 국난극복적인 당대 역사학계의 해석과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며 진행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전까지는 학문의 일부로서 연구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역사’를 사극 드라마를 통해 대중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TV 보급의 확대와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가능했다. 사극을 통해 특정한 내러티브를 전달하고자 했던 정부나 제작사 측의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위력적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사극은 우리 사회가 역사적 사건, 인물, 설화 등을 보고 즐기며 소비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뒤에서 자세하게 서술하겠지만, 이 때 등장한 주제들은 현재까지도 대표적인 사극으로서 재탄생되고 있으며, 지금 만들어지는 사극의 내용과 구성 역시 198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4년 유길촌 PD와 IMBC의 인터뷰에서 “영화 「명량」을 통해 관객들이 보고 싶어 하는 소망의 대상이 된 게 아닌가 싶다.”¹⁰⁾라고 표현한 것은 30년 전 임진왜란을 연출한 장본인으로서 2014년의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사극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문화와 인식이 과거와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소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표 1> 조선왕조 500년 드라마 회차

방영시기	회차	제목
1983.03	1	추동궁 마마
1983.07	2	뿌리깊은 나무
1984.01	3	설중매
1985.03	4	풍란
1985.10	5	임진왜란
1986.04	6	회천문
1986.11	7	남한산성
1988.01	8	인현왕후
1988.10	9	한중록
1989.06	10	파문
1990.05	11	대원군

2.2. 사극의 변화와 원인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가 중심의 ‘민족주의적’, ‘국난 극복적’ 역사 서술은 1970년대를 거치며 실체가 없는 ‘민족’을 탄생시켜 국민들을 그 아래에 하나로 일치단결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1976년 이후 ‘민족’을 독재정권과 분리하여 그 자체로 신성함을 가지는 초역사적인 존재로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영역까지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해석에 비판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졌고, ‘민족’이라는 존재가 각 정권의 분단적 이데올로기로서 활용되며 편협한 시각을 만들어낸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군사독재정권에서 목표로 했던 조국 근대화나 근대국민국가 양성에 대한 비판으로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콜로니얼 등의 다양한 이론들이 국내로 유입되며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그들은 이전 학자들의 ‘사실주의적’, ‘실증주의적’ 역사 서술을 지적했는데, 역사 서술은 오직 ‘사실’에만 근거한 무결점의 내용이 아니라 그조차도 학자 개인의 이론과 해석이 가미된 것일 수 있다. 그렇기에 역사를 기록과 사실에 기준한 ‘객관적인’

10) 김미영, 30년 전 CG 없는 ‘명량’ 어떻게 탄생했을까?, iMBC, 2014. 8. 21.,
 <<http://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101474>>

내용이 아닌 그 자체로 '상대적'이며, 다양한 시각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상호 존중적인 태도로 논의를 지속해야 하는 태도가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사극 미디어 매체에서도 보이게 되는데, 물론 이 둘의 상관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미 충분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쪽의 상황을 토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에, 학계의 변화 양상을 이해한 상태에서 사극 매체의 내용과 주제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2.1. 2000년대 초반의 '팩션' 사극

사극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앞서 1990대 인터넷의 도입을 빼놓을 수 없다.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등장은 지금까지의 TV나 라디오와 같은 매스미디어 매체를 순식간에 구시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심지어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세계와 매스미디어의 세계를 점점 구별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고, 매스미디어도 공중파TV나 케이블TV를 넘어 인터넷TV로서 그 영향력의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TV의 보급보다도 훨씬 광범위하고 깊숙이 한국 사회에 개입되었고, 인터넷이라는 상호 의사 교환 시스템을 통해 TV 프로그램은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시청자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사극을 제작하는데 제작사와 시청자 간의 교류가 활발해짐과 동시에 시청자들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성격이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사료와 기록물에 근거하여 사실과 고증에 충실한 내용을 제작하던 방식에서 조금씩 작가와 제작사의 허구적인 상상력이 사극에 가미되기 시작했다. 침체기였던 1990년대를 지나 2002년 방학기 화백의 「조선조 여형사 다모」를 원작으로 한 정통사극 「다모」가 MBC에서 방영되었고 약 15~20% 정도의 시청률을 보이며 이전과는 다르게 철저히 사료에만 근거한 내용이 아닌 가상의 인물과 허구적인 이야기기를 통해 만든 사극이라는 점과, MBC에서 최초로 HD를 도입한 드라마였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다. 즉, 사극의 내용이 정치와 경제 중심의 거시적인 시각에서 일상생활과 문화의 미시적인 측면으로 역사학계의 연구 방향성이 변화한 것과 맞물리며 발생했으며, 일명 '퓨전 사극', '팩션 사극'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¹¹⁾ 이는 사실(fact)에 근거했던 사극이라는 미디어 매체에 가상(fiction)의 성격이 추가되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보이는 드라마를 의미한다. 학계의 변화는 앞서 언급한 기존 역사학계에 대한 비판에 더불어 정부의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 계획과도 얽혀 있는데, TV미디어와 인터넷으로 인해 한국사는 그렇게 형성된 시장에 공급될 '콘텐츠'로서 다양하게 가공되고 탈바꿈되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었다.¹²⁾ 그렇기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역사 속 소재들을 발굴하고, 또 이것을 '콘텐츠'로서 재탄생시키는 작업들이 이때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학계의 연구 방향성도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다모」 이후 2003년 MBC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대장금」, 2006년 MBC에서 약 50%의 시청률을 보인 「주몽」, 도저히 사료에 기반한 사실성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최신의 방송 촬영 기술이 도입된 MBC의 「태왕사신기」로 이어지는 흐름은 앞으로 사극에 작가와 제작사의 상상력이 더욱 중요한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는 시청자들의 문화적인 양상과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여전히 고증에 대한 비판은 존재했으나, 그 목소리는 이전에 비해 크게 약해졌다. 오히려 '퓨전 사극', '팩션 사극'의 시청률이 상당히 높았으며, 계속해서 이러한 장르가 성공을 거두는 모습들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허구적이고 상상력에 기반한 '사극'이 잘 받아들여졌으며, 이를 하나의 문화로 온전히 수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인물이나 사건 등으로 새로운 요소들을 창조해내서 결합하는 사극의

11) 윤석진, 앞의 글, 310쪽.

12) 정다함, 앞의 글, 129쪽.

형태가 앞으로 주류를 이루게 되며, 결국 완전히 허구적인 인물과 사건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사극’의 형식만을 빌려와 마치 ‘사극’인 것처럼 표현한 작품들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2008년 KBS에서 방영한 「쾌도 홍길동」의 경우 홍길동이라는 기록에서 발견되는 인물만을 가지고 전에 없던 가상의 인물들을 통해 설화로서 전해지던 내용들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포맷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2012년에 MBC에서 방영되어 42%의 시청률을 보인 「해를 품은 달」은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과 새로운 사건들로 사극을 구성했고, 그들에게 ‘사극’이라고 부를 요소는 우리가 이전 사극에서 흔히 보던 복장과 장소, 말투를 사용한다는 것뿐이었다. 또한 사극은 주로 연륜이 있는 배우들과 이미 연기 실력을 충분히 인정받은 배우들을 주연으로 세웠으나, 사극에 젊은 배우들이 중심을 이루었음에도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국 사회가 사극을 보는 시각이 상당 부분 달라졌음을 보여주며, 역사적 기록물과 사료에 근거한 철저한 사실성과 고증을 추구하는 성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심하게는 배제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용 폭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해를 품은 달」의 주제인 임금과 무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기존의 사극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굉장히 현대적인 감성이자, 일상생활에 밀접한 내용이다. 2000년대 이전의 사극에도 사랑이라는 주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디까지나 사료나 기록물에 등장한 인물과 실제 관계를 모티브로 재현한 것일 뿐이었다. 즉, 해당 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는 사극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며 대중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인 ‘사랑’이라는 소재를 새롭게 경험시켰기에 가능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었거나, 할 수 없어 꿈꾸던 것들을 역사를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극이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이미 ‘영웅 만들기’부터 이어져 온 역사를 보인다. 주제에 따라 그 목적은 달리 작용했지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웅을 역사로부터 호출하고 싶은 마음이 사극을 통해 표현된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¹³⁾

사극 매체는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는데, 2013년 SBS에서 방영한 「장옥정, 사랑에 살다」는 제목부터 ‘사랑’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2012년 KBS에서 방영한 「각시탈」은 허영만 화백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것이다. 고대사나 조선시대사의 작품들과 달리 한국 사회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역사이자 아픈 역사인 일제 식민지시기에 관련한 드라마로서, 일본 순찰과 조선인을 괴롭히는 일본인들을 응징하는 영웅적 존재는 사극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를 원했던 문화적인 양상과 같은 맥락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2010년 KBS에서 방영한 「성균과 스캔들」은 정은결 씨의 작품으로 여성이 남장을 하고 성균관에 동문수학하고 과거를 치러 급제한다는 현대적인 요소가 개입된 것이다. 2012년 KBS에서 방영한 「전우치」, 2016년 KBS에서 방영한 「구르미 그린 달빛」, 2018년 tvn에서 방영한 「미스터 션샤인」, 2020년에 방영한 tvn의 「철인왕후」 등의 작품들은 사극 미디어 매체에 현대 한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감성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작업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2021년 지금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KBS의 경우 공영방송국이라는 이름 아래에 ‘대하사극’을 제작해왔는데, 이 명칭은 일본 공영방송국인 NHK의 ‘대하드라마’에서 명칭을 차용한 것으로서, 마치 ‘큰 강의 줄기와 같은 역사의 흐름’을 표현한 것이다. 그만큼 사료와 기록에 근거한 ‘사실적인’ 사극을 제작하는 목적을 강하게 지녔으며, 다른 공중파 방송국에서 ‘팩션 사극’을 방송할 동안에도 이러한 대하 사극 시리즈는 명맥을 유지해왔다. 그중 2000년에 제작된 「태조 왕건」은 약 60.2%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정통사극의 전성기를 이끌었는데, 이는 고려사 중에서도 많이 알려진 ‘왕건’이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시각화한 작품으로 사랑받았다. 이후 2004년 「불멸의 이순신」은 높은 인기와 출연한 배우들이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었다. 해당 작품은 김훈의 『칼의 노래』를 원작으로 했지만, 조선 수군의 갑옷이나 일본군의 배, 갑옷 등의 의상에 대한 고증을

13) 김기봉, 해를 품은 달, 막장 사극인가 사극의 진화인가, 철학과현실 제93호, 철학문화연구소, 2012, 106쪽.

철저히 했으며, 해전 장면에서 상당히 웅장한 연출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이순신이라는 '민족의 영웅'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기도 했는데, 이미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민족의 영웅이 이런 성과를 성실히 묘사했기에 그만큼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더불어 앞서 서술한 『조선왕조 500년』 제5부 「임진왜란」과 마찬가지로 당시 일본과 이미 국교도 정상화했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사이가 돈독해졌지만 그럼에도 역사적인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인 맥락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그렇기에 20세기의 식민지시기 이전의 침략 사례인 임진왜란에 대해서 민족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걸고 싸워 나라를 지켰다는 민족주의적인 서사구조의 대표작으로서 “불멸의 이순신”이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이후에도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짧은 단막극으로서 「임진왜란 1952」 등 다양하게 제작되지만, 그 내용은 놀랄 만큼 동일하며 우리가 어떤 시각과 문화 속에서 역사와 사극을 바라보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006년에 「대조영」, 2008년 「대왕 세종」, 2009년 「천추태후」로 인기를 유지하지만 「천추태후」부터 내용의 개연성과 고증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많은 비판과 침체기를 겪게 된다. 도중에 2011년 「광개토태왕」으로 잠시 회복했으나 그뿐이었으며, 2014년 「정도전」을 끝으로 이전과 같은 인기를 얻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 태종을 주제로 하는 새로운 대하사극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나, 과거 대하 사극의 영광을 되찾을 지는 미지수이다. 이미 다른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국에서는 허구와 상상에 기반한 '팩션사극'이 주류가 되었으며, 이는 사극을 통해 일상생활의 문제점이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웅적 존재 혹은 사건들을 보고 싶은 욕구가 사극을 보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상적인 공간으로 역사를 이전하고, 새로운 가치로서 재탄생시키는 과정이 우리가 '역사'를 '문화'로서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결과이자 하나의 프레임을 구성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학계에서 이루어졌던 기존 역사학에 대한 비판과 다양한 시각의 등장, 미시적인 역사 연구의 증가 등과 같은 맥락을 공유한다. 역사학과 사극의 변천은 결국 두 주체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중들의 시각에서 어떤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그 사회의 문화가 어떠한지를 해석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표 2> 사극의 성격 변천 과정과 원인

연대	성격	원인
20세기 말	사실과 고증	국가 주도 '근대국민국가', '조국 근대화', 민족주의, 국난극복사관. 학문적 성격의 역사학
2000년대 초	사실성과 허구성의 혼합	학계의 변화, 기존 '민족주의적' 연구 비판, 미시적이고 일상생활에 근접한 연구, 미디어 기술의 발달, 이로부터 재생산되는 경제적인 부분의 확대, 사극으로부터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시청 목적 증가, 문화적인 양상의 변화
2010년대	허구와 상상력	사극으로부터의 욕구 해소 목적이 확대, 미디어 기술과 자본의 극대화, 더 이상 학문으로서가 아닌 하나의 문화적 요소로서 역사를 인식, 사극에 대한 시청자 및 작가, 제작사의 허용 범위의 극대화

2.3. 문화로서 역사와 사극 미디어 매체

지금까지 역사학과 사극 미디어 매체가 변화해온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봤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역사학과 사극은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변화는 꾸준히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회의 목적과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

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군사독재정권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발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민들을 규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 특히 사극이라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 당시 학계에서 통용되던 한국사의 서사를 시청자들의 머릿속에 깊숙이 각인시켰으며, 이렇게 형성된 민족주의적인 역사와 문화가 색은 열어젖어도 현재까지도 굳건히 유지되도록 만들었다. 이후 이러한 해석을 비판하며 근대국민국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움직임이 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으며, 다양한 관점으로의 연구 확산이 진행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외환위기 등을 겪으며 역사와 같은 인문학의 가치를 재생산할 필요가 있었고, 정부 정책에 맞춰 ‘문화콘텐츠’, ‘역사콘텐츠’의 발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한국사에 대한 인식이 학문적인 것에서 문화적인 것으로 변화해갔다. 이러한 분위기가 사극에도 고스란히 이어져서 상상력이 강조된 사극 미디어 매체가 등장했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이러한 방향성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하나의 문화적 요소이자 역사, 한국사를 시청각적으로 발현하는 도구로서 사극이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며, 비단 학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주게 되었다. 문제의 원인에는 국내 학계와 사회적인 문화성에 관련된 단계를 넘어서 현재 중국이나 일본 등과 해소되지 않는 역사 분쟁 등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사극 미디어 매체가 가지는 문화적인 양상과 그로부터 발견되는 현대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성격과의 관련성과, 사극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3.1. 사극 미디어 매체의 문화적 양상

이전 장에서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사극의 성격과 사례를 서술하면서 공통적으로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한 부분을 담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TV나 인터넷을 통해 사극을 본다는 것이 아닌, 사극 미디어 매체에서 담고 있는 서사구조와 현대 한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들의 관계성이 확립되는 과정을 의미했다. 1980년대 이후 유학과 해외여행의 자유화를 시작으로 외국의 다양한 문화와 학문이 파도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나아가 인터넷의 보급은 외국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그들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의 문화적 가치가 다양화되고, 대중문화가 활발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현대의 정서와 사회상은 사극으로부터 느낄 수 있었던 요소들의 범위를 확장시켰는데, 역사적인 인물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하거나, 현대적인 감정과 가치를 과거 인물에 투영하여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사극을 제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즉, 이전 사극과는 달리 현대의 사극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 배경은 상당한 복잡성과 현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회상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의 관점으로부터 소통과 이해라는 시각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¹⁴⁾

다양성, 대중성, 소비지향성, 변화지향성과 같은 현대 대중문화적인 가치가 사극에 적극 반영되면서 사극의 내용 변화는 물론, 이를 시청하는 대중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했다. 사극 매체를 통해 역사를 배우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가치를 확인하는 성격이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제작된 사극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대사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던 2000년대 초반에는 고구려사 등 해당 시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관련된 주제의 사극들이 제작되었으며,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예시로 KBS에서 2006년에 방영한 「대조영」, SBS에서 2006년에 방영한 「연개소문」, 2011년 KBS에서 방영한 「근초고왕」, 2004년 KBS에서 방영한 「해신」, 2006년 MBC에서 방영한 「주몽」, 2005년 SBS에서 방영한 「서동요」, 2007년 MBC에서 방영한 「태왕사신기」 등은 모두 동북공정이 한창 화두에 올랐던 2007년 전후에 제작된 사극들이다. 즉, 이러한 흐름은 사극 드라마를 통해 시청자들이 한국의 고대사에 대한 이해와 민족자긍심에 대한 고취를 이룰 수 있었으며, 결국 역사학의 한 분야였던 고대사가 ‘문화콘텐츠’의 일부로서 재생산되고 대중문화로서 소비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인 것이다. 또한 일본과의 역사 분쟁은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14) 이영혜·강순제, 2000년대 사극 의상에 표현된 대중문화 패러다임, 복식 제61권 제9호, 한국복식학회, 2011, 134~135쪽.

이어져 왔으며, 아무리 일본과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더라도 역사라는 분야에서만큼은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처럼 한일관계의 대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기에 임진왜란과 같은 주제가 시대를 불문하고 반복적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이들의 차이점은 발전된 미디어 촬영 및 편집 기술과 세세한 의상이나 도구 등의 디테일에 불과할 뿐 전체적인 내용 구성과 함의는 동일했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시기에 대해서도 항상 민족주의적인 시각에 입각한 '타자화'의 프레임이 아직까지도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일관성 역시 우리 사회가 민족주의적이고 자국 중심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으며, 사극에 반응하는 대중문화의 성격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사극의 문화적 성격의 강화는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전과도 관련이 깊다. 촬영 장비의 고도화는 가정의 TV 모니터로도 HD, FHD, UHD와 같은 고화질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고, 사극 출연진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의상의 작은 단추 하나까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편집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촬영하는 것조차 버거웠던 대형 전투 장면이나 와이드 샷 장면 등이 자연스럽게 웅장하게 표현되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과거로 돌아가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정도가 되었다. 하나의 영상매체로서 미디어 기술의 발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사회 문화적으로 허구적으로 변화하는 사극의 내용과는 반대로 기술적으로 사극 미디어 매체의 '사실/고증'에 대한 완성도를 높였다.¹⁵⁾ 그 내용과 주제의 다양화와 자유로움과는 별도로 보다 과거의 모습에 충실한 표현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표적으로 발전된 미디어 기술은 사극 의상의 고증과 완성도를 높였으며, 이에 대한 현대의 유연성, 유연성, 의도지향성 등의 대중문화의 정서가 반영되어 사극 의상의 문화적인 가치를 키울 수 있었다. 나아가 사극의상에 대한 정밀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한류'로서 수출되는 과정과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¹⁶⁾

과거 2000년대 이전 사극 매체는 역사학의 충실한 전달자로서 문자와 그림으로 전달되던 한국사를 보다 감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1960~1990년대까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근대국민국가 양성은 정부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되며 사회 전반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1990년대부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세계사적으로 다양한 이론과 문화들이 국내로 유입되며 한국 사회는 자유롭고 다원적인 성격으로 변화했다. 다양한 학문적 이론과 관점이 대두하고, 다양성과 대중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단순한 전달자로서의 입장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 하나의 창작물이자 '콘텐츠'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결국 사극 미디어 매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회와 문화적인 성격을 지녀온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가 사극을 통해 한국사를 '문화'로서 만들어내는 배경을 설명하며 왜 우리가 다른 드라마와는 달리 사극에 대해서 서사적인 측면에 민감한지, 사소한 디테일에 분노하고,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있는 일면을 알게 해준다.

2.3.2. 문화적 관점에서의 비판점

지금까지 사극과 역사학, 문화와의 관계성을 여러 사례를 통해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대중문화의 일부로 재생산되고 소비되는 사극과 역사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중 일부만 언급하자면, 첫째로 민족주의와 애국서사의 문제이며, 두 번째로 실제 사회 문화의 극단적 분리성의 개입 문제이다. 민족주의와 애국서사에 대한 점은 앞선 장에서 꾸준히 언급했던 문제인데, 최근의 사극 매체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다. 2018년 tvn에서 방영한 「미스터 션샤인」은 일제 식민지시기를 배경으로 한 '팩션 사극'으로 완성도 높은 내용 전달을 보여주었다. 극 중 배경은 식민지시기라는 역사적 시점을 활용했지만, 등장인물은 대부분 가상의 존재들이었으며 이들의 존재로 초반에는 기존

15) 이영혜·강순제, 앞의 글, 141쪽.

16) 위의 글, 142~143쪽.

의 식민지시기 배경의 사극에서는 볼 수 없던 신선한 관점과 이야기들이 전개되어 호평을 받았다. 노예 출신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해병이 되어 미군 신분으로 조선에 온 ‘유진초이(이병헌 역)’과 사대부 영애 ‘고애신(김태리 역)’ 간의 이야기는 식민지시기의 미국인의 시각으로 조선을 바라보며, 미국과 조선, 미국과 일본 두 제국과의 대립 등을 표현하며 허구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팩션 사극’으로서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던 소수자들이나 다른 국가의 시선을 표현해 냈기에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결말에 다다르며 결국 오랫동안 뿌리 내려온 민족주의와 애국서사로 대체되었다. 실제로 일본 제국주의에 투쟁했던 주체들의 애국의 방향성은 그 신분과 출신만큼이나 다양했지만 극에서는 전형적인 항일 애국 서사로 귀결시켰다.¹⁷⁾ 더불어 고종이 비참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힘겹게 싸워가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지만, 고종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양하며, 아직까지도 논쟁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마치 조선을 위해 싸우고 노력한 조선 황실의 서사는 1960년대 이후로 등장한 서술로 이미 수십 년이 지나 여러 평가가 오가는 현 21세기에 과연 과거의 서사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짐작하자면, 아직은 사극과 같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 그려지는 식민지 시기 전후의 조선의 모습은 황실과 사대부, 평민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열강 세력들의 침략 야욕에 맞서 싸우는 내러티브가 익숙하기 때문이다. 또한, 극의 후반부에 안창호(박정민 역)라고 밝힌 인물이 의병운동을 한 유진초이(이병헌 역)를 만나 수학을 했다거나, 언론인으로 등장한 김희성(변요한 역)이 의병의 기사에 자신을 같이 등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장면들은 ‘사실/고증’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잘못된 부분인데, 그럼에도 이 같은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극 중에서 저명한 운동가의 등장과 의병 활동을 극대화시켜 민족주의적인 서사가 이어지도록 만든 것이다. 또한 극 중에 등장하는 이완익이나 이완용 등의 인물들이 아주 보편적인 ‘친일파’의 연행을 보이는데, 고종에게 을사조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장면들, 잔악하게 백성들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장면들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 싸운 이들에 대한 존경심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보였다.¹⁸⁾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틀렸다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상당 부분은 실제 기록에도 남아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며, 여전히 식민지시기의 폐해로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고, 나아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갈등이 여기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것들이 변해야 한다. 과거 민족주의 역사 서술에서 파생되어 문화적으로 내재된 서사 구조는 이미 학자들에 의해 반박되거나 새롭게 밝혀진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친일파로 여러 식민지시기 배경의 사극에 등장하는 이완용의 경우, 그와 관련된 기록들을 분석하여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것처럼 처음부터 완벽하게 친일 매국적인 행위를 한 역적으로만 치부하기엔 어려운 점들이 있음을 밝혀냈다. 그는 오히려 오랜 기간 친미파였으며, 자신의 목적에 따라,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고 있었다. 고종과 순종이 벼랑에 몰려 힘겨워할 때 그들의 부름으로 곁을 지켰으며, 처음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들고 왔을 때, 반대했던 인물도 그였다. 또한 독립신문의 발기인으로서 그의 이름이 있는 등의 내용들은 이완용이라는 한 명의 역사 속 인물의 삶이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입체적임을 보여준다. 물론 이를 통해 이완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칭찬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점점 갈수록 현대 사회와 문화는 다원적으로 나아가고 사회 구성원들의 교육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제는 20세기 말에 등장한 구시대적인 역사 서술로부터 벗어나고 나와 다른 이를 구분 짓는 ‘타자화’의 단계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현재 제작되는 사극 매체에서 이와 같은 자민족중심적인 근대국민국의 프레임은 최대한 깨뜨려야 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지적한 실제 사회 문화의 ‘극단적 분리성’의 개입은 2021년 3월 SBS에서 방영한 「조선구마사」에서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 드라마는 tvn에서 2020년에 방영한 「철인왕후」와 동일한 작가의

17) 김현주,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애국서사 분석과 역사콘텐츠의 명과 암, 글로벌문화콘텐츠 제38호,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19, 35쪽.

18) 위의 글, 37쪽.

후속작으로, 전작의 성공을 이어갈 것으로 주목을 받던 작품이었다. 전작이 현대의 청와대 세프가 과거 왕후의 몸속에 들어가 다시 되돌아가기 위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전형적인 왕후와 임금의 모습을 깨고 반전을 보여주며, 마찬가지로 완전히 가상의 인물들과 이야기들로 이루어지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스스로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상상과 허구에 근거했음을 확실하게 밝히며 작중에서 어떠한 설정 붕괴적인 요소들이 등장해도 상관없을 조건을 만들어냈다. 물론 다른 사극들도 이러한 부분을 밝혔지만, 일정 부분 사료에 근거한 이상 '사실/고증'에 대한 지적은 피해갈 수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이 앞으로 사극, 특히 '팩션 사극'의 분야에서 허구와 사실의 경계가 더더욱 모호해져서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동시에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작품으로 생각한다. 전혀 과거의 기록이나 사료에 근거하지 않고, 그것에 비중을 두지도 않았으며, 일례로 다양한 주제를 보며 이것이 '사극'이라고 용인할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인 '말투'에 대해서도 완전한 붕괴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다음에 제작되었던 「조선구마사」인데, 해당 작품은 2회 만에 조기 종영하여 예정되어 있던 이야기를 전부 풀어내지도 못했다. 지금까지 한국 사극의 역사를 통틀어도 이러한 '판결'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결말이 난 것일까. 가장 핵심이 된 것은 의주에서 서양인을 접대하는데, 배경과 음악, 음식 모두 '중국풍(中國風)'으로 비판받은 장면이다. 고증적인 측면을 떠나서 '중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기 종영할 정도로 극심한 비난을 받은 이유는 당시 사회가 중국과의 사회 문화적인 대립이 첨예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김치와 한복 모두가 자신들의 문화 식의 연행을 일삼으며,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상에서도 한중 이용자 간에 갈등이 극렬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극'의 이미지를 쓴 드라마에 '중국적인' 요소들이 등장한 것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 용인할 수 없던 존재인 것이다. 애초에 이 드라마는 설정부터 「철인왕후」처럼 완전히 허구적인 것이었으나, 중국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했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통하지 않는 '방패'였다. 그 내용과 설정이 허구와 상상에 기반했음을 미리 밝혔으나 실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의 연결점이 이를 뛰어 넘어 전에 없는 비판과 비난을 받게 만들어 낸 것이다. 게다가 「조선구마사」는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을 차용했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비판을 야기했다. 태종 이방원이 귀신을 보고 미쳐서 사대문 내의 백성들을 칼로 도륙하는 장면은 아무리 상상력이 가미되었다고 할지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 여전히 우리의 문화 속에서 역사를 보는 과정 속에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남아있기에, 기존의 태종에 대한 이미지와 해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표현은 허용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허구와 상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사극 매체에 실제 사회의 문제와 대립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동안은 한일관계사, 한중관계사적인 대립은 어디까지나 실제 사회에 머물러 있었으며, 일부 사극 매체에 가해졌지만, 지금처럼 극단적인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조선구마사」는 실제 사회에서의 한중간의 문화성 대립이 사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2회 만에 종영할 정도로 파급력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보인다. 아직도 중국과의 문화성에 대한 대립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나아가 일본과의 역사 분쟁으로 인한 혐한, 혐일의 문제도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허구와 상상의 사극 매체를 보는 것은 실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사회의 문제점이나 대립의 개입이 완벽히 차단될 수는 없으며, 영역 간의 불분명함은 현대사회의 변화해가는 특성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조선구마사」와 같은 사건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사극에서 잘못 표현된 장면이나 오류된 내용은 그 자체로 수정하고 인식해야 하며, 실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대립으로 인해 중단되는 등의 강경한 처리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로 학계에서 시작해서 꾸준히 견제하고 비판하던 자민족중심주의적인 시각이 결국 되풀이되는 결과를 보여주며, 현 시점에서 자국중심의 민족주의의 부활은 이전과는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지 판단조차 어려운 일인 것이다.

「미스터 션샤인」이나 「조선구마사」 등의 사례를 통해 문화로서 사극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했을 때 구시대

적인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가 서사구조가 2021년 우리의 문화 속에 여전히 남아 있으며, 새로이 제작되는 사극 매체에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주제와 내용을 부여하고, 나아가 이러한 현상에 매몰된 잘못된 실제 사회의 문화적인 대립이 사극 매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러한 원인에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역사 교육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형태와 표현만 바꾼 채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사회의 문화 역시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이는 것에 있다. 또한, 미디어 자본의 발달과 개입 역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사극의 완성도와 인지도를 향상시켰고, 다시금 미디어 자본으로 돌아가게 되는 구조였다. 이러한 순환이 반복되면서 발전한 미디어 자본은 사극 매체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극의 내용과 주제가 전혀 변화하지 않고 기존의 민족주의적인 문화에 일치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야기했다.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익숙해진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극의 내용을 성실하게 수용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던 사회적 대립이 사극 미디어 매체에 직접 관여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역사를 가공하여 만들어낸 ‘콘텐츠’는 소비되는 과정에서 온갖 새롭고 최첨단의 기술과 가치의 구호와는 반대로 매우 익숙하고 친숙한 오래된 정서와 가치를 공감하고 확인받는 방향으로 설정된 아련한 ‘향수’에 젖는 행위가 되어버린 것이다.¹⁹⁾

3. 결론 및 제언

정리하자면 사극 미디어 매체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역사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작용했기에, 역사학과 사극의 변화 과정과 관계성은 현대 한국 사회의 맥락과 함께 이루어졌다. 한국사에 남아 있던 식민지시기의 서사를 새롭게 정의하며 등장한 자국중심의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서사는 그간의 한국사가 다른 서양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발전적인 역사 구조를 지녀왔으며, 동시에 외국에는 없는 한국사만의 고유한 민족의식이 뿌리 깊게 존재하여 지금의 한국을 만들게 되었다는 해석을 주장했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1960년대 이후 등장한 사극 매체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철저히 사료와 기록물에 근거한 사실주의적이고 실증주의적인 내용은 아무리 허구의 영역인 드라마라고 할지라도 역사 기록의 연장선상에 있는 예외적인 존재이며, ‘사실과 고증’적인 존재로서 한국사의 서사 구조가 사료를 기반으로 한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밝히고 그것이 표상하는 상징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이 학계와 대학을 통해서 전파되고, 여러 연구 서적들이나 교양서들, 초·중·고등학교의 국정 교과서로 인한 역사 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내리게 되었으며, 나아가 사극 미디어 매체를 통해 내용들이 가지는 신뢰도와 관심을 증폭시켜, 그러한 해석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사이자 문화로서 자리 잡게 만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가 다양한 인종과 계층, 목적과 이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자 이전의 국가중심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서사는 같은 힘을 유지하지 못했다. 학계에서도 유학과 해외여행의 자유화 등의 조치로 인해 외국의 여러 선진 이론들이나 연구들이 한국사 연구자들에게 유입되었으며, 기존의 학계가 견지했던 프레임을 비판하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다. 그들의 노력은 연구의 주제와 시각이 다양해지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특히 보다 미시적인 관점으로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다양성의 증가는 갈수록 가속화되었고, 사실과 고증의 역사성을 가진 사극 미디어 매체에도 작가와 제작사의 상상과 허구적인 연출이 가미되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기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현대적인 감정과 가치를 공유하며 새롭게 재평가되고,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가치나 문화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19) 정다함, 앞의 글, 137쪽.

사극 미디어 매체의 또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사극에 대한 기존의 통념은 남아 있었기에, 완전히 상반되거나 새로운 내용을 구성하지는 못했으며, 시청자들도 사극을 보며 그들이 보여주는 '역사'의 내용들을 사실성/고증을 살피며 비판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격도 한국 사회가 전에 없을 속도로 개방적으로 변해가고 세계화, 지구화의 단계로 시민사회가 나아가면서 전 보다 새롭고 흥미 위주의 주제와 내용 구성이 많은 관심을 얻게 되었다. 사극 미디어 매체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과 새로운 사건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으며, 전형적인 사극 드라마와 형태만 유사할 뿐 다른 현대의 드라마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단계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약 60년 전에 구성된 민족주의적인 애국 서사는 사극 미디어 매체에 견고히 남아 있었으며, 아무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개방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특성이었다. 결국 애국 서사와 자국 중심적인 관점은 세계화로 뻗어나가는 현대사회에 반(反)하는 구시대적인 유물이었으나 오히려 큰 힘을 가지며 우리 사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와 역사적으로 늘 분쟁이 일었던 일본과 중국 등과의 대립이 악화됨에 따라 사극 미디어 매체에도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적용되었고, 조금이라도 그러한 내용이 보이면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은 낙인이 찍히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망령을 떨치고 무엇이 현대적이며 더 나은 방향인지, 문화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향상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는 순간에 도달했다. 과거에 비하면 이러한 논의가 오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 우리 사회와 문화가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이 들긴 하지만, 아직도 유의미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방영되는 사극 미디어 매체에 기존의 민족주의적인 애국 서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한일 또는 한중 관계 악화에 따른 자국 중심적인 타자화의 과정이 극심하게 작용하고 드라마를 2회 만에 종영시킨 사례가 불과 3개월 전의 일이라는 점이다. 즉, 앞으로 제작될 다른 사극 미디어 매체에 이와 같은 사례가 또 한 번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불안감은 결국 사극뿐만 아니라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예능, 시사 프로그램 등 모든 미디어 속에서 구시대적인 민족주의적인 애국 서사를 되풀이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된다. 이는 지금 당장 TV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역사 관련 미디어 '콘텐츠'에 담긴 내용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할 일은 태산과 같다. 단순히 학계나 사극의 내용 구성만 변할 것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며, 공유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 항상 역사의 모든 일들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누군가 정해 놓은 대로만 흘러가지 않으며, 보는 사람의 시각과 문화 등에 따라 언제든지 평가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에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둔 채 계속해서 새로운 관점과 시각이 담긴 미디어 매체를 접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다. 게다가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은 사극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예능, 시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관찰될 수 있다. 그렇기에 역사뿐만 아니라 미디어, 방송계, 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는 중요한 문화적인 한 측면이 되어 우리에게서 분리될 수 없는 역사와 사극 미디어 매체에 대해 이들이 보이는 문제점들이 단순히 그들 경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대립과 문제점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문화로서 역사를 인식하는 맥락에 대한 성찰과 사극 등의 미디어 매체에 대한 보다 비판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할 때이다. 항상 발전해 왔다는 막연한 믿음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느리고 힘들지만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하는 과정들이 훨씬 견고하고 튼튼한 지지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참고 문헌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김기봉, 해를 품은 달, 막장 사극인가 사극의 진화인가, 철학과현실 제93호, 철학문화연구소, 2012, 99-108쪽.
- 김미영, 30년 전 CG 없는 '명량' 어떻게 탄생했을까?, iMBC, 2014. 8. 21.,
 <<http://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101474>>
- 김현주,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애국서사 분석과 역사콘텐츠의 명과 암, 글로벌문화콘텐츠 제38호,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19, 27-42쪽.
- 신봉승, 조선왕조 500년 1권, 서울: 금성출판사, 1985.
- 윤석진,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장르 변화 양상 고찰 1, 한국극예술연구 제38집, 한국극예술학회, 2012, 301-323쪽.
- 이영혜·강순제, 2000년대 사극 의상에 표현된 대중문화 패러다임, 복식 제61권 제9호, 한국복식학회, 2011, 131-147쪽.
- 이윤갑, 한국 역사학의 새로운 길 찾기 민족주의 역사학의 전망, 한국학논집 35권,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7, 27-74쪽.
- 정다함, 역사학은 어떻게 예능이 되었나-2000년대 이후 한국사의 대중화와 TV 미디어의 여러 문제들, 한국사 연구 제183집, 한국사연구회, 2018, 105-148쪽.



국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시스템의 현황 및 보안 문제 개선에 관한 연구

: 핀테크 사례로서의 카카오, 네이버, 삼성페이를 중심으로

지능데이터융합학부 김가*

목 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2. 연구 범위
2. 이론적 배경
 - 2.1.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와 보안의 의미
 - 2.2.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와 보안 시스템의 유형별 특징
 - 2.2.1. 카카오페이와 빠른 결제 유도화의 개인정보 누출
 - 2.2.2. 네이버페이와 중고거래 사이트의 안전결제 거짓 링크 사기
 - 2.2.3. 삼성페이와 지문인식 보안의 허점
3.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시스템의 보안 위협 및 현황
 - 3.1. 악성코드
 - 3.2. 애플리케이션 위변조
 - 3.3. 역공학
 - 3.4. 입력값 탈취
 - 3.5. 메모리 해킹
4. 국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스템의 보안 문제 개선 방안
 - 4.1. 기업의 고차원적 보안기술 마련
 - 4.1.1. DLP(Data Loss Prevention)
 - 4.1.2. PC 보안 및 내부유출 방지 솔루션
 - 4.1.3.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4.2. 정부의 보안 규제 정책 강화
 - 4.2.1.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술의 도입
 - 4.2.2. 개인정보보호 P3P 정책기술의 도입
 - 4.2.3. 개인정보보호 정책관리기술의 도입
 - 4.3. 소비자의 모바일 보안 문제에 대한 경각심 제고
 - 4.3.1. 안드로이드 OS 버전 업데이트
 - 4.3.2. 공공장소에서의 무료 와이파이 사용 시 주의
 - 4.3.3. 해킹 방지를 위해 URL 접속 주의
5. 결론
 - 5.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5.2. 핀테크 결제 서비스의 전망 및 성장 방향

참고 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새로운 사업모델, 업무, 생산, 서비스 등을 창출하여 금융시장, 금융기관 및 서비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에 기반한 금융혁신을 의미한다. 금융서비스의 변화로는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며 최근 사례는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있다. 또한 산업의 변화로는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 결제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현상이 있다. 애플페이, 알리페이 등이 대표적이다.¹⁾ 이렇게 다양한 기술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산업이 급속도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IT와 금융의 융합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으며 국경 간 상거래가 급증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도 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 소비자와 산업의 거래 습관과 환경에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틈새시장 이익이 비교적 적고 규제에 따른 서비스 제한과 금융 보안에 대한 우려로 핀테크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금융산업의 성숙도와 IT 강국의 지위를 고려할 때 IT, 금융 융합 산업의 잠재적 성장 가능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금융서비스의 변화로 인해 현재 모바일 결제는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아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모바일 결제란 휴대전화 속에 결제수단 기능을 할 수 있는 칩을 넣어 휴대전화를 마치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 결제 방식이다. 모바일 결제는 휴대폰만으로 간편하게 소액결제를 처리할 수 있어 온라인 쇼핑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생체정보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온, 오프라인 상거래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전자 결제 서비스를 ‘간편결제 서비스’라고 한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사용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복잡한 결제 절차 때문에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또 제공자의 경우 이용자의 결제 포기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에서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²⁾

이렇듯 다양한 기술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산업이 급속도로 부상하고 있다. 그중에서 스마트폰 확산, 바이오 인증 확대,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생활 전반에 적용되고 금융서비스는 이제 ‘페이 전국시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액은 2016년 11조 8,000억 원에서 2017년 39조 9,000억 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하루 평균 결제 건수도 2016년 85만 9,000건에서 2017년에는 약 2.5배 증가한 212만 4,000건을 기록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2/4분기에만 363만 건이 간편결제로 결제되었다.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주요인은 결제의 편의성이다.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외출 시 지갑을 따로 챙기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는 물론 배달음식 주문, 기프트콘 구매, 해외여행 보험 가입까지도 가능하다. 단순한 결제와 송금 수단을 넘어 소비자들 일상에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정착하고 있다.³⁾

각 업체는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도입하며 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의 편리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해킹,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보안 위협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보안 위협이 모바일 결제 시장의 확대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모바일

1) 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핀테크, 금융위원회, 네이버 지식백과, 핀테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17871&cid=55594&categoryId=55594>, 2021. 5. 20.에서 재인용.

2) pmg 지식엔지니어링연구소, 모바일 결제, 시사상식사전, 2018. 11. 3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87696&cid=43667&categoryId=43667>에서 재인용.

3) 김은비,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시장 현황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제1호, KIET 산업연구원, 2018, 49-50쪽.

결제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안 문제의 해결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핀테크 시장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스템 현황을 정리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보안 문제에 주목하여 문제 개선방안을 모색한 후,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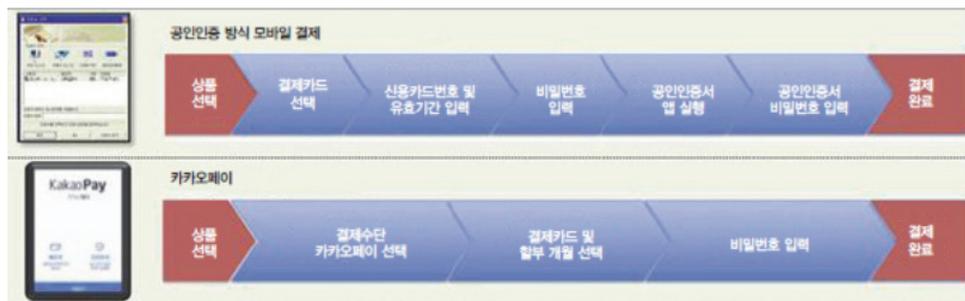
2020년 6월 기준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내놓은 간편결제 브랜드 평판 순위 통계자료에 따르면 1, 2, 3위는 각각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가 차지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지수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 가치, 소통 가치, 소셜 가치, 시장가치, 재무 가치로 나누어 조사한 것이다. 간편결제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는 참여지수와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 지수로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찾아내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이다. 이는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대화량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국내 간편결제 시장 점유율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간편결제 시장은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의 '빅3'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자료를 종합하여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를 연구 범위로 정했다.

2. 이론적 배경

2.1.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와 보안의 의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생체정보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상거래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전자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복잡한 결제 절차 없이 사전 인증 등의 간단한 방식만으로 결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폰을 단말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페이'라고도 불린다. 서비스 운용 업체마다 절차상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휴대폰 가입 명의 등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사용할 신용카드의 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및 가입이 완료된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사용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복잡한 결제 절차 때문에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매출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⁴⁾



〈그림 1〉 전통적 결제방식과 모바일 결제 방식의 비교⁵⁾

4) 김은비, 앞의 글, 49쪽.

5) 송민정, 020 결제 플랫폼의 혁신 방향, 헬로티, 2015. 5.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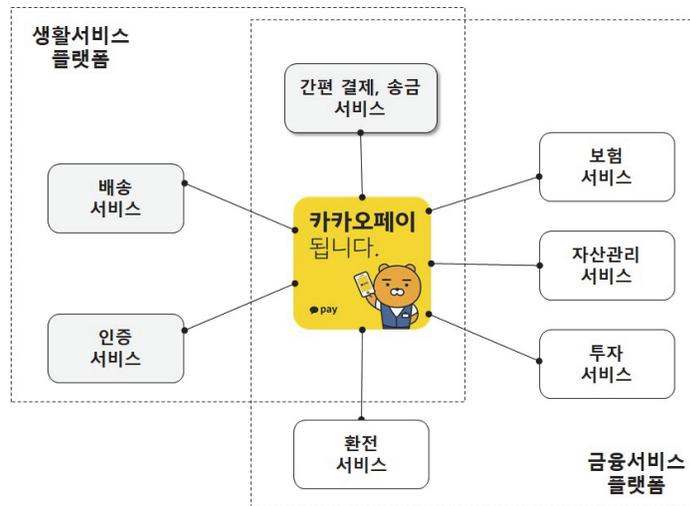
<http://magazine.hellot.net/magz/article/articleDetail.do?jsessionId=56D244B7F264CC1ECC8278FD894141E1>

보안은 위험, 손실 및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벽한 보안의 구축은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보안 활동은 위험을 최소한의 것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위험은 끊임없이 변하므로 그에 따라 보안에 들이는 노력과 보안 계획이 계속 달라질 수 있다.

2.2.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와 보안 시스템의 유형별 특징

2.2.1. 카카오페이와 빠른 결제 유도화의 개인 정보 유출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 서비스로 카카오톡 앱을 통해 결제, 송금, 멤버십, 청구서, 인증 등을 제공하는 종합 핀테크 서비스이다. 2014년 9월 5일부터 간편결제 서비스를 최초로 게시했다. 2018년 5월 QR코드와 바코드를 이용한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로 시작해 집 앞 편의점, 식당 등 주변 매장에서 실물 카드 없이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3월 기준 가입자 2,800만 명 이상의 카카오페이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카카오페이는 대한민국 국민 SNS 앱인 카카오톡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있어 강점을 드러낸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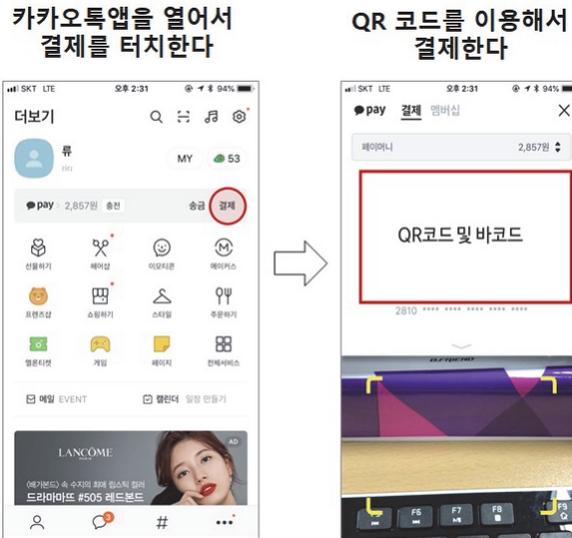


〈그림 2〉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진화

또한 카카오페이는 통신사, 인터넷기업, 유통기업 등이 추진하는 플랫폼/유통사업자 서비스로, 자신들의 메인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고객을 기반으로 다른 사업 영역이 결제 서비스로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최근 단순 결제 서비스 외에 송금, 펀드, 멤버십 등과 연계하고 전용 카드를 출시하는 등 간편결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청구서 서비스 영역과 카카오T 택시의 카카오페이 결제 기능 도입, 세금납부, 보험, 기부 등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수익 다각화를 위한 증권사 인수 등 금융 투자업으로의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방법으로 카드사나 통신사의 단말기 도입이 필요 없으며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flag=search&showType=showType2&articleId=ARTI_00000000033575&searchword=&page=986&searchSort Type=sort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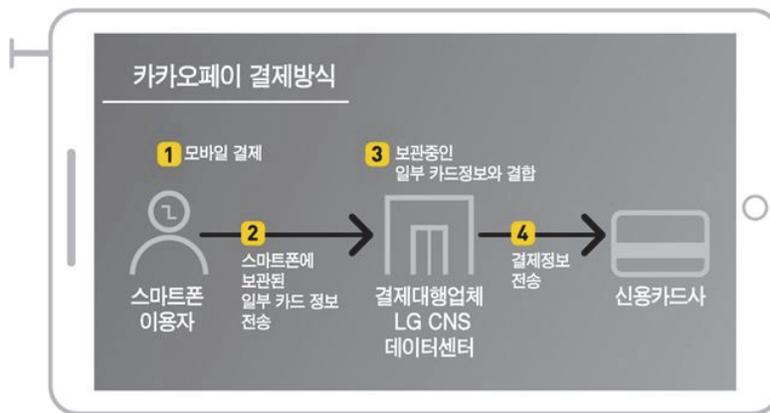
6) 잇트루, 간편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란 무엇일까?, 티스토리, 2020. 3. 2., <<https://ittrue.tistory.com/8>>



〈그림 3〉 카카오페이 결제 실행 절차⁷⁾

카카오페이의 대표적인 장점은 빠른 결제이다. 외출할 때 지갑을 들고 나가지 않더라도 휴대폰 속 QR코드 하나로 간편한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결제 시에도 자신이 입력해놓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비밀번호 하나로 모든 거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사회의 장점을 잘 살린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밀번호 외의 보안 대책 없이 개인정보나 비밀번호가 대량으로 유출된다면 그 피해는 막을 수 없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⁸⁾



〈그림 4〉 카카오페이 결제방식

또한 카카오페이는 결제방식이 독특하다. 이용자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 결제 정보 일부를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나머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LG CNS 데이터센터 서버에 암호화해 보관된다. 이렇게 나뉘

7) 류리라, 플랫폼과 디바이스의 경쟁, 카카오페이와 삼성페이 비교, 투이컨설팅, 2019. 11. 6., <<https://www.2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09>>

8) 엄일동, 온라인 뱅킹의 선구자 '카카오페이', 장점 많지만 아쉬운 점도, 소비라이프, 2019. 3. 12., <<http://www.sobilif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98>>

정보가 결제할 때 하나로 합쳐져 신용카드사에 전송된다. LG CNS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분실해도 카드번호 일부만 저장되기 때문에 전체 유출 우려가 적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안업계에서는 이 방식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했다. LG CNS의 서버에서 두 가지 정보가 하나로 합쳐질 때 암호가 풀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안전문가 정 모 씨는 “이 과정에서 해커가 악성코드 등으로 서버를 해킹할 경우 수많은 사람들의 결제 정보를 손쉽게 취득해 빼돌릴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⁹⁾

2.2.2. 네이버페이와 중고거래 사이트의 안전결제 거짓 링크 사기

네이버페이는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두고 등록한 결제 수단을 통해 결제 및 송금 등을 지원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이다. 처음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결제 수단으로 출발했으나, 이후 다양한 제휴처를 확보하여 2021년 현재 65,000여 개의 온라인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페이는 2021년 현재 국내 1, 2위를 다룰 정도로 영향력이 큰 결제 방식이며 대한민국 최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강점이 있다. 추가로 네이버페이는 판매자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페이 계좌로 송금하여 일단 돈을 예치하고, 구매자가 물건을 안전하게 받은 후에 구매 확정을 클릭하면 판매자에게 예치금이 넘어가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시스템은 일반적인 안전거래와는 다르게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¹⁰⁾

그러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네이버페이 안전결제 거짓 링크를 이용한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눈을 현혹하는 ‘중고 사기거래’의 피해자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네이버페이 안전거래’라는 명칭만 믿고 구매했던 고객들이 사기 피해를 볼 경우 실제 금액을 변제받거나 피해 구제를 받기는 어렵다. 국내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안전거래와 직접거래로 나뉘는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대부분의 구매자는 ‘안전거래’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고나라에서 유일하게 안전결제로 등록된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는 구매자들이 네이버페이 안전거래를 모방한 가짜 주소(URL)를 받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거래를 하는 ‘피싱’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매자들이 사기 수법에 걸려드는 이유는 ‘네이버페이 안전거래’라는 브랜드 신뢰도에 속아서이다. 중고거래 사이트의 한 회원은 “네이버페이 결제 창이 똑같아서 깜박 속았다.”, “네이버 카페 이미지도 너무 실제 같아서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사기를 당하고 보니 방법이 없다. 그냥 당하기 전에 철저하게 확인하고 큰 금액의 물건은 직거래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접수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네요.”라는 글이 수도룩하다. 이런 피해에도 중고나라에 등록된 ‘네이버페이 안전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가 불가능하다. 네이버페이 안전거래는 수취인이 물건을 받고 구매 확정을 해야만 판매자에게 돈이 입금되는 구조이다. 사기 가해자들은 안전거래 페이지를 가짜로 조작해서 보내기 때문에, 구매자가 카카오톡으로 네이버페이 결제창 URL주소를 받거나, 직접 문자 메시지로 거래하면 안 된다. 결국 구매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¹¹⁾

2.2.3. 삼성페이와 지문 인식 보안의 허점

삼성페이는 2015년 8월 20일부터 개시된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애플페

9) 최연진, 편리하지만... 위험 도사리는 ‘간편결제 앱’, 한국일보, 2014. 11. 1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411110480394231>〉

10) 잇트루, 앞의 글.

11) 윤미혜, ‘네이버페이’ 믿고 안전거래 했는데... ‘피싱 주의보’, 서울파이낸스, 2019. 9. 11.,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no=355676>〉

이를 선보임에 따라 스마트폰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삼성페이를 준비했다. 삼성페이 출시 이후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삼성페이는 2018년 기준 가입자 수 4400만 명, 누적 결제 금액 40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페이는 다른 페이 대비 간편성 및 이용 편리성, 제휴 가맹점 수 및 다양성 요인을 높게 만족시켰다.



〈그림 5〉 삼성페이 실적 추이¹²⁾

삼성페이는 무엇보다 사용 방법이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페이 지원 단말기에는 기본적으로 삼성페이 앱이 설치된 경우도 있고, 삼성페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삼성페이 앱을 설치한 후 등록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앱을 처음 구동 시에는 간단한 계정 등록과 홍채나 지문, 비밀번호로 인증 수단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인증 수단은 결제할 때 필요하다. 인증 수단 등록 후, 결제할 때 사용할 카드를 추가해 사용하면 된다. 일일이 카드번호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카메라로 카드 사진만 찍으면 카드번호가 저절로 입력되고, 카드는 여러 장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수는 매우 많아 삼성페이를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¹³⁾

또한 삼성페이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정보를 스마트폰에 입력해 신용카드를 긁는 대신, 스마트폰을 마그네틱 신용카드 결제기 근처에 갖다 대면 기기 간 통신을 통해 결제가 이뤄진다. MST 바코드 방식뿐만 아니라 애플페이의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도 지원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훨씬 높다. 하지만 이 MST 방식은 보안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카드 정보를 자기장을 이용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 없이 전달하기 때문에 전송 과정에서 그대로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복제된 카드는 어디서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결제 시 카드번호 대신 임시 번호인 토큰 정보를 사용하며 거래 정보를 단말에 저장하지 않음으로써 보안의 안전성을 높였다. 여기에 지문인식센서를 이용해 사용자 지문인식을 통해 결제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중으로 보안성을 높였고,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보안 플랫폼 녹스(KNOX)도 탑재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녹스는 하드웨어부터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까지 계층별로 최적화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다.¹⁴⁾

12) 권태성, 삼성페이 출시 3년, 결제시장 뒤바뀌다, 이투데이, 2018. 8. 20.,

〈<https://www.etoday.co.kr/news/view/1654050>〉

13) 글쓰는 핀테크, 삼성페이 vs 페이코 비교, 뱅크샐러드 매거진, 2017. 10. 23.,

〈<https://www.banksalad.com/contents/%EC%82%BC%EC%84%B1%ED%8E%98%EC%9D%B4-vs-%ED%8E%98%EC%9D%B4%EC%BD%94-%EB%B9%84%EA%B5%90-QrY69>〉

14) 한국경제용어사전, 삼성페이,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2017. 7. 18. 〈<https://dic.hankyung.com/>〉



〈그림 6〉 삼성페이 결제 실행 절차¹⁵⁾

그러나 삼성페이에서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하는 초음파 기반의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인식이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 국내 IT 커뮤니티에 따르면 갤럭시 S10과 갤럭시노트 10 전면에 실리콘 케이스를 씌웠을 때, 사전에 등록된 지문이 아닌 다른 지문을 사용해도 잠금이 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센서가 지문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실리콘 케이스 안의 패턴까지 지문으로 잘못 인식하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추정된다. 지문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인식 허용 범위를 넓히다가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림 7〉 실리콘 케이스를 씌우고 잠금을 해제하는 모습¹⁶⁾

15) 류리라, 앞의 글.

16) 채새롬, 한국경제, 갤럭시 지문인식, 실리콘케이스에 뚫렸다... 보안 허점 노출, 한경, 2019. 10. 17.,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10172786Y>>

3.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시스템의 보안 위협 및 현황

3.1. 악성코드

악성코드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만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개인 PC, 서버, 모바일 디바이스 등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 및 실행될 수 있는 기기를 감염시킨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필요로 할 때 작업하고 종료하는 개인 PC와 비교해, 24시간 켜져 있는 상태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경우 악성코드에 의한 정보 유출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블루투스, WiFi 등의 무선 네트워크 연결, SMS 메시지 수신 및 외부 메모리 연결 등의 모바일 디바이스 발생 시 키다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로 인해 모바일 기반 악성코드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모바일 악성코드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동작을 마비시키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며, 악성코드에 감염된 모바일 디바이스가 가짜 피싱 사이트로 접속되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파밍(Pharming) 등과 같은 금융사고를 발생시킨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이 오픈 소스 형태로 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악성코드가 많은데, 이는 불특정 다수가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어 악성코드의 감염 경로가 iOS보다 다양하고 이용자 수도 많기 때문이다.

모바일 장치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주요 경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악성코드를 유용한 소프트웨어로 위장하여 온라인 상점에 유포하거나 PC 및 메모리 카드와 모바일 디바이스 간의 직접적인 연결로 상호 감염을 일으킨다. 블루투스 등을 이용한 테더링 서비스를 이용한 악성코드의 유포와 WiFi 등 무선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이용한 조작된 패킷 전송 등이 있다.

모바일 백신은 모바일 장치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여부를 검사하고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여 삭제한다. 모바일 백신은 단말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출시되거나 별도의 백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서비스 형태로 동작한다. 사용자가 직접 설치하는 모바일 백신의 경우 데이터를 사용한 주기적인 업데이트로 인한 운영체제의 상주에 어려움이 있고 관리에 있어서도 사용자 스스로가 실행하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파일 내부에 모바일 백신을 넣어 라이브러리 형태로 동작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금융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만 백신 기능이 활성화되었다가 서비스가 종료되면 백신 기능도 같이 종료된다. 또한 파밍의 경우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 악성코드를 감염 시켜 가짜 피싱 사이트로 접속되게 해서 금융정보를 탈취한다. 이러한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¹⁷⁾

3.2. 애플리케이션 위변조

애플리케이션 위변조는 기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변조해서 송금 이체나 결제 인증 코드를 조작하는 것이다. 금융 애플리케이션에 악성 기능을 추가하거나 가짜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여 이를 설치한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악의적인 공격자가 보안 인증 과정을 우회하여 비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서비스가 실행되도록 한다. 위변조된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동일하게 실행되도록 하고 백그라운드에서 정보를 탈취함에 따라 사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 위변조 공격의 다수가 안드로이드 기반의 단말기를 대상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17) 강진규, 은행 ATM 보안 강화... 비밀번호 자판 랜덤 방식으로 속속 변경, 디지털투데이, 2020. 11. 5.,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148>>

악성코드를 추가하여 재컴파일(recompile)을 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기관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모바일 앱 설치파일의 무결성 검증 값을 생성하고 생성된 검증 값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보안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 기능은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검증 값을 생성한다. 이는 앱의 기능이 변조될 경우 생성되는 해시값이 변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임의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고정된 길이의 출력값으로 압축하는 방법이다.

항상 동일한 무결성 검증 값을 생성하여 서버로 전송하는 재전송 공격(replay attack)과 같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위변조 보안 기능을 우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서버의 챌린지값을 이용하여 검증 값을 생성하고 공격자가 위변조 방지 기능 자체를 변조하여 우회하는 공격을 막기 위해 자체 난독화, 플랫폼 해킹 탐지 등 추가적인 보호 기능을 적용하여 출시하고 있다.¹⁸⁾

3.3. 역공학

역공학은 기존 시스템의 코드를 역으로 추적하여 데이터를 얻어내는 방법이다. 이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가 없어도 컴파일된 코드를 디컴파일하고 소스 코드를 복원하여 인증키 및 암호키 추출, 실행 파일에 대한 위변조를 통하여 공격할 수 있다. 역공학 위협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안드로이드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안드로이드는 달빅(Dalvik) 가상 기계에서 실행되도록 컴파일된 DEX 파일로 이 파일을 디컴파일하면 원본 소스 코드의 복원이 가능하다.

역공학을 이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로직을 분석하고 소스 코드 내의 금융 정보를 유출하는 등 금융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기능을 우회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역공학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소스 코드의 분석을 지연시키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소스 코드를 의미 없고 식별이 불가능한 문자로 전환하여 배포하는 ‘난독화’는 구글의 프로 가드(Proguard)와 같이 상용화되고 있으며 문자열의 암호화, 코드를 알아보기 힘들게 하기 위해 핵심 로직이 담긴 코드를 분리하여 변형하는 코드 분리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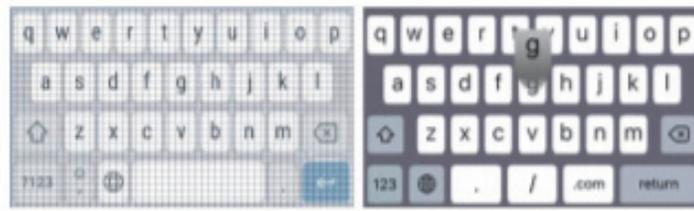
또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환경을 탐지하여 역공학이 실행되는 경우 차단하는 방법으로 운영체제 해킹 여부를 확인하는 플랫폼 해킹 탐지와 애플리케이션 위변조 여부를 탐지하는 앱 변조 탐지가 있다. 이외에도 운영체제에 디버거와 같은 분석 도구를 설치하여 역공학 탐지 시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거나 동작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디버거 탐지가 있다.¹⁹⁾

3.4. 입력값 탈취

사용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입력하게 되는 인증서 및 계좌 비밀번호는 중요한 개인 정보로 탈취될 경우 금융사고로 이어진다. 특히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지원하는 가상 키보드를 이용하여 터치 이벤트로 금융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렇게 물리적 방식이 아닌 가상 키보드 방식으로 인해 터치된 좌푯값을 획득하여 원본 키보드 이미지와 대조한 후 입력값을 탈취하거나 스크린 캡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유출하는 등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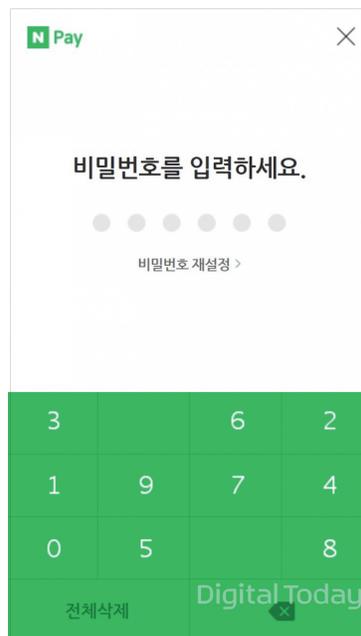
18) 강진규, 앞의 글.

19) 강진규, 앞의 글.



〈그림 8〉 가상 키보드 좌푯값과 입력값 노출 모습

이러한 입력값 탈취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키보드가 등장했다. 보안키보드란 모바일 결제 시 금융정보를 입력할 때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키보드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을 가진 키보드를 말한다. 보안키보드는 기존 가상 키보드의 고정 좌푯값에서 입력값을 유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면에 표시되는 키보드의 배열을 좌우 일정 부분을 다르게 표시하여 제공한다. 그러나 배열 간격이 크지 않고 여러 번 시도하면 유추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는 입력값을 암호화하여 메모리 해킹을 이용한 비밀번호 탈취를 막고 보안 키보드가 동작하는 동안에는 화면 캡처 기능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기능이 개발되고 있다.



〈그림 9〉 보안 키보드의 랜덤 자판²⁰⁾

3.5. 메모리 해킹

메모리 해킹은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감염시켜 인터넷 뱅킹 이용 시 사용자가 송금하려는 계좌번호와 금액을 변조하여 공격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것을 말한다. 메모리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를 모바일 디바이스에 사진이나 문서로 저장해두지 않고 일회용 비밀번호나 보안 토큰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²¹⁾

20) 강진규, 앞의 글.

21) 서진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결함 분석과 보안성 개선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34-141쪽.

4.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스템의 보안 문제 개선 방안

4.1. 기업의 고차원적 보안 기술 마련

앞으로 간편결제 시스템이 성장하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며 완전한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고객들의 안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기존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보안기술을 탑재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이용자가 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온라인 부정 거래 및 위협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전하게 간편 거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프라인 상점에서 지문을 이용하여 간편결제를 이용할 경우, 새로운 장소에서의 결제가 발생하거나 평소 이용하지 않는 상점의 경우라면 모바일 OTP 번호를 발생하여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10만 원 이상의 고액 결제의 경우 결제 방식을 달리하여 새로운 손가락의 터치 ID 인증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얼굴인식을 통해 2차 본인의 여부를 재확인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 운영 등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거나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 차단 시스템 등 기업의 고차원적인 기술로 보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다음은 기업의 고차원적 보안기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4.1.1. DLP (Data Loss Prevention)

DLP 솔루션이란 기업 내 다양한 정보 유출 경로와 매체를 감시·통제하여 허가된 사용자에 의한 내부 정보의 불법 유출을 추적 및 차단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내에서 주고받는 데이터의 형식이나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감시해 사내의 중요정보가 PC 또는 외부 기기를 통해 반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내부 정보 유출방지 솔루션이다. 초기의 DLP 제품들은 네트워크상에서의 데이터 유출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현재에는 깊이 있는 내용 검열과 분석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상에서 움직이거나 스토리지에 저장된 또는 데스크톱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²²⁾

4.1.2. PC 보안 및 내부유출 방지 솔루션

기업 내 주요 업무환경인 PC에 대한 통합관리를 제공하는 기반 인프라로 PC 보안 솔루션이 등장했으며, 이는 PC 보안, 패치 관리, 자산관리, 자동설치 툴, 내부정보 유출 방지 등 조직 내 IT 인프라 관리 요구사항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솔루션을 말한다. 다만 이와 같은 PC 보안이나 단순 내부유출방지 솔루션들은 외부자의 침입이나 해킹에 의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겟팅(targeting)되고 있으며 이미 인가받은 내부자의 유출에 대하여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²³⁾

4.1.3.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이란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을 제어하고 불법 복제 및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 및 서비스를 총칭한다. 즉 콘텐츠나 파일의 사용을 통제하는 기술로, 허가된 사용자가 허용된 권한 범위 내에서만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예컨대 사용 기간이나 횟수를 제한할 수도 있고, 열람할 수는 있지만, 인쇄를 못 하게 할 수도 있으며 재배포 시 문서 사용을 불가능하게 제어할 수도 있다.

DRM 솔루션은 허가된 사용자라 하더라도 허용된 권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 방법으로 콘텐츠를 활용할

22) 정영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모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30쪽.

23) 위의 글, 31쪽.

수 있고, 설령 외부로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기 때문에 가장 원천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내부 정보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타 솔루션들과 차별성이 있다.²⁴⁾

4.2. 정부의 보안 규제 정책 강화

4.2.1.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술의 도입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술은 새로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이나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 운영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을 조사, 예측, 검토하여 침해 위험을 평가하는 기술이다. 본 기술은 1989년 데이빗 플래허티(David Flaherty)의 ‘감시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저서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그 이후 1991년 미국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의 통신상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과 같은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위한 공식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다양한 평가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2005년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Privacy Impact Assessment, PIA)를 운영하며 정보보호 컨설팅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평가기술에 관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²⁵⁾

개인정보 영향평가(PIA)란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수반되는 사업추진 시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위험이 잠재되어 있는지를 조사·예측·검토하고 개선하는 제도이다. 즉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이 수반되는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제삼자 제공 여부, 정부 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등이 개인정보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여 개인정보의 침해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제도이다. 본 제도는 사전 예방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는 제도로,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 절차상의 변경이 있어도 개인정보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영향을 줄이거나 없앨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합하다.²⁶⁾

4.2.2. 개인정보보호 P3P 정책기술의 도입

P3P는 국제 웹 표준화 기구인 W3C(World Wide Web Consortium)가 웹사이트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표준 기술 플랫폼으로, 사용자 PC의 웹 브라우저에 설치된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서비스 제공업체의 개인정보 사용정책을 비교해 약관 동의 여부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P3P의 목표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용자 자신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며, 이용자의 정보가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P3P의 기능은 웹 브라우저나 다른 사용자 도구가 자동으로 해당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를 읽고 사용자가 이미 설정해 놓은 정보공개 수준과 비교하여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어떤 때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선택·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APPEL은 P3P는 사용자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표준화할 수 있는 표준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P3P 선교환언어(APPEL)라고 한다. APPEL은 웹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따라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도움을 준다.²⁷⁾

24) 정영철, 앞의 글, 32-33쪽.

25)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빅데이터 기반 개인정보보호 기술수요 분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연구보고서, 2012, 149쪽.

26)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2012년 제6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무교육과정,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2012, 96쪽.

27)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위의 글, 152쪽.



〈그림 10〉 P3P 시스템 구성도²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등 HTML 기반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기술이 오랫동안 일반화되어왔다. 특히 HTML 기반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국내 법적으로 각 웹사이트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웹사이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웹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이 각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에 관한 많은 분쟁을 야기했다.

한편 웹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인 W3C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자동분석이 가능한 언어인 XML로 구현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국제표준인 P3P 1.0 표준을 2002년에 발표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국가별 법규를 “Extension”이라는 확장형 엘리먼트(element)를 이용하여 규격에 반영할 수 있는 확장형 P3P 규격인 P3P 1.1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기술 중 XML 기반 개인정보보호 정책기술인 P3P의 표준화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P3P 1.1 규격에서는 P3P의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²⁹⁾

4.2.3. 개인정보보호 정책관리기술의 도입

개인정보보호 정책관리기술은 기술적 측면보다 관리적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관리기술은 각 기관 또는 기업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지를 지속해서 보장할 방법 및 절차를 의미한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기술은 각 기관 또는 기업에서 수집하여 저장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관리적 방법을 의미한다.

최근까지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아직은 기술적 측면보다 관리적 측면에서 기술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 또는 노하우 개념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기술은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속해서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³⁰⁾

4.3. 소비자의 모바일 보안 문제에 대한 경각심 제고

4.3.1. 안드로이드 OS 버전 업데이트

스마트폰 사용자는 단말기의 최신 안드로이드 OS 버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낮은 안드로이드 버전의 사용자는 악성코드 감염 및 해킹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안패치가 포함되는 안드로이드 OS 버전 업데이트는

28) 강한승 외, Privacy All 개발 완료 보고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7. 15쪽.

29)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앞의 글, 152-154쪽.

30) 남기효 외, 개인정보보호기술의 최신 동향과 향후 전망, 정보보호학회지 제18권 제6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08, 16쪽.

의무적이다.³¹⁾

4.3.2. 공공장소에서의 무료 와이파이 사용 시 주의

스마트폰 사용 시 공공장소 무료와이파이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제공자가 불분명한 무선 공유기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공유기는 전파를 전송 매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패킷이 다른 통신기기도 수신될 수 있다. 또한 해킹당한 공유기를 이용할 경우 단말기의 사용자 데이터가 제삼자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는 데이터 네트워크(LTE 및 3G) 사용을 권장하는 바이다.³²⁾

4.3.3. 해킹 방지를 위해 URL 접속 주의

백신 앱을 설치하고 의심 가는 URL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모바일 앱의 대부분은 제삼자에게 단말기 모델명과 OS 버전이 유출된다. 매월 OS 버전별로 취약점 버그 리포트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해당 취약점에 맞는 악성코드를 심을 수 있다. 따라서 의심 가는 URL을 주의하여 해킹의 위협을 줄여야 한다.³³⁾

5. 결론

5.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인터넷의 보편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룩된 정보사회에서 네트워크의 개방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개인신상정보는 물론 거래정보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통되거나 본인이 특정 웹사이트나 기업 등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오·남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사생활 침해도 심각하다.³⁴⁾ 그러나 사회적 비용 절감과 편의 증대라는 면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의 활용도는 커질 것이다. 따라서 핀테크 결제 서비스의 성장을 위해서는 보안 문제를 해결해 고객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고 해킹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고차원적 보안기술을 마련하고 정부는 보안 규제 정책을 강화하며, 소비자는 모바일 보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5.2. 핀테크 결제 서비스의 전망 및 성장 방향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모바일 결제방식이 등장하고 지급 결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수단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진화하는 해킹기술의 대응 미비, 고객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결여,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여러 가지 대응 보안기술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렇게 핀테크 결제 서비스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지만, 향후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핀테크 결제 서비스의 활성화 관련 이슈인 오프라인 결제 기술과 국내 규격 이슈는 서서히 해결되어가고

31) 김성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인정보 유출탐지 및 보안강화 연구,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25-28쪽.

32) 위의 글, 201쪽.

33) 위의 글, 201쪽.

34) 유종락,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보호-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디지털정책연구 제9권 제6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1, 86쪽.

있다. 그 외에도 핀테크 결제 서비스는 개념적으로 여러 가지 성공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선, 발전하는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다 보니 서비스 운영 효율성이 뛰어나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서비스 대비 고객 편의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성공의 조건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성장 방향은 사업 전략에서 얘기하는 성공의 중요한 두 축인 비용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므로 이를 만족시키는 핀테크 결제 서비스는 활성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국내에서는 사업자 간의 협력과 경쟁 상태가 상당 기간 공존하는 형태로 지속할 것이다.

지금까지 핀테크 결제 서비스와 보안의 유형별 특징, 보안 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졌지만,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자칫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금융서비스와는 달리 개별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핀테크는 보안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금융서비스와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의 융합이 지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가 선결 과제로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³⁵⁾

참고 문헌

- 강진규, 은행 ATM 보안 강화... 비밀번호 자판 랜덤 방식으로 속속 변경, 디지털투데이, 2020. 11. 5.,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148>>
- 강한승 외, Privacy All 개발 완료 보고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7.
- 권태성, 삼성페이 출시 3년, 결제시장 뒤바꿨다, 이투데이, 2018. 8. 20.,
 <<https://www.etoday.co.kr/news/view/1654050>>
- 글쓰는 핀테크, 삼성페이 vs 페이코 비교,뱅크샐러드 매거진, 2017. 10. 23.,
 <<https://www.banksalad.com/contents/%EC%82%BC%EC%84%B1%ED%8E%98%EC%9D%B4-vs-%ED%8E%98%EC%9D%B4%EC%BD%94-%EB%B9%84%EA%B5%90-QrY69>>
- 김성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인정보 유출탐지 및 보안강화 연구,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9.
- 김은비,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시장 현황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제1호, KIET 산업연구원, 2018, 46-57쪽.
- 남기효 외, 개인정보보호기술의 최신 동향과 향후 전망, 정보보호학회지 제18권 제6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08, 11-19쪽.
- 류리라, 플랫폼과 디바이스의 경쟁, 카카오페이와 삼성페이 비교, 투이컨설팅, 2019. 11. 6.,
 <<https://www.2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09>>
- 서진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결함 분석과 보안성 개선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송민정, 020 결제 플랫폼의 혁신 방향, 헬로티, 2015. 5. 13.,
 <http://magazine.hellot.net/magz/article/articleDetail.do;jsessionid=56D244B7F264CC1ECC8278FD894141E1?flag=search&showType=showType2&articleId=ARTI_0000000000335>

35) 이글루시큐리티, 핀테크 서비스의 보안기술 및 동향, 2016. 2. 11.,
 <http://www.igloosec.co.kr/BLOG_%ED%95%80%ED%85%8C%ED%81%AC%20%EC%84%9C%EB%B9%84%EC%8A%A4%EC%9D%98%20%EB%B3%B4%EC%95%88%EA%B8%B0%EC%88%A0%20%EB%B0%8F%20%EB%8F%99%ED%96%A5>

- 75&searchword=&page=986&searchSortType=sort_1》
- 엄일동, 온라인 뱅킹의 선구자 ‘카카오페이’, 장점 많지만 아쉬운 점도, 소비라이프, 2019. 3. 12.,
 <<http://www.sobilif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98>>
- 유종락,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보호-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디지털정책연구 제9권 제6호, 한국
 디지털정책학회, 2011, 81-90쪽.
- 윤미혜, ‘네이버페이’ 믿고 안전거래 했는데... ‘피싱 주의보’, 서울파이낸스, 2019. 9. 11.,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676>>
- 이글루시큐리티, 핀테크 서비스의 보안기술 및 동향, 블로그, 2016. 2. 11.,
 <http://www.igloosec.co.kr/BLOG_%ED%95%80%ED%85%8C%ED%81%AC%20%EC%84%9C%EB%B9%84%EC%8A%A4%EC%9D%98%20%EB%B3%B4%EC%95%88%EA%B8%B0%EC%88%A0%20%EB%B0%8F%20%EB%8F%99%ED%96%A5>
- 잇트루, 간편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란 무엇일까?, 티스토리, 2020. 3. 2.,
 <<https://ittrue.tistory.com/8>>
- 정영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모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최연진, 편리하지만... 위험 도사리는 ‘간편결제 앱’, 한국일보, 2014. 11. 1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411110480394231>>
- 채새롬, 갤럭시 지문인식, 실리콘케이스에 뚫렸다...보안 허점 노출(종합3보), 한국경제, 2019. 10. 17.,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10172786Y>>
-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금융용어사전, 2017. 7. 18. <<https://dic.hankyung.com/>>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빅데이터 기반 개인정보보호 기술수요 분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연구보고서,
 2012.
-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2012년 제6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무교육과정,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2012.
-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2719&cid=43667&categoryId=43667>>



친일파 청산의 좌절 원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 이승만 정권을 중심으로

역사콘텐츠학과 김민*

목 차

1. 서론
 2. 친일파 청산 정책
 - 2.1. 빈민족행위처벌법 제정
 - 2.2.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
 3. 친일파 청산을 좌절하게 만든 사건
 - 3.1. 국회프락치 조작 사건
 - 3.2.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
 4. 친일파 청산 좌절 원인
 5. 나아갈 방향
 6. 결론
- 참고 문헌

1. 서론

1945년 광복 후 5.10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 시기는 친일파를 청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였다. 이에 제헌국회에서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공포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국민들도 제보함을 통해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했다. 그러나 결국 결과적으로 이는 좌절되었고, ‘친일파 청산’은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좋은 시기와 노력이 있었음에도 ‘친일파 청산’이 좌절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또한 76년이 지난 지금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 의문의 답을 찾고자 광복 후 세워진 이승만 정부를 중심으로 친일파 청산 좌절 원인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친일파’의 사전적 의미는 ‘일제 강점기에, 일제와 아합하여 그들의 침략약탈 정책을 지지·옹호하여 추종한 무리’이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일본과 친하게 지냈던 무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친일파’는 우리의 민족적 정서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역사적 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또한 친일파는 크게 세 부류의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송희는 첫째, 일진회와 같은 적극적 친일단체, 둘째, 정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완용, 조중응과 같은 고관들, 셋째, 일부 계몽운동에 참여하였지만 일제의 꼬임에 넘어간 일본 유학생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¹⁾ 이러한 친일파들을 청산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가 보다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며 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일파가 과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친일의 잔재는 여전히 우리 삶 곳곳에 존재하며, 이는 미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기에, 친일파 청산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지속적으로 ‘친일파 문제’는 사회적 이슈의 대두가 되어 왔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과거의 친일파 청산 실패 원인을 찾기 위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실제 이에 대해 연구를 했던 강정구는 과거 청산 방식이 역사 전진의 족쇄, 미래 지향성 등의 논리에 의해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는 식의 과거청산 방식은 친일파 청산의 좌절이라는 우리 민족사의 뼈저린 역사 경험을 통해 옹호되기 어렵다는 게 증명된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²⁾ 이를 통해 과거의 친일파 청산 방식 문제와 좌절로 인해 여전히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가장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여기서는 더욱이 과거 이승만 정부의 친일파 청산 방식을 중심으로 좌절된 원인을 문헌연구를 통해 다방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원인만을 분석하는 연구가 아닌 더 나아갈 방향을 같이 제시하는 연구가 많이 필요하기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과거 식민 지배가 남긴 부정적인 유산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며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친일파 청산의 필요성을 간곡히 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이승만 정권 속 친일파 청산 정책

2.1.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과정 속 반발과 조항의 허점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5년 8월 이전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1948년 9월 제정되었던 법률이다. 광복 후 각 정치단체에서는 미군정 당국에 친일파들의 제재를 요구하였지만, 당시 미군정은 이미 친일파의

1) 이송희, 친일파 그들은 누구인가? 1, 수요인문학강좌, 신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198쪽.

2) 강정구, 친일파 청산의 좌절: 그 원인과 민족사적 교훈, 한국사회학 27, 한국사회학회, 1993, 271쪽.

상당수를 군정청에 이용하고 있었기에 친일파 처벌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1948년 3월 군령법령 제175호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친일분자의 국회의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였고, 이로 인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제정한 「헌법」 제101조(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를 근거로 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을 통해 친일행위를 한 자들을 그 가담 정도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 밖에 재산을 몰수하거나 공민권을 정지하는 등의 처벌이 가해졌다.



〈그림 1〉 반민족 행위 처벌법 원전3)

헌법에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을 당시 수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했고, 사람들은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 당시 민족의 큰 과제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면서 「반민법」에 관한 확고한 입장이 나타났다. 8월 20일 이승만은 국회에서 정부 내 친일파를 처단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이에 동의하면서도 처벌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기존의 시기상조론을 고수하였다. 한민당도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은 찬성하지만, 범주를 확대하고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⁴⁾ 이러한 입장은 직접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금한다는 것과 같다. 또한 처벌은 반대하는 움직임은 경찰에서도 나타났다. 그들은 과거 친일에 가담했던 경찰들로서 「반민법」이 실시되면 가장 먼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주요한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반민법」의 제정이 확실시되자, 8월 24일 수도경찰청 부청장 金泰日을 비롯한 과서장급 간부들이 회의를 열고 ‘민족정기의 昂揚’이라는 이유로 퇴진을 결의하였다.⁵⁾ 또한 뒤따라 검사들도 퇴진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점점 「반민법」에 대한 반발은 심각해졌다. 수많은 반대 움직임 가운데 일부는 「반민법」 제정의 취지에 따른 양심적인 행동이었지만, 대부분은 반민족행위자의 범주에 자신들이 포함된 것에 대한 불만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압력을 가하는 일종의 위협이었다.⁶⁾

「반민법」속 특히 4조항은 상당한 논란을 가져왔다. 일제하에서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자들의 실제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한 조항은 4조였다. 따라서 「반민법」의 제정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조항으로, 「특별조례」의 부일협력자 규정과 거의 동일하였다.⁷⁾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년 이하의 공민권 정지, 그리고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여기에 대해 서성달, 서우석, 서이환 등 「반민법」 제정에 소극적이던 의원들은 4조가 해당자의 행위가 아닌 직위를 기준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하고, 1항에서

3) 한겨레 자료 사진, 강민진, 이승만 담화문으로 돌아본 ‘친일파 청산 좌절의 역사’, 한겨레, 2018. 1. 1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27095.html>에서 재인용.

4) <자유신문> 1948. 8. 21. <현대일보>, <조선중앙일보> 1948. 8. 22., 허중,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 대구사학 57권0호, 대구사학회, 1999, 19쪽에서 재인용.

5) 허중, 위의 글, 20쪽에서 재인용.

6) 허중, 위의 글, 20쪽에서 재인용.

7) 허중, 위의 글, 20쪽에서 재인용.

4항까지는 선택범이 아닌 당연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항에 ‘악질적’이라거나 ‘현저한’이라는 용어를 넣어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4조는 일괄적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각 항목별로 통과시켰다. 이처럼 반민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4조는 3항까지는 죄질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나, 나머지는 모두 추상적으로 규정하거나 선택범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처벌에서도 최저형을 규정하지 않은 ‘以下主義’를 채택하여 「반민특위」 위원이나 특별검찰관, 특별재판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악용될 수 있는 허점을 가지고 있었다.⁸⁾ 이처럼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법 제정 과정 속에서도 이승만 정부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친일 세력)들을 지켜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 제정과, 처벌에 대해 방해를 하였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또한 「반민법」에는 4조항 말고도 많은 허점이 존재하였고, 이는 결국 반민족행위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주게 된다.

2.2.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미미한 결과

제헌국회는 1948년 9월 22일에 「반민법」을 공포한 후 같은 해인 10월 22일에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반민특위를 주도하는 조사위원은 각 도에서 1명씩 호선된 10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었다. 김상덕이 위원장, 김상돈은 부위원장으로서 선출되었다. 또한 한편으로는 반민족행위자를 기소하고 재판을 담당할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도 구성되었다. 관장은 대 검찰청장 권승렬, 차장은 국회의원 노일환이 맡았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반민특위의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선 친일파 예비조사에 들어가 친일파 일람표를 작성하며 검거 준비를 하였다. 그로부터 이틀 뒤에는 일차로 반민특위 특별검찰대가 친일 거두 박홍식을 화신별관에서 검거하기에 일렀다. 이들의 검거 소식은 국민들의 환호를 불러일으켰다.⁹⁾



〈그림 2〉 반민특위 기소된 사람들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음¹⁰⁾

이처럼 반민특위 활동의 시작이 성공적이지 이승만 정부와 친일파들은 본격적으로 반발을 나섰다. 돈으로 반민특위 특별 검찰대를 매수하려 하거나, 친일파를 애국자로 둔갑시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또한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 기반에 일차적인 위협 세력을 공산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을 막기 위해서는 비록 일본총독부 시대의 고등계 형사라고 중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특별검찰부가 노덕술을 검거하자 ‘노덕술은 경찰의 공로자이니 즉시 석방할 것’을 국회에 요청하였다.¹¹⁾ 이처럼 정부는 반민특위 활동을 경계하였고, 지속적으로 훼방을 놓기 일쑤였다. 이승만은 자신의 요청을 반민특위가 거절하자 반민특위의 활동은 치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내세우며, 반민특위의 적극적인 활동을

8) 허종, 앞의 글 27쪽.

9) 진덕규, 다시 생각하며 읽는 현대사 (7): 이승만 지배체제에 늘린 반민특위 활동, 한국논단 35권, 한국논단, 1992, 119쪽.

10) 사진 출처: 민족문제연구소, <<https://www.minjok.or.kr/>>

11) 진덕규, 앞의 글, 200쪽.

금지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이러한 이승만의 선언을 국회와 정부의 대립을 확고히 보여준다. 또한, 제헌국회가 이미 법을 공포하고 반민특위를 구성한 사실을 아예 무용지물로 만듦으로써 국회가 제정하는 법을 뛰어넘는 독재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진덕규는 결국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을 상전으로 섬기는데 혈안이 되었던 민족 반역자와 매국노에게는 더할 수 없는 피난처를 제공해 준 셈이었다.¹²⁾

이처럼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친일파를 감싸 안았고, 이에 국가는 민족의 정서에 큰 상처를 주게 된다. 또한 과거의 잘못을 정당화함으로써 정의로운 국가의 발전을 막게 되었고, 이는 역사 왜곡, 역사 파괴를 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가 기존에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상식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고, 이후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의는 칼을 쥔 자의 것이며, 역사는 언제나 권력자의 편이라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통해 결국 한국 사회에서는 잘못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할 능력조차 상실하게 만들어버린다.

결국 정부의 지속적인 방해와 이승만은 「반민법」 무력화를 시도하여 공소시효가 1950년 6월 20일에서 1949년 8월 말일로 대폭 단축되고 얼마 가지 못해 반민특위는 해체를 맞는다. 결과적으로 총 취급 건수 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 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고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은 곧바로 풀려나가기도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심미숙은 반민특위가 취급한 인원은 총 688명이었고 이 중 547명의 친일 경력을 확인하였다. 제헌국회 내 소장파들은 농민과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며 친일 청산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섰지만 미군정(미제)과 친미(친일) 지주자본가관료 경찰들과 결탁한 이승만 세력이 정부를 장악한 이상, 국회 내 소장파들의 힘으로 친일행위자의 인적 청산은 애초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³⁾ 이처럼 부당하게 권력을 준 자들은 살아남고 오히려 부당한 것을 쫓았던 사람들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그 당시 정부의 방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 친일파 청산을 완전히 좌절하게 만든 사건

3.1. 국회프락치 조작 사건

국회프락치 조작 사건은 1949년 5월부터 1950년 3월까지 남조선노동당의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씌어 현역 국회의원 10여 명이 검거되고 기소된 사건이다. 이들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고문으로 인한 허위 진술의 자백 내용과 신빙성이 검증되지 않은 암호 문서를 근거로 국회의원 13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정부의 눈엣가시였던 소장파 의원들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숨겨져 있다.



〈그림 3〉 국회프락치사건의 주요 인물들. 왼쪽부터 국회부의장 김약수, 노일환, 이문원, 박윤원 (소장파 의원들)¹⁴⁾

12) 진덕규, 앞의 글, 200쪽.

13) 심미숙, 반민특위(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정세와 노동 158,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20, 90-91쪽.

이와 관련하여 중앙일보의 기사를 살펴보면 박(박원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정 여인이 변호인의 「합리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법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점을 들어 이재 판은 「유령재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정 여인은 법정에서 나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아는 사람도, 본 사람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특히 당시 미 대사관 문정관이었던 헨더슨조차도 이 사건의 재판을 방청하고 조사한 결과 정 여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라고 서술했다.¹⁴⁾ 이처럼 존재하지도 않은 증인의 비밀보고문을 통해 소장파 의원들을 구속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승만은 국회의 소장파 의원들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을 상대로 포섭 작전을 하여 국회 교란 책동을 일으켰고 결국 국회 안에 소장파 의원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전횡을 견제하는 이들이 없도록 만들었다. 이 사건 이후 국회의 세력 판도는 크게 바뀌게 된다. 초대 제헌국회에서 한때 전성기를 누렸던 소장파 의원들은 각자 보신책을 급급히 하게 되었고, 결국은 민국당이 원내 1위 세력을 차지하게 된다. 무엇보다 반민특위 활동에 힘을 썼던 소장파 의원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은 점점 위축되어갔고,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은 현저히 약화되어 이승만이 국회를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헌법을 능가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해방 직후부터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려는 흐름 역시 거의 끊기게 되었다.

3.2.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



〈그림 4〉 반민특위 기념사진¹⁶⁾

이 사건은 국회 프락치 사건과 함께 반민특위의 활동을 약화시킨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진덕규는 그해 6월 4일 반민특위 소속 특경대가 친일 경찰로 규정한 서울시경사찰과장 최운하와 종로서 사찰주임 조웅선 경위를 전격 구속하자 그로부터 이틀 뒤 장경근 내무차관의 명령 하에 국립경찰이 특경대를 습격하여 강제로 무장해제하고 무기와 서류, 통신기구 등을 압수하고 특경대원 등 35명을 연행 수감하고만 사건이었다고 서술했다.¹⁷⁾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들은 반민특위에 무력을 행사하는 등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벌였다. 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경찰들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진덕규는 이 사건을 진두지휘한 인물이 장경근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자신은

14) 사진 출처; 야후뉴스(<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2>)

15) 중앙일보, 국회 프락치 사건 “이정권 - 한민당 조작극”, 중앙일보, 1989. 8. 24.,
(<https://news.joins.com/article/2355041>)

16)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8902)

17) 진덕규, 앞의 글, 202쪽.

일제 강점기 고등문관 시험을 거쳐 일본 관료로 일한 친일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부터 그는 이승만의 수족과도 같은 역할을 맡았으며 마침내 그의 이러한 행각이 4·19이후 단죄받게 되자 다시 일본에 망명하는 등 정상적인 민족인으로서의 상상하기 힘든 인사였다고 설명하였다.¹⁸⁾ 이처럼 이승만의 권력 유지 욕심은 끝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로써 광복 후 친일파를 청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친일파를 숙청하고 민족의 정기를 세우려는 국회의 노력은 무너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친일 세력들은 이승만의 이러한 사건들 덕분에 점점 기세를 높여나갔다. 또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친여 세력들은 반민법 개정을 들고나왔고 결국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이로 인해 반민특위 위원 모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퇴하게 된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 반민특위는 반민법이 공포된 지 1년도 안 돼 막을 내리게 된다. 결정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4. 친일파 청산이 좌절된 원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4.1. 친일파 청산이 좌절된 원인

앞선 정책과 사건들을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친일파 청산이 좌절된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중 이승만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친일파 청산을 저지한 것일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광복 직후는 무엇보다도 신속히 친일파를 척결할 수 있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친일파가 자신의 권력 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했기에 지속적으로 반민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승만은 자신의 지지세력 중 일부가 친일파였기 때문에 더욱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 친일파 청산 움직임을 끝까지 방해했다. 사회 전체가 친일파 청산을 간곡히 주장했지만, 정부는 사실상 국민들의 소리에 기울이는 척하며 오히려 그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며, 반민특위와 제헌국회 속 소장파 의원들을 무너뜨렸다. 또한 이승만은 연설 중 자신의 행동과 모순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봉은 “이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 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하였지만, 대통령인 이승만은 정권의 안정과 권력을 위해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기 이르다고 설명하였다.¹⁹⁾ 이처럼 이승만은 자신의 발언과 다르게 행동을 하였고 이는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왔으며, 지금까지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둘째, 이승만 정부의 국가적 성격이 미군정의 연속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정구는 첫째, 미국점령정책의 기조인 반공, 반소 또는 반북, 반혁명의 이데올로기적 지향; 둘째, 식민지 사회·통치 구조를 전승하여 확대 강화한 미군정의 신 식민지적 사회구조 전반을 유지 강화한 점, 셋째는 극우분단세력을 중심으로 5·10 선거라는 계임을 벌려 국가의 목표와 지향을 좌우하는 제헌국회가 친일·친미의 극우세력권화 한 점; 넷째는, 정책목표나 지향의 결정을 담당하는 직위인 고위 정책 직을 정부의 최고통치권자를 비롯해 장·차관 등을 친미·친일·극우분자들이 장악한 점; 다섯째, 국가 전반의 행정 실무직을 친일관료들의 세력권화한 점 등이라고 설명하였다.²⁰⁾ 이러한 문제들은 수많은 제약이 이미 존재해왔고, 이는 당연히 친일파 청산이 완전히 좌절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미군정이 남겨둔 구조적 제약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정구는 반공·반소·

18) 진택규, 앞의 글, 202쪽.

19) 이정봉, [카드뉴스] 친일파는 웃고 있다, 중앙일보, 2017. 1. 5., <<https://news.joins.com/article/21085505>>

20) 강정구, 앞의 글, 286쪽.

반혁명을 정책 기조로 한 미 점령군은 일반명령 1호에 의해 주로 어제의 적이었던 일본인을 동원해 조선인 대중투쟁으로 와해 직전인 식민지 통치 구조를 긴급 구출한 뒤 미군정을 실시한다. 이제 미군정은 점령정책 기조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조선인들과 동맹을 결성하여 점령정책을 구현해 나가고, 결과적으로는 일제의 식민지 잔재인 사회·정치구조를 재생시키고, 이 구조의 점유자를 민족반역자나 직간접적 친일파로 채워 넣어 친일파 청산을 좌절시켰다고 설명하였다.²¹⁾ 이와 같은 구조의 한계를 넘는다든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승만은 미국의 패권주의적 점령정책의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우리의 민족에게 왜곡된 역사와 의식을 심어주고 말았다.

4.2. 앞으로 나아갈 방향

지속적으로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친일파 청산 좌절의 원인을 분석해 보았을 때, 과거 친일파가 부당한 행위를 통해 얻은 부와 명예 권력이 꾸준히 세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에게 잘못을 해도 책임을 안 지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친일파의 부, 명예, 권력을 빼앗아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까지도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 많은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과거 친일파 청산 관련 법안과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면,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된 바 있다. 이듬해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4년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토지, 1,300만㎡ 시가 1,267억 원 상당을 환수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온전히 환수되지 못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4년의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임기 후 대통령 승인 하에 2년의 임기 연장이 1회 가능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대통령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연장 불허 방침을 정했다. 결국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해단되었다. 현재 법무부가 ‘친일 재산’에 대한 일부 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귀속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일본인 명의 재산’ 귀속 업무 또한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위원회와 달리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고 법조인·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친일 재산을 찾더라도 계속해서 추적하고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²²⁾

이러한 문제를 줄이고자, 2020년에는 친일파 군사 독재 등 반민족 행위를 일삼았던 이들을 국립 현충원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또한 2020년 6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친일재산 귀속법’은 임기가 완료되어 해단된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폐기하고 제정했고, 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대통령 승인하에 2년마다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케 했으며, 친일 재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해 은닉재산의 발견을 용이하도록 했다.

이처럼 친일파 청산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대두가 되고 있다. 이를 좀 더 확실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나는 기본적으로 친일파가 부당하게 얻은 부와 명예, 권력이 되물림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조하는 ‘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법을 만들어 돌려받아야 한다. 물론 부동산의 경우 이미 몇 차례의 이전을 거쳤으므로 쉽지 않다. 그러나, 법률을 제정해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환수해야 한다.

‘명예’는 우선 반민족 행위자에게 수여된 서훈부터 취소하고, 국립묘지에 버젓이 안장된 친일파의 묘지를

21) 강정구, 앞의 글, 280쪽.

22) 향단연, 역사청산 법안 속속 발의... 이번엔 친일파 재산 환수법, 뉴스포스트, 2020. 8. 21., <https://blog.naver.com/hddy9100/222066805689>

이장하는 과정을 통해 거짓으로 얻은 명예를 거둬내야 한다.

문제는 토착왜구가 아직도 틀어쥐고 있는 권력이다. 해방 이후 지난 75년 동안 친일청산을 못 한 결정적인 이유는 국민에게 있어야 할 권력이 토착왜구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한꺼번에 다 찾을 수는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처럼 투표로 선출하는 권력은 국민이 좌우할 수 있다. 다행히 주권자 우리 국민에게 4월 15일 총선이 있다고 주장하였다.²³⁾ 이처럼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난 친일파의 부를 완전히 압수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법을 개정한다면 국민들에게 아직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적으로도 잘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친일파의 후손들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일파 청산을 해내기 위해선 과거 친일파 청산의 끈을 놓아버린 이승만 정부의 행동을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광복 후 친일파를 청산하기 가장 좋은 시기를 정부는 스스로 놓쳤다. 지속적으로 제헌국회에서는 반민법 제정, 반민특위 구성 등 반민족 행위자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승만은 협조하여 청산이 빨리 이루어지게끔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 오로지 자신의 권력만 생각했고 그가 권력을 지키는 동안 친일 세력은 오히려 반성을 하지 않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였다. 권력만 생각했던 정부가 낳은 결과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친일파 청산이 점점 어려워졌고 갈피를 못 잡았다.

「반민법」은 이승만과 그의 지지 세력들의 반대로 미미한 성과를 낳았다. 또한, 「반민법」을 제정할 당시 여러 조항들은 흠이 존재했고 이를 통해 친일파들은 빠져나갔고, 지금까지도 친일파의 후손들은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살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며 사회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제헌국회에서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 반민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 며칠 만에 친일파들을 잡아내었다. 이에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 기반인 친일파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담화를 발표하며 반민특위에게 경고를 했다. 엄연히 삼권분립 체제를 택하고 있었기에 행정부가 입법부의 활동을 관여하고 제재해서는 안 되지만 이승만을 이를 위배하고 내적으로는 더 이기적으로 자신의 세력인 친일파 보호에 힘을 쓰며 겉으로는 마치 청산을 돕는 척을 했다. 이는 당시 국민들도 친일파 청산에 힘을 가했는데, 이러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대통령의 모습조차 좌절시키고 만다.

국회 프락치 조작 사건과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으로 이승만은 친일 청산의 주요 인물들을 무너뜨렸다. 그로써 이승만을 견제할 사람들이 없어져 자신의 권력을 지킬 수 있었고 반민특위를 해체시킴으로써 더욱 친일 세력의 권력은 점점 커지게 되었다. 친일파 청산을 도와 오히려 친일세력을 청산해야 할 정부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본격적인 독재 정부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이후 현대사에서 중요한 쿠데타 정권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부당하게 권력을 쥔 자가 국민들을 통치하게 된다. 이후로는 ‘잘못은 책임이 따라오고, 부당한 방식으로 권력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무너뜨리고,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을 안 져도 되며, 부당하게 쥔 권력도 마치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새로운 상식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순적인 상식을 통해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져 갔고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갔다.

23) 강호석, 친일청산이 75년째 실패한 이유, 현장언론 민플러스, 2020. 2. 27.,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13>>

앞서 서론에서 말을 했듯이 76년째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원인은 오랜 시간이 흘러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닌 과거 초창기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자신들의 권력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행동이 후대에 영향을 미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자체는 후대의 사회의 역사의식을 바꾸어놓았고 사회의 정의마저도 무너뜨렸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포기해선 안 된다. 이승만 정부가 낳은 영향은 우리 세대에서 끊어야 하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 보다 더 나은 역사를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 그렇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져야 한다.

친일파의 권력, 명예, 부를 세습한 친일 후손들의 권력, 명예, 부를 반드시 빼앗아야 한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모든 것을 다 환수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회에서도 국민들에게도 또한 미래에도 올바른 역사의식과 올바른 정의관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우리 삶 속에 남아 있는 친일 잔재를 없애므로써 우리 민족성과 우리 본연의 역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친일 후손들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협조적이어야 하며, 부당했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친일파를 딱 정해서 잡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범위를 한정적으로 기준을 세워 기준에 부합하는 악질적인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청산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친일파 청산의 필요성을 확실히 알았고, 현재까지 친일파 청산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근원적인 원인을 파악해보았다. 우리 모두 올바른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친일파 청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강정구, 친일파 청산의 좌절 그 원인과 민족사적 교훈, 한국사회학, 27, 한국사회학회, 1993, 271-294쪽.
- 강호석, 친일청산이 75년째 실패한 이유, 현장연론 민플러스, 2020. 2. 27.,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13>>
- 심미숙, 반민특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 노동 158, 2020, 85-91쪽.
- 이송희, 친일파 그들은 누구인가?, 수요인문학강좌, 1, 신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197-214쪽.
- 이정봉, [카드뉴스] 친일파는 웃고 있다, 중앙일보, 2017. 1. 5.,
 <<https://news.joins.com/article/21085505>>
- 중앙일보, 국회 프락치 사건 “이정권-한민당 조작극”, 중앙일보, 1989. 8. 24.,
 <<https://news.joins.com/article/2355041>>
- 진덕규, 다시 생각하며 읽는 현대사 (7): 이승만 지배체제에 눌린 반민특위 활동, 한국논단, 한국논단 35권, 1992, 191-202쪽.
- 항단연, 역사청산 법안 속속 발의... 이번엔 친일파 재산 환수법, 뉴스포스트, 2020. 8. 21.,
 <<https://blog.naver.com/hddy9100/222066805689>>
- 허중,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 대구사학회, 대구사학 57권, 1999, 1-33쪽.



위클래스 상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학과 김세*

목 차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연구 방법
 2. 청소년 상담제도 현황
 - 2.1. 1388 전화 상담제도
 - 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3. 위클래스 운영 실태 및 인식 분석
 - 3.1. 위클래스 운영 실태
 - 3.2. 위클래스에 대한 인식 분석
 4. 해외의 상담제도를 바탕으로 한 위클래스 개선방안
 - 4.1. 학생 전담 상담제도 도입
 - 4.2. 학교 상담 지역연계 통합 서비스
 5. 결론
- 참고 문헌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생 상담센터 위클래스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위(Wee)클래스는 학교 안에 설치된 상담실로, 친구 관계나 진로 등 다양한 고민을 상담 선생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통 공간이다. 학교 적응 및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개인 상담, 자존감 향상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등을 진행한다.¹⁾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위클래스에서 진행되는 설문조사를 해보았거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위클래스는 교육청의 주도로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국가에서 인지하고 있을 만큼 청소년기에는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며, 급격한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겪는 과도기이다. 청소년기는 인간의 생애 주기 중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안정적인 환경과 여건에 있지 못할 경우 성인기로의 전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²⁾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규마다 다르지만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³⁾ 청소년기에 또래 집단을 통해 경험하는 정서가 인격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청소년기에는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우울감, 무력감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강한 독립과 해방의 욕구를 느낀다. ‘질풍노도의 시기’라 하듯이 자기혐오나 자기비판 등의 불안정한 감정 상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중2병’, ‘고2병’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청소년기에 겪는 심리적 혼란에서 기인한다. 허민숙에 따르면, 청소년이 자신의 역량을 펼칠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역량을 발전시키지 못함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 전체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초래한다.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 과정을 거쳐 성인기로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안정적 발전과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⁴⁾

청소년기 상담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선행연구로는 박재황 등⁵⁾, 구분용⁶⁾, 박성수 외⁷⁾ 등이 대표적이다. 박재황은 청소년 상담을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인과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 봉사, 자문활동, 그리고 매체를 통하여 청소년의 바람직한 발달 및 성장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구분용에서는 “청소년이 원하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제공하여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박성수 외에서는 청소년 상담의 초점은 성인 상담과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상담목표도 다소 간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청소년 상담에 행동 변화의 촉진, 적응기술의 증진, 의사결정 기술의 함양, 인간관계의 개선, 내담자의 잠재력 개별이라는 5개의 일반 상담목표와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관련된 자아정체감 확립,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건전한 가치관 정립의 3개의 목표를 추가하여 8가지 청소년 상담목표를 제한하였다. 또한 심리치료가 이상심리나 정신병리 치료와 성격 변화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일반상담은 일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1) 교육부 위(wee)프로젝트, 2021. 5. 25., <<https://www.wee.go.kr/home/app/app020011.php>>

2) Hardgrove·Abby·Kirrily Pells·Boyden Jo, and Paul Dornan, Youth Vulnerabilities in Life Course Transition, 2014 UNDP Development Report Office, 2014, 3쪽.

3) 김춘경 외, 청소년, 학지사, 2016, 네이버 지식백과, 청소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75866&cid=62841&categoryId=62841>>, 2021. 5. 25.에서 재인용.

4) 허민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정책분석모델개발 보고서 2020-1, 제15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1쪽.

5) 박재황 외, 청소년상담교육과정개별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1993.

6) 구분용·박정민·이명우, 청소년상담의 발전방안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00.

7) 박성수 외, 상담심리학, 서울: 한국방송대학출판부, 2000.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청소년 상담은 소수 대상의 치료 기능보다 대다수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을 돕는 목표를 갖는다.

로브 @rov_1130 · 4시간 ...
 나 중학교때 설문지에 안좋은쪽으로 적었다가 그뒤에 부모님 선생님한테 다 알려지고
 위클에서 상담한 내용도 부모님한테 알려지고 나서는 무조건 설문지 제일 좋은쪽으로만 표시함

〈그림 1〉 트위터, 키워드 ‘위클래스’ 검색을 통해 찾은 위클래스에 대한 부정적 의견

마멜공주 @xox_creamy · 4시간 ...
 학교 다닐 때 우울증이 심해서 저 질문에 그렇다에 체크 했다가 선생님이 나랑 똑같이 체크한 애들을 다 불러서 너네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싶냐 지금 창문 밖으로 뛰어 내려 죽고 싶냐 물어보셨다 아니요라고 답해야 했고 역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더 우울했던

〈그림 2〉 트위터, 학교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의견

그러나 ‘믿고 거르는 위클래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의 위클래스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살 예방, 폭력 예방과 같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상담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청소년들은 많지 않다. 트위터에 키워드 ‘위클래스’, ‘학교 상담’을 검색해보았더니 〈그림 1〉, 〈그림 2〉에서와 같이 ‘중학교 때 설문지 안 좋은 쪽으로 체크했다가 위클래스에서 상담하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려지고 나서는 설문지에 솔직하게 답변 안 한다’, ‘우울증이 심해서 설문조사에서 사실대로 답변했으나 선생님이 자신과 똑같이 답변한 친구들을 불러 모아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싶냐 등의 질문을 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더 우울했다.’ 등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소년 상담제도의 현황을 학교 내, 학교 외로 나누어 조사해 보고, 위클래스의 운영실태와 인식을 알아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위로와 도움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할 위클래스가 왜 불신과 기피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해 위클래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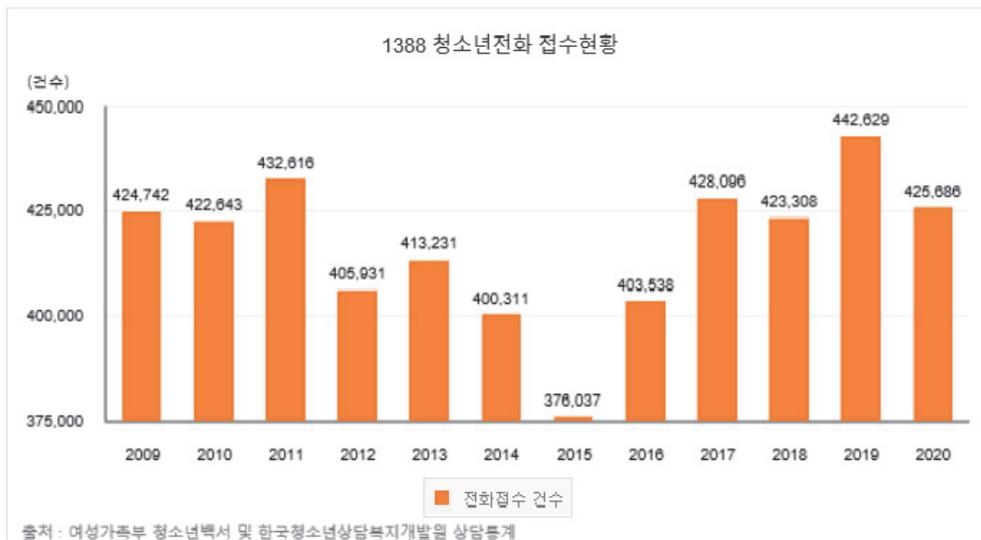
1.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청소년 상담프로그램의 현황을 알아보고 청소년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고자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 청소년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트위터, 네이버판 등에 ‘위클래스’, ‘1388’, ‘학교 상담’ 등의 키워드로 2017년~2021년의 기록을 검색하였다. 그 후, 청소년의 상담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는 위클래스, 1388, 꿈드림센터의 운영실태를 알아보고자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학술연구서비스 RISS에 ‘위클래스’, ‘학교 상담’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는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청소년 상담 제도 현황

2.1. 1388 청소년 상담 제도

청소년 상담 1388은 24시간 365일 위기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상담 채널이다. 학업 및 진로와 관련된 일상적인 고민이나 가족 문제, 친구 관계, 학교폭력, 성폭력, 가출 문제 등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고민을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익명으로 전문상담가와의 상담을 지원하며, 크게 온라인상담·카카오톡 및 문자 상담·전화 상담 서비스가 있다.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88, 문자 상담은 #1388,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상담은 카카오픈플러스 친구 맺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인터넷 <www.cyber1388.kr>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청소년 전화 1388은 기존에 운영되던 다양한 지역사회 청소년연계자원을 통합하여 일반 심리상담, 위기 상담, 긴급구조 및 자원봉사 정보제공 등 청소년 상담 및 정보제공 전화로서 2005년 9월 6일부터 운영·실시하였다. 현재 전국 23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2021년 5월 기준)에서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다.



<그림 3> 1388 청소년전화 접수현황, e나라지표

<표 1> ‘정신건강’ 관련 청소년상담 1388 상담 현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여성가족부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상담건수	77,126건	92,597건	117,590건	150,229건	162,986건

<그림 3>에서와 같이 청소년상담 1388로 도움을 받은 청소년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표 1>에서와 같이 주로 대인관계, 정신건강, 학업·진로 등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소년들은 우울·불안, 충동·분노 조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주로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우울위축, 강박불안, 충동 조절과 관련한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 상담을 받은 청소년이 심층적인 상담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한 통합 서비스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⁸⁾

8) 김효정, 청소년상담 1388 이용 청소년들 매년 증가, ENB교육뉴스방송, 2020. 3. 12., <<http://www.enb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19467>>

하지만 1388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청소년들도 많다.



〈그림 4〉 네이트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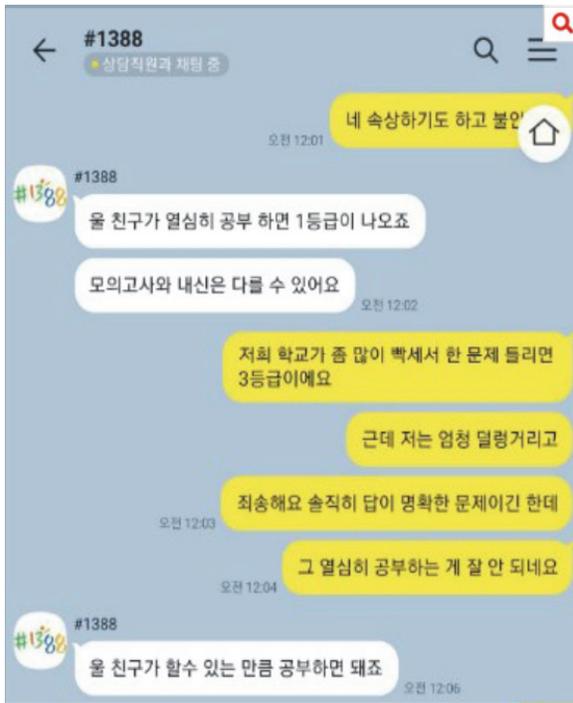
(자살 충동으로 1388에 전화를 걸었다가 ‘위급한 일이 아니면 내일 다시 전화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네이트판에서의 은어와 비속어는 순화했다, 시민사회신문)

이영일에 따르면, 2019년 10월, ‘1388 왜 있는 거야?’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10대 이야기>라는 코너에 올라왔다. 청소년전화 1388의 상담 응대 내용이 무성의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조회 수 11만 건을 넘기며 한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 글이 게시되자 댓글에는 1388의 응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댓글에서 한 네티즌은 “나도 죽고 싶어서 전화한 적 있는데 제대로 들어 주는게 아니라 대충대충 비꼬아서 대답했다”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가정 문제로 힘들어서 죽고 싶다 생각해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해 1388로 전화했더니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대충대충 상담했었다”며 절대 전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원 게시글과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도 많은 상황이었다. 이 글은 익명인데다가 언제, 어느 매체를 통한 내용인지 특정할 수 없어 사실 여부 자체를 파악할 수 없다. 그냥 장난으로 올린 글이라고 해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게시글과 댓글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1388의 상담 응대 내용에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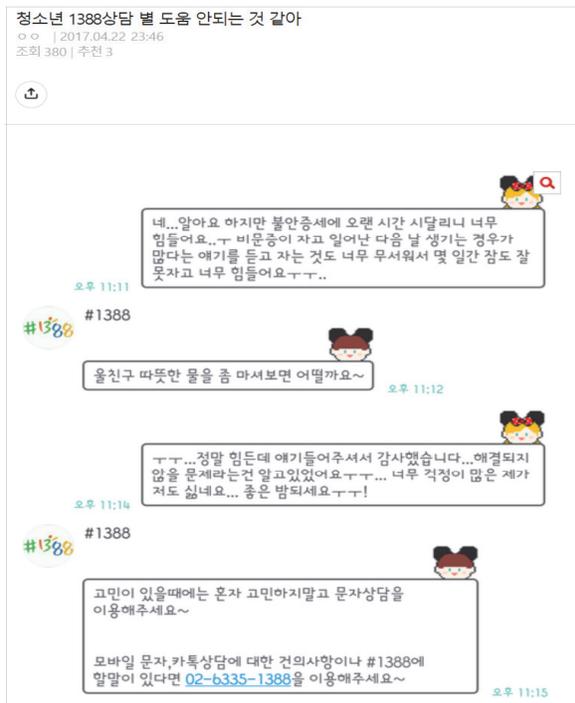


〈그림 5-1〉 #1388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에서 나는 대화가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었다는 네이트판의 글, 2021년 3월 24일.

9) 이영일, 청소년전화 1388 상담 적절인가, 시민사회신문, 2019. 11. 15., <<http://www.ingo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07>>



<그림 5-2> #1388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에서 나는 대화 내용



<그림 6> 형식적인 말만 반복하는 #1388 챗봇 서비스, 2017년 4월 22일.



<그림 7> 1388 전화 상담 후기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네이트판의 글, 2020년 8월 27일.

청소년 상담 1388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사례를 찾아보니 <그림 5-1>, <그림 5-2>, <그림 6>과 같이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마치 정해진 답만 출력하는 로봇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청소년의 고민에 교과서적으로 답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청소년 사례가 많았다. 물론 공부와 같이 질문자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있어 상담사로서 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청소년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질문자의 고민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태도를 보이는 챗봇 서비스가 된다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1388을 신뢰하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388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청소년도 있었다. <그림 7>의 네티즌은 1388 전화 상담을 통해 위로가 되었고,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고민이 된다면 1388에 전화해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하기까지에는 수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따를 것이다. 청소년들이 용기를 내어 내민 그 손을 잡아주는 상담사의 역할이 청소년 상담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모든 상담이 그렇겠지만, 상담사마다 상담의 질이 크게 차이 나고, 이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박*덕에 따르면, 1388 전화상담의 경우 별도의 전담 인력 없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존 인력이 상담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위기청소년 발굴 및 긴급 지원의 한계가 있다. 특히나 시·군·구 센터의 경우 인력의 한계로 전화도 받으면서 대면상담도 하고 상담과 연계된 다른 사업도 진행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전화를 들고 가기도 하고, 점심시간에도 전화를 놓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위기 상황에 놓인 위기청소년의 긴급구조는 가능한가? 위기상황이 생기면,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마비가 되는 상황까지 이어진다. 위기상황 개입 시 기존에 있던 대면상담 및 사업을 취소 및 연기하고 출동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사업 인력 1~2명으로 위기상황을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 센터의 여러 인원이 출동해야 가능한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 위기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1388 전화상담 시스템으로는 위기청소년들을 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박*덕은 자살시도를 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1차 위기 개입부터 출동까지 연계되는 시스템, 추후 지속적인 상담연계까지 가능한 청소년의 1388 전화 1차 위기상황 긴급개입 역할, 이에 전담인력 및 청소년 전문가 배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민참여예산 사업지원을 통해 제안했다. 여성가족부는 전화상담은 전문 인력이 전담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인력(상담사 등)은 위기청소년 대면상담 및 서비스 연계업무에 집중하는 등 분야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담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여 현재(2021. 5. 27.) 사업숙성단계를 진행 중에 있다.¹⁰⁾

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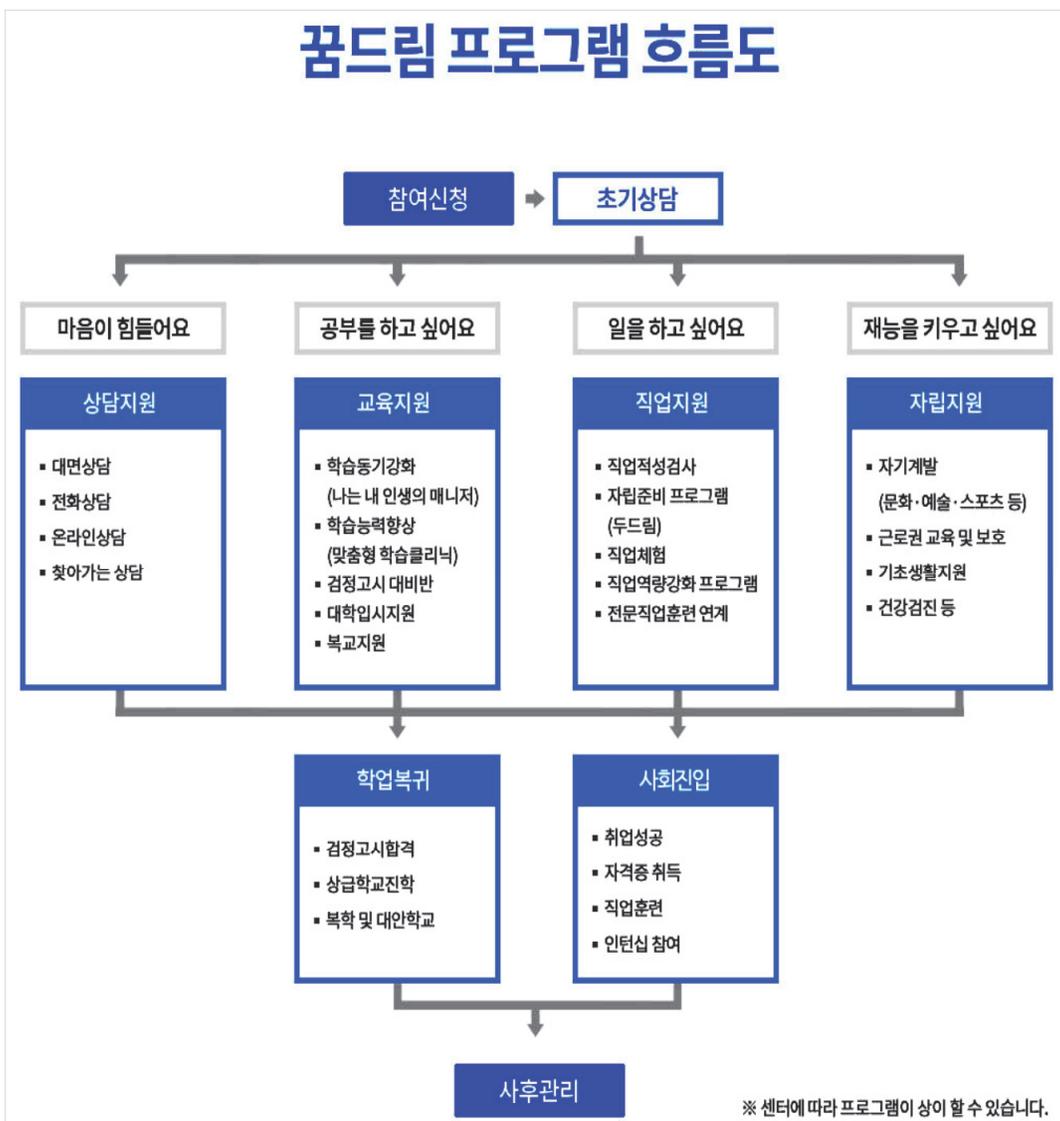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자퇴·제적·퇴학처분 등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을 뜻한다. 중도탈락자, 부적응청소년, 중퇴자로 표현되다가 2014년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불리게 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수는 2019년 기준 약 39만 명으로 추산된다. 초·중·고 학급의

10) 박*덕, 청소년상담 1388 통합 콜센터 운영 “1388전화를 통해 긴급지원까지 위기청소년 원스탑 서비스 지원”, 국민참여예산 사업진행현황, <https://www.mybudget.go.kr/howsltPrsng/bsnsPropseSttusDetail?rcept_year=2020&bsnsPropseIndx=3743>, 2021. 5. 27.

학업중단율은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¹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다만 학교 안 청소년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이지만,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의 경우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18개 꿈드림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과 직업 등을 책임지고 있다.¹²⁾

꿈드림은 ‘꿈을 드림’과 ‘꿈=dream’의 중의적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겠다는 의미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여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¹³⁾



<그림 8> 꿈드림 프로그램 흐름도, 꿈드림 홈페이지

11) 허민숙, 앞의 글, 3쪽.

12) 구하린, 코로나 이후 갈 곳 잃은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편견, 교육 소외 이중고,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 나은미래, 2020. 9. 29. <<https://futurechosun.com/archives/50891>>

13) 꿈드림 홈페이지, <https://www.kdream.or.kr:446/user/sub01_1.asp>, 2021. 5. 2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가족 갈등 및 가정 해체 등의 이유로 홀로 생계를 책임지게 되어 거리 청소년이 되는 등 자의가 아닌 주변 여건에 의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어 생계로 뛰어들거나 경제적 곤란, 학교폭력 피해, 학교 부적응, 심리·정서적 문제로 자퇴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이 상당수 존재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모두 위기 청소년은 아니다, 부모의 지원 등을 통해 재택교육(홈스쿨링)의 방법으로 학습을 지속하거나 유학 등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지속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꿈드림 센터는 전국에 220개가 있다(2021. 5. 27. 기준). 이곳에서는 개인상담과 학업중단속려제 상담을 수시로 받을 수 있고 검정고시 대비반을 비롯해 대학입시 지원 및 대학입시 설명회, 의무교육단계 학습지원사업 등 교육지원도 받을 수 있다. 체육대회(상반기)와 예술제(하반기)를 통해 문화활동도 경험한다. 이외에도 꿈드림에서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은 기초기술 훈련과 인턴십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센터가 장기휴관에 들어가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보건, 교육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었다. 구하린에 따르면, 오산시 꿈드림 센터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교육이나 주 1회 집으로 DIY키트를 보내주는 취미생활 프로그램만 가동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학습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한 학생 자기진단 관리와 급식 예산을 활용한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빠져있다. 학교 안 청소년의 경우, NEIS를 통해 매일 체온을 측정하고 감염병 증상 여부, 동거가족 전염 가능성 등을 관리받고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이나 식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꿈드림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에 한하거나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센터별로 휴관 기간이나 운영 방식이 제각각인데, 이를 통합하여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어 학교 밖 청소년은 스스로 정보를 찾아봐야 한다. 2019년 기준 꿈드림센터 이용자 수는 4만8250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약 12%에 그친다. 꿈드림센터 218개소 중 57개소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일부 지방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¹⁴⁾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 열악한 환경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현 꿈드림 센터의 가장 큰 문제이다. 최현주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는 1년에 2000만 원 남짓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4월 기준). 시·군별 차이는 있지만 꿈드림 1년 예산은 국비(여성가족부)와 도비·지자체 예산 7대 3 비율로 1억 원가량이다. 1억 원으로 직원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사업비 등 모든 운영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예산의 80%가 운영비라는 얘기다. 한 관계자는 “정확하진 않지만 청소년 한 명이 꿈드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약 1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공교육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 1인당 1년 교육비가 700만 원이라는 통계와 비교하면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주어진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 인건비 주기도 빠듯하다. 센터장 내지 팀장을 빼고 2~3명밖에 고용하지 못한다. 2~3명이 학생 상담, 고용프로그램 연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문화 프로그램 제공, 사업 홍보, 행정처리 등을 다 해야 한다. 처우도 열악하다. 한 관계자는 “꿈드림 직원들 사이에서는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신기하다고 볼 정도”라며 “처우가 열악하다고 알려진 사회복지사보다 더 안 좋다. 직원 2~3명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당연히 청소년들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¹⁵⁾

14) 구하린, 앞의 글.

15) 최현주, <2> 학교밖 청소년, 갈수록 느는데 지원은 ‘결음마’, 충북인뉴스, 2019. 4. 19., <<http://www.cb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678>>

3. 위클래스 운영 실태 및 인식 분석

3.1. 위클래스 운영 실태

학교 상담 초기(1950년-1950년대 말)에는 단순히 전쟁으로 인한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과학적인 심리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80년대의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세계화와 정보화, 물질만능주의 사회가 팽배하면서, 가족의 기능은 약화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문제가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진로상담과 생활지도가 일상화되고, 학생상담자원봉사제도가 활성화되었으며, 부모교육이 강화되었다. 특히 청소년상담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광역 시도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었고, 지역 시군구에는 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졌고, 학생의 문제는 학교 요인뿐만 아니라 가정적 요인이나 개인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담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 장면에서도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학교 상담을 개선하려는 여러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상담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것은 방과 후, 위기청소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과, 예방적 접근이라기보다는 문제 발생 이후 개입되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대사회에서는 복합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학교상담의 패러다임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만으로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와의 결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Wee 프로젝트이다. Wee 프로젝트는 학교 상담의 새로운 모형으로서 그 중요성이 있으며,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간의 연계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중요시하는 모형으로 발전하고 있다.¹⁶⁾

위(Wee) 프로젝트 기관은 초·중·고등학교에 소속된 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위(Wee) 프로젝트 기관에는 위(Wee) 클래스, 위(Wee)센터, 위(Wee) 스쿨, 가정형 위(Wee)센터가 있다.

위(Wee) 클래스는 학교 안에 설치된 상담실로 친구 관계나 진로 등 다양한 고민을 상담 선생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통 공간이다. 학교 적응 및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개인상담, 자존감 향상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등을 진행한다.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위(Wee)센터는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 또는 집단 대상의 상담 서비스와 특별교육, 학업중단예방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임상심리사에 의한 심리검사 및 해석과 사회복지사에 의한 지역사회 연계 지원 등 개별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문화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Wee) 스쿨은 고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잃어버린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는 기숙형 장기위탁교육기관이다. 학년·학급이 구분되지 않은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교과교육 이외에도 상담활동, 심성교육, 진로직업교육, 사회적응력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한다.

가정형 위(Wee)센터는 가정적 돌봄과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돌봄, 상담, 교육이 어우러진 특화형 센터이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및 돌봄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의 성격, 진로, 적성을 고려한 교과 운영, 가족 내 갈등을 개선할 수 있는 가족 개입 프로그램 등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고 사회적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Wee) 클래스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거나 담임 선생님을 통한 의뢰가 가능하다. 위(Wee)

16) 박미나, 학교상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1-15쪽.

센터는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으로, 위(Wee) 센터에서 상담서비스를 받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된다. 단, 출결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사전에 학교에 알려 동의를 얻은 후 참여해야 한다. 위(Wee) 스쿨 및 가정형 위(Wee)센터도 마찬가지로 해당 학교의 동의 및 정식적인 의뢰 절차를 통해 서비스를 받아야 원적교의 학적 유지가 가능하다.¹⁷⁾

위클래스는 2008년 530개교로 시작하여 2021년 6938개교에서 실시하게 되어 전체 초·중·고등학교 11710개교 대비 61%에 달하는 구축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12년 모든 중학교에 위클래스를 설치하고, 2013년까지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위클래스 도입 초기 발표한 적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위클래스는 학교 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예방적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그림 9> 중앙일보, Wee 프로젝트 체계도

2018년 한 해 학교폭력이 총 3만 3168건 발생했다. 그러나 학교폭력과 대인관계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을 돕는 상담 시설 설치율은 61%에 그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학폭자치위) 개최 건수는 11만 210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만 828건, 2016년 2만 4528건, 2017년 3만 1686건, 2018년 3만 3168건으로, 매년 학폭자치위 개최 건수는 증가세를 보인다.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도 지난해 3만 3237명에 달했다.

17) 교육부 위(wee)프로젝트, 2021. 5. 25., <<https://www.wee.go.kr/home/app/app020011.php>>

■ 전국 초·중·고등학교 위(Wee) 클래스 설치 현황

	위(Wee) 클래스 설치율			
	초	중	고	계
서울	40%	97%	82%	67%
경기	48%	94%	96%	68%
인천	70%	93%	94%	81%
세종	78%	92%	89%	86%
대전	62%	98%	100%	84%
광주	35%	98%	72%	61%
대구	93%	98%	99%	95%
울산	100%	62%	57%	90%
부산	78%	98%	92%	86%
충북	64%	100%	100%	79%
충남	33%	69%	99%	53%
경북	67%	100%	100%	89%
경남	27%	78%	77%	51%
전북	13%	50%	59%	31%
전남	32%	63%	58%	45%
강원	39%	74%	78%	55%
제주	26%	82%	97%	51%

<그림 10> 이학재 의원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위(Wee) 클래스 설치 현황(2019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위(Wee) 클래스' 설치율은 61%였다. 위클래스는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심리검사·외부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개 학교폭력 및 자살·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위기학생과 학업중단, 따돌림, 대인관계 등이 원인이다. 학생 수 101명 이상인 학교에 설치하고 있다. 지역별 위클래스 설치 현황을 보면, 전북이 31%로 설치율이 가장 낮았다. 전북은 특히 초등학교 위클래스 설치율이 13%에 불과했다. 이어 전남이 45%, 제주와 경상남도가 51% 순이었다.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95%였고, 울산과 경상북도가 90%로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상당한 만큼, 학생들이 학업을 원만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클래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클래스가 설치된 학교라도 전문 상담 인력은 대체로 1명에 불과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한계도 있다. 학생 규모에 맞게 전문 상담 인력을 추가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¹⁸⁾

3.2. 위클래스에 대한 인식 분석

학생 전문 상담 시설인 위클래스에 배치된 전문상담자가 상담 내용을 발설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었다. 특히, 위클래스가 친구 관계나 진로, 학교폭력 등 다양한 고민을 상담해 학교 적응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 일선 상담창구임을 고려하면 심각한 문제이다. 2019년 2월 16일 충북도 교육청 누리집 충북교육 청원광장에는 '우리 학교 위클래스 선생님'을 주제로 한 글이 게시되었다.

18) 윤상민, 작년 학교폭력 3만 3168건...상담 돕는 '위클래스' 설치는 61%에 그쳐, 아주경제, 2019. 10. 16., <<https://www.ajunews.com/view/20191015095903974>>.

도내 한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글 작성자는 “위클래스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위클래스 전문상담자에게 학생들이 누구에게도 말 못 할 힘든 고민을 털어놓으면 상담 내용 등을 무슨 자랑거리라도 된다는 듯 담임교사는 물론 다른 교사들에게도 모두 얘기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상담한 다음 날 모든 교사가 내용을 알 정도라 학생들이 위클래스를 간다면 말리는 문화가 생겼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다양한 고민을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어야 할 공간이 오히려 학생들이 피해야 하는 공간으로 변해버린 셈이다. 청원 게시자는 이 같은 이유로 위클래스 전문상담자의 교체는 물론, 만족도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8년 9월 말 기준 도내 84개 고교 중 82곳에 위클래스(전문 상담교사 40, 전문 상담사 30, 미배치 12)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는 학교장 권한에 따라 전문상담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담자가 배치돼 근무 중이기도 하다.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내에 도입된 위클래스가 도입 초기 전문 상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영향이다. 위클래스 운영 10년차를 맞은 도교육청도 학생 상담이 종결될 때 만족도를 상담자가 확인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만족도 통계를 작성하지 않아 왔다. 즉, 이번처럼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상담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입 초기 학교장 권한으로 전문상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담자 수십여 명이 초·중·고 위클래스에서 근무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시연수와 매뉴얼 보급을 통해 상담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 상담이 종결될 때 만족도를 상담자가 확인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만족도 통계를 작성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¹⁹⁾

경기도교육청이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복귀와 치유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상담기구 ‘위클래스’가 학생들의 자살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교생 10명 중 7명은 자살하기 직전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받은 뒤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경기도에서 모두 24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가운데 75% 18명은 자살하기 전에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복귀와 치유를 돕는 상담기구인 위클래스에서 상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상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상담프로그램이 자살예방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상담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고 상담 과정에서 학생들의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²⁰⁾

4. 해외의 상담제도를 바탕으로 한 위클래스 개선방안

4.1. 학생 전담 상담제도 도입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학교 체계에 있어 교육, 복지 지원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업과 학교생활에 있어 위로와 응원이 되어야 할 위클래스 상담이 학생들에게 불신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선진 학교상담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 인진연, ‘상담만 하면 학교 소문’…충북 한 고교 위클래스 ‘논란’, 중앙일보, 2019. 2. 16.,
 <<https://news.joins.com/article/23375637>>

20) 이영규, 경기도 ‘Wee클래스’ 무늬만 상담기관…상담 후 75% 자살, 아시아경제, 2018. 8. 15.,
 <<https://www.asiae.co.kr/article/2014101515112357684>>

학생 개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치료로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청소년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 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반영한 미국의 학교상담제도는 학업프로그램 지도, 진로지도, 등교·성적·숙제문제 지도, 교사의 학생 관리 조력, 회의 주관, 휴식 시간 및 점심시간 중 학생 지도 등 주요한 학생 상담 업무를 수행하며, 그밖의 상담 외 업무로는 학업 및 진로 설명회, 부모교육, 부모와의 만남 등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모든 능력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교육을 받으므로 학생들에 대한 평가, 각자의 학업 프로그램 선정, 진로지도 등의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중·고등학교의 경우 한국의 담임과 같은 제도가 없다. 학생 생활지도는 주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학교 생활지도 상담자, 학교 상담자, 학교 심리학자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학교 상담자들은 학생들의 감정적, 사회적, 행동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또 학업과 진로, 개인적 영역 등에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초등, 중등, 고등, 고교 졸업 후 과정으로 나누어 상담자의 역할과 상담프로그램을 나누어 운영한다. 학교 상담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학교상담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는 학생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록하여 상담에 활용하는 것으로, 동일 상담자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전 과정 내내 학생을 담당하여 친밀하고 확실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학교 상담자 자격은 주별로 규정하는 바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까다로운 학교 상담자 자격조건으로 인해 학교 상담자의 지위와 권한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1학년 때 담당 상담자가 3년간 지속적으로 학생을 담당하고,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학생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체계적인 지도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진 학교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또 다른 움직임은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학교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상담서비스 전문기관들이 위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동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통합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 학교상담제도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영역에 학교상담자가 접근하여 상담자를 발굴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둘째,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파트너십을 통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학교상담자가 갖추지 못한 다른 전문가와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위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례관리 중심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에서 이를 구분하자면 'Wee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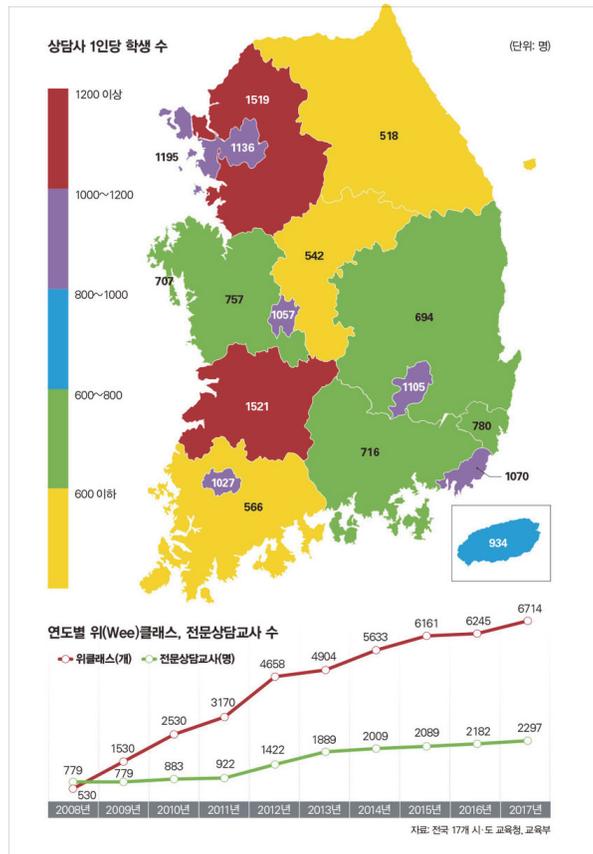
일본의 학교상담자는 일본 임상심리 자격위원회에서 선발하고 관리한다. 또한 순회상담교사와 전문가팀과 협력하는 교내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외에도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 상담지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일본 학교상담 제도의 특징은 상담이 협력체제로 구성돼 전문가팀 형태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전문가팀은 학생의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 고기능 자폐증에 대해 판별하고 관련된 실무를 처리한다. 더불어, 바람직한 교육적 대응이나 지도에 대해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한다. 전문가팀의 구성원은 교육위원회의 직원, 특수학급이나 통합지도교실의 담당 교원, 일반 학급의 담당 교원, 심리학 전문가, 의사 등이며 사안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원 추가가 가능하다.

일본의 학교 상담교육은 학생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교에서 주로 발생하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방대한 조사연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 개개인의 성향에 따른 상담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학교 부적응 문제나 문제행동 지도에 있어서 사후조치나 지도보다는 문제행동의 발생을 줄이고 더 나은 성장과 발달을 위한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사고방식과 문화,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교내위원회를 구성해 상담체계를 정비하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교육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학교상담자나 전문상담원을 교내에 배치하여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클래스는 시행 초기 내세운 원대한 목표와 달리, 현실은 누추하다. 상담사는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 등에 짓눌려 있다. 학생들은 너무 오랜 기다림이나 상담 내용 유출로 상처를 받기 쉽다. “전교생이 900명인 고등학교에 주 3일, 750명인 초등학교에 주 2일 출근해요. 1학기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총괄하고 2학기엔 ‘관심군’ 학생만 관리하기도 벅차서... 상담할 시간은 늘 모자라요.”



<그림 11> 시사저널, 위클래스 상담사 1인당 학생 수·연도별 전문 상담교사 수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K씨의 말이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6년 4월 기준 전국 위클래스와 위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인력은 각각 4772명과 1012명으로 총 5784명이다. 상담사 1명당 학생 수는 992명에 달한다. 2009년 기준 학생 457명당 학교상담사 1명을 배치한 미국, 3학급 이상 모든 공립 중학교에 상담사 1명을 배치한 일본에 비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인력이 부족한 탓에 경기도와 충청남도에서는 위클래스 전문상담사가 맡은 학교 외에 추가로 학교 한 곳에 순회 상담을 나간다. 전문상담사 2급 자격증이 있으나, 상담 역량을 기르고자 한 해에 연수비로 100만 원을 썼다. 월급은 178만 원에 불과하다.

인력 부족과 전문성 논란은 예정된 일이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명확한 채용 지침과 체계적인 관리 방식이 확립되지 못한 탓이다. 애초 전문상담교사를 중심으로 위프로젝트를 기획했던 교육부는 예산과 법적 문제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늘려 전문상담인력을 충원하는 정공법 대신 비정규직 전문상담사를 채용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그러던 중 2013년 정부 차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신분 전환을 촉구하자,

교육부는 무기계약직 전환과 함께 재계약 요건을 강화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격 미달을 이유로 대량 해직 사태가 벌어졌지만, 대부분 시·도 교육청은 기존 전문상담사 가운데 기존 미달 인원을 상대로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1~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결과적으로 전문상담사 집단의 자격 수준은 전보다 높아졌으나, 높아진 전문성에 걸맞은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른바 ‘중규직’(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형태라는 뜻)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을 빼면 이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각종 수당을 제외한 전문상담사 평균 월지급액은 위클래스가 176만원, 위센터가 186만원 선이다.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간신히 넘는 정도로 ‘전문적 상담 역량’을 요구하기엔 턱없이 낮다.

시·도 교육청은 점차 전문상담사 채용을 줄이고 전문상담교사 위주로 인력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연도별 전문상담교사 증가율은 위클래스 증가율에 한참 못 미친다. 실제로 전북교육청은 2013년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전원에게 계약 중단을 통보한 이후 ‘상담 인력 미배치 위클래스 비율’이 전국 최고치(68%)를 기록했다. 그 빈자리는 교과 교사와 위센터 순회상담으로 채우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만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문상담사가 전체 인력의 약 60%를 차지하는 만큼 연수 및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역량 관리와 그에 걸맞은 처우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을 사온 ‘비밀 유지’ 문제 역시 학교상담법이 없는 탓이 크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자의 즉각적인 신고 조치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한다. 반면 상담 내용의 비밀 유지와 관련해 그 조건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 상담사가 보호받지 못하니 상담 내용에서 드러난 조그마한 징후도 학교나 학부모에게 보고되기 쉽다. 이는 곧 학생들의 학교 상담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이어진다.²¹⁾

미국상담교사협회(ASCA)는 상담교사 대 학생의 비율로 1:250을 권장한다. 전문 상담 인력에 대한 채용을 늘려 턱없이 많은 상담사 1인당 학생의 비율을 줄이고,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6년 혹은 3년 동안 전담 상담교사와 지속적인 상담을 갖는 방법으로 하루 빨리 위클래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담당 상담교사와의 친밀감을 통해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문상담인력을 한정된 개월 수만 채우면 되는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전문 상담인력을 통해 상담사의 권한을 늘리고, 상담의 비밀 유지를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위클래스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을 줄여야 한다.

4.2. 학교 상담 지역연계 통합 서비스

독일은 연방국가로 16개의 자치주 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고 책임진다. ‘아동·청소년 지원법’에서 지자체 당국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전인식 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수업시수가 적어서 학생들이 교내보다 교외에 있는 시간이 많다. 그래서 학교 내에 따로 상담실을 운영하지는 않고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사설 기관들을 지원해 준다. 그 기관들은 전공자들을 채용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 학교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졌을 때 생활지도 차원에서 학생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는 있다. 좀 심각해지면 차라리 경찰에 연락을 하지, 학교에서 따로 처리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독일은 위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문제 상황에 따라 상담만으로 해결하는 때도 있고, 가정으로 전문 인력을 파견해 면담 및 현황 파악을 한 뒤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위기 상황일 때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21) 박강수·정준기, 위(Wee)프로젝트 10년, 갈 길 먼 학생 상담, 시사저널, 2017. 9. 29.,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561>>

보호시설에 보내도록 조치한다. 특히, 문제들이 매우 다양한 만큼 청소년상담실에서 이에 맞는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임상심리사, 교육치료사, 사회교육가,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이뤄 함께 일하며 사례에 따라서는 의사도 참여한다. 이들이 각 단계에 투입돼 진단을 하고 상담과 치료의 과정을 밟는다.

영국의 커넥션즈(Connexions)프로그램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질 높은 학습 기회를 누리고 훌륭한 성인 혹은 성공적인 직업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영국 내 13~19세의 청소년들에게 개인적 발달의 기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조언, 지도 및 접근에 관련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학습 기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성인기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하게 하는 것이다. 커넥션즈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학교, 직업 교육, 직업 훈련소, 지역사회 기관들, 종교 단체, 다양한 청소년 관련 기관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 혹은 지역사회 기관 등을 연계하여 청소년이 밀접하게 관련된 시스템에 개입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이 학습과 취업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셋째는 Personal Adviser(PA)라는 커넥션즈의 전담 인력이 청소년에게 정보 제공, 조언과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²²⁾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개개인에게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상담, 학습 및 교육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여가문화, 치료 및 보건, 법률지원, 주거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상담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방과 후에는 학교의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복지 정책은 이 둘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학교상담 지역연계 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학교상담 지역연계 통합서비스 모형이 운영될 경우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서비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위기청소년과 일반청소년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방적 접근에서 매우 용이하다. 그러나 학교상담 지역연계 통합서비스는 청소년들이 위기에 놓이기 전에 마음 놓고 찾아가 이야기할 장소와 대상을 제공할 수 있고, 이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개인 맞춤형으로 개인의 장점, 약점, 욕구 수준과 환경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셋째, 서비스 대상을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으로 확장하여 개입하는데도 용이하다. 또한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학부모가 굳이 학교로 찾아가지 않더라도 자녀의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청소년복지 지원기관이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학교상담이 방과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야간까지 상담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상담사는 학생들의 심리 정서, 성격, 성적, 사회성, 가족력 등에 대해서 쉽게 정보를 구하고 이를 통해서 학생에게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상담은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연계를 통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위기학생은 특별한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신체, 사회성, 발달, 학업, 경제, 진로 등에서 다양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는 이들을 상담할 인력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정책관련 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행정자치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22) 박강수·정준기, 앞의 글.

통일부, 법무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의 다양한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관련 행정업무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각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노동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등이 각 부처의 고유기능에 따라 청소년보호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는 큰 연계망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 기관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기관에서 주관하는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미국의 랩어라운드 프로그램처럼 다양한 영역의 지원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에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다면, 현재 인적, 물질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원사업의 대상자인 위기청소년의 서비스 편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²³⁾

학교상담은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노성덕 외²⁴⁾는 학교상담 지역연계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빈곤, 부적응 등으로 인한 위기청소년이 급증하고, 위기 기간 경과에 따라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심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존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 정부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관련 시설을 지역사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유기적 연계 없이 단편적, 개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파급효과가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계협력을 위한 정보공유 및 위기 상황에서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중앙 부처 간의 청소년 업무 조정, 연계협력을 위한 정책협의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단위의 연계협력을 위한 기관협의회 등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성과가 미흡하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에게 적시에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5. 결론

청소년 상담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청소년 전화 1388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다. 1388 상담을 통해 위로가 되었다는 청소년도 있지만, 상담사의 무성의한 태도와 교과서적인 답변에 큰 도움이 안 났다는 사례가 많았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어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해 발빠른 대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꿈드림 센터는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교육,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었다. 꿈드림 센터에 대한 예산 확충과 꿈드림 센터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 상담의 대표주자인 위클래스는 많은 학생들이 불신하는 문제가 있다. ‘상담실에서의 이야기는 비밀과 안전을 절대 보장합니다’라는 위클래스의 슬로건은 거짓이 되어버린 셈이다. 이는 비밀 유지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었다. 위클래스 상담사들은 1인당 담당 학생이 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업무를 떠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 학생에 대해 효율적이고 집중된 상담이 이루어지기에는 힘들고, 상담사들은 요일마다 학교를 순회하며 늘 시간에 쫓기고 있다. 미국의 사례처럼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가 한 학생을

23) 박미나, 학교상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87-107쪽.

24) 노성덕 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정착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60, 2011, 1-207쪽.

재학 기간 동안 전담하며 신뢰감 있는 상담을 형성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 내에서의 상담과 처방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 다룬 1388, 꿈드림, 위클래스 모두 인력이 부족하고, 최저시급을 받으며 1인당 지나친 업무를 담당하는 등 처우가 열악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의 채용을 통해 책임감 있는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취업난 시대에 인력이 부족한 청소년 상담센터의 확대 채용과 상담사들의 대우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배정이 이루어져 청소년 상담 시장도 활성화되고, 학생들도 안정적이고 믿음직스러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좋겠다.

참고 문헌

- 구하린, 코로나 이후 갈 곳 잃은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편견, 교육 소외 이중고,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나은미래, 2020. 9. 29., <<https://futurechosun.com/archives/50891>>
- 김효정, 청소년상담 1388 이용 청소년들 매년 증가, ENB교육뉴스방송, 2020. 3. 12., <<http://www.enb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19467>>
- 교육부 위(wee)프로젝트, <<https://www.wee.go.kr/home/app/app02001l.php>>, 2021. 5. 25.
- 꿈드림 홈페이지, <https://www.kdream.or.kr:446/user/sub01_1.asp>, 2021. 5. 27.
- 박강수·정준기, 위(Wee)프로젝트 10년, 갈 길 먼 학생 상담, 시사저널, 2017. 9. 29.,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561>>
- 박대로, 학교밖 청소년 전국 40만명… “예산·체험학습·처우개선 필요”, 뉴시스, 2019. 4. 16.,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408_0000613709>.
- 박미나, 학교상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박세진, 트위터엔 죽음의 해시태그가 있다, 투데이신문, 2021. 2. 10.,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245>>
- 박세진, 본질 못 짚은 정부 대응에 기댈 곳 없는 청소년들, 투데이신문, 2021. 2. 26.,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464>>
- 박*덕, 청소년상담 1388 통합 콜센터 운영 "1388전화를 통해 긴급지원까지 위기청소년 원스탑 서비스 지원", 국민참여예산 사업진행현황, <https://www.mybudget.go.kr/howsItPrsng/bsnsPropseSttusDetail?rcept_year=2020&bsnsPropseIndx=3743>, 2021년 5. 27
- 윤상민, 작년 학교폭력 3만3168건…상담 돕는 ‘위클래스’ 설치는 61%에 그쳐, 아주경제, 2019. 10. 16., <<https://www.ajunews.com/view/20191015095903974>>
- 이영규, 경기도 'Wee클래스' 무늬만 상담기관…상담후 75% 자살, 아시아경제, 2018. 8. 15., <<https://www.asiae.co.kr/article/2014101515112357684>>
- 이영일, 청소년전화 1388 상담 적절인가, 시민사회신문, 2019. 11. 15일., <<http://www.ingo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07>>
- 인진연, ‘상담만 하면 학교 소문’…충북 한 고교 위클래스 ‘논란’, 중앙일보, 2019. 2. 16., <<https://news.joins.com/article/23375637>>.

최현주, 학교밖 청소년, 갈수록 느는데 지원은 '걸음마', 충북인뉴스, 2019. 4. 19..

〈<http://www.cb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678>〉.

허민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정책분석모델개발 보고서 2020-1, 제15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Hardgrove·Abby·Kirrily Pells·Boyden Jo, and Paul Dornan, Youth Vulnerabilities in Life Course Transition, 2014 UNDP Development Report Office, 2014.



대학생의 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 방안

문헌정보학과 김세*

목 차

1. 서론-연구동기 및 목적
 2. 불안의 심리적 의미와 대학생의 심리적 불안 현황
 - 2.1. 불안의 심리적 의미와 증상
 - 2.2. 대학생의 심리적 불안 현황
 - 2.2.1. 대학생의 우울증, 불안장애 증가
 - 2.2.2. '대 2병'의 유행
 - 2.2.3.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휴학 증가
 3. 불안의 원인
 - 3.1. 개인적 측면
 - 3.1.1. 학업문제
 - 3.1.2. 교우관계 문제
 - 3.1.3. 졸업 후 진로 문제
 - 3.1.4. 금전 문제
 - 3.2. 사회적 측면
 - 3.2.1. 학생 심리 상담센터 부족 및 인력 부족
 - 3.2.2. 취업이 어려운 사회 현실
 - 3.2.3. 고액 대학 등록금 문제
 4. 대응 방안
 - 4.1. 개인적 노력
 - 4.1.1. 학생 상담 서비스 이용
 - 4.1.2. 다양한 활동 참여
 - 4.1.3. 진로 특강, 취업 프로그램 참여
 - 4.1.4. 대학생 지원금 활용
 - 4.2. 사회적 노력
 - 4.2.1. 학생 심리 상담센터 확대 및 활성화
 - 4.2.2.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 4.2.3.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5. 결론
- 참고 문헌

1. 서론-연구동기 및 목적

최근(2021년 기준) 연예 뉴스를 보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는 연예인들을 볼 수 있다. 스타들의 정신적 질환 고백은 단순한 놀라움 이외에도 대중들에게 이러한 질병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한다. 삶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사소한 것으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의 병을 겪은 적이 있지 않았는가?

‘실제로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이다.’ 이는 18세 이상의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은 정신과적 질환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 실태조사 결과값을 통해 정신적 증상은 살면서 누구나 경험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 시기는 독립된 어른으로 성장하는 시기이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대학생 시기가 중요하지만 많은 대학생이 불안의 증상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언론에 보도되는 “우울한 청년... 대학생 75% 불안 증상”²⁾, “대학생 41% 심리적 불안감으로 고통”³⁾이라는 기사의 헤드라인을 통해 우리는 대학생 불안의 심각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안의 심각성에 주목할 뿐 해당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는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불안의 심리적 의미와 대학생의 심리적 불안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불안의 심리적 의미와 대학생의 심리적 불안의 현황

2.1. 불안의 심리적 의미와 증상

불안의 사전적 정의는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함을 의미한다⁴⁾.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상태를 지니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지속해서 나타나 개인이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다고 느낀다면 ‘불안장애’를 겪는다고 말한다.

불안장애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을 통칭한다. 불안장애에 해당하는 질환으로는 공황장애, 특정 공포증, 사회공포증, 강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범불안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 이러한 질환을 겪으면 불안감 때문에 항상 긴장하게 되고, 자율신경이 날카로워져 업무에 집중하기 힘든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등의 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⁵⁾.

1)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 24쪽.

2) 구은서, 우울한 청년... 대학생 75% 불안 증상, 한국경제, 2018. 5. 1.,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50183871>>

3) 윤혜주, 대학생 41% 심리적 불안감으로 고통, 팝콘뉴스, 2018. 5. 3., <<http://www.popcornnews.net/18388>>

4) 국립국어원, 불안,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36072&searchKeywordTo=3>

5) 삼성서울병원, 질환백과, 불안장애, <http://www.samsunghospital.com/home/healthInfo/content/contenView.do?CONT_SRC=CMS&CONT_SRC_ID=09a4727a8000f255&CONT_CLS_CD=001020001001&CONT_ID=1615>

6) 삼성서울병원, 질환 및 검사, 뇌/신경/정신질환 우울증, <http://www.samsunghospital.com/home/hbv/disease/info/view.do?CONT_ID=2868&CONT_SRC_ID=09a4727a8000f2ec&CONT_SRC=CMS&CONT_CLS_CD=00102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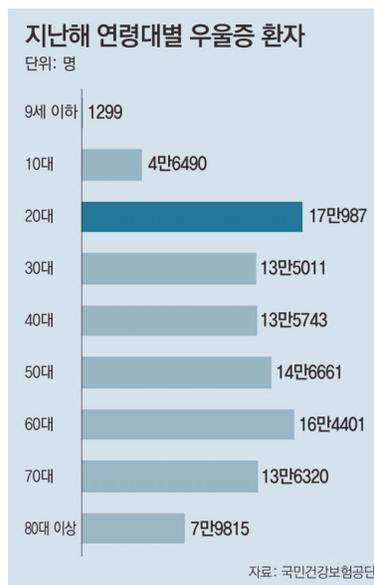
2.2. 대학생의 심리적 불안 현황

2.2.1. 대학생의 우울증, 불안장애 증가

우울증은 기분을 조절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겨 오랫동안 심각한 양상의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불면증, 사고능력 및 집중력 저하, 만성피로감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면 개인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⁶⁾.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을 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우울증 환자 수가 2년 단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20년 ‘연령대별 우울증 환자 현황’ <그림 1>을 보면 20대의 환자 수가 170,987명으로 가장 많다⁷⁾. 이러한 자료를 통해 우리는 20대 청년인 대학생들의 우울증 증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인원이 353만 9천 212명이라고 한다. ‘불안장애(해당 자료에서는 질병코드 F40, F41, F06.4, F93.1, F93.2에 해당하는 질병을 의미함) 진료 인원(2014년~2019년 8월)’에 따르면 연령대별 불안장애 증가율은 20대가 86%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⁸⁾. 또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표 3>에 따르면 20~29세 다빈도 질병 중 2위가 기타 불안장애이다⁹⁾. 이는 20대의 불안장애가 발생 확률이 높은 질병이며 많은 청년이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연령대별 우울증 환자 현황

7) 김소민·이미지·이지윤, 100만 넘는 우울증 환자...20대 가장 많아, 동아닷컴, 2021. 4. 6.,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406/106260124/1>>
 8) 강애란, 최근 5년간 불안장애 환자 354만 명...20대 환자 86% 증가, 연합뉴스, 2019. 10. 2.,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2040800017>>
 9) 의료정보융합실 의료정보관리부, 연령대별 많이 나타나는 정신건강 질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12. 13., <<http://www.hira.or.kr/bbsDummy.do;INTERSESSIONID=xXeM1HXHAjcARVLpzoqZhidjybZnbf4hDVGdi-GM-zMQdKRhFCuZ!162833529!737859823?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9731>>

<표 1> 20대 우울증 환자 추이 현황

(단위: 명)

연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환자 수	60,1850	78,810	116,238	170,987

<표 2> 불안장애 진료인원(2014년~2019년 8월)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1월 ~2019년 8월	14년 대비 증가율	합계	
불 안 장 애	계	533,619	559,103	601,122	638,437	690,735	516,196	29.4%	3,539,212
	10대 미만	2,278	1,971	2,209	2,038	2,005	1,337	-1.2%	11,838
	10대	12,576	12,463	14,344	15,187	18,428	11,716	46.5%	84,714
	20대	35,746	39,441	48,619	56,242	66,573	49,590	86.2%	295,911
	30대	57,246	60,945	68,250	75,115	83,531	63,157	45.9%	408,244
	40대	89,325	92,658	98,802	106,255	112,980	86,467	26.5%	586,487
	50대	116,692	118,730	123,221	126,967	133,907	98,077	14.8%	717,594
	60대	219,756	232,895	245,977	256,633	273,311	205,852	24.4%	1,434,424

<표 3> 20~29세 다빈도 질병

(단위: 명)

순위	질병명		환자수
1	F32	우울에피소드	65,141
2	F41	기타 불안장애	37,093
3	F43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17,338
4	F31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13,912
5	F20	조현병	13,653
6	F51	비기질성 수면장애	10,051
7	F42	강박장애	7,029
8	F40	공포성 불안장애	6,799
9	F33	재발성 우울장애	5,610
10	F90	운동과다장애	5,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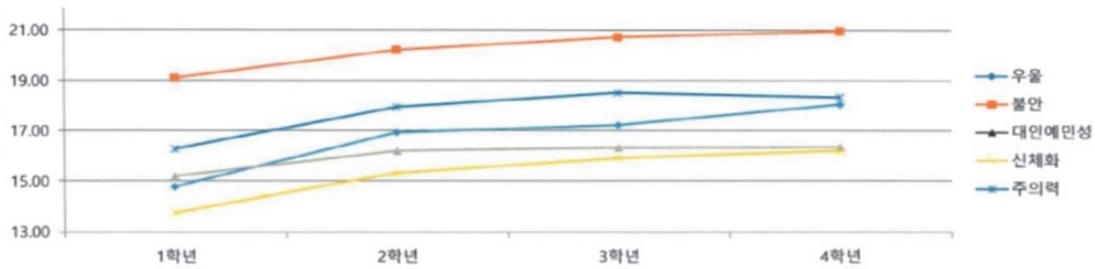
2.2.2. '대 2병'의 유행

'대 2병'은 전공에 대한 회의감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2019년 잡코리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64.6%가 '대 2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조사한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전공을 다시 정할 수 있다면 현재의 전공을 선택하겠느냐고 질문한 결과 '다시 선택해도 지금 전공을 택할 것'은 38.7%, '다른 전공을 택할 것'은 39.9%,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피한 응답은 21.5%였다. 진로를 결정했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진로를 결정,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20.4%, '대강의 방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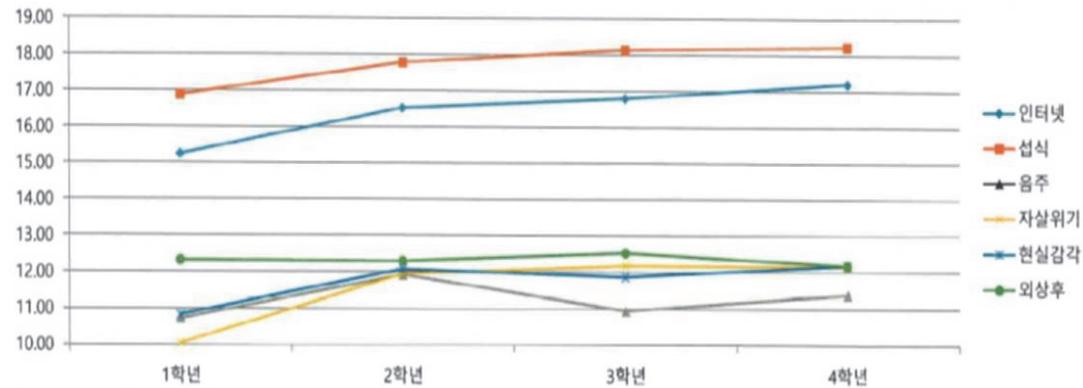
설정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6.5%, '진로에 관심이 없거나 포기한 상태'는 2.3%였다. 이는 상당수의 대학생이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전공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¹⁰⁾.

대학생들이 대 2병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화여자대학교 정신건강 조사 보고서(2017) 결과에 따르면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취업 스트레스와 삶의 목표상실로 인해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대 2병을 경험한다고 한다. 실제로 '학년별 일반 심리영역에서의 대 2병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 2>를 통해 대학교 2학년 때 학생들이 과도하게 우울과 불안의 증상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년별 특수 심리영역에서의 대 2병 연구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 3>을 보면 대 2병이 섭식장애나 인터넷 중독, 자살 분위기와 같은 특수 영역에서의 심리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2병은 대학생의 심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심각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¹¹⁾.



<그림 2> 학년별 일반 심리영역에서의 대2병 연구 결과



<그림 3> 학년별 특수 심리영역에서의 대 2병 연구 결과

2.2.3.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휴학 증가

휴학은 질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학교에 적을 둔 채 일정 기간 학교를 쉬는 일을 말한다¹²⁾. 각 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휴학제도가 있다. 본교(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도 휴학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휴학의 종류에

10) 잡코리아, 취업뉴스, 대학생 64.6% 취업진로에 불안 초조... '대2병', 2019. 4. 24.,

<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5541>

11) 김동일· 송지연· 오혜영,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심리적 강인성 및 인성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최근 10년간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제1권 제1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 76-77쪽.

12) 국립국어원, 휴학,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는 일반휴학(일반휴학, 질병휴학 통산 4년/편입생은 통산 2년), 질병 휴학, 군 휴학(해당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군 휴학은 남학생 최대 4년, 여학생 최대 3년), 모성보호휴학(최대 2년), 창업휴학(최대 2년)이 있다¹³⁾.

학생들이 실제로 휴학을 신청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이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2007~2020)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를 보면 매년 많은 학생이 휴학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휴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시된 <표 5>를 보면 ‘병역 의무 이행’을 제외했을 때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가 휴학의 가장 큰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2016 전국 대학생 취업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의 59.9%가 ‘취업난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¹⁵⁾.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로 인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낮추고자 휴학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휴학 경험 있음’에 응답한 사람

‘휴학 경험 있음’에 응답한 사람(15-29세) 수 (단위: 천명)					
연도	2016.5	2017.5	2018.5	2019.5	2020.5
성별					
전체	1,272	1,262	1,298	1,360	1,373
남자	897	917	913	957	922
여자	375	345	385	403	451

<표 5> 휴학 사유(2016년~2020년 5월)

휴학사유	병역 의무이행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			여학연수 및 인턴 등 현장 경험			학비(생활비) 마련			기타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6.05	869	869	-	343	113	230	194	75	119	145	82	63	68	28	41
2017.05	880	880	-	382	159	223	175	66	109	138	79	59	56	15	41
2018.05	869	869	-	384	141	242	167	53	114	125	71	54	86	25	61
2019.05	912	912	-	348	110	238	187	52	135	144	96	48	120	35	85
2020.05	886	886	-	361	127	234	188	49	139	152	73	79	135	35	99

13) 상명대학교, 학적변동, 휴학, <<https://www.smu.ac.kr/ko/life/leave.do>>

1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표,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 휴학경험유무, 휴학사유(복수응답), 평균휴학기간(대졸자),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0S&conn_path=I2>

15) 문송이·정은미, 2016 전국 대학생 취업준비 실태조사,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2016. 8. 3., <<https://www.20slab.org/Archives/14917>>

3. 불안의 원인

3.1. 개인적 측면

3.1.1. 학업 문제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무엇이 있을까? 대학생할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표 6>을 살펴보면, 총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1.43 ± 0.96 점이었다. 대인관계 전체의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0.67점이었고, 동성 친구, 이성 친구, 가족관계, 교수 관계의 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각각 0.47점, 0.43점, 0.65점, 1.11점이었다. 당면문제 전체의 스트레스 점수는 2.08점이었고, 학업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문제, 가치관 문제의 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각각 3.28점, 1.04점, 2.03점, 1.97점으로 나타났다¹⁶⁾. 생활 스트레스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학업 문제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대학생할 속에서 학업으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불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공부 방법에 대한 것이다. 공부 방법에 대한 혼란과 불안은 1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수능’이라는 목표가 있었고, 학원의 스케줄에 따라 공부를 해왔다. 즉, 주도적으로 학습을 계획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공부하는 수동적인 존재였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한 이후부터는 스스로 시간표를 짜고, 공부해야 하는 환경을 접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1년 사이에 상반된 환경을 경험한 학생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혼란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경험한다고 한다. 실제로 매년 학기 초가 되면 학교 새내기 게시판에는 ‘00수업 교재는 뭐가요?’, ‘이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등 신입생들이 선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¹⁷⁾.

두 번째는 과제에 대한 불안이다. 2017년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실시한 ‘개강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 학기 대학생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점은 ‘성적, 과제 등 학업적 부담’이 42.4%로 1위를 차지했다¹⁸⁾. 학업의 연장선으로 부여되는 과제가 학생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학생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과제가 부여되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함을 느낀다. 또한, 과제의 마감 기한이 다가올수록 불안함을 느낀다.

세 번째로 시험에 대한 불안이다. 시험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학기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형태로 총 2번 시행하고 있다. 한 번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서 받은 결과로 자신의 학습 역량이 평가되고, 점수를 통해 자신의 성적이 측정되므로 학생이 부담감과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대학교의 경우에는 선택형 시험, 논술형 시험, 자기주장형 시험, 오픈 북 시험 등 다양한 시험 방법이 있어 학생이 과목별 시험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수업자료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제공하는 보조 학습 자료도 참고해야 하므로 공부해야 할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다양한 평가 방식과 늘어난 학습량으로 인해 대학생이 시험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과 불안함이 가중된다.

16) 김유정·전미경, 대학생의 Type D 성격 유형에 따른 대학생할 스트레스, Korean J Stress 25, 2017, Korean Society of Stress Medicine, 190쪽.

17) 홍상지, “대학만 붙으면 될 줄 알았는데”...‘새춘기’ 호소하는 새내기들, 중앙일보, 2017. 4. 11., <<https://news.joins.com/article/21464056>>

18) 정은혜, 우리나라 대학생 개강 스트레스 1위는 ‘과제’ 때문, 중앙일보, 2017. 4. 7., <<https://news.joins.com/article/21450826>>

<표 6> 대학생활 스트레스

변수	항목	n(%) of M±SD
생활 스트레스	합계	1.43±0.96
	대인관계 스트레스	0.67±0.82
	동성친구	0.47±1.02
	이성친구	0.43±0.86
	가족관계	0.65±1.11
	교수관계	1.11±1.68
	당면문제 스트레스	2.08±1.33
	학업 문제	3.28±2.20
	경제 문제	1.04±1.37
	장래 문제	2.03±1.66
	가치관 문제	1.97±1.97

3.1.2. 교우관계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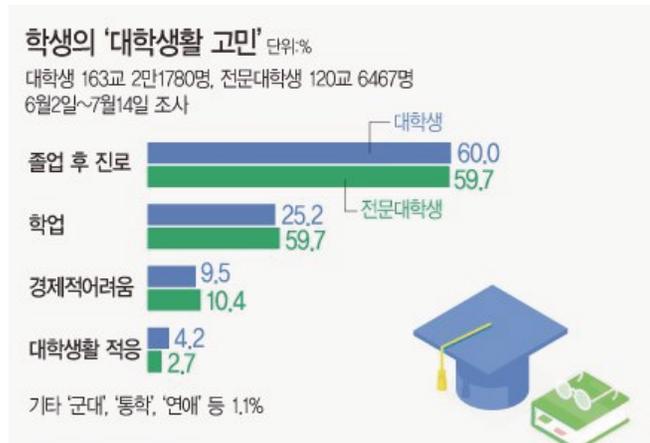
2015년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대인관계 문제가 학업, 진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고등학교와 다르게 각자의 시간표대로 생활하는 대학교에 서는 학급 친구가 존재하지 않아 신입생이 학기 초반에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초조함, 대인관계에서의 불안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친한 친구가 없다면 팀플을 같이할 친구를 구하지 못해 고생하거나 혼자 학식을 먹는 경우 등 혼자 생활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대학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심리적 상처로 남을 수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¹⁹⁾.

3.1.3. 졸업 후 진로 문제

2017년 교육부가 ‘대학생활 고민’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림 4>를 보면 대학생의 최대고민은 ‘졸업 후 진로’인 것으로 밝혀졌다. 졸업 후에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²⁰⁾. 그러나 학생들이 졸업요건을 다 채워도 졸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를 졸업 시기를 연기하는 것으로 ‘졸업유예’라고 표현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위취득 유예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을 기준으로 졸업 유예를 선택한 대학생은 13,185명으로 12,157명이었던 2017년 2월에 비해 1000여 명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²¹⁾. 이들이 이처럼 졸업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일까?

19) 윤한슬, “사람 사귀기 어려워요”...대인관계 장애 겪는 신입생, 사회 초년생 해법은, 한국일보 뉴스, 2017. 5. 1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5181485029215>>
 20) 백영미, 대학생최대고민 10명 중 6명 '졸업 후 진로'...4년제生 취업희망 1순위 '공무원·교사', 중앙일보, 2017. 12. 13., <<https://news.joins.com/article/22200299>>
 21) 김민지, “8년 만에 대학 졸업이요? 흔해요”... 취업난에 쌓여가는 ‘졸업유예생’, 헤럴드경제, 2019. 12. 1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9000236>>



<그림 4> 대학생활 고민

가장 큰 이유는 졸업 후 공백기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졸업 전에 취직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 후에도 취업 준비를 위해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졸업 후의 공백기가 길어지면 대학 졸업이 오히려 취업의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면접 전형에서 면접관이 “대학 졸업하고 뭐 했어요?”처럼 졸업 후의 공백기 시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대부분의 학생들을 이러한 질문에 “취업준비 했어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고, 졸업 후의 공백기가 불합격의 요인으로 작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²²⁾. 이처럼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졸업 후 진로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4 금전 문제

대학생들에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금전문제는 등록금일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733.5천 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9,761.0천 원), 예체능(7,734.8천 원), 공학(7,210.8천 원), 자연과학(6,795.8천 원), 인문사회(5,928.8천 원) 순이다²³⁾.

2016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등록금 부담 정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담이 된다”가 54.4%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매우 부담이 된다”가 24.8%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원)생의 약 80%가 현재의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부담 정도를 설립유형과 전공계열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설립유형별로는 사립대 재학생이 국·공립대 재학생에 비해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전공계열별로는 예체능, 자연/의약, 공학 계열이 인문/사회, 경상/법률 계열보다 부담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응답했다²⁴⁾.

등록금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생활비도 학생들에게 부담된다고 한다. 대학생 4명 중 3명은 생활비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감당하고 있고, 서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달에 최소 104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지역 원룸의 월세는 평균 53만 원(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금전적으로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에서 자취하며 살아가는 대학생들은 높은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다²⁵⁾.

22) 위의 글.

23) 대학알리미, 2021년 4월 대학정보공시 보도자료, 2021. 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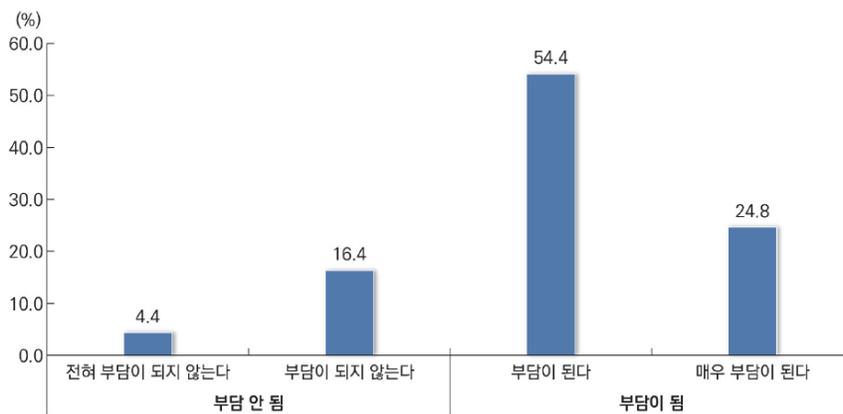
<https://www.academyinfo.go.kr/brd/brd0520/selectDetail.do?ntce_sntc_sno=115&bbs_gubun=rfbr&no=114#none>

24) 이종원 외,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6, 166-168쪽.

<표 7> 등록금 부담 정도(평균값): 하위집단별

"p< .01, ""p< .001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정)
전체		1461	3.00	.77	
설립유형	국(공)립	504	2.80	.80	t= -7.17"
	사립	957	3.10	.73	
전공계열	인문/사회(a)	435	2.99	.74	F= 3.64" (e, c, d> c, d, a> a, b)
	경상/법률(b)	276	2.86	.81	
	자연/의약(c)	279	3.05	.75	
	공학(d)	415	3.03	.76	
	예체능(e)	56	3.18	.81	



<그림 5> 등록금 부담 정도

3.2. 사회적 측면

3.2.1. 학생 심리 상담센터 부족 및 인력 부족

대학에는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있다. 그런데 '2018년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자체 조사' 결과, 대학 내 상담센터가 설치된 학교가 전국 119개교에 불과하다고 한다.

전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가 전국 115개교(일반대학교 84개교, 전문 대학교 29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6년 대학 학생생활상담센터 관련 기관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임 상담원 수는 일반, 전문대학교 모두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일반대학교 39.5%, 전문대학교 62.1%) 전임 상담원 없이 파트타임 상담원을 채용해 운영하는 경우(일반대학교 22.1%, 전문대학교 17.2%)가 그다음으로 많았다²⁶⁾. 실제로 고려대학교의 경우 상담 수요가 많은 학기 초에는 접수 후 한 달이 넘어야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²⁷⁾.

25) 김연서, 서울 원룸 평균 월세 53만 원...갈 곳 잃은 대학생들, 스냅타임, 2020. 1. 15.,

<<http://snaptime.edaily.co.kr/2020/01/%EC%84%9C%EC%9A%B8-%EC%9B%90%EB%A3%B8-%ED%8F%89%EA%B7%A0-%EC%9B%94%EC%84%B8-53%EB%A7%8C%EC%9B%90-%EA%B0%88-%EA%B3%B3-%EC%9E%83%EC%9D%80-%EB%8C%80%ED%95%99%EC%83%9D%EB%93%A4/>>

26) 맹미선, 우울한 대학 상담 센터 "1인 상담소 대부분", 코메디닷컴, 2018. 5. 25.,

<<http://kormedi.com/1227433/%EC%9A%B0%EC%9A%B8%ED%95%9C-%EB%8C%80%ED%95%99-%EC%83%81%EB%8B%B4-%EC%84%BC%ED%84%B0-1%EC%9D%B8-%EC%83%81%EB%8B%B4%EC%86%8C-%EB%8C%80%EB%B6%80%EB%B6%84/>>

3.2.2. 취업이 어려운 사회 현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세~2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최종학력(중퇴자) 중 미취업자는 한 해 전보다 12만 명 늘어난 166만 명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며 졸업·중퇴자 478만7천 명 가운데 35%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⁸⁾.

‘미취업 기간’을 나타내는 <표 8>을 보면 1년 미만이 57.5%로 한 해 전보다 1.6%p 늘었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16.9%로 1.3%p 줄었다²⁹⁾.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취업 준비 기간이 1년~2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

취업이 어려운 이유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우선으로 지적되는 요인은 노동시장에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고임금과 양호한 근무조건이 보장되는 1차 노동시장과 이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2차 노동시장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1차 노동시장의 조건을 선호하며 2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3D(3D: Difficult, Dangerous, Dirty)업종을 피하려고 한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표 930>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개선되고 있지만 약 30% 정도의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 두 번째로, 취업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취업은 스펙 중심의 사회라고 지칭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력서상에서 직무능력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어학연구, 자격증 등의 활동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한다. 실제로 첫 취업 소요 기간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표 1031>을 보면 2020년 기준 첫 취업에 평균 10.0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이지만 10개월이라는 시간은 1년에 가까운 시간이므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표 8> 미취업 기간(*취업경험이 없는 경우는 졸업·중퇴 이후부터 계산)
(단위: 천 명, %, %p)

	졸업·중퇴 미취업자	1년 미만			1년 이상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 미만				
2019. 5	1,541 (100.0)	861 (55.9)	661 (42.9)	200 (13.0)	680 (44.1)	280 (18.2)	140 (9.1)	260 (16.9)
2020. 5	1,660 (100.0)	955 (57.5)	726 (43.7)	229 (13.8)	706 (42.5)	281 (16.9)	146 (8.8)	279 (16.8)
증감	120 (-)	94 (1.6)	66 (0.8)	28 (0.8)	26 (-1.6)	1 (-1.3)	6 (-0.3)	19 (-0.1)

27) 이준성, 늘어나는 상담 신청...전문인력 부족한 학생상담센터, 고대신문, 2019. 3. 24.,
<<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30208>>
28) 정수연, 졸업했는데 일자리 없는 청년 166만 명, 통계 작성 이래 최다, 연합뉴스, 2020. 7. 22.,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2081400002>>
29) 통계청 보도자료,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12쪽.
30)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Archive, 2020년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4.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시간, 근속시간,
<<https://www.kli.re.kr/kli/selectBbsNttView.do?key=44&bbbsNo=10&nttNo=135401&searchY=&searchCtgrY=&searchDplc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31) 통계청, 앞의 글, 13쪽.

<표 9> 비정규직 형태별 정규직 대비 상대 시간당 임금 수준 추이(정규직=100, 단위: %)

연도	정규직	비정규직
2016	100.0	65.4
2017	100.0	66.9
2018	100.0	67.9
2019	100.0	68.9
2020	100.0	67.0

<표 10> 첫 취업 소요기간

(단위: 천명, %, %p)

	졸업·중퇴후 취업 유경험자	임금 근로자	첫 취업 소요기간별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
			3개월미만	3~6개월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년 이상	
2019. 5	4,168	4,070 (100.0)	2,015 (49.5)	522 (12.8)	405 (9.9)	476 (11.7)	266 (6.5)	387 (9.5)	10.8개월
2020. 5	4,070	3,963 (100.0)	1,950 (49.2)	532 (13.4)	449 (11.3)	471 (11.9)	251 (6.3)	309 (7.8)	10.0개월
증감	-98	-107 (-)	-64 (-0.3)	11 (0.6)	44 (1.4)	-5 (0.2)	-15 (-0.2)	-77 (-1.7)	-0.8개월

3.2.3. 고액 대학 등록금 문제

OECD가 발표한 ‘2019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에 따르면 2018학년도 한국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은 8,760달러로, 조사대상 국가(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9개국 등 46개국 대상) 중 4번째로 많았다. 미국이 2,9478달러로 등록금이 가장 비쌌고, 호주가 9,360달러로 그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4,886달러(약 590만 원)로 조사 대상 국가 중 8위를 기록했다.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저렴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등록금 지급에 대한 학생들의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

정부와 민간이 교육기관에 투입하는 금액이 개별 학생에게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등교육 부문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 486달러로 OECD 평균인 1만 5,556달러의 3분의 2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기준 전국 192개 사립대학 교비 회계 지출 중 학생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연구 및 학생 지원 경비’ 비중은 31.5%(5조 8,755억 원)였다. 이 수치는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비싼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 부담하는 등록금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대학 등록금의 재정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³²⁾.

32) 정석준, OECD 국가 중 대학 등록금 상위권이지만... ‘학생 위한 사용 ↓’, 아주경제, 2020. 6. 22., <<https://www.ajunews.com/view/20200622074453068>>

4. 대응 방안

4.1. 개인적 노력

4.1.1. 학생 상담 서비스 이용

불안을 오래 내버려 두거나 별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지름길이다. 불안은 심리적·정신적 질환이므로 마음의 병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이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학생이 이용하기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은 학교 내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본교(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경우 학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고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이곳에 방문해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입생을 위한 MMPI-2 다면적 인성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정신 건강을 쉽게 진단해 볼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초기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³⁾.

대학 내 상담센터가 아니더라도 국가 주도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정책의 하나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상담전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서비스는 전화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상담과 지지, 정신건강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각 시도별 운영기관이 있어 직접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³⁴⁾. 이처럼 대학 자체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개인의 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다.

4.1.2. 다양한 활동 참여

대학에서 교우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도 방법이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이다. 동아리는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전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즘에는 대학 내 동아리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연합 동아리가 있다. 폭넓은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연합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이 교우관계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학과 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교우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동기들과 친해질 뿐만 아니라 선배들과도 친밀해질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해 교우관계로 고민하고 있다면 걱정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관계 확장 측면과 더불어 자기계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

4.1.3. 진로 특강, 취업 프로그램 참여

2019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한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에 따르면 대학교의 경우 575개의 조직, 전문대학의 경우 286개의 조직이 대학 진로 및 취·창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6>과같이 대학교 전체 조직의 52.9%가 진로 및 취·창업지원 종합 기능 조직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은 47.9%로 나타났다³⁵⁾.

33) 상명대학교, 상담센터안내, 센터소개, <<https://www.smu.ac.kr/center/intro/intro.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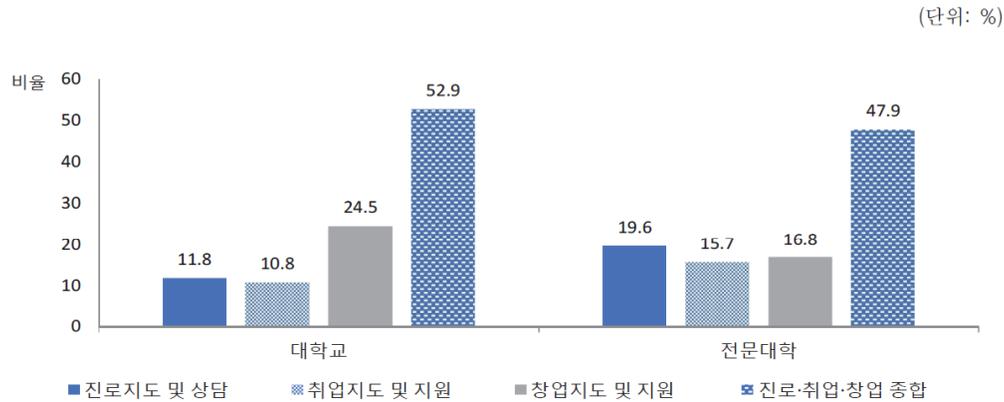
34) 보건복지부, 정책, 정신건강정책,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30401&PAGE=1&topTit](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30401&PAGE=1&topTitle=)

35) 류지영·이재열·정윤경·정지은·한상근, 진로교육 현황조사: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

본교(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도 학생들을 위한 ‘SM challenge’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취업 프로그램, 취업 실전지원 서비스, 상담 서비스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학년별 활동을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³⁶⁾.

본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학교 내 진로·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해 진로, 취업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주) 응답 수: 대학교 196개교, 전문대학 132개교

〈그림 6〉 대학 진로 및 취·창업지원 담당 조직 현황

4.1.4. 대학생 지원금 활용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들은 각종 청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가는 청년지원정책의 하나로 학자금·일자리·소득·주거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청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³⁷⁾. 국가뿐만 아니라 대학도 대학 내 장학제도를 마련해 학생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각종 기업이 주최하는 공모전에 참가하는 것이다. 공모전에 참가하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관심을 넓힐 수 있고, 동시에 활동 참여로 인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2. 사회적 측면

4.2.1. 학생 심리 상담센터 확대 및 활성화

‘3.2.1. 학생 심리 상담센터 부족 및 인력 부족’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 내 상담센터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정부는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상담센터의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대학 마음 건강 지원 전담 및 「학교보건법」 제11조의 조치 등 이행을 위해 모든 대학에 ‘학생상담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별(재학생 수, 지역, 주요 상담수요 증가 분야 등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6-7쪽.

36) 상명대학교, SM challenge e-포트폴리오, <<https://smcareer.smu.ac.kr>>

3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청년지원정책,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193>>

목표 설정 전문 상담 인력의 연차적 증원 및 보강' 대안을 마련했다. 상담인력을 재학생 1,000명당 1명 수준(재학생 1,000명 미만 교의 경우에도 1명 이상 확보)하여 상담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상 속 학생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확대' 등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³⁸⁾.

4.2.2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3.2.2. 취업이 어려운 사회 현실'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분위기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고, 청년 취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이중적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임금공시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하여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산업별·지역별 차원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의 대폭 확대, 일정 기간의 사회보험료 환급 등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의 실질적 혜택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있다면 '대기업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고, 노동시장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³⁹⁾.

두 번째로 스펙 위주의 취업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 분위기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채용 과정(입사지원서,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의 항목을 걷어내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인 '블라인드 채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채용방식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에서 직무능력의 중요성을 강화해 스펙 위주의 취업 분위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⁴⁰⁾.

4.2.3.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3.2.3. 비싼 등록금'에서 언급되었듯이 많은 대학생이 등록금으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현재(2021년)까지도 사회에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학생이 느끼는 부담감을 고려한다면 등록금의 액수를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등록금 감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각 대학의 재정문제, 정부의 예산 문제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등록금의 부담에 대해 정부는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해 '등록금 경감률=(정부 + 대학 장학금 총액) / 등록금 총액 × 100)'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11년 17.5%에서 2020년 52.2%로 수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¹⁾. 이외에도 근로장학금, 우수 장학금 등의 제도를 통해 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⁴²⁾. 이처럼 정부 차원의 등록금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기업 등 학생들이 금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 제도들이 확대된다면 등록금에

38) 관계부처 합동, 사회관계장관회의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안), 2021, 4-8쪽.

39) 김유빈, 청년고용의 현실, 그 해결의 실마리, 월간 노동리뷰 144호, 한국노동연구원, 2017, 19쪽.

40)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80900662

41)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교육부, 2021, 2쪽.

42) 위의 글, 5-6쪽.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감면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학생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대학 진학 및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⁴³⁾. 이를 통해 학생이 대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졸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 금액 상환을 위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21학년도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0%로 전년도 대비 0.15%p 인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7년간(15년~21년)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을 나타내는 <표 1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15년 1학기 이후 지속적으로 대출 금리가 감소되었다. 앞으로도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졸업 이후 대출 상환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도 줄어들 것이다⁴⁴⁾.

마지막으로는 대학이 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대학 등록금은 금액 대비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적고, 각 대학이 등록금을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가 대학의 재정운영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등록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공개한다면 학생들이 등록금의 가치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반값 등록금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여러 요인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등록금 액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 최근 7년간(15년~21년)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2015		2016		2017		2018~2019		2020		2021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9%	2.7%	2.5%		2.25%		2.2%		2.0%	1.85%	1.70%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불안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했다. 우선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론에서는 불안의 심리적 의미와 대학생의 심리적 불안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생각보다 많은 대학생이 불안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황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불안을 겪게 된 원인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개인적 차원으로는 학업 문제, 교우관계, 졸업 후 진로 문제, 금전 문제가 있었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학생 심리 상담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영, 취업이 어려운 사회 현실, 비싼 등록금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또는 사회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의 경우 학생 상담 서비스의 이용, 다양한 활동 참여,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 지원금 활용의 방법을 택해볼 수 있었다. 사회는 학생 상담센터를 활성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불안은 개인의 정신적 질환이므로 증상의 측면에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은 일반적인 방법일 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43)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2021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교육부, 2021, 1쪽.

44) 위의 글, 5쪽.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정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차원의 대응 방안이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원인에 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한다면 대학생의 불안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애란, 최근 5년간 불안장애 환자 354만 명.., 20대 환자 86%증가, 연합뉴스, 2019. 10. 2.,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2040800017>>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교육부, 2021.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2021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교육부, 2021.
- 구은서, 우울한 청춘.... 대학생 75% 불안 증상, 한국경제, 2018. 5. 1.,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50183871>>
- 김동일·송지연·오혜영,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심리적 강인성 및 인성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최근10년간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제1권 제1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
- 김민지, “8년 만에 대학 졸업이요? 흔해요”... 취업난에 쌓여가는 ‘졸업유예생’, 헤럴드경제, 2019. 12. 1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9000236>>
- 김소민·이미지·이지윤, 100만 넘는 우울증 환자...20대 가장 많아, 동아닷컴, 2021. 4. 6.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406/106260124/1>>
- 김연서, 서울 원룸 평균 월세 53만원...갈 곳 잃은 대학생들, 스냅타임, 2020. 1. 15.,
 <<http://snaptime.edaily.co.kr/2020/01/%EC%84%9C%EC%9A%B8-%EC%9B%90%EB%A3%B8-%ED%8F%89%EA%B7%A0-%EC%9B%94%EC%84%B8-53%EB%A7%8C%EC%9B%90-%EA%B0%88-%EA%B3%B3-%EC%9E%83%EC%9D%80-%EB%8C%80%ED%95%99%EC%83%9D%EB%93%A4/>>
- 김유빈, 청년고용의 현실, 그 해결의 실마리, 월간 노동리뷰 제144호, 한국노동연구원, 2017, 15-21쪽.
- 김유정·전미경, 대학생의 Type D 성격 유형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 Korean J Stress 25, 2017,
 Korean Society of Stress Medicine, 2017, 188-194쪽.
- 대학알리미, 2021년 4월 대학정보공시 보도자료, 2021. 4. 30.,
 <https://www.academyinfo.go.kr/brd/brd0520/selectDetail.do?ntce_sntc_sno=115&bbs_gubun=rfbr&no=114#none>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청년지원정책,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193>>
- 류지영 외, 진로교육 현황조사: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
- 맹미선, 우울한 대학 상담 센터 “1인 상담소 대부분”, 코메디닷컴, 2018. 5. 25.,
 <<http://kormedi.com/1227433/%EC%9A%B0%EC%9A%B8%ED%95%9C-%EB%8C%80%ED%95%99-%EC%83%81%EB%8B%B4-%EC%84%BC%ED%84%B0-1%EC%9D%B8-%EC%83%81%EB%8B%B4%EC%86%8C-%EB%8C%80%EB%B6%80%EB%B6%84/>>
- 문송이·정은미, 2016 전국 대학생 취업준비 실태조사,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2016. 8. 3.,
 <<https://www.20slab.org/Archives/14917>>

- 백영미, 대학생최대고민 10명 중 6명 '졸업 후 진로'...4년제생 취업희망 1순위 '공무원·교사', 중앙일보, 2017. 12. 13., <<https://news.joins.com/article/22200299>>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
- 사회관계장관회의,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안), 사회관계부처 합동, 2021. 2. 9.
- 윤한슬, “사람 사귀기 어려워요”...대인관계 장애 겪는 신입생, 사회 초년생 해법은, 한국일보 뉴스, 2017. 5. 1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5181485029215>>
- 윤혜주, 대학생 41% 심리적 불안감으로 고통, 팝콘뉴스, 2018. 5. 3., <<http://www.popcornnews.net/18388>>
- 의료정보융합실 의료정보관리부, 연령대별 많이 나타나는 정신건강 질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12. 13., <<http://www.hira.or.kr/bbsDummy.do;INTERSESSIONID=xXeM1HXHAjcARVLpzoqZhidjybZnbf4hDVGdi-GM-zMQdKRhFCuZ!162833529!737859823?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9731>>
- 이종원 외,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6.
- 이준성, 늘어나는 상담 신청 ... 전문인력 부족한 학생상담센터, 고대신문, 2019. 3. 24., <<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30208>>
- 잡코리아, 취업뉴스, 대학생 64.6% 취업진로에 불안 초조... '대2병', <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5541>
- 정석준, OECD 국가 중 대학 등록금 상위권이지만... '학생 위한 사용 ↓', 아주경제, 2020. 6. 22., <<https://www.ajunews.com/view/20200622074453068>>
- 정수연, 졸업했는데 일자리 없는 청년 166만명, 통계 작성 이래 최다, 연합뉴스, 2020. 7. 22.,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2081400002>>
- 정은혜, 우리나라 대학생 개강 스트레스 1위는 '과제' 때문, 중앙일보, 2017. 4. 7., <<https://news.joins.com/article/21450826>>
- 통계청 보도자료,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020.
-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Archive, 2020년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4.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시간, 근속시간 <<https://www.kli.re.kr/kli/selectBbsNttView.do?key=44&bbsNo=10&nttNo=135401&searchY=&searchCtgr=&searchDplcCtgr=&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 홍상지, “대학만 붙으면 될 줄 알았는데”... '새춘기' 호소하는 새내기들, 중앙일보, 2017. 4. 11., <<https://news.joins.com/article/21464056>>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http://www.samsunghospital.com/>>
- 상명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smu.ac.kr/>>
- 통계청 홈페이지 <<https://kosis.kr/>>



영상 역사학 속 역사 다큐멘터리의 역할과 발전 방향

역사콘텐츠학과 김유*

목 차

1. 서론
 2. 영상 역사학의 정의
 3. 영상 역사학 속 역사 다큐멘터리
 - 3.1. '영상기록' 역할
 - 3.1.1. 'KBS 아카이브 프로젝트 모던코리아'
 - 3.2. '영상으로 구현되는 영상 역사물' 역할
 - 3.2.1. 'MBC 특별기획 1919-1920 기억록'
 - 3.2.2. 'KBS 다큐인사이트 너는 나다'
 4. 역사 다큐멘터리 장르의 발전 방향
 - 4.1. 객관성 확보
 - 4.2. 대중성 확보
 5. 결론
- 참고 문헌

1. 서론

급변하는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맞춰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역사를 단순히 문자로 기록하거나 스틸사진을 통해 남겨두었던 과거의 방식과 달리, 이제는 현실의 소리와 움직임을 그대로 담아내는 동영상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영상사료를 통해 우리는 당시 상황을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순수 영상기록과 그것을 가공하여 만들어진 영상작품(뉴스, 다큐멘터리 등) 그리고 허구의 상상력을 가미한 영상작품(사극, 영화 등)은 모두 영상물에 반영된 ‘시대’와 ‘사회’를 해석하는 자료로 다양한 영상물 또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¹⁾

많은 유적들과 문화유산들을 디지털 복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관람할 수 있게 되었고, 역사 속에서 사는 이들은 각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시사 연구를 위해 필요한 일기장은 SNS에 게시한 다양한 동영상을 통해 웹상에 영원히 남게 되었고,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동영상플랫폼에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이들 덕분에, 전 세계의 역사를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역사학계의 흐름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발달된 영상문화를 최대하여, 무엇을 영상기록으로 남길 것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발 빠르게 실행에 옮겨야 할 필요가 있다.²⁾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기덕은 2000년 ‘영상 역사학’을 제창했다.³⁾

역사학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새롭게 다뤄야 하는 역사 사료의 범주에 영상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상사료를 다루고 연구하는 작업을 기반으로 역사학계의 새로운 포문이 열린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범람하는 영상자료와, 아직 영상화되지 않은 역사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연구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허구 기반 영상물의 역사왜곡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막상 역사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역사 다큐멘터리에는 관심이 없는 대중들의 모습에 의문을 가지며 시작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영상역사학과 역사 다큐멘터리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의 발전 방향과 그 속에서의 역사학자들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영상 역사학의 정의

전통적인 역사학이 문자기록에 근거하고 문자로 구현되는 역사물을 주된 연구 및 활용대상으로 한다면, ‘영상 역사학(visual history)’은 새롭게 ‘영상기록’과 ‘영상으로 구현되는 역사물’의 분석, 연구, 창출, 활용을 탐구하는 역사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⁴⁾ 영상역사학은 영상자료의 생산과 활용이라는 측면을 기준으로 크게 ‘영상기록’과 ‘영상으로 구현되는 영상역사물’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⁵⁾ 먼저 ‘영상기록’은 문자 기록이 아닌 사진, 동영상 등의 기록을 말한다.⁶⁾ 영상기록물은 역사적 사건이나 유물, 문화재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기록물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제작해야한다.

1) 김기덕, 영상역사기록의 사회적 의미, 역사민속학 14, 한국역사민속학회, 2002, 12쪽.

2) 김기덕, 영상역사학, 지식의 지평 제15호, 대우재단, 2013, 177쪽.

3) 김기덕, 정보화시대의 역사학: 映像歷史學을 제창한다, 歷史教育(The Korean History Education Review) 제74집, 역사교육 연구회, 2000, 129쪽.

4) 김기덕, 위의 글, 2013, 174쪽.

5) 위의 글, 176쪽.

6) 김기덕, 역사가와 다큐멘터리-역사스페셜의 사례를 중심으로, 史學研究(The Review of Korean History) 65, 한국사학회, 2002, 101쪽.

다음으로 ‘영상역사물’에는 사극, 애니메이션과 같은 서사장르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⁷⁾. 이러한 ‘영상역사물’은 시청자에게 역사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매체로 작용할 수 있다. 영상역사물은 영상기록물보다 역사적 사실에 제작자의 주관이 조금 더 가미된다. 다큐멘터리 또한 제작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표현하고자 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영상역사물에 속한다.

3. 영상역사학 속 역사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는 흔히들 사실만 다루는 객관적인 장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제작자의 의도와 해석 하에 제작되는 일종의 창작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역사학 속 역사 다큐멘터리는 특이한 시사점을 가진다.

3.1. ‘영상 기록’ 역할

다큐멘터리 장르의 특성 중 학술적인 내용을 영상화한다는 것은 역사 다큐멘터리를 역사적 사료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이다. 다큐멘터리는 허구에 기반을 둔 다른 서사장르에 비해 객관적인 정보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학술적인 장르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사장르에는 담지 못하는 전문인의 인터뷰, 실제 사건의 장면들을 영상에 담을 수 있고,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직접 촬영하거나 영상 사료를 발굴해 낸, 편집 점을 거치지 않은 영상들은 후대에 모두 역사적 사료가 될 수 있다.

영상 기록으로서의 다큐멘터리 장점으로는 인터뷰나 소견 혹은 다루려는 사건의 실제 장면을 영상으로 담아 당시의 분위기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의 인터뷰나 소견은 문자로도 기록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자에는 그 인터뷰 당시의 상황이나 분위기가 잘 담기지 않는다. 반면 인터뷰어의 말투, 몸짓, 눈빛, 목소리의 떨림 등 모든 것이 담기는 영상에는 그 인터뷰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 전부 담긴다. 가령, 군사독재정부 시절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인터뷰를 하는 전문가의 말은 텍스트를 통해 단순히 발화내용 자체의 의미로 기록되었지만, 영상을 통해서서는 어투, 태도, 목소리의 크기 등 모든 것을 통해 그가 정부의 압박 하에 인터뷰를 진행함을 유추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함께 녹화될 것이다. 또한 사건 당시의 이를 통해 후대의 역사가들은 당시의 상황을 단순히 텍스트로 읽는 것보다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역사적 사건에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등 역사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저널리즘에 비해 비교 대상이 적어 객관성을 판단할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인터뷰나 소견 등의 영상을 편협 적으로 다룬다거나, 영상에 연출을 가미해 내용을 조작한 작품을 보고도, 이를 평가하기 위한 비교대상 작품의 개수가 적거나 없어 시청자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장르의 특징 중 전문인의 인터뷰가 들어감으로써 시청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역설적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사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 저널리즘이 객관성을 띄는 이유는 같은 사건을 각자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 다큐멘터리가 ‘영상기록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참여로 확보할 수 있는 역사 다큐멘터리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7) 김기덕, 앞의 글, 2002, 101쪽.

3.1.1. ‘KBS 아카이브 프로젝트 모던코리아’

KBS 아카이브 프로젝트 모던 코리아(〈그림 1〉⁸⁾)는 “창립 이래 쌓아온 수십 년간의 방대한 아카이브 영상을 이용한 새로운 문법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모던코리아’라는 슬로건을 건 푸티지 다큐멘터리⁹⁾이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이 가능했던 1980년대 말의 대한민국을 다양한 자료화면을 통해 입체적으로 재구성해본다”¹⁰⁾라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림 1> KBS 아카이브 프로젝트 모던코리아 작품 포스터

별도의 내레이션 없이 역사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촬영한 영상물에 전문가의 소량의 인터뷰를 재편집해서 만들어진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편집 점을 이용해 제작자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예시로 정치인의 시기가 다른 연설을 앞뒤로 붙여나 그의 모순을 꼬집는 블랙코미디 장면을 연출하거나, 주제 전달을 위해 특정 장면을 반복하는 듯 한 연출을 구성하기도 했다. 이 작품은 국내 방송 다큐멘터리 최초로 시즌1 전편이 글로벌 다큐멘터리 전문 OTT플랫폼인 다필름스(DaFilms)에 진출하는 등, 국내외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 시리즈 작품은 주제와 관련된 많은 영상사료를 다양하게 발굴해내고 하나의 아카이브처럼 구성했기에, 영상사료를 보존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과거의 해상도가 낮거나 알아보기 힘든 영상들을 디지털화했다는 면에서 현세를 포함한 앞으로의 역사학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영상들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재구성(=아카이빙)했다는 부분에서 영상 기록물로서의 다큐멘터리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더하여 다루고자 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전문가, 시민들의 인터뷰를 삽입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에 대하는 21세기의 시대상 또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작품을 토대로 후대의 역사가 들은 현대사에 필요한 역사적 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해석과 연구를 하며 역사학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3.2. 역사 다큐멘터리의 ‘영상으로 구현되는 영상 역사물’ 역할

역사 다큐멘터리는 타 서사장르처럼 감독 개인의 의견이나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단순히

8) MyloveKBS 홈페이지,
 <https://mylovekbs.kbs.co.kr/index.html?source=mylovekbs&sname=mylovekbs&stype=magazine&contents_id=70000000395353>
 9) 내레이션 없이 자료영상과 인터뷰로만 이뤄진 다큐멘터리
 10) KBS 다큐인사이트 5회차(모던코리아 제1회 “우리의 소원은” 회차) 홈페이지의 영상 설명.

객관적인 사실을 위주로 다루는 저널리즘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큐멘터리는 제작자의 책임이 크게 요구되는 장르이다. 그리고 ‘영상 역사학’ 속의 역사 다큐멘터리는 ‘역사영상물’로서, 서사장르와 마찬가지로 시청자에게 역사적 사고력을 길러주거나 역사적 교훈을 전해줄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예시를 김기덕 교수의 논문 ‘영상역사기록의 사회적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의 가정을 해보자. 만약 1980년 봄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정권에 빌붙어 기생하는 거대언론이 아닌 광주시민이 직접 제작한 짧은 다큐멘터리가 방송을 탔다면 5.18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마도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누명을 벗기까지, 그래서 우리 역사의 서술이 올바르게 자리매김될 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¹¹⁾

이처럼 다큐멘터리는 제작자의 의도를 가장 강력하고 직설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얽힌 내용과 서사를 전달함으로써 결국 그 사실에 대한 제작자의 생각이 시청자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사 다큐멘터리가 ‘영상 역사학’ 속 ‘영상으로 구현되는 영상 역사물’의 역할 또한 수행함을 증명할 수 있다.

영상 역사물로서의 역사 다큐멘터리의 장점은 다른 서사장르에 비해 전문적이며, 사실을 기반으로 한 내용을 다룬다는 것에 있다. 더하여 역사 다큐멘터리는 서사 장르 중 실제 역사의 장면을 담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르이다. 즉 역사 다큐멘터리에는 정밀한 재현으로도 구현하기 어려운 현실감, 생동감이라는 큰 무기가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역사 다큐멘터리는 대중들에게 역사적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림 2> 드라마 철인왕후 시청률



<그림 3> 다큐멘터리 기억록 시청률

단점으로는 대중성이 높지 않아, 대중들의 역사적 사고력을 계몽할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보는 시청자가 없다면 그 영상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힘들 것이다. <그림 2>¹²⁾는 역사왜곡으로 논란이 있었던 드라마 철인왕후의 최고 시청률이다. 역사왜곡의 논란이 있었고, 불매운동 여론이 존재했음에도, <그림 3>¹³⁾의 역사 다큐멘터리 최고 시청률에

11) 김기덕, 앞의 글, 2002, 17쪽.

12) 닐슨코리아, 드라마 철인왕후 시청률, 네이버,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y&fbm=0&ie=utf8&query=%EB%93%9C%EB%9D%BC%EB%A7%88+%EC%B2%A0%EC%9D%B8%ED%99%A9%ED%9B%84+%EC%8B%9C%EC%B2%AD%EB%A5%A0>

13) 닐슨코리아, 1919-2019 기억록 시청률, 네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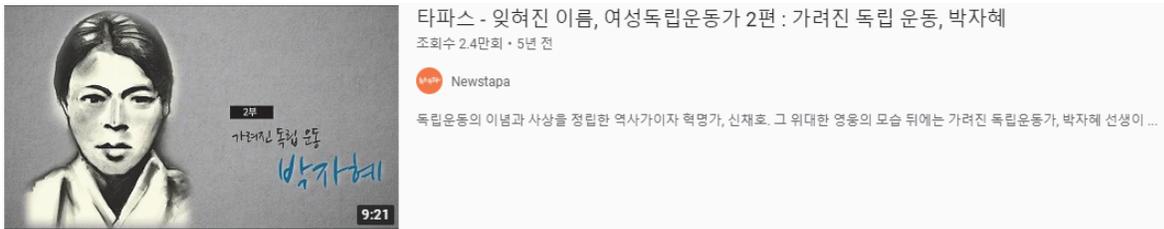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y.top&where=nexearch&query=%EA%B8%B0%EC%96%B5%EB%A1%9D+%EC%8B%9C%EC%B2%AD%EB%A5%A0&oquery=%EB%8B%A4%ED%81%90%EB%A9%98%ED%84%B0>

약 8배 높은 기록을 보인다. 다큐멘터리가 가진 장르적 진입장벽은 타 장르에 비해 높은 편이기에 이를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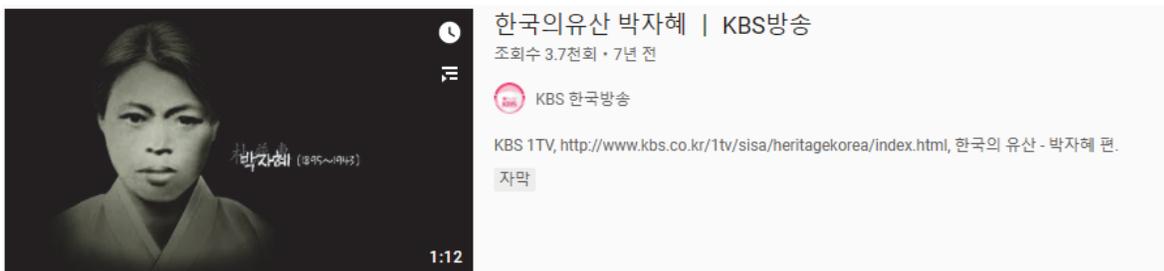
3.2.1 'MBC 특별기획 1919-2019 기억록'

이 작품은 방송사 MBC에서 제작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3.1운동, 임시정부 수립부터 전쟁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주의까지. '내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온 대한민국 100년을 기억하여 기록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약 5분가량의 미니다큐멘터리 시리즈이다. 이 프로그램은 약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한 독립운동가의 중요한 업적과 생애를 그려내는 방식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시청자에게 유명인들이 직접 '기록자'가 되어 독립 운동가를 소개해주는 것처럼 연출된다. 이 시리즈의 최고 시청률은 약 2.7%이고, 유튜브 조회수는 적게는 1천 회에서 많게는 약 28만 회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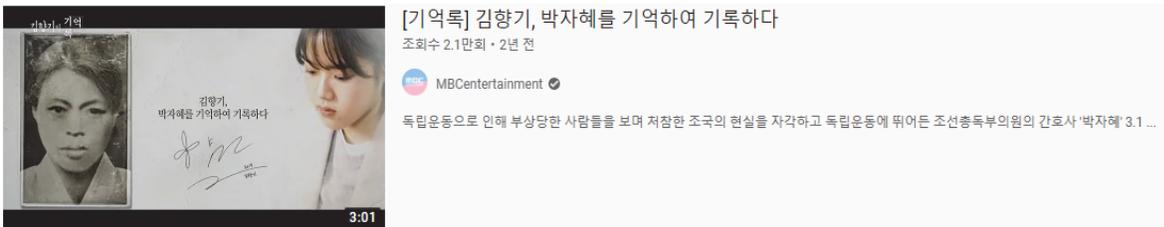
'기억록'은 우선 유명인을 이용해 대중들의 접근성을 낮췄다는 부분에서 의의가 있다. 시청자나 대중에게 영상이 말하는 주제를 널리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볼 수 있게 유도해야 하는데 작품 '기억록'은 이 부분을 충분히 만족시켰다.



<그림 4> 타파스- 잊혀진 이름, 여성독립운동가 2편: 가려진 독립 운동, 박자혜



<그림 5> 한국의유산 박자혜



<그림 6> [기억록]김향기, 박자혜를 기억하여 기록하다

%EB%A6%AC+%EA%B8%B0%EC%96%B5%EB%A1%9D+%EC%8B%9C%EC%B2%AD%EB%A5%A0&tqi=hmNV5wp0JywssNjDChNsssssVh-212828)

위 사진들은 모두 독립운동가 박자혜 선생을 다루는 미니다큐멘터리이다. ‘기억록’은 타 영상들과 다르게 제시한 기간 대비, 매우 높은 조회 수를 가지고 있다. 이 세 영상의 특징들을 비교하며 ‘기억록’의 화제성에 반영된 요인을 알아볼 수 있다.

우선 <그림 4>¹⁴, <그림 5>¹⁵의 영상을 대표하는 마중그림(=썸네일)은 박자혜 선생의 사진으로, 서로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림 6>¹⁶(이하 ‘기억록’) 또한 영상의 마중그림(=썸네일)에 박자혜 선생의 사진을 이용했다. 다만 박자혜 선생의 옆에 천만배우인 김향기 사진과 배우 그의 친필서명을 함께 배치해 두 영상의 마중그림과 차별을 두었다. 이 부분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은 영상에 배우 김향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같은 주제의 세 영상 앞에 놓인 대중들은 학자나 기자의 내레이션보다는 친숙한 배우의 내레이션이 나오는 작품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반면 <그림 6>의 짧은 영상 길이가 시청자의 선택을 이끈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시할 수 있다. 물론 3분이라는 시간은 9분과 1분 사이의 적당한 분량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3분이라는 시간은 충분한 정보를 다루기에는 9분에 비해 빈약한 시간이고, 핵심 정보만 다루기에는 1분에 비해 긴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보았을 때, <기억록: 김향기, 박자혜를 기억하고 기록하다> 영상의 시청자 유형은 크게 ① 박자혜 선생의 업적이 궁금한 사람, ② 박자혜 선생의 업적을 적당한 길이의 영상을 통해 보고 싶은 사람, ③ 배우 김향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시청자 유형 ①은 공통적으로 <그림 4>, <그림 5>, <그림 6>에 모두 속할 수 있고, 시청자 유형 ②는 <사진 5>, <사진6>에 속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시청자 유형 ③은 오직 <사진 6>(=이하 기억록)에만 해당하는 시청자 유형일 것이다. 즉, 이 작품은 박자혜 선생에 대해 궁금한 사람뿐만 아니라, 박자혜 선생에게는 관심이 없었지만, 배우 김향기에 관심이 있어 영상을 시청한 시청자들에게까지 역사적 사고력을 길러준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기억록’에 대중의 관심을 가져온 일등공신은 유명인을 이용한 연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특정다수인 대중의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화제성과 적절한 대중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이 시리즈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에 대상의 업적을 단순화하거나, 내용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아쉬움과 한계를 남긴다. 하지만 이는 비단 이 작품의 문제가 아니라, 짧은 다큐멘터리가 가지는 공통적인 딜레마이다. 시청자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볼 수 있으면서도, 바쁜 현대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영상 길이를 선정하면, 내용의 깊이를 잃게 된다. 반대로 내용의 깊이를 위해 영상의 길이를 연장하게 되면, 시청자들은 영상을 재생하는 것에도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이다.

전효성씨 민주화 발언이후 실수 인정하고 역사공부해서 한국사 자격증 취득하신거 보고 반했습니다 영상 속에 말이 진정성이 확 느껴지네요 얼굴 이쁘고 마음도 이쁘고 사랑합니다❤️

👍 40 🗨️ 답글

<그림 7> 기억록: 전효성, 차미리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다 편 유튜브 댓글

두 번째로는, 영상의 주체가 독립운동가가 아닌 소개하는 연예인으로 주객전도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실제로 <그림 7>¹⁷을 보면, “전효성 씨 민주화 발언 이후 실수 인정하고 역사 공부해서 한국사 자격증 취득하

14) 타파스-잊혀진 이름, 여성독립운동가 2편: 가려진 독립운동, 박자혜, 유튜브 검색 결과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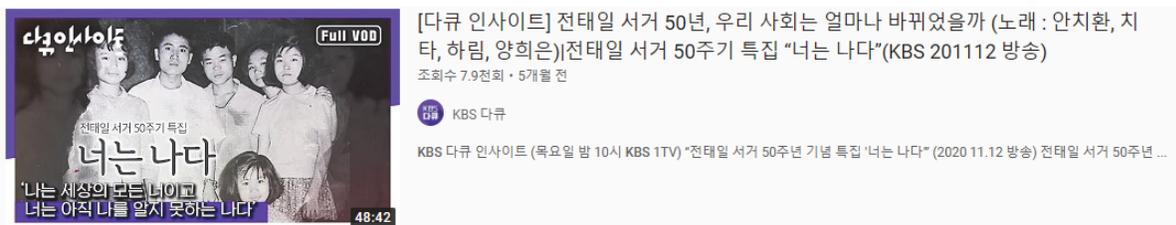
15) KBS 방송-한국의 유산 박자혜 유튜브 검색 결과 캡처.

16) [기억록]김향기, 박자혜를 기억하여 기록하다, 유튜브 검색 결과 캡처.

17) 유튜브 영상 ‘기억록: 전효성, 차미리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다 편’ 댓글 캡처.

신 거 보고 반했습니다 영상 속에 말이 진정성이 확 느껴지네요 얼굴 이쁘고 마음도 이쁘고 사랑합니다♥”라는 댓글이 존재하며, 이 댓글에는 40개의 공감버튼이 눌러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유독 이 영상의 댓글에는 차미리사 열사에 대한 내용보다 가수 전효성과 관련한 댓글이 유독 많이 보인다. 이는 차미리사 선생의 업적이 그저 유명 연예인의 선행 아닌 자랑거리에 이용되어버린, 주객전도의 모습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례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억록: 김향기, 박자혜를 기억하고 기록하다> 편에서는 3분이라는 짧은 영상의 1/3 분량이 단순히 배우 김향기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지는 단점이 발견된다. 이는 물론 짧은 영상의 서사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이지만,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영상의 주제를 혼동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3.2.2. 전태일 50주기 특집 다큐멘터리 ‘KBS 다큐인사이트-너는 나다’



<그림 8> 다큐멘터리 전태일 서거 50주기 특집 너는 나다

<그림 8>¹⁸⁾은 전태일 서거 50주기를 맞아 KBS 다큐인사이트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전태일 분신사건과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21세기 노동 현실에 대해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한국PD연합회 이달의 PD상-TV 시사교양 정규 부분의 수상작으로 뽑혔고, 방송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림 9> 다큐멘터리 전태일 서거 50주기 특집 너는 나다 클립영상, 치타-솔아솔아 푸르른 솔아

우선 다큐멘터리 ‘너는 나다’ 또한 ‘기억록’처럼 유명 뮤지션을 이용해 대중성과 화제성을 이끌어냈다. 이 작품을 통해서도 작품 속 유명래퍼 치타의 무대를 따로 게시한 클립영상(그림 9)¹⁹⁾이 본 다큐멘터리보다 월등히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앞서 3.2.1에서 살펴본 ‘기억록’의 연출 방식과 다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와 내용, 대상과의 인터뷰 등을 담은 평범한 다큐멘터리처럼 연출했다. 대신 에피소드 형식처럼 세부주제를 나눠 한 에피소드가 마무리 지어질 때마다 유명 가수나 뮤지션의 주제와 관련된 무대를 삽입하는 연출을 시도했다. 즉,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주류에 놓고, 유명인들의 출연이나 무대를 그 중간에 짧게 삽입함으로써 그들이 부가적인 역할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연출을 통해 ‘기억록’의 한계였던 유명인과 다큐멘터리 주제가 주객전도되는 현상을 어느 정도 보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8) 다큐멘터리 전태일 서거 50주기 특집 너는 나다 유튜브 검색 결과 캡처.

19) 다큐멘터리 전태일 서거 50주기 특집 너는 나다 클립영상, 치타-솔아솔아 푸르른 솔아 유튜브 검색 결과 캡처.

또한 이 다큐멘터리는 영상의 길이가 비교적 긴 편이라, 다루려는 주제와 메시지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간 러닝타임에 따른 딜레마 역시 에피소드화를 통해 해결했다.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인터뷰를 제시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충분히 역사 영상물로서의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역사 다큐멘터리의 발전 방향

이처럼 역사 다큐멘터리는 영상 역사학의 발전을 논할 때 빼 수 없는 장르이다. 영상 역사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역사 다큐멘터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4.1. 영상 기록: 영상 아카이브로서의 다큐멘터리

역사학에 있어 문헌사료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무수한 영상사초를 수집하고 보관, 연구, 활용하는 것은 이제 디지털 시대 역사학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그러므로 오늘의 역사가는 무엇을 영상기록으로 남길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영상사초의 사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²¹⁾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직접 촬영한 영상뿐만 아니라 수면 위에 드러나 있지 않은 영상들을 발견해내고 복원해내는 것 또한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영상역사학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이다. 그 속에서 역사 다큐멘터리는 다루려는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모아두는 일종의 아카이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보화 시대의 대중은 다양한 영상을 제공한다. 우리는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기록은 다 후대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료가 될 수 있다. 가령 필자가 경복궁을 방문하면서 찍어둔 기념영상은 후대에 경복궁이 소실되었을 때, 비로소 역사적 사료로서 진가를 발휘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역사학자들이 단순히 찍혀있지만 한 영상들의 의미와 의의를 발굴해내고, 이를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 역사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더하여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영상 자료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소임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야만, 진정 영상 역사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사 다큐멘터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역사적 사료로서의 짧은 시간에 이룩된 영상기술의 바탕과 지원을 통하여, 제대로 된 '영상기록'의 축적과 그것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라는 과제가 새롭게 놓여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²²⁾

또한 역사 다큐멘터리의 제작자는 영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재현해서 영상화 할 수도 있다. 역사다큐멘터리의 과거 재현(representation) 방식은 다큐멘터리의 장르적 특성, 사회공동체에 통용되는 과거에 대한 인식틀, 그리고 국민국가가 강조하는 정체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²³⁾ 그렇기 때문에 이는 영상 재현을 통해 과거를 변형하거나 반복하는 일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생된 과거는 특정한 과거가 아닌 일반적인 과거이고 언제나 반복되고 회귀할 수 있는 추상적 과거이며, 20세기의 역사는 영상 미디어를 통해 무한히 재생됨과 동시에 바로 이 재생의 무한성 때문에 사라져 간다는

20) 김기덕, 앞의 글, 2013, 179쪽.

21) 위의 글 179쪽.

22) 김기덕, 앞의 글, 2000, 153쪽.

23) 이종수, 영상 다큐멘터리 역사재현의 현실성과 표현성, 韓國 言論學報(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제44권 3호, 한국언론학보, 302쪽.

평가를 받기도 한다.²⁴⁾

이러한 측면에서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재현 장면을 제작할 때 작품이 역사적 가치를 잃거나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2. 역사 영상물: 대중에게 역사다큐멘터리란?

대중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재미나 흥미를 많이 추구하는 편이다. 이런 대중들의 관심을 지표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청률이다. 시청률을 토대로 대중들은 학술적인 역사 내용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보다 픽션이 가미되어 재미를 추구하는 서사극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대중들이 학술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입장이었다면, 최근 역사왜곡 논란이 있었지만 시청률 17.4%로 성황리에 종영한 ‘철인왕후’는 큰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림 11> 청와대 국민청원 ‘역사왜곡 동북공정 드라마 < **구마사 >의 즉각 방영중지를 요청합니다.

YG SBS 시청 716억 ↓...‘역사왜곡’ 논란 조선구마사 후폭풍

조성신 기자 | 입력 : 2021.03.28 08:26:17 수정 : 2021.03.28 11:54:00



<그림 10> 매일경제- YG SBS 시청 716억 ↓... ‘역사왜곡’ 논란 조선구마사 후폭풍

반면 <그림 9>²⁵⁾와 <그림 10>²⁶⁾과 같이 대중들에게서는 역사 왜곡에 분노하고, 이를 막으려는 흐름이 관측되기도 한다. 대중은 단순히 역사왜곡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불매운동과 폐지 국민청원까지 나서서 역사왜곡을 막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대중들이 단순히 역사를 유희거리나 콘텐츠 소재로만 소비하지 않는, 역사적 사고력을 갖추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성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대변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양/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주 다뤄지는 소재 또한 역사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많이 존재하고, 꾸준한 시청 층을 유지하고 있다.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시사프로그램은 공중파 방송 3사에 모두 편성되어 있다.(KBS 역사저널 그날,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MBC 우리가락, 우리문화) 하지만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이러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드라마와 영화 같은 서사극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시청률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정리하자면 현재 대중들은 재미와 흥미를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고 싶어 하며, 또 무의식중에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예민하게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

24) 이종수, 앞의 글, 305쪽.

25) naver-***, ‘역사왜곡 동북공정 드라마 < **구마사 >의 즉각 방영중지를 요청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157>>

26) 조성신, 매일경제, YG SBS 시청 716억 ↓...‘역사왜곡’ 논란 조선구마사 후폭풍, 2021. 3. 28.,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03/292673/>>

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많은 대중들에게 역사적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대중성을 갖춘 새로운 프로그램 포맷의 필요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

5. 결론

이처럼 역사 다큐멘터리는 영상 역사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는 장르가 될 것이다. 역사 다큐멘터리는 ‘영상 기록’의 측면으로써 실제 영상을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촬영되거나 재편집되어지는 모든 영상 자료들 또한 영상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다만 역사 다큐멘터리를 영상 기록의 차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사학자들의 활발한 비평과 연구를 바탕으로 작품의 객관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또한 역사 다큐멘터리는 제작자의 의도를 가장 신빙성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 영상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대한 전문인의 인터뷰 영상이 가미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고심해야 한다. 역사학자들의 활발한 비평과 자문,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이 탄생해야 하고, 시청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작품을 비교하며 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이 보고서를 통해 영상 역사학의 발전에 역사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 연구는 영상 역사학의 다양한 영상물 중 역사 다큐멘터리만을 다뤘다는 것과 영상 역사학의 역할 중 영상 기록과 영상 역사물의 차원만 다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이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 다큐멘터리 위주로 다뤘다는 아쉬움이 있다. 다른 연구를 통해 영상 역사학에 대해 자세히 탐구해보고, 영상 역사학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더 발견한 뒤 외국의 사례와 함께 연구 범위를 넓혀가고 싶다.

참고 문헌

- 김기덕, 정보화시대의 역사학: 映像歷史學을 제창한다, 歷史教育(The Korean History Education Review) 제75집, 역사교육연구회, 2000, 127-153쪽.
- 김기덕, 역사가와 다큐멘터리-역사스페셜의 사례를 중심으로, 史學研究(The Review of Korean History) 65, 한국사학회, 2002, 99-129쪽.
- 김기덕, 영상역사기록의 사회적 의미, 역사민속학 14, 한국역사민속학회, 2002, 7-20쪽.
- 김기덕, 영상역사학, 지식의 지평 제15호, 대우재단, 2013, 174-186쪽.
- 이종수, 영상 다큐멘터리 역사재현의 현실성과 표현성, 韓國 言論學報(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제44권 3호, 한국언론학보, 2000, 301-341쪽.
- 조성신, 매일경제, YG SBS 시총 716억 ↓... ‘역사왜곡’ 논란 조선구마사 후폭풍, 2021. 3. 28.,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03/292673/>>

참고 사이트

네이버 <<https://www.naver.co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전동키편드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지능데이터융합학부 김윤*

목 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 1.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3. 연구 방법
 2. 전동키편드의 현황
 - 2.1. 전동키편드의 개념
 - 2.2. 전동키편드의 이용 현황
 3. 전동키편드로 인한 문제점
 - 3.1. 안전성의 문제
 - 3.2. 법의 문제
 - 3.3. 시민 의식의 문제
 4. 전동키편드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 방안 제안
 - 4.1. 안전성의 문제 줄이기 위한 방안
 - 4.2. 전동키편드 관련 법의 문제 해결 방안
 - 4.3. 시민 의식의 문제 해결 방안
 5. 결론
- 참고 문헌

1. 서론

1.1. 연구 배경

최근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넓은 의미의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포함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가까운 곳에 있는 전동 킥보드의 위치를 파악해 이를 쉽게 대여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가 확산되며 주위에서 쉽게 전동 킥보드를 볼 수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수도 국내에서 약 30개가 존재한다. 이처럼 공유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가 증가함에 따라 전동 킥보드의 시장 규모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국내 전동킥보드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는 21만4,451명으로 2019년 4월에 비해 약 6배가 증가했다.¹⁾ (<그림 1> 참조)

전동 킥보드의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전동 킥보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전동 킥보드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2019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1,252건인데 이 중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안전사고는 571건이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보다 35%(2.3배)나 증가한 것이다. 전체 사고의 64.2%는 운전 미숙이나 과속 등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만 전동 킥보드의 고장과 제품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도 31.4%로 상당량을 차지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다친 곳은 머리와 얼굴 부위가 36.3%로 가장 많이 차지했는데 이는 더욱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²⁾

이러한 전동 킥보드의 위험으로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키크라니’라는 신조어도 등장하였다. 이 신조어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이다. 이는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일컫는 말이다. 특히 2019년 8월에는 서울 한남대교에서 왕복 12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다 뺑소니 사고를 낸 키크라니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되며 키크라니에 대한 논란이 거세졌다. 그래서 늘어나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에 대비해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³⁾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라 불리는 것의 일종으로, 이와 관련된 법의 적용을 받는다. 최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도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다. 하지만 법의 변화에 따른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계속해서 바뀌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등 전동 킥보드의 변화하는 법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1) 백주원, 1년 새 6배 큰 전동킥보드 공유시장 ‘뜨거운 3파전’, 서울경제, 2020. 5.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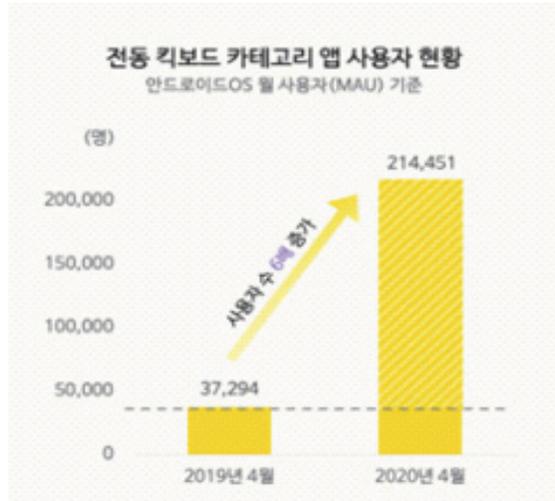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VZQQFH8>>

2) 조은임, 올해 전동킥보드 사고 135% 급증…대부분 ‘운전 숙숙미 과속’, 한국경제, 2020. 12. 20.,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2078577>>

3) pmg 지식엔진연구소, 키크라니, 박문각. <<http://www.pmg.co.kr/user/pmg/main.asp>>, 네이버 지식백과, 키크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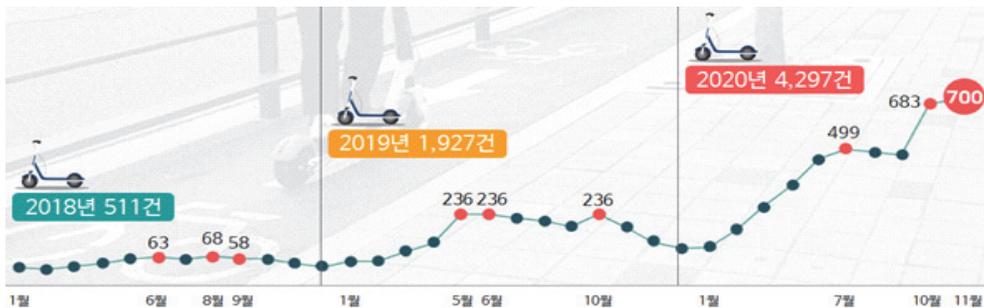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36741&cid=43667&categoryId=43667>> 2021. 6. 4.에서 재인용.



〈그림 1〉 전동키토드 시장 규모의 빠른 성장

1.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18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최근 2년 11개월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키토드’ 관련 민원은 총 6,735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511건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1,927건, 2020년에는 4,297건이나 된 것이다.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민원에는 ‘전동키토드 운행 장소’, ‘전동키토드 운전자’, ‘전동키토드 제품’, 전동키토드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 등과 관련한 민원이 존재했다. 2018년에는 제품 관련 민원 비중이 가장 높았고, 2019년에는 운행장소와 관련한 민원이 대폭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운전자 관련 민원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⁴⁾ 전동키토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전동키토드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는 것과 민원이 늘고 있는 것 또한 당연시하게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민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동키토드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연구의 배경에서 말했듯이 개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많지만 전동키토드 자체의 문제로 인해 생긴 문제도 상당한 것을 보면 전동키토드의 사고가 단순히 전동키토드 이용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전동키토드와 관련된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동키토드와 관련된 사고도 줄이고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전동키토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림 2〉 참조)



〈그림 2〉 급격히 증가한 전동키토드 관련 민원

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전동키토드 안전 관련 국민의견을 분석해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12. 16.,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166>>

1.3. 연구 방법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전동킥보드에 대한 기사나 논문 등 관련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나 변화하는 법에 따른 변화에 대해 다룬 글이 많기에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문제를 찾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최근 기사나 논문을 위주로 찾아 연구하고자 한다. 목차에서 보여주었듯이 전동킥보드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안전성의 문제, 법의 문제, 시민의식의 문제를 위주로 다루고자 한다. 그래서 전동킥보드의 안전성의 문제에서는 어떠한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으며, 이 사고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위주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찾아 조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관련 법의 문제에서는 어떠한 법이 왜 문제가 되고, 개정된 법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 있어하고 변화하는 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를 위주로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시민 의식의 문제에서는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어떠한 생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할 것이다.

2. 전동 킥보드의 현황

2.1. 전동킥보드의 개념

전동킥보드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⁵⁾의 일종으로, 킥보드를 기본 형태로 취한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달리고 2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고 있으며, 발을 올려놓는 발판과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부착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오토페드(Autoped)라 부르는 엔진을 가진 킥보드의 세부 파생형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이다. 10kg~20kg 사이의 경량화된 모델과 장거리와 성능을 고려한 30kg 이상의 중량 모델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중 가장 큰 바퀴와 몸체를 가졌으며, 이에 따라 경사를 오르는 등판력과 속도, 주행거리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성도 우수하다. (<그림 3> 참조)



<그림 3> 전동킥보드

5)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란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수단을 말한다. 25km/h 내외의 속도로 간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 전기 모터 및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비 발생이 적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점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이동수단이다.

2.2. 전동킵보드의 이용 현황

전동킵보드는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이용해 온 이동 수단 중 하나이다. 국내에도 전동킵보드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는 존재했지만 최근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동킵보드가 등장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동킵보드 공유서비스는 2018년 9월 (주)올룰로의 킵고잉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2019년 11월을 기준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기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고고씽’으로 국내 최초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인 매스아시 아는 초기 600대 규모였던 전동킵보드를 1,000~1,200대로 늘리고 공유 전동킵보드 스타트업 기업인 알파카를 흡수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2018년 9월 ‘킵고잉’이라는 전동킵보드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인 올룰로는 전동킵보드만 3000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씽씽’이라는 전동킵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유엠피는 최근 6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함께, 연내 서비스를 서울 및 수도권으로 확장하며 약 1000대인 킵보드를 3000대 규모로 늘렸다.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에서도 ‘제트’라는 공용 전동킵보드 80여 대를 배치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도 국내 전동킵보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독일 ‘윈드’, 싱가포르 ‘빔’과 같은 해외 업체들도 한국의 시장에 진출했고, 2017년 설립되어 미국, 유럽 등 120개 이상의 도시에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스타트업 기업인 ‘라임(Lime)’도 국내에 진출했다. 라임(Lime)은 기업가치 20억 달러(약 2조4000억 원)를 인정받은 유니콘 기업으로 아시아에 서비스를 선보인 것은 한국이 최초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도입도 활발히 하고 있다. 경기 시흥, 화성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동킵보드 서비스 업체와 손을 잡고 ‘공유킵보드 실증특례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킵보드 이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⁶⁾

최근 서울에서 사용되는 공용 전동킵보드는 해외 주요 도시들보다 더 많이 이용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공유 킵보드 ‘라임(Lime)’이 공개한 서울 내 자사 서비스 탑승 시작 위치를 시각화한 히트맵(Heatmap) 자료를 보면 이용자들은 출퇴근 등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잠실역, 홍대입구역 등 사무실 및 상권 밀집 지역에서 공유 전동킵보드를 이용했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 운행 데이터를 보면 평일 오전 8시~10시와 평일 오후 6시~8시 등 출퇴근 시간 이용량이 전체 이용량의 34.8%를 차지했는데 이는 해외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높다. 이를 바탕으로 라임(Lime)은 출퇴근 시간에 요금을 낮추어 국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요금제 개편으로 출퇴근 시간에 공용 킵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⁷⁾ 이렇게 전동킵보드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상황에 맞게 전동킵보드의 위치를 검색하고, 예약, 결제를 쉽게 할 수 있기에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 전동킵보드 관련 법

초기 전동킵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규정이 없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2020년 5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되며,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되었다. 이 개정된 법은

6) KISO 기획팀, ‘공유 전동킵보드’ 국내 동향과 그 기대효과, KISO 저널 제36호, 2019. 9. 3., <<https://journal.kiso.or.kr/?p=9850>>

7) 윤현종, 서울 통근러, LA속 베를린보다 공유 킵보드 더 많이 이용해, 씨넷코리아, 2021. 5. 10., <<https://www.cnet.co.kr/view/?no=20210510125740>>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법인데, 이 법이 적용되고 얼마 후 2020년 12월 법이 개정되어 5월 13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전동킥보드 법이 적용되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었던 전동킥보드는 그 당시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인도 등에서는 주행이 불가하였고 차도에서만 운행 가능했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이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면허가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행 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운행할 수 없지만 자전거 도로에서나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운행 가능했다. 안전모 착용은 개정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의무로 착용하도록 하였지만 벌금은 따로 규정하지 않는 등 이전보다 규제를 많이 완화하였다. 이 외에도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과거에는 원동기 면허 등이 취소되었지만 개정된 이후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원동기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

2020년 5월 개정 법안이 처음 적용되었을 때는 자전거 도로에서의 통행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전에 비해 규제가 너무 완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개정 법안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0년 12월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다시 새롭게 개정되어 2021년 5월 13일부터 새로운 법이 적용되어 얼마 전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새롭게 개정된 법으로 인해 앞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은 다시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이상의 보유자만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음주 측정 요구 거부 시 원동기 면허 등이 취소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다시 벌금을 내는 것이 법으로 의무화되었다. 이처럼 최근 새롭게 적용된 법은 처음 개정된 법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을 반영해 법을 조금 더 강화하였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법의 개정어 따른 사람들의 반응을 반영해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더욱 자주 바뀌고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그림 4>와 같다.

구분	기존	'20. 12.10.~'21.5.12.	'21. 5.13.-
분류	소형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차체 중량 30kg, 제한 속도 25km/h)	
도로 이용	차도 통행 보도통행금지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 자전거도로 없을 시 차도운행 보도통행금지	
면허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만 13세 이상, 면허 불필요 (다만, 킥보드대여를 위해서는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음주측정요구 거부 시 원동기면허 등 취소	음주측정요구 거부 시 원동기면허 등 취소 ×	음주측정요구 거부 시 원동기면허 등 취소
보호 장비	안전모 착용 의무 (적발 시 범칙금)	안전모 착용 권고 (처벌규정 없음)	안전모 착용 의무 (적발 시 범칙금)

<그림 4> 전동킥보드 관련 법의 변화

3.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점

전동킥보드의 편리성과 재미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 의해 많은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만 이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 전동킥보드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폭발 문제, 법에 관련된 문제, 주차 문제 등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여러 종류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크게 안전성의 문제, 법의 문제, 시민의식의 문제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3.1. 안전성의 문제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하는 등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의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이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40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과 충돌해, 보행자가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고이다.⁸⁾ 이외에도 2020년 12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한 사건이 있다. 이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이다. 이때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운전자가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아 머리를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이다.⁹⁾ 이처럼 전동킥보드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도 전동킥보드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망사건이 아니더라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도로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전동킥보드 관련 화재 문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화재의 원인은 대부분 배터리 과충전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동킥보드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충전되면 과열로 인해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져 발생하는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화재는 2017년 4건, 2018년 5건, 2019년 10건, 2020년 39건으로 4년 사이 약 10배가 늘었다.¹⁰⁾ 이 외에도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무단으로 개조된 전동킥보드가 수입되는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전동킥보드를 한 대에 두 명이 타고 다니거나 속도를 조절하지 않고 아무곳에서나 최고 속도로 달리는 행위 등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수많은 안전성 문제가 존재한다.

3.2. 법의 문제

전동킥보드 관련 법은 사회의 상황과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계속해서 조금씩 개정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바뀌는 법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법이 약 6개월 전부터 개정이 되었음에도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보면 어떠한 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잘 알지 못한다. 최근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알지 못하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이용해 법에 걸린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많이 존재했다. 이처럼 계속해서 변화하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존재하기에 법을 어기는 사람들의 수도

8) 김정훈, 전동킥보드에 치여 보행자 첫 사망, 동아닷컴, 2018. 10. 1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011/92362653/1>>

9) 이승윤, 전동 킥보드 운전자, 오토바이와 충돌해 결국 숨져, YTN, 2020. 12. 3.,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030715481261>

10) 정영재, “충전 중 갑자기 평”...10배 늘어난 전동킥보드 화재, 중앙일보, 2021. 5. 12.,

<<https://news.joins.com/article/24055808>>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전동킵보드와 관련한 법이 개정되는 이유는 전동킵보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존재한다면 법이 개정된 이유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고도 줄지 않을 것이다.

최근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헬멧 착용’과 관련한 법안은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에게 이와 관련한 법에 대해 인터뷰해본 결과 법을 지키기 위해 이용을 줄인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안전을 위해 착용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헬멧을 꼭 들고 다녀야 하기에 힘들다는 것이다. 업계 측의 말을 들어보니 공용 전동킵보드의 평균 이용 시간은 5분 안팎인데 이를 위해 헬멧을 구매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하였다.¹¹⁾ 개정된 법안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며 전동킵보드 이용률은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2주가량이 되면서 킵보드 이용률이 30~50% 급감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해 과태료 조항이 없는 자전거 수준으로 안전모 규제를 낮춰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외에도 헬멧 착용 조항에 대한 법안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고 증가율이 너무 크기에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헬멧 착용에 대한 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용률이 절반이나 준 것을 보면 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인도 위로 주행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기에 도심에서도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법을 지켜 전동킵보드를 이용할 때조차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 기자가 서울 서대문구에서 서울 마포구 공덕역까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 보았는데, 속도에 한계가 있는 탓에 뒤에 있던 차는 경적을 울리다 전동킵보드 옆을 빠르게 지나쳤다. 전방에 주차된 차가 있어 차선을 살짝 비켜가려 할 때에는 뒤에서 접근하는 차량과 충돌할 뻔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차도가 줄어들어 좁은 공간에서는 아무리 가속 버튼을 눌러도 2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민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¹²⁾

이처럼 변화하는 법에 대응하는 적절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서 법만 무작정 바뀌는 것은 전동킵보드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부작용만 낳고 있는 상황이다.

3.3. 시민 의식의 문제

공유 서비스가 확산되며 전동킵보드의 주차 문제에 대한 불만도 많이 나온다. 킵보드를 도로 한복판에 주차하거나 좁은 골목길과 같이 아무 곳이나 주차하는 사람들에 의해 통행하는 데에도 불편함을 준다. (그림 5 참조)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현관이나 옥상, 또는 지하주차장과 같은 곳에 주차를 하여 공용 전동킵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소유화하려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쓰레기터미 사이에 공유 전동킵보드를 세워두는 경우도 있는 등 길거리 곳곳에 전동킵보드가 세워져 있어 통행하는 사람이나 거리 미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11) 이문현, 전동킵보드 헬멧 안쓰면 범칙금 2만원...현장에서선?, MBC NEWS, 2021. 5. 13.,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177553_34887.html>

12) 이용성, “인도는 안 돼, 찾길선 빵빵”...전동킵보드, ‘도로 위 민폐’, 이데일리, 2021. 5. 1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42406629048264&mediaCodeNo=257&OutLnkChk=Y>>



〈그림 5〉 도로 한복판에 주차된 전동키토드

4. 전동키토드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 방안 제안

4.1. 안전성의 문제 줄이기 위한 방안

전동키토드의 안전성 문제 중 교통사고 관련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동키토드 관련 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는 과속 불법 장치에 대한 단속 강화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동키토드 운영업체에서는 전동키토드 대여를 할 때 안전수칙에 대한 고지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나 여러 기관에서는 전동키토드 안전운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도 있다.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초·중·고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교와 가정에서 안전 교육을 실시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공익광고 영상을 TV와 라디오 등에 송출하고 카드뉴스나 웹툰 등의 다양한 형태로 안전 홍보물을 제작해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면 안전 교육 및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¹³⁾ 이처럼 여러 노력들을 한다면 전동키토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거리를 돌아다니는 시민들도 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욱 의식하고 전동키토드를 이용할 것이고, 뺑소니 문제의 발생도 더욱 줄어들 것이다.

전동키토드의 화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충전을 막는 보호 장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 충전할 때는 되도록 집에 같이 있을 때 하여 충전이 완료되면 콘센트에서 바로 빼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현관문이나 방문 앞과 같은 곳에서 충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을 권장한다. 화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좋은 것은 과충전을 했을 때도 터지지 않도록 리튬이온 배터리 외에 다른 더 안전한 것을 찾아 만드는 것이겠지만, 이는 당장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동키토드 화재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4.2. 전동키토드 관련 법의 문제 해결 방안

전동키토드를 이용할 때 헬멧 착용의 의무화가 강화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곳곳에서

13) pmg 지식연구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강화(2021),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강화(202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446004&cid=43667&categoryId=43667>〉 2021. 6. 4.에서 재인용.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북대에서는 대학 근처에서 전동킵보드가 많이 이용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안전한 대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썼다.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대여 사업을 마련했다. 이는 학생처와 총무과, 총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250개의 안전모를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안전모는 각 단과대학과 총 동아리 연합회 등에 비치돼 소정의 보증금을 받고 학생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에게 대여된다.¹⁴⁾ (그림 6 참조) 이처럼 대학 내에서 보증금을 받고 안전모를 빌려주는 것은 대학 근처 전동킵보드 이용자의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좋은 해결 방안이 될 것 같다. 또한 대학 내에서의 사고도 줄이고, 학생들이 변화된 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권장해주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안전모 대여 시스템을 실시한다면 이용자들의 안전에도 도움을 주고 법을 지키는 이용자들의 수 또한 증가할 것이다.

앞의 전동킵보드 관련 법의 문제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법에 따라 인도에서가 아닌 도로에서 이용하였지만 그럼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을 보면 인도에서나 차도에서나 전동킵보드를 이용할 때의 위험성은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을 인도에서 전동킵보드를 이용할 때는 좀 더 느린 속도로 이동 가능하도록 하고 차도에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운행이 가능하게 하는 등 상황에 따라 속도를 다르게 운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한 문제점 때문에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일정 속도 이하이면 전동킵보드의 보도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¹⁵⁾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법을 개정한다면 전동 킵보드의 운행 장소와 관련한 사고는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변화되는 법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같이 법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에 계속 해서 법이 발전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토대로 법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되 변화한 법에 대해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람들이 바뀐 법에 대해 보이는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을 토대로 사회에 맞게 법을 변화시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하는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¹⁶⁾



〈그림 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캠페인을 하는 모습

14) 유난슬, “안전모 무상 대여”...전북대, 전동킵보드 안전관리 강화, 뉴시스, 2021. 5. 12.,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2_0001438154〉

15) 김필수, 전동킵보드 죽음 내모는 ‘차도 통행’ 보도 사용 가능한 방법 찾자, AUTOHERALD, 2021. 5. 9.,

〈<http://www.auto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60>〉

16) pmg 지식연구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강화(2021),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강화(202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46004&cid=43667&categoryId=43667>〉 2021. 6. 4.에서 재인용.

4.3. 시민 의식의 문제 해결 방안

전동키토드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 세우지 말아야 할 곳과 세워도 괜찮은 곳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동키토드의 주차 공간을 따로 마련해 그곳에만 세우도록 한다면 주차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언제 어디서나 세울 수 있도록 하려면 이용자들이 올바른 주차를 하여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전동키토드 이용자들이 주차를 하기 전 한 번씩만이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배려한다면 이 문제는 다른 어느 문제보다 손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사소한 배려와 함께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동키토드 전용 주차장 마련을 위해 힘쓴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5. 결론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일종인 전동키토드는 최근 많은 인기를 받고 있다.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동키토드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재미 등과 같은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의 가져다주었기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게 되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동키토드 시장 규모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동키토드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전동키토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동키토드로 인한 사고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변화했고 전동키토드가 주는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부정적인 면도 많이 발생해 우리 생활에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동키토드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고, 전동키토드와 관련한 법이 어떻게 개정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등 전동키토드의 이용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동키토드로 인해 법에 관련한 문제, 사고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시민 의식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전동키토드의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동키토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교통사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교통사고 문제가 많은 만큼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종류도 다양했다. 전동키토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망한 사건, 전동키토드로 인해 길을 가던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 무면허로 인한 사건 등 교통사고의 종류도 다양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의 정도도 천차만별이었다. 안전성의 문제에는 이 외에도 전동키토드 폭발로 인한 화재의 문제, 속도 조절로 인한 문제 등이 있었다. 이러한 안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동키토드 관련 단속 강화하기, 과속 불법 장치에 대한 단속 강화하기, 안전수칙에 대해 미리 공지하고 이에 대한 교육 실시하기, 과충전 막는 보호 장치 의무화하기 등의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법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어떠한 법이 적용되고 있었고, 이 법이 왜 개정되게 되었으며, 얼마 전 바뀐 법은 이전의 법과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법이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법은 계속해서 변화하지만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존재하기도 하고,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에 안전을 위해 법을 바꾸었지만 바뀐 법이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해 법의 실효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의 상황을 맞추어가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을 조금씩 개정해 나간다면 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의식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일에서나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듯이, 주차를 하기 전 또는 전동키펠드를 타고 주행을 하기 전 올바른 전동키펠드 이용 방법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탄다면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변화하는 법의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조금 더 안전한 전동키펠드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동키펠드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안전한 공용키펠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용키펠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공용키펠드가 많이 사용되는 곳에 살고 있는 보행자들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주차를 하기 전 다른 사람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전동키펠드로 인한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력도 필수적이다. 전동키펠드로 인한 보다 나은 모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이라도 노력한다면 전동키펠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 안전한 전동키펠드 이용을 위한 국민의견 분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12. 16.,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166>>
- 김정훈, 전동키펠드에 치여 보행자 첫 사망, 동아닷컴, 2018. 10. 1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011/92362653/1>>
- 김필수, 전동키펠드 죽음 내모는 ‘차도 통행’ 보도 사용 가능한 방법 찾자, AUTOHERALD, 2021. 5. 9.,
 <<http://www.auto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60>>
- 백주원, 1년새 6배 큰 전동키펠드 공유시장 ‘뜨거운 3파전’, 서울경제, 2020. 5. 25.,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VZQQFH8>>
- 유난슬, “안전모 무상 대여”…전북대, 전동키펠드 안전관리 강화, 뉴시스, 2021. 5. 12.,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2_0001438154>
- 윤현중, 서울 통근러, LA속 베를린보다 공유 키펠드 더 많이 이용해, 씨넷코리아, 2021. 5. 10.,
 <<https://www.cnet.co.kr/view/?no=20210510125740>>
- 이문현, 전동키펠드 헬멧 안 쓰면 범칙금 2만 원…현장에선?, MBC NEWS, 2021. 5. 13.,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177553_34887.html>
- 이승윤, 전동 키펠드 운전자, 오토바이와 충돌해 결국 숨져, YTN, 2020. 12. 3.,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030715481261>
- 이용성, “인도는 안돼, 찾길선 빵빵”…전동키펠드, ‘도로 위 민폐’, 이데일리, 2021. 5. 1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42406629048264&mediaCodeNo=257&OutLnkChk=Y>>
- 정영재, “충전 중 갑자기 평”…10배 늘어난 전동키펠드 화재, 중앙일보, 2021. 5. 12.,
 <<https://news.joins.com/article/24055808>>

조은임, 올해 전동키패드 사고 135% 급증...대부분 '운전미 숙과속 속, 한국경제, 2020. 12. 25.,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2078577>〉

KISO 기획팀, '공유 전동키패드' 국내 동향과 그 기대효과, KISO 저널 제36호, 2019. 9. 3.,

〈<https://journal.kiso.or.kr/?p=9850>〉

참고 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프로야구 AI 심판 활용 사례 분석 및 전망

휴먼지능정보공학과 문경*

목 차

1. 서론
 2. 프로야구 AI심판의 발전 현황
 - 2.1. 메이저리그 사례
 - 2.2. kbo리그 사례
 3. 프로야구 AI심판 작동 원리 및 구현 기술
 - 3.1. 작동 원리
 - 3.2. 구현 기술
 4. 프로야구 AI심판 필요성
 - 4.1. 스포츠에서 공정성
 - 4.2. 인간 심판의 한계
 5. 결론 및 제언
- 참고 문헌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프로야구 AI¹⁾심판 발전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2020년 1000만 관중이라고 할 정도로 성장한 국내 프로야구 스포츠 시장에서 스트라이크 판정은 관중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 되었고, 기술의 발전으로 AI심판을 도입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AI관련 기업²⁾이 프로야구 AI심판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추세이며 여러 야구 스포츠 리그에서도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한 AI심판을 시범도입 중이다.

신동윤(2017)에서는 메이저리그에서 AI심판을 도입할 때의 현황과 기술 발전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2003년 6월 2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Arizona Diamondbacks) 소속의 투수 커트 실링(Curt Schilling)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벌금 1500달러를 선고받았다. 자신이 던진 공을 퀘스텍(QuesTec) 시스템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관측 장비를 부숴버렸기 때문이다.

그 당시 메이저리그에서는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해 관중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카메라로 공의 궤적을 촬영해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는 장비 그리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리고 이것은 뜨거운 논란을 발생시켰다. 여론에서는 ‘야구가 순수성을 잃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일부 투수들은 스트라이크 판정이 너무 까다로워졌다는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며 심판 노조에서 반발도 거셌다. 투수 실링에 난폭한 의사 표현도 그 연장선상이었던 것이다.

반면, ‘공정성을 위해서 기계가 스트라이크 판정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기계가 실시간으로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명확한 선이 정해져 있고 공의 인아웃을 판단하는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존은 선수들의 체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먼저 선수들마다 체형을 파악하는 데 쓰이는 관측장비의 한계 그리고 판정을 실시간으로 심판에게 전달하는 통신 장비 또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AI의 기술로 이미지 추적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특정 이미지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관측 장비가 그 이미지를 추적하는 시스템인데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계산하여 실시간으로 결과를 산출한다. 여기서 AI기술이 적용된다. 선수들 개개인의 체형³⁾을 파악하고 스트라이크 존을 형성한다. 관측장비로 공의 궤적을 파악하고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며 통신 장비로 주심에게 전달하면 판정이 완료된 것이다. 이처럼 최근에 와서 레이더 장비(트랙맨), 광학 카메라, 데이터 학습, 이미지 추적기술의 발전에 따라 AI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 정확도가 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스트라이크 판정의 공정성 그리고 인간 심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조 역할로써 AI심판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프로야구 AI심판의 발전 현황을 정리하고, AI심판의 작동 원리 및 구현 기술을 살펴볼 것이며 프로야구 AI심판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2. 프로야구 AI심판의 발전 현황

2.1. 메이저리그 사례

1869년부터 시작된 메이저리그는 전 세계에서 규모도 가장 크고 그에 따른 데이터 양도 매우 많다. 그리하

1)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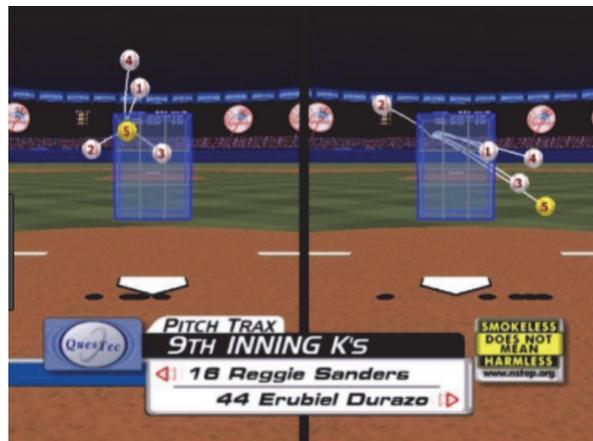
2) 스포츠투아이라는 국내 기업

3) 어깨선~바지 벨트선의 중앙선부터 무릎선까지가 스트라이크 존

여 2021년 현재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한 AI심판 도입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많은 역사가 있는 만큼 사례도 많다. 메이저리그는 비교적 과거부터 스트라이크 판정에서 기계의 도움을 받고자 노력했다. 아래에서는 메이저리그에서 기계 시스템에서 AI시스템까지 발전한 과정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메이저리그는 1950년대에 처음으로 기계가 스트라이크를 판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메이저리그에서 제너럴일렉트릭과 LA다저스팀의 협업으로 금속물질을 바른 특수야구공과 전자시스템을 통한 로봇심판을 개발했다. 하지만, 비싼 비용 그리고 잦은 오류로 포기하였다.

2003년에 메이저리그에서는 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으로 '퀘스텍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컴퓨터의 발전으로 공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온 것을 이미지화하여 스트라이크를 볼 판정을 하는 시스템이다. 입 당시 심판노조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 시스템은 주심을 보조하는 역할로 정해지자 찬성으로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이에 메이저리그 측은 2003년에 10개 구장에서 20개 이상 구장으로 확대하였고 기간도 5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퀘스텍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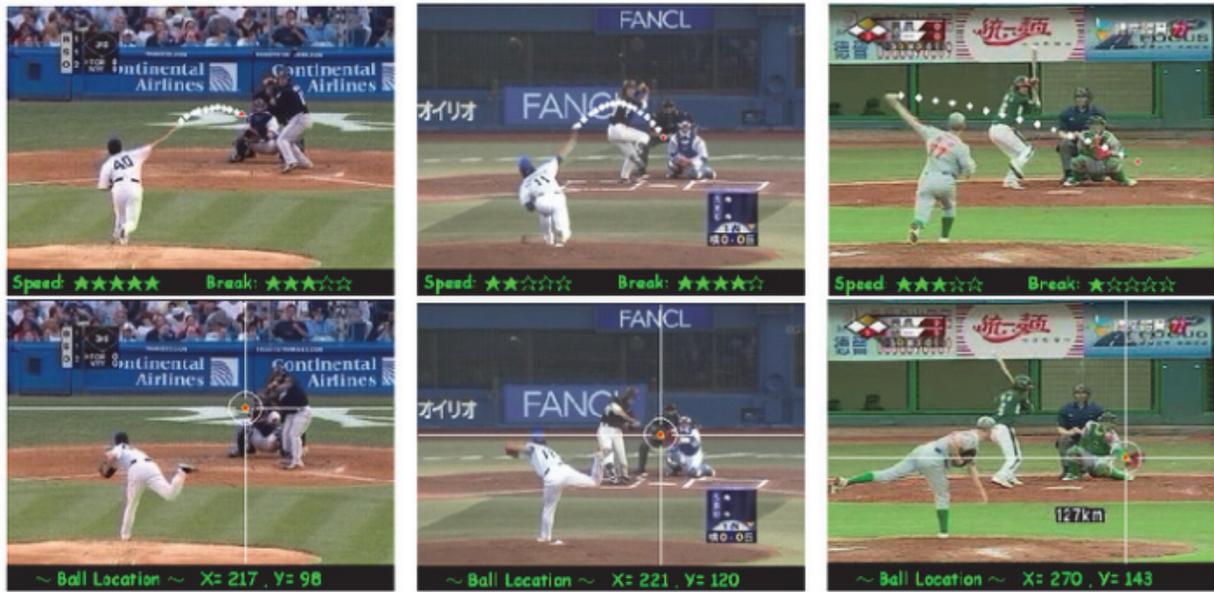


〈그림 1〉 퀘스텍시스템을 통해 공의 위치를 이미지화한 사진

2007년에는 메이저리그에서 투구추적시스템(f/x)를 도입했다, 기존 퀘스텍 시스템은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왔는지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투구추적시스템(f/x)는 공의 궤적을 3대의 광학카메라로 촬영하여 3차원의 좌표로 계산한다.

2015년에는 메이저리그가 스트라이크 판정 공식 플랫폼으로 스탯캐스트(StatCast)를 채택하였다. 기존 광학카메라 기반 투구추적시스템과 달리 도플러레이더(Doppler radar)를 활용하여 투구 궤적을 추적한다. 기존 투구추적시스템(f/x)가 초당 24컷으로 공의 궤적을 추적했다면 스탯캐스트는 초당 2만 컷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정확도도 95%에서 99%의 결괏값이 산출된다.

2019년 8월 미국 독립리그에서 서미닛 패트리어츠와 서던 매릴랜드 블루크랩스 경기에서 트랙맨 장비를 활용한 AI심판이 최초 도입되었다. 구장 홈플레이트 위쪽에 설치된 트랙맨 장비가 공을 추적하며 AI가 3차원 공간을 형성하고 공의 궤적을 파악한다. 가상의 스트라이크 존을 만들어 궤적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 스트라이크, 벗어나면 볼로 정의한 것이다. 스트라이크 존은 선수의 체형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이미지 학습을 통해 자동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형성한다. 기존 스탯캐스트와 다른점은 레이더 장비의 발전이다. 기존 도플러레이더는 날씨에 따라 파장의 변화⁴⁾로 정확도가 내려갔지만 트랙맨 레이더는 이를 보완한 장비이다. 트랙맨 레이더 장비에 관한 것은 '3.2. 구현 기술'에서 다룰 것이다.



〈그림 2〉 트랙맨 장비를 활용한 AI심판 최초 도입
출처: 카카오 1boon, 테크플러스, 2020년 03월 08일.

2.2. KBO리그 사례

1981년에 개최한 KBO리그는 40년 동안 리그를 진행하면서 기계를 통한 심판 보조를 메이저리그처럼 공격적으로 시범 도입하지 않았다. 2017년에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는 것이 처음으로 기계의 보조를 받는 제도였다. 메이저리그를 참고해 2020년 10월 퓨처스리그에서 처음으로 AI심판을 도입하였다. 가장 최신 기술인 트랙맨(레이더)장비를 활용하여 공의 궤도를 판단해 볼과 스트라이크를 판정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국내기업 ‘스포츠 투아이’가 메이저리그의 투구추적시스템(f/x)를 바탕으로 개발한 PTS를 활용하고 있다. PTS에 관한 기술은 ‘3.2. 구현 기술’에서 더 다뤄볼 예정이다.



〈그림 3〉 〈그림 4〉 2020년 9월 9일 KBO 2군(퓨처스 리그)에서 AI 심판이 시범 도입
출처: 유튜브 스포카도TV 방송 캡처 (38초) 2020년 9월 10일
[스.포.하.라] Siri야, 스트라이크? 최초의 AI심판 경기!(9. 9.)

- 4) 보통 날씨가 흐릴 때 오차범위가 증가한다고 한다.
- 5) Pitch Tracking System의 약자

한국 프로야구 KBO는 2020년 09월 09일부터 남은 2군 26경기에 AI심판을 시범 도입했었고 올해 2021년에 5월 말에서 6월부터 다시 모든 2군 경기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0년에는 AI심판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는데 2초가량이 소모되었지만 KBO에서는 현재 1.5초 이내로 판정을 원하고 있으며 국내기업 '스포츠 투아이'에서 기술 구현을 성공했다. 더 정확한 건 올해 2021년 2군 경기에서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에서 정은재(KBO 2군 심판)은 “제가 봤을 때는 10개 미만으로 오차가 있었습니다. 변화구의 경우 스트라이크 존으로 오다가 끝에서 떨어지는 경우 오차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라며 AI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해 개선할 점을 제시했다.⁶⁾

3. 프로야구 AI 심판의 작동 원리 및 구현 기술

3.1. 작동 원리

로봇 심판의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4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야구장에 설치된 카메라나 레이더 같은 장비가 투수의 공 궤적을 추적하고 실시간으로 위치값을 전송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AI 심판이 트래킹 정보를 바탕으로 스트라이크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판정 결과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주심이 착용한 이어폰으로 전달하고 주심은 수신호로 최종 판정을 내린다. 마지막 4번째로는 현장 요원이 모니터링하여 결과 및 영상을 기록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이 4가지를 모두 마치면 스트라이크 판정이 완료되는 것이며 현재 기술로는 2초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3.2. 구현 기술

구현 기술은 크게 2가지로 구분 된다. 첫 번째는 야구공을 추적하는 레이더 장비인 트랙맨이며 두 번째는 광학카메라 방식의 PTS기술이다. 현재 야구공 추적 장비인 이 2가지는 계측 시스템의 차이가 있다. 트래킹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에 있어 트랙맨 레이더 장비는 애슬릿미디어가 공급자이고 PTS 장비는 스포츠 투아이가 제공하고 있다.

트랙맨 레이더 장비는 2002년 골프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레이더를 통해 골프공의 비행을 추적하여 골프공의 궤적과 거리 등을 측정한다. 이후 애슬릿미디어는 2011년부터 야구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해 메이저 리그 전 구단과 마이너리그에서 선수들의 훈련에서 사용되었다. PTS에서는 산출이 쉽지 않은 익스텐션, 회전축 등 데이터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속 측정에서도 PTS보다 한발 앞서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트래킹 서비스로 확장이 어렵다는 점이다. 원인은 가격인데 PTS 관측 장비보다 다섯 배 정도 비싸다고 한다.(트랙맨 장비 1대에 약 1억 원이라고 한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데이터 손실 부분이다. 메이저리그 기록 전문 사이트 팬그래프닷컴에 따르면, 트랙맨은 표면에서 수직으로 움직이는 공을 포착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팝업->땅볼->뜬공->라인드라이브 순으로 추적 실패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날씨(우천, 흐림)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평가됐다.

PTS 장비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2007년 투구추적시스템(f/x)기술에 바탕으로 국내 기업인 스포츠투아가 개발한 방식이다. PTS는 투구의 초속과 종속 운동을 비롯해 회전율, 로케이션, 릴리스 포인트를 측정한다. PTS 장비에 투수의 피칭뿐만 아니라 필드 자체를 관측하는 '필드 트래킹 시스템(PTS)'을 장착해 조금 더 폭넓은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계획이 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PTS는 1대에 약 2000

6) YTN에서 2020년 8월에 진행한 <2초의 정적 뒤 "스트라이크!"... 절반의 성공 '로봇 심판'> 인터뷰



〈그림 5〉 익스텐션, 회전축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트랙맨. SPOTV 캡처

만 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트랙맨보다 측정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익스텐션(투구판부터 공을 릴리스하는 지점까지 거리)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다.

4. 프로야구 AI 심판의 필요성

4.1. 스포츠에 있어 공정성

스포츠 산업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공정성이다. 심판은 어느 특정팀도 편애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정확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심판도 사람이다. 사람은 항상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날의 변수에 따라 정확하지 않은 결과값을 도출한다. 국내 프로야구 KBO리그에 심판들은 평균적으로 나이가 많은 편이다. 보통 프로선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선수들이 KBO 심판으로 기용되기 때문이다. 나이에 따른 노안, 상황판단 능력 저하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을 한다는 것에 불신을 주는 문제점이다. 기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받는 것이 공정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다. 현재 기술로는 충분히 프로야구 AI 심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람의 직업 자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주심을 보조하는 역할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미 축구에서 VAR 판정이나 해제 사이드 판정에서도 AI 심판을 활용하여 축구공을 추적해 주심이 도움을 받고 있다. 유럽에서 테니스 종목을 2005년부터 레이더 장비를 이용해 공의 인 앤드 아웃 판정을 하고 있다.

〈표 1〉 AI 심판을 주심 자리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

문항 : AI 심판을 주심 자리에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명	백분율
1) 찬성	94	81.74%
2) 반대	14	12.17%
3) 중립	6	5.22%
4) 기타 의견(잘 모르겠다 등)	1	0.87%

〈표 1〉)에서처럼 약 81.74% 관중들은 프로야구 AI심판 도입 찬성을 말하고 있다. 관중들이 원하는 것은

7) 네이버 블로그, Traffic Park, [설문] KBO리그 관련 이슈 (로봇 심판, AI 심판 도입 찬반투표, 관중 입장 시기 관련, 벤치클리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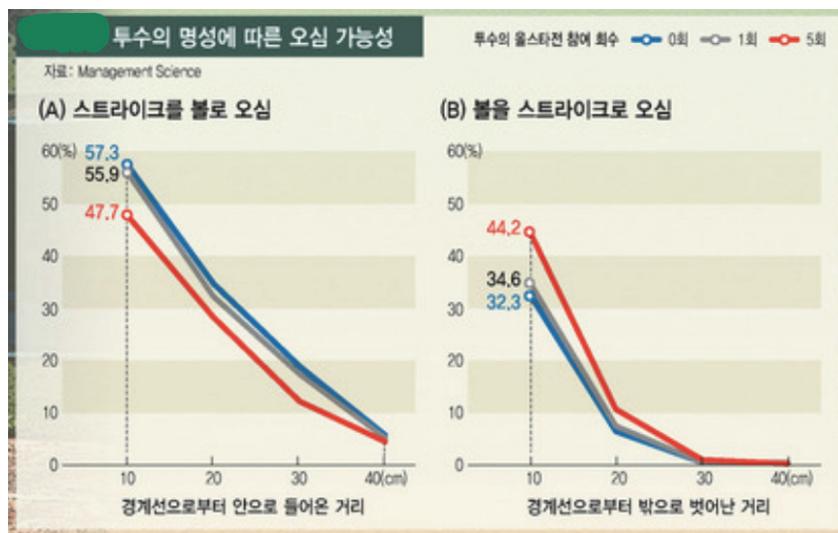
명료하다. 공정한 경기를 원하는 것 그것뿐이다.

4.1. 인간 심판의 한계



〈그림 6〉 4월 10일 SSG대 LG의 9회 말 2아웃 오심으로 경기 종료
출처: 네이버 스포츠 방송 캡처 (3시간 47분 57초), 4월 10일 SSG 대 LG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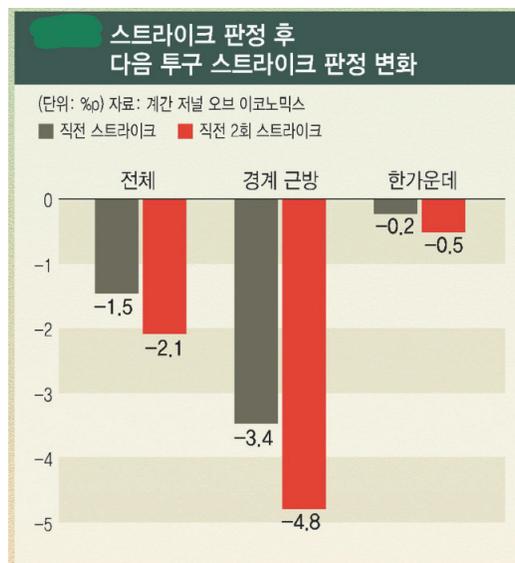
KBO에 따르면 미스콜 A개와 정확도 B % 부분은 언론과 팬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심판의 자체 복기 시스템에 따라 해당 심판에게는 전달된다고 한다. 대략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인의 공 10% 정도는 잘못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KBO의 의견이다. 이날 경기의 통계를 한 팀당 144개 경기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10개 구단 체제에서 총 720경기를 진행하며 주심은 1년 동안 약 10만 개 이상의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10% 정도를 잘못 볼 수 있다고 말한 KBO의 의견을 대입해보면 약 공 1만 개 총 72경기에서 오심이 나오는 애매한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림 7〉 투수의 명성에 따른 오심 가능성
출처: 한겨레 신문 (프로야구, 로봇 심판이 필요할까요?) 2018년 4월 8일 뉴스 캡처

〈그림 7〉에서 그래프를 보면 프로야구 심판이 투수의 명성에 따라서 오심이 나오는 것을 분석한 그래프이다. 〈그림 7-A〉는 스트라이크를 볼로 오심하여 투수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림 7-B〉는 볼을 스트라이크로 오심 판정하여 투수를 유리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다. 투수의 올스타전 참여 횟수(명성)가 낮을수록 불리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횟수가 높을수록 투수가 유리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 그래프의 결론은 심판이 결국 투수의 명성이 높을수록 투수를 믿고 스트라이크 판정을 더 잘 내릴 수 있다는 심리적 요인을 보여준다.

명성에 따른 오심뿐만 아니라 스트라이크 판정 이후 변화하는 스트라이크 존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 오심도 인간의 심리와 관련되어 있다. 보통 사람은 앞서 나온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측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도박사의 오류라고 표현하며 이것은 프로야구에서 스트라이크 판정에서도 드러났다. 툴루즈경제대학의 다니엘 쉐 교수(2016)가 2008년부터 2012년 메이저리그 (f/x)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그림 8〉 스트라이크 판정 후 다음 투구 스트라이크 판정 변화

출처: 한겨레 신문 (프로야구, 로봇 심판이 필요할까요?) 2018년 4월 8일 뉴스 캡처

〈그림 8〉에서 나오듯이, 심판은 직전 투구를 스트라이크라고 판정하면 다음 공이 실제 스트라이크여도 스트라이크로 판정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추가로, 두 번 연속으로 스트라이크로 판정했을 때는 스트라이크 판정이 더 줄어들었다. 참고로 경계 선상에서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왔고, 한가운데 투구의 경우에는 효과가 미미하게 나왔다.

5. 결론 및 제언

‘오심도 경기 일부다’라는 표현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공학의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인간 심판의 심리 변화, 심판 매수, 심판의 역량 등 다양한 요인은 오심을 발생시킬 수 있다. 기술의 힘을 빌릴 수 있고 그것이 공정성에서 심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입이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다. AI 심판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 심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도 아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프로야구 AI 심판의 활용 사례 및 전망을 보았다, 공학과 컴퓨터의 발전으로 정식 경기에 AI 심판 도입을 앞두고 있다. 측정 장비, 이미지 추적기술, 통신 장비와 같은 기술적 부분은 모두 준비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AI 심판 도입 후 변화될 수 있는 요인에 대비해 정책이나 규칙만 만들어진다면 언제든지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야구 종목의 160년간 끊이지 않았던 스트라이크 판정 논란 AI 심판이 과연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술의 한계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가.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본인의 관심사에 더 세밀한 지식을 원하게 될 것이고 그 관심사나 취미의 산업은 발전되리라 생각한다. 평화로운 야구 스포츠 산업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서를 마친다.

참고 문헌

〈논문〉

신동윤, 로봇심판과 판정 알고리즘의 의미 있는 도전, 카카오 AI 리포트 14,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2018, 78-83쪽.

황수웅·박일혁, MLB 투구기록을 활용한 프로야구 심판의 'Strike' 판정오류 영향 요인 탐색.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22(3), 2020, 25-38쪽.

Christopher A. Parsons 외 3명(2011), *Strike Three: Discrimination, Incentives, and Evalu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101. No.4, pp.1410-1435.

〈단행본〉

스포츠문화연구소, 인공지능이 스포츠 심판이라면: 프로야구부터 올림픽까지 규칙으로 읽는 스포츠, 서울: 다른, 2020.

카카오 AI 리포트 편집진, 카카오 AI 리포트-인간과 인공지능을 말하다, 서울: 북바이북, 2018.

〈인터넷 사이트〉

스탯티즈, KBO 경기 기록 데이터 <<http://www.statiz.co.kr/main.php>>

KBO, 한국 야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koreabaseball.com/>>

Strikes Zone, 스트라이크와 볼 판정 데이터 모음집 <<https://strikes.zone/game/210413NCDSSG>>

〈뉴스〉

권동준, 야구 로봇(AI) 심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크플러스, 2020. 3. 8.,

<<https://1boon.kakao.com/techplus/5e61e538dc055229a8aee80f>>

김준래, 스포츠 판정 문제, 로봇 심판이 해결한다, 사이언스타임즈, 2020. 10. 28.,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779037&memberNo=30120665>>

배중현, [배중현의 야구 톨아보기] 트래킹 데이터 경쟁, PTS와 트랙맨, 중앙일보, 2019. 3. 7.,

<<https://news.joins.com/article/23423373>>

송서미, 로봇심판의 등장, 더그아웃매거진 112호(8월호), 2020. 8. 10.,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034094&memberNo=7809>>

682)

- 스타 포스트, 구속만 재는 시절은 끝났다!? 빅데이터 야구 혁명, 네이버 포스트, 2018. 11. 20.,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139094&memberNo=36046856&vType=VERTICAL>>
- 신현호, 프로야구, 로봇 심판이 필요할까요?, 한겨레, 2018. 4. 8.,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9596.html>
- MBC SPORTS+, <메이저리그> 볼판정시스템 '쿼스텍' 본격 도입. mbc스포츠, 2004. 12. 25.,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49&aid=0000015859>>
- newpark314, [설문] KBO리그 관련 이슈(로봇 심판, AI 심판 도입 찬반투표, 관중 입장 시기 관련, 벤치클리 어링 문화)+a, 네이버 블로그, 2020. 5. 25.,
<<https://blog.naver.com/newpark314/221977813763>>



재직자전형 입학 학생들의 만족도 및 향후 계획 조사

: 2021학번 융합경영학과 1학년 재학생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융합경영학과 박인*

목 차

1. 서론
2. 재직자전형에 관한 조사
 - 2.1. 재직자전형 조사
 - 2.2. 상명대학교 융합경영학과 조사
3. 설문조사 분석 결과
 - 3.1. 융합경영학과 재학생의 지원 계기
 - 3.2. 융합경영학과 재학생의 강의 만족도
 - 3.3. 융합경영학과 재학생의 향후 계획
 - 3.4. 융합경영학과 재학생의 학과 추천 여부
4.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부록

1. 서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취업'이다. 우리나라의 20대는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역량을 키우고 있다. 그만큼 취업이 강조되어 있으며, 취업이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도 보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단계를 밟기 위해 우리나라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를 졸업하며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재직자전형인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취업을 보다 빠르게 이룬 학생들은 반대로 '진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재직자전형을 통하여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학과 만족도와 이후 계획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재직자전형을 통해 상명대학교 재직자전형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현재 1학년 재학생의 지원 계기와 필수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그리고 이러한 재학생의 의견을 토대로 융합경영학과 학생들의 발전 계획과 학과 추천 여부를 제안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상명대학교 재직자전형 학과인 융합경영학과 2021학번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구글 폼'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45명이 조사에 응답해 주었다.

2. 재직자전형에 관한 조사

2.1. 재직자전형 조사

'재직자전형'이란 대학교 입학 특별전형으로, 전형 지원 대상자는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와 같이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한 자이다. 전형 지원 가능 조건은 졸업 후 3년의 재직 근무 경력이 있는 재직자이다.

서울권에 재직자전형을 시행하고 있는 일부 대학교와 학과, 선발 모집 인원 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아래의 <표 1>을 보면, 지극히 일부의 학교의 정보를 조사한 것이지만 다양한 학과에서 재직자전형을 선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재직자전형을 시행하고 있는 일부 서울권 대학교²⁾

학교명	학과명	모집인원(정원 내)	학교명	학과명	모집인원(정원 내)
건국대학교	K 뷰티산업융합학과	33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40
건국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	103	동국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69
경희대학교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	119	동국대학교	융합보안학과(야)	40
경희대학교	문화관광산업학과	39	명지대학교	미래융합경영학과	32
경희대학교	조리산업학과	32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16
광운대학교	자산관리학과(야)	39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20
광운대학교	정보콘텐츠학과(야)	53	명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
국민대학교	기업경영학부(야)	110	명지대학교	심리치료학과	24
국민대학교	기업융합법학과(야)	26	상명대학교	융합경영학과	71

1) 상명대학교 입학처, 2022년도 서울캠퍼스 입시요강, 24쪽.

<http://file.megastudy.net/FileServer/UNI_HWP/non_file/22juyo/Y22A01016.pdf>

2) 누운희, 2021학년도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 정리 2, 네이버 블로그, 2020. 6. 5.,

<<https://blog.naver.com/shp04086/221990810100>>, 2021학년도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 정리 3, 네이버 블로그, 2020.

7. 6., <<https://blog.naver.com/shp04086/222022670818>>

2.2. 상명대학교 재직자전형 조사

상명대학교의 유일한 재직자전형 학과인 융합경영학과의 정보와 경쟁률을 조사했다. 경영경제대학 융합경영학과는 2018년에 신설되었으며, 재직자들에게 경영, 경제학적 역량 및 융합적 사고력을 겸비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융합경영학과의 경우 입학 후에 재직 의무가 없어 학교생활, 학업만 집중적으로 몰두하거나 직장과 병행하는 두 가지 방향 선택이 가능하다.

〈표 2〉 상명대학교 융합경영학과 경쟁률3)

학과명	모집인원	2021	2020	2019	2018
융합경영학과	71	5.18:1	2.28:1	1.83:1	1.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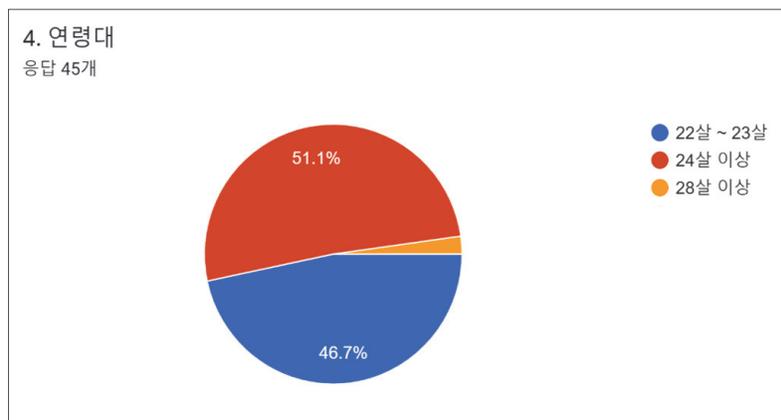
융합경영학과의 경쟁률은 4년간 꾸준히 상승했으며, 특히 2021년도 대폭 상승했다. 이전에는 신설 학과라 학과의 정보나 유무를 알지 못했을 수 있지만, 현재는 선배, 지인, 인터넷을 통해 학과에 관한 많은 정보를 받고 있다. 실제로 융합경영학과 재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해당 학과를 1-2년 전에 알게 되었다는 학생이 97.7%(44명)로 대부분이다.

또한 매해 융합경영학과의 경쟁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2022년 입시 경쟁률 또한 2021년과 비슷하거나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설문조사 분석 결과

3.1. 융합경영학과 재학생의 지원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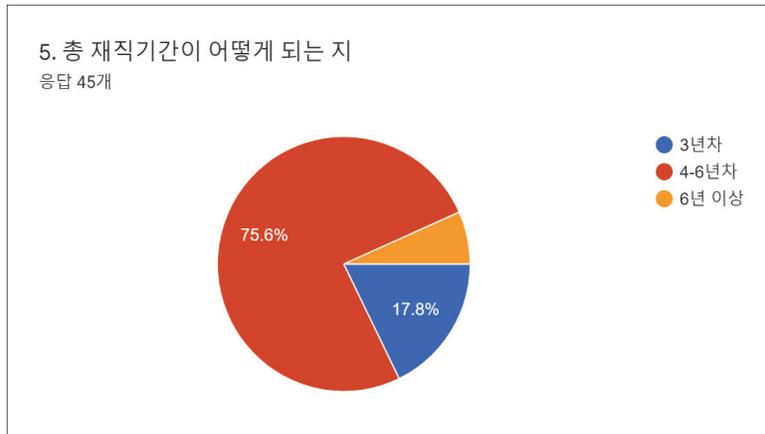
위의 〈표 2〉와 같은 입시 경쟁을 통해 입학한 2021년도 융합경영학과 1학년 재학생들의 연령대, 재직기간, 지원 계기에 관해 조사했다.



〈그림 1〉 융합경영학과 1학년 재학생의 연령대

3) 상명대학교 입학처, 서울캠퍼스 수시모집 경쟁률, [〈https://admission.smu.ac.kr/_seoul/board/bbs.html?bbsid=seoul_comp&ctg_cd=susi〉](https://admission.smu.ac.kr/_seoul/board/bbs.html?bbsid=seoul_comp&ctg_cd=susi) 2021. 5.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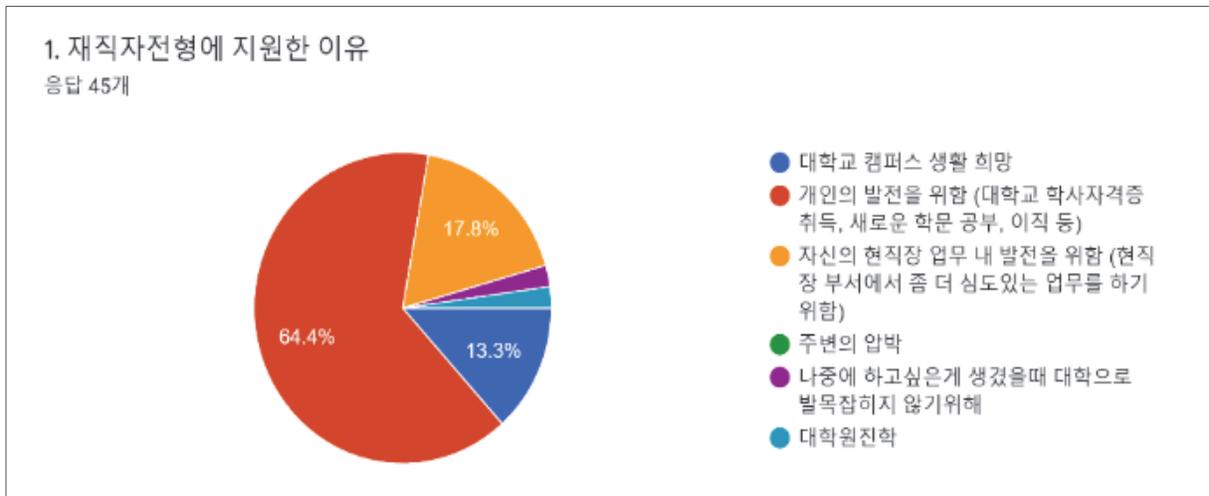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융합경영학과 1학년 재학생의 연령대는 '24살 이상'이 51.1%(23명), '23살 이하'가 46.7%(21명), '28살 이상'은 2.2%(1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융합경영학과 1학년 재학생의 재직기간

그리고 융합경영학과 1학년 재학생의 총 재직기간은, '4~6년'이 75.6%(34명), '3년'은 17.8%(8명), '6년 이상'은 6.7%(3명)로 응답했으며, 재직자전형 지원조건인 근무 경력 3년이 지난 학생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장 업무와 사회생활에 적응한 4-6년차 직장인이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진학을 선택했다는 것은, 졸업 후에 취업처럼 당연한 순차가 아닌, 자신의 발전을 위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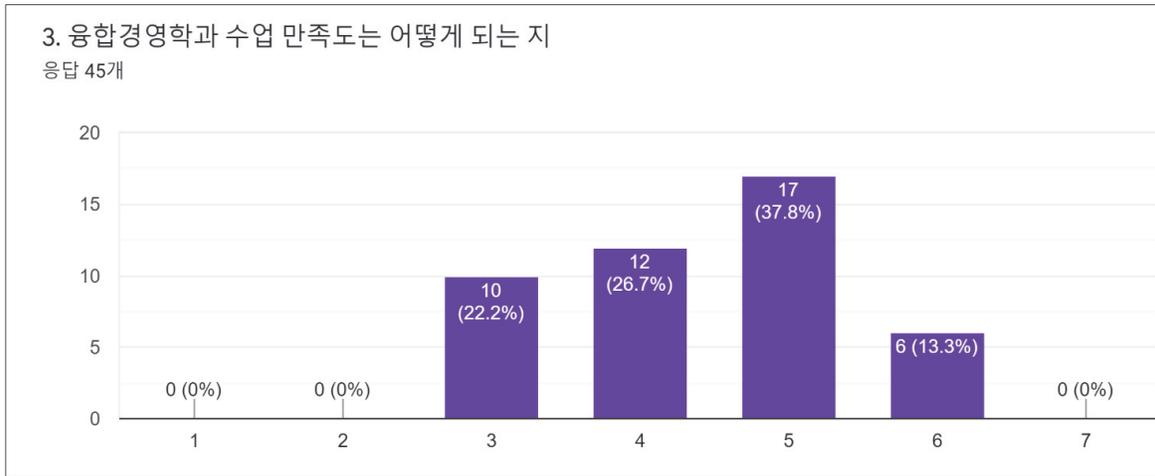
〈그림 3〉 융합경영학과 재직자전형에 지원 계기

〈그림 3〉과 같이 재직자전형에 지원한 가장 큰 계기는 '개인의 발전을 위한'이 64.4%(29명), '자신의 현직장 업무 내 발전을 위한'이 17.8%(8명), '대학교 캠퍼스 생활 희망'이 13.3%(6명), '대학원 진학을 위한'이 2.2%(1명), '나중엔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학력으로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이 2.2%(1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상명대학교 융합경영학과 1학년 재학생들이 재직자 전형에 지원한 주된 이유는 '개인의 발전을 위한'인 것을 알 수 있다.

3.2. 융합경영학과 재학생의 강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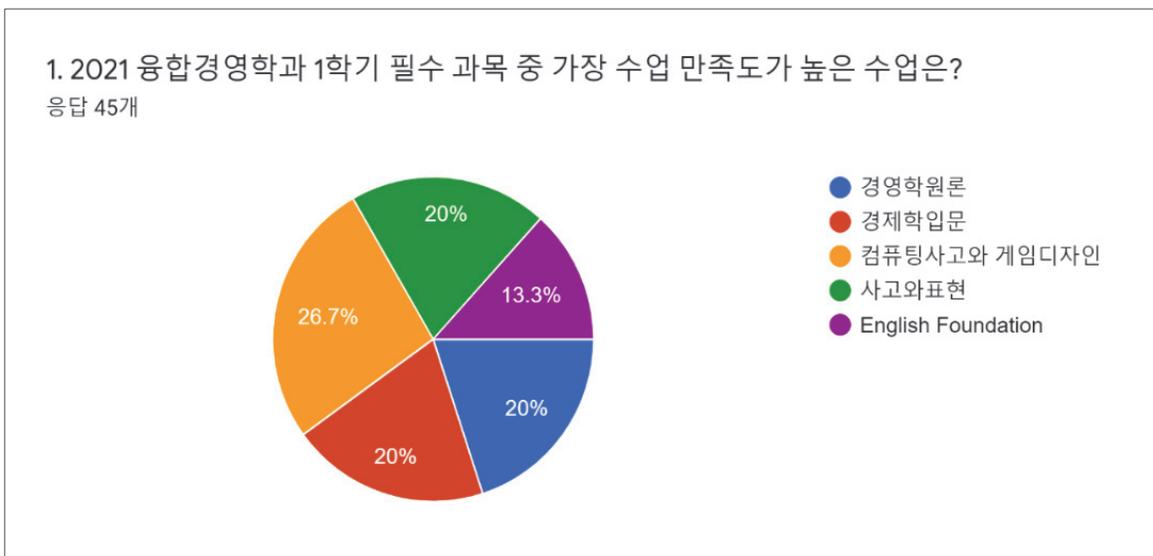
그렇다면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진학을 선택한 융합경영학과 재학생의 강의 만족도는 어떨까? 전공과목과 교양 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겠다.



〈그림 4〉 융합경영학과 1학년 재학생의 강의 만족도

강의 만족도에 ‘절대 만족하지 않음’을 선택한 학생은 없었지만, ‘매우 만족함’을 선택한 학생 또한 없었다. 64.5%(35명)의 학생들이 보통, 보통 이상으로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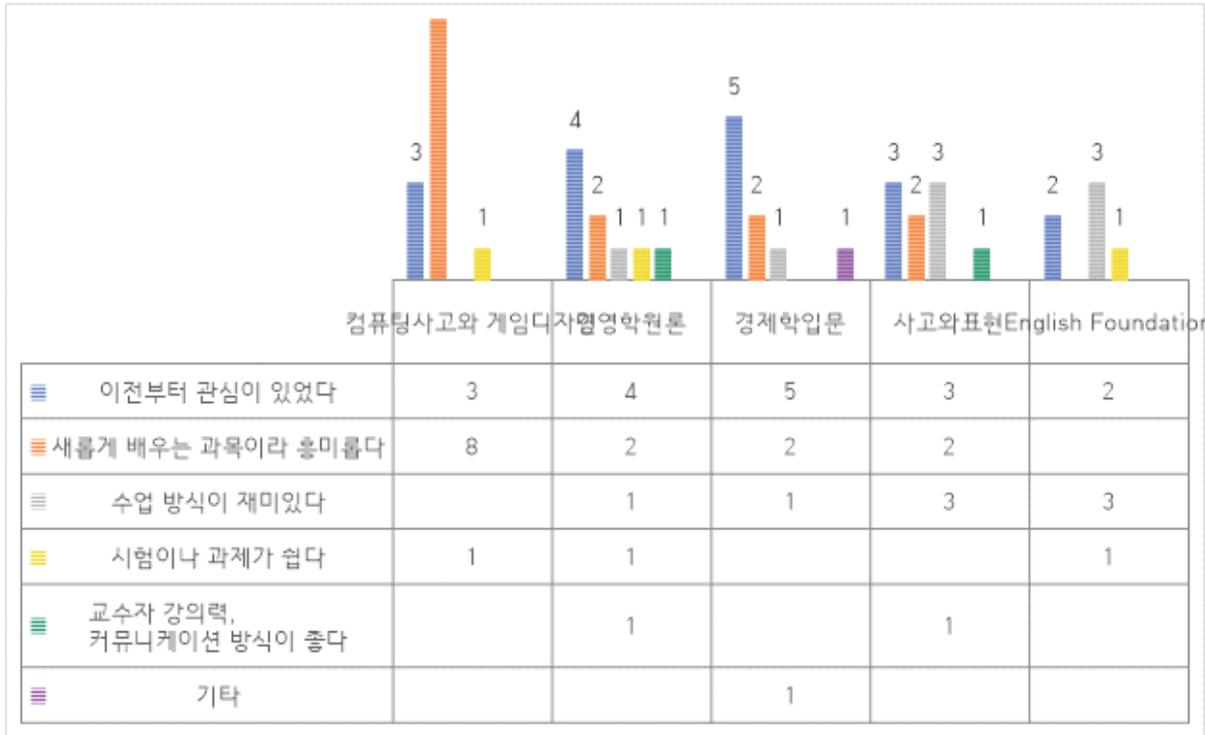
이러한 만족도 결과를 초래하게 한 전공과목과 교양 필수 과목 중에서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낮은 것은 무엇인지 세분화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5〉 만족도가 가장 높은 강의

〈그림 5〉와 같이 만족도가 높은 강의의 선택 비율은 13.3%~26.7%로 편차가 크지 않으며, 개인이 평소 원하는 학습 방향과 관심 있는 과목에 따라 나뉘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가장 만족도가 높은 강의는 ‘컴퓨팅사고와 게임디자인’ 강의로 전체의 26.7%(12명)이 선택했다. 그리고 ‘경영학원론’, ‘경제학입문’, ‘사고와표현’ 과목을 20%(9명)씩 선택했다. 그리고 13.3%(6명) 이 ‘English Foundation’ 과목을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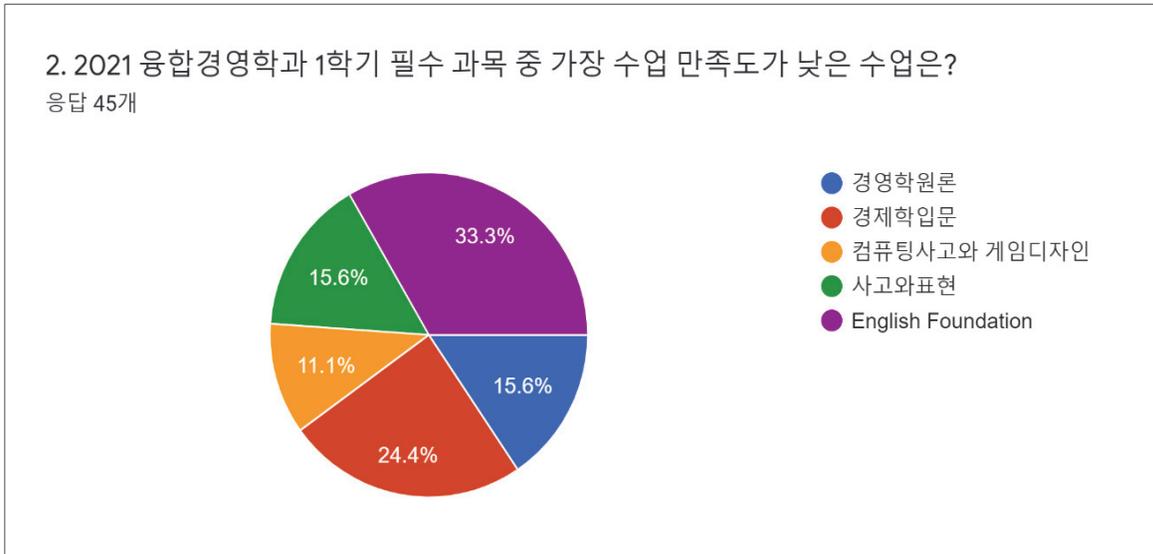
〈그림 6〉 만족도 높은 과목으로 선택한 이유

〈그림 6〉과 같이 만족도가 높은 과목으로 선택한 이유로는 예상한 바와 같이 개인의 학습 방향과 관심있는 과목에 따라 다양하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과목으로는, 26.7%(12명)이 선택한 필수 교양 과목인 ‘컴퓨팅사고와 게임디자인’ 과목이다. 선택 이유로는 과반 수 이상(8명)이 ‘새롭게 배우는 과목이라 흥미롭다’ 항목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전부터 관심이 있었다’ 항목을 선택한 학생(3명)도 있다. 이 강의는 컴퓨팅 사고와 소프트웨어 기술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 방식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처럼 새로운 과목을 배우는 것에 흥미와 만족감을 가지고 참여한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20%(9명)이 선택한 융합경영학과의 전공 과목인 ‘경영학원론’, ‘경제학입문’은 ‘이전부터 관심이 있었다’라는 항목을 절반 비율의 학생이 선택했다. 이는 융합경영학과 전공 과목에 애초부터 관심이 있어 그에 지원을 했으며, 필수로 진행되는 전공 과목에 만족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학입문’에서 기타 의견으로는 ‘그나마 낫다’라고 응답했고, 모든 강의에 만족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 재학생 또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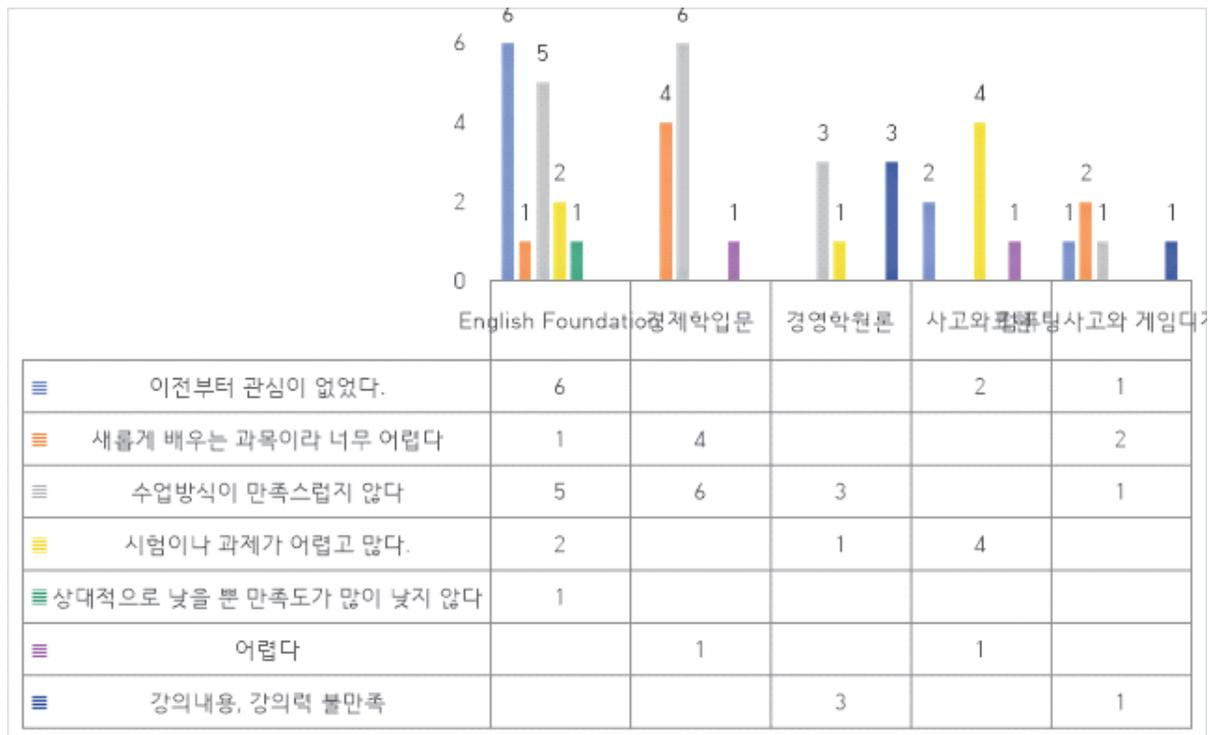
마찬가지로 20%(9명)이 선택한 ‘사고와 표현’ 과목이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이전부터 관심이 있었다’, ‘수업 방식이 재미있다’ 를 선택한 학생들이 66.6% 이며, 기타 의견인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좋다’고 나타났다.

13.3%(6명)이 선택한 ‘English Foundation’ 과목의 경우, ‘수업 방식이 재미있다’는 의견이 절반이지만, ‘새롭게 배우는 과목이라 흥미롭다’ 라는 의견은 없었다. 우리나라의 영어 기초 교육이 필수로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흥미를 찾을 수는 없지만, 교수자의 재밌는 수업 방식이 만족감을 준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림 7〉 만족도가 가장 낮은 강의

반대로 가장 만족도가 낮은 강의로는 편차가 나타났다. ‘English Foundation’ 과목이 높은 선택 비율로 33.3%(15명)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경제학입문’ 24.4%(11명), ‘경영학원론’과 ‘사고와표현’ 15.6%(7명), ‘컴퓨팅사고와 게임디자인’ 11.1%(5명)로 파악되었다.



〈그림 8〉 만족도 낮은 과목으로 선택한 이유

우선, 만족도가 가장 낮은 과목으로는 필수 교양 과목인 ‘English Foundation’ 과목이며, 그 이유로는 ‘이전부터 관심이 없었다’(6명), ‘수업방식이 만족스럽지 않다’(5명), ‘시험이나 과제가 어렵고 많다’(2명),

‘새롭게 배우는 과목이라 너무 어렵다’(1명), ‘상대적으로 낮을 뿐 만족도가 많이 낮지 않다’(1명)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앞서 만족도 높은 과목과 선택 이유에서 ‘그나마 낫다’라는 기타 의견에 반대로, ‘상대적으로 낮을 뿐 만족도가 많이 낮지 않다’라는 전체적으로 학과의 강의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재학생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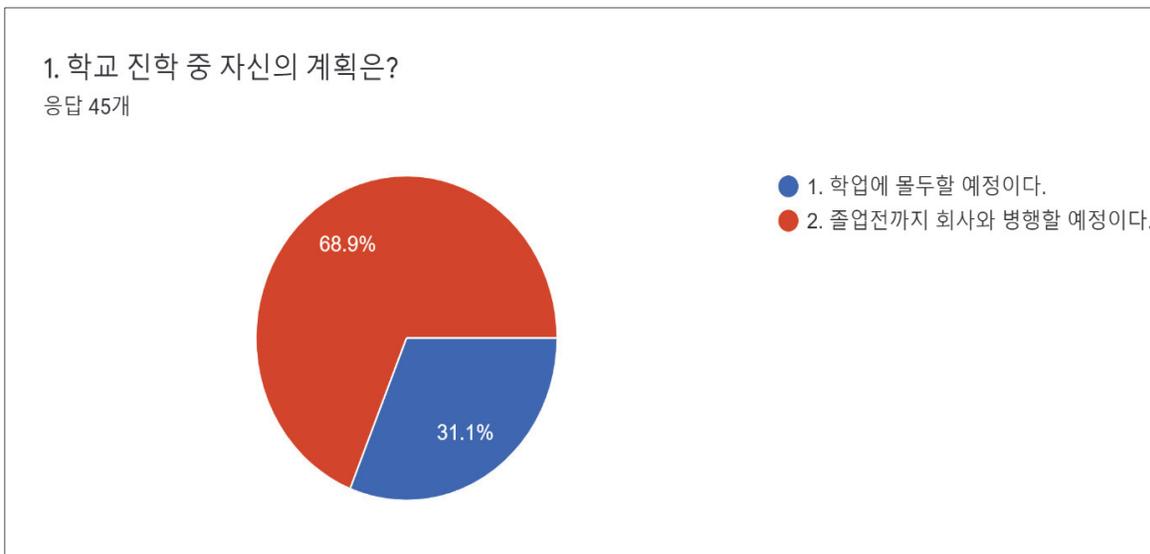
‘English Foundation’ 과목은 영어 토론 능력 향상을 위해 토론과 듣기 수업으로 진행되는 과목으로, Covid-19로 인해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상황에서 외국어로 토론하고 듣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어 흥미를 얻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미와 만족도를 더욱 느낄 수 있도록 교수자들이 참여를 이끄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24.4%(11명)의 비율로 나타난 ‘경제학입문’을 선택한 이유로는, ‘수업방식이 만족스럽지 않다’가 과반수 이상(6명)을 차지했다. 이 과목은 현재 전체 녹화강의로 진행하고 있는데, 새롭게 배우는 필수 전공 과목에서 녹화강의로만 수업에 참여하고 공부를 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5.6%(7명)이 선택한, ‘경영학원론’ 과목은 수업방식과 강의내용에 대한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와표현’ 과목은 ‘시험이나 과제가 어렵고 많다’라는 이유를 과반수 이상(4명)이 선택했다. 그리고 11.1%(5명)이 선택한 ‘컴퓨팅사고와 게임디자인’ 과목의 선택 이유로는, ‘새롭게 배우는 과목이라 어렵다’와 ‘수업방식과 강의내용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이 있다.

3.3. 융합경영학과 재학생의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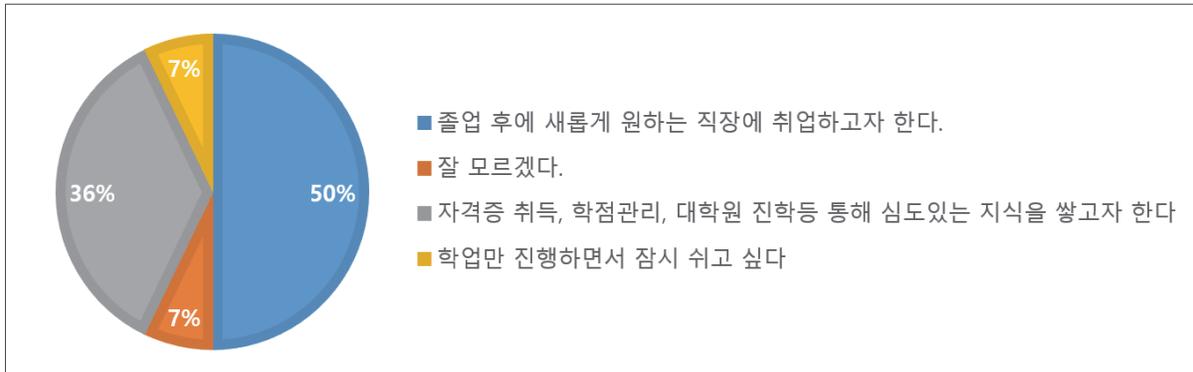
앞서 본론 2.2. 상명대학교 재직자전형 조사에 언급한 것과 같이 상명대학교 융합경영학과 학생들은 입학 후 재직의무가 없다. 따라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학업에 몰두하거나, 학교와 직장과 병행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그림 9〉 융합경영학과 재학생의 향후 계획

〈그림 9〉와 같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업에 몰두하고자 하는 학생은 31.1%(14명), 졸업전까지 두 가지를 병행하고자 하는 학생은 68.9%(31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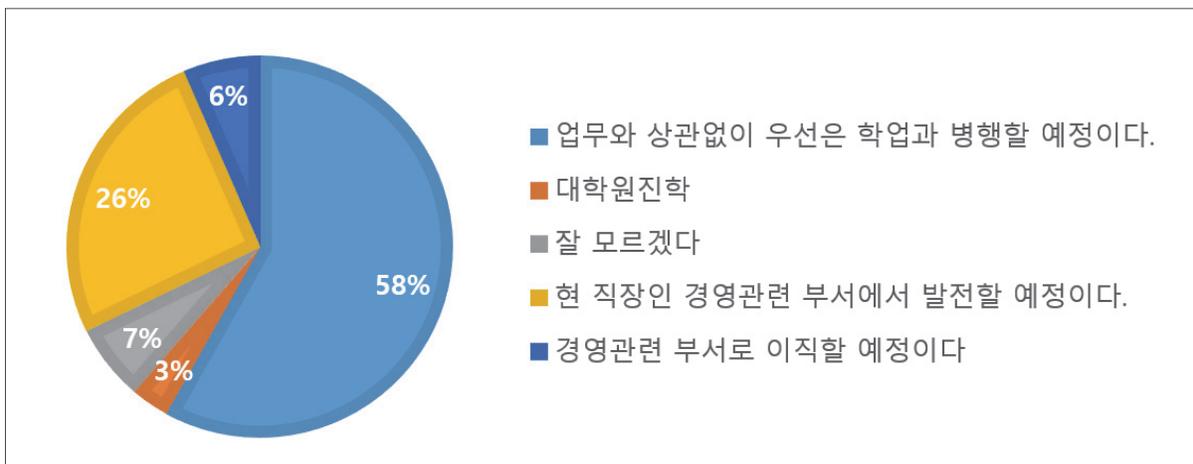
그렇다면 학업에 몰두하고자 하는 학생 31.1%(14명)의 구체적인 학업 계획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림 10〉 학업만 진행하는 융합경영학과 재학생의 향후 계획

〈그림 10〉과 같이 학업에 몰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50%(7명)는 ‘졸업 후 새롭게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고자 한다’, 36%(5명)는 ‘심도 있는 지식을 쌓고자 한다’, 7%(1명)는 ‘잘 모르겠다’, 7%(1명)는 ‘학업만 진행하며 잠시 쉬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의 적응하고 그에 만족을 느끼기보다는, 학업에 몰두하여 심도 있는 학문을 배워 지식을 쌓고, 그것을 활용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직장 and 학교를 병행할 융합경영학과 재학생의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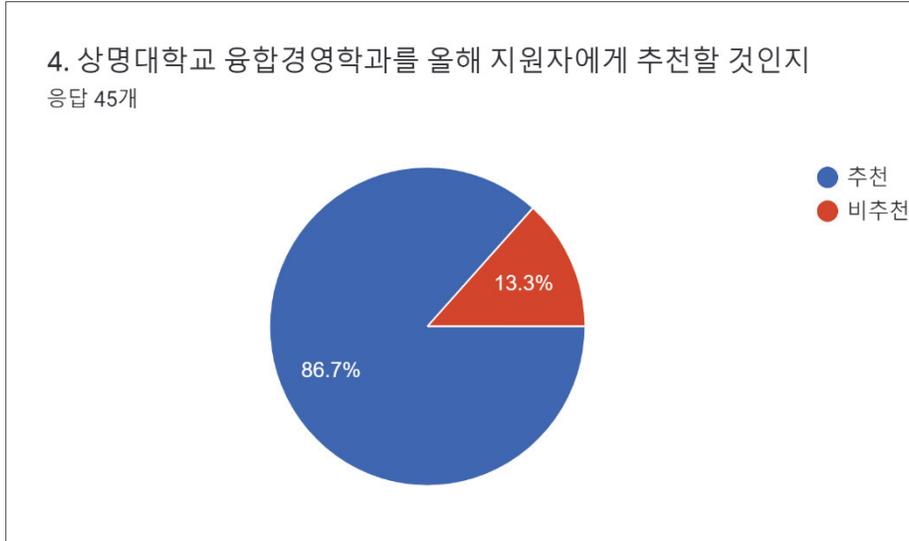
융합경영학과 설문조사 대상자의 68.9%(31명)이 선택한, 졸업 전까지 직장 and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계획은 ‘업무와 상관없이 우선은 병행할 것이다’가 18명(58%), ‘현직장인 경영 관련 부서에서의 발전할 것이다’가 8명(26%)과 ‘경영 관련 부서로 이직을 희망’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학생은 2명(6%)이다.

이는 현재 다니는 직장의 직종이 경영 관련 부서(경영관리, 재무, 인사, 법무, 총무 등)가 아닌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학생이 많다고 생각했다.

학업 and 직장을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강의 시작 시간인 19시 전인, 8시-18시 사이에 회사 근무를 마치고, 19시 이후부터 강의와 과제와 시험 대비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병행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자신이 선택한 2가지의 과업 모두를 놓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3.4. 융합경영학과 재학생의 학과 추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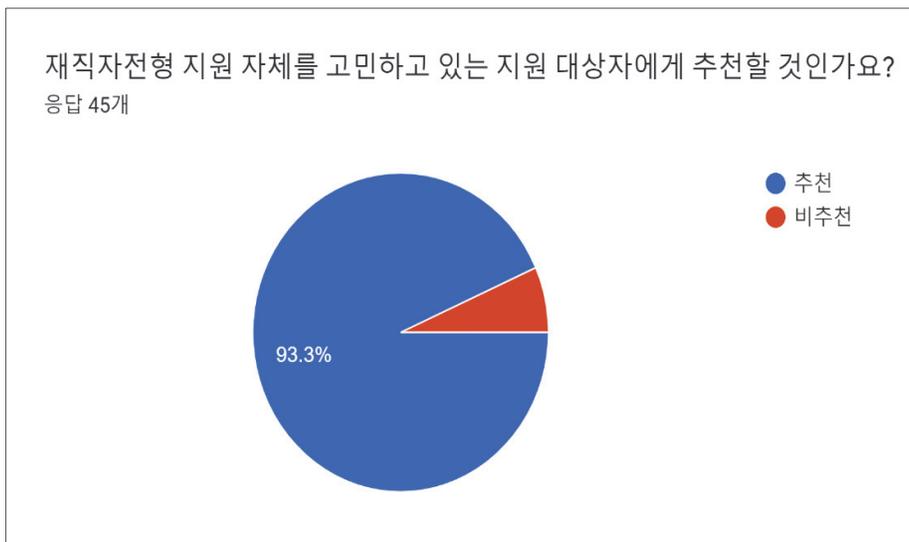
앞서 본론 내용을 토대로 상명대학교 융합경영학과를 지원자들에게 추천할 것인가, 그리고 재직자전형 지원 자체를 고민하고 있는 지원대상자들에게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그림 12〉 융합경영학과 추천 여부

86.7%(39명)의 높은 비율의 재학생들이 융합경영학과를 지원자들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등록금, 위치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만족 (21명), 커리큘럼 만족 (10명), 학과 분위기 만족 (6명), 재직자전형을 배려하는 학교의 정책 만족(2명)으로 볼 수 있었다.

융합경영학과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13.3%(6명)의 사유로는 학과 분위기 불만족 (4명), 등록금, 위치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불만족 (2명)으로 응답했다.



〈그림 13〉 재직자전형 추천 여부

또한 재직자전형 자체를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는 93.3%(42명)이 추천했으며, 그 이유도 굉장히 다양했다. ‘진학은 필요하다’라는 선택지에 무려 30명이 응답했으며, 학교 위치와 등록금 등 개인적인 사유, 적절한 커리큘럼 운영, 캠퍼스 생활 경험 추천 등이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재직자전형 자체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나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진학은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지만 직장 내에서 진학에 대한 목마름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재직자전형 자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6.7%(3명)의 학생들의 사유에는 ‘진학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시기를 너무 놓치게 된다’, ‘재직과 학업을 병행했을 때 개인 일과 시간이 여유롭지 못함’이 있었다. 이때의 ‘시기’란 대학교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과 기간을 말한다. 취업에 성공하여 직장생활을 보다 빠르게 경험해보며 공부와 캠퍼스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기를 놓쳤으며, 이러한 사유로 재직자전형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융합경영학과 1학년 재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한 융합경영학과 재학생은 주로 ‘개인의 발전’을 위해 상명대학교 입학 선택했고, 개인이 원하는 학습 방향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무려 86.7%(39명)의 높은 비율의 재학생들이 융합경영학과를 지원자들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당연한 인생의 순서로 느껴지는 ‘고등학교 졸업-대학교 졸업-취업 준비-취업’만이 아닌, 인생을 설계하는 다양한 선택지는 존재한다. 그리고 재직자전형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주체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본 연구는 상명대학교 융합경영학과만이 아닌 재직자전형 자체를 고민하고 있는 지원 대상자, 지원 희망자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기를 바라며, ‘다른 선택’이 아닌 ‘다양한 선택’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참고 문헌

- 누운희, 2021학년도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 정리 2, 네이버 블로그, 2020. 6. 5.,
 <<https://blog.naver.com/shp04086/221990810100>>
- 누운희, 2021학년도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 정리 3, 네이버 블로그, 2020. 7. 6.,
 <<https://blog.naver.com/shp04086/222022670818>>
-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 수시모집 경쟁률, 입학처,
 <https://admission.smu.ac.kr/_seoul/board/bbs.html?bbsid=seoul_comp&ctg_cd=susi>,
 2021. 5. 19.
- 상명대학교, 2022년도 서울캠퍼스 입시요강, 2021.

부록

안녕하세요.

특성화고등학교 재직자전형으로 상명대학교 융합경영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와 계획 조사를 통해 이후 방안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중복 선택이 불가하니, 본인이 선택하고자 하는 비중이 높은 답변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재직자전형 입학자 만족도 조사

1. 재직자전형에 지원한 이유

대학교 캠퍼스 생활 희망/ 개인의 발전을 위함 (대학교 학사자격증 취득, 새로운 학문 공부, 이직 등)/ 자신의 현 직장 업무 내 발전을 위함 (현 직장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업무를 하기 위함)/ 주변의 압박/기타

2. 상명대학교 융합경영학과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

수시 접수 시즌/ 1-2년 전/ 3년 전/기타

3. 연령대

평균값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나, 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분께서는 마지막 항목에 체크 부탁드립니다.

22살 ~ 23살/ 24살 이상/ 28살 이상/.

4. 총 재직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3년차/ 4-6년차/ 6년 이상

5. 직장 과 학교를 병행하고 있는지

병행 (학교+직장)/학교

학과 만족도 조사

1. 2021 융합경영학과 1학기 필수 과목 중 가장 수업 만족도가 높은 수업은?

경영학원론/ 경제학입문/ 컴퓨팅사고와 게임디자인/ 사고와 표현/ English Foundation

1-1 그 이유는?

이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중이다/ 새롭게 배우는 과목이라 흥미롭다/ 수업방식이 재미 있다/ 시험이나 과제가 쉽다/기타

2. 2021 융합경영학과 1학기 필수 과목 중 가장 수업 만족도가 낮은 수업은?

경영학원론/ 경제학입문/ 컴퓨팅사고와 게임디자인/ 사고와 표현/ English Foundation

2-1 그 이유는?

이전부터 관심 없었던 과목이다/새롭게 배우는 과목이라 너무 어렵다/수업방식이 만족스럽지 않다/시험이
나 과제가 어렵고 많다/기타

3. 융합경영학과 전공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4. 상명대학교 융합경영학과를 올해 지원자에게 추천할 것인지
추천/비추천

4-1. 추천/비추천하고자 하는 이유

커리큘럼/학과 분위기/학교 위치, 등록금 등 개인적인 사유/기타

5. 재직자전형 자체를 올해 지원자에게 추천할 것인지
추천/비추천

4-1. 추천/비추천하고자 하는 이유

커리큘럼/학과 분위기/학교 위치, 등록금 등 개인적인 사유/기타

융합경영학과 학생들의 계획

1. 학교 진학 중 자신의 계획은?

학업에 몰두할 예정이다./ 졸업전까지 회사와 병행할 예정이다./기타

1-1. 1. 학업만을 선택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계획은?

1-2. 2. 병행을 선택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계획은?



고교학점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설문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행정학부 박채*

목 차

1. 서론
 - 1.1. 연구 목적
 - 1.2. 연구 방법
 2. 고교학점제의 소개
 - 2.1. 고교학점제의 도입
 - 2.2. 고교학점제의 현황
 - 2.2.1 국내 사례
 - 2.2.2 해외 사례
 3. 고교학점제의 문제점
 - 3.1.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의 인프라 문제
 - 3.2. 학생들의 원활한 과목 선택 가능성
 - 3.3. 내신의 절대평가로 인한 부작용 초래
 - 3.4. 교육 불평등 및 사회문제의 고착화
 - 3.5. 현 대입제도와의 충돌
 4. 설문조사 결과분석
 - 4.1. 응답자 인적 사항
 - 4.2. 필요성에 대한 결과분석
 - 4.3. 운영 방법에 대한 결과분석
 5.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 5.1. 계열 구분의 필요성
 - 5.2. 학교급간 연계 체제 구축
 - 5.3.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한 절대평가 도입의 해결과제
 - 5.4. 수업별, 교사별 평가의 필요성
 6. 결론
- 참고 문헌
- 부록

1. 서론

1.1 연구 목적

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등장하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융·복합적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교교육은 입시와 수능에 초점이 맞춰진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고교 교육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는 기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교학점제라는 학점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및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¹⁾



〈그림 1〉 고교학점제

(출처: 교육부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https://www.hscredit.kr/hsc/intro.do>)

그러나 고교학점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다. 고교 교육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고교학점제이어야 하는가, 고교학점제가 잘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경우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현 대입제도의 시행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벗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인프라에서의 한계, 학생들의 원활한 과목 선택 가능성 등 이렇게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와 현 대입제도가 충돌하게 된 배경 및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고교학점제는 과연 꼭 필요한 제도이며, 앞으로 고교학점제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고교학점제의 도입 목적 및 시행 계획과 진행현황을 문헌자료를 토대로 연구하였으며 고교학점제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상명대학교 및 타

1) 교육부, 고교학점제란?, 교육부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2021., <<https://www.hscredit.kr/hsc/intro.do>>

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1년 5월 28일부터 2021년 6월 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62명이 응답했다. 기본 인적 사항 5문항과 고교학점제의 필요성 및 운영 방법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조사

설문조사 기간	2021년 5월 28일 ~ 2021년 6월 5일
설문조사 방법	네이버 폼
설문조사 문항 수	10문항
설문조사 대상	전 연령층

2. 고교학점제의 소개

2.1. 고교학점제의 도입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5가지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 현시대는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구조 및 직업 세계 변화, 감염병 유행 등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즉, 인간 고유의 창의적 상상력과 공감 능력 등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에듀테크 활용, 개별화 교육 등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저출산에 따른 인구변화이다. 저출산은 학령인구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초래하여 인력 부족, 지역 공동화 등 국가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아래 <그림 2>와 같이 고등학교 인구(15~17세)는 20년 138만(2.7%)에서 60년 83만(1.9%)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 체제를 구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혁신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 번째, 디지털 세대의 변화된 학습 성향이다. 학생들은 텍스트보다 이미지, 동영상 등 디지털 기반 콘텐츠를 통한 이해를 선호하고 능동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선택하여 학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학습 성향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진로 및 학업 설계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다. 세 번째, 사회적 불평등 및 양극화로 교육격차가 심화하였다. 고교학점제를 통하여 모든 학생에 대한 최소 학업 성취를 담보하는 책임 교육으로 평등한 출발선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상이 요구되고 있다.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미래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적극성, 주도성, 책임감을 지닌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재상과 교육 체제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부는 위의 5가지를 들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²⁾

2) 교육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교육부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2021.,
 <<https://www.hscredit.kr/news/noticeDetail.do?seq=2461&pageNo=1>>

< 학령인구(6~21세) 및 구성비(통계청, '19) >



<그림 2> 학령인구(6~21세) 및 구성비
(출처: 통계청)

사실 이 제도는 처음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2009년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고교학점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에서 밝혔다. 2009년에 발표된 학점제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과목을 학점제로 변환한다는 내용이였다. 학년이 아닌 수준에 따라 영어와 수학 과목의 단계를 세분화하였고 절대평가로의 전환, 학점 인정을 위한 과목별 최소 성취기준 설정 및 미도달 때 재이수, 졸업 최소학점 설정 및 미취득 때 졸업 연기 등이 학점제 도입의 요건으로 제기되었다.³⁾ 그러나 2009년 당시 등장한 학점제는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국가 학업 성취 F 학점의 부여나 재이수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학생평가 및 대입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가 없이 기획되고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⁴⁾ 2009년 고교학점제 도입 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2.2. 고교학점제의 현황

2.2.1 국내 사례

고교학점제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2020년과 2021년에 마이스터고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특성화고 대상으로는 전면 도입, 일반계고에서는 부분적으로 도입하게 되며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우수사례⁵⁾는 총 6개 학교이다. 먼저 경기 갈매고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학생의 적성을 반영한 학교장 개설 과목 등을 통해 국어, 영어, 수학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국토순례’, ‘호모스토리텔리쿠스’라는 과목명을 추가하였다. 또한 소인수 멘토 담임제를 통해 학급별 미이수 예방 및 학업 성취 개별 지도를 시행하였고, 학생 의견을 반영하여 층별로 학생 공간을 조성하는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학점제형 공간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 인화여자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을 계기로 개설 과목 수와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였으며 학생과 교사가 학교 공간 혁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 중심의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였다.

3) 구자역 외, 학점제 도입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1.

4) 김정빈,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초 논의, 교육정책 토론회 자료집, 2017, 10-51쪽.

5) 교육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교육부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2021.,

<<https://www.hscredit.kr/news/noticeDetail.do?seq=2461&pageNo=1>>

< 고교학점제 추진 주요 일정(안) >

※ 고교학점제는 2022년 특성화고 도입 및 전체 일반계고에 대한 제도 부분도입(신입생부터 적용)을 거쳐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본격 시행 예정

		'20	'21	'22	'23	'24	'25
		도입 준비기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 (일반계고) 학점제 부분 도입			본격시행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일부개정	일부 개정된 교육과정 적용(고1~)			
	2022 교육과정	기초연구	2022 교육과정 주요사항 발표	2022 교육과정 개정			2022 교육과정 적용(고1~)
평가제도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전 학년 적용				성취평가제 확대 도입(고~)
대입제도			미래형 대입 논의 착수			'28학년도 대입방향 발표	
법령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지침			학교 밖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최소학업성취도달 지도 검토			미야수(1) 도입
연구·선도학교 확대	일반계고(1,680교)						
	과학고(20교)						
	외고·국제고·자사고(76교) 중 일반고 전환(예정) 학교						
	직업계고(520교)						
		특수학교(2교 이상)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	494교 (~20)	233교	549교	567교			학교공간 조성 인차적 지원 (사토를 추진하며 근거 부여 반영 가함)
교·강사	교사 대상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22, 1,600여명) 학점제 운영을 위해 교원 자각·임용·배치 개선						

〈그림 3〉 고교학점제 추진 주요 일정안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hscredit.kr/news/noticeDetail.do?seq=2461&pageNo=1>)

경북 사곡고등학교 같은 경우 5명 이상의 학생 선택이 있는 과목은 공동교육과정, 외부 강사 활용, 방과 후 개설 등을 통해 무조건 개설을 원칙으로 노력하였으며 과목뿐만 아니라 진로와 연계한 창제 수요가 있으며 외부 강사와 시설을 활용하여 구성하는 등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취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 교실을 온라인 수업 인프라를 구축한 점과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고 전 교과가 참여하는 교과 융합 수업을 시행하여 수업 개선 촉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대구 호산고등학교는 일반고이지만 미래사회 대비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융복합 로봇공학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였고 소프트웨어 및 로봇 분야의 기업 전문가가 파견하는 형식으로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과목 수업 및 창체 활동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경기 고색고등학교는 고색 진로 비전 6단계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진로 검사 → 해석 강연 → 캠프 → 체험 → 코칭 → 교육과정 이수 지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자존감 향상은 물론 진로 설계 및 학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PAISE ME UP' 프로그램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는 개인 및 집단상담(담임, 상담교사, 멘토 교사), 방과 후 수업(기초학력 중심), 독서 활동 그리고 인성 함양이 결합한 프로그램인데 최소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 대정고등학교는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도달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티(특하는) 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국영수 교과를 대상으로 담당 교사가 최소 성취 수준을 설정하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이며 학기 중 1:1 멘토링 기반 과제형 형식으로 학생들의 자존감 증진뿐

만 아니라 사회 입문 기초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협력적 학교 문화를 기반으로 한 명의 교사가 세 개의 과목을 지도하도록 했는데 학년당 4학급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이지만 교양과목 12명, 체육 예술 5명, 그 외 모든 과목은 7명 이상 선택하여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립하였다.

2.2.2 해외 사례

해외 같은 경우 <그림 4>와 같이 고교학점제가 이미 시행된 나라가 여럿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국내의 사례분석을 통한 고교학점제 운영의 개선점 연구에 따라 핀란드와 캐나다, 미국의 고교학점제를 제시하려고 한다.⁶⁾ 먼저 핀란드 고교학점제 운영의 가장 큰 특징으로 학교 자율성 보장을 들 수 있다. 핀란드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토대로 지역별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학교와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수업내용, 학생평가 방법의 결정, 학교 예산 편성에 대한 발언권 확보 등 전문성을 존중받고 학생들의 이수 미이수를 결정하는 7단계 절대평가를 시행하였다. 즉, 핀란드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 및 평가와 관련하여 고유한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핀란드의 고교학점제 운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학교 자율성 보장, 정확한 이수 기준, 학생을 위한 책임 교육을 들 수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모든 것은 담당하는 시스템에서는 자율성이 보장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핀란드와 같이 지역별로 교육과정을 달리하는 등의 시스템은 교육의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캐나다의 학제는 기본적으로 1학년부터 8학년을 초등학교 단계와 9학년부터 12학년의 고등학교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점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캐나다의 경우 교육의 지방자치 및 지역 단위의 개별화를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각 주마다 자치정부를 지니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 개발, 학생 졸업 자격, 교원 수급과 같은 학교 운영에 대한 실제적인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즉, 교육에 있어서 단위 학교나 지역교육위원회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대학 및 교육센터에서 수강한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캐나다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학교 자율성 보장 및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예산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사례처럼 단위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예산 편성 및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현행 1교사 1업무 체제대로 고교학점제가 운영되는 경우 오히려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해 고교학점제의 효율적 운영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국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성 보장이다. 미국의 국가 교육과정은 주요 교과목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제시한다. 이에 따라 주 정부도 세부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일반적인 학업 표준만을 제시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자율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자연스럽게 고교학점제로 발전했다. 미국 고교학점제 운영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학교의 자율성 보장이다. 영어와 수학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 및 교육내용을 주의 교육위원회와 지역교육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등 학교나 지역사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수학 과목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의 경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되며 우수 학생들은 대학선수 과목을 수강하거나 이원 등록을 활용하여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전문대학,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중 지역에서 승인한 장소에서 대학 학부 수준의 수업에 등록할 수 있다. 반면 학점 회복이 필요한 학생들은 이들을 위한 수업을 개설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시와 지역교육구와 협력하여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고교학점제 운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6) 김홍겸·오현정, 국내의 사례분석을 통한 고교학점제 운영의 개선점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22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116-119쪽.

시사점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제공이다. 우리나라도 여러 형태로 교육과정을 제공하지만, 온라인 콘텐츠의 활용이나 블렌디드 러닝과 관련해서는 취약한 점으로 보아 미국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참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국내와 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위의 사례와 같이 고교학점제는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례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한계점 역시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온타리오주)	중국	일본	핀란드	대한민국 (학점제 도입 후)
고등학교 연한	4년	4년	3년	3년제, 4년제, 무학년제	3년	3년
수업량 단위	credit, carnegie unit, local unit	credit	학점	단위	course	학점
학점의 정의	1 local unit = 50분 × 20회	1credit = 110hours	1학점= 18차시 ※ 1차시 45분	1단위 = 50분 × 35회	1course = 38차시 수업 ※ 1차시 45분	1학점 = 50분 × 16회
졸업 요건	210학점 내외 이수, 졸업시험	30학점 이수, 졸업시험	144학점 이수, 졸업시험	74단위 이수 (총상 90단위 이수)	75코스 이수	192학점 이수
3년 환산 시간	2,625	2,475	1,944	2,158.3	2137.5	2,560
필수·선택 비율*	필수 150학점 선택 60학점 내외	필수 18학점, 선택 12학점	필수 116학점, 선택 28학점	필수 38단위, 나머지 선택	필수코스 47~51개, 선택코스 24~28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결정 예정
내신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혼용
대입	SAT 등, 고교내신 (GPA)	고교내신	대입시험 (가오카오)	대학별고사, 센터시험	대학 입학시험	고교내신, 수능, 대학별고사
고교 유형	종합고	종합고	일반계고 직업계고	일반계고 직업계고 종합고	일반계고 직업계고	일반계고 직업계고 특목고

* 필수과목의 경우, 특정과목을 지정하는 방식, 교과군 내에서 선택하는 방식, 이 둘을 혼용하는 방식 등이 있으며, 국가 내에서도 주정부·지방정부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이 약간씩 다름

〈그림 4〉 고교학점제 해외 사례

(출처: 교육부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https://www.hscredit.kr/news/noticeDetail.do?seq=2461&pageNo=1>)

3. 고교학점제의 문제점

3.1.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의 인프라 문제

고교학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의 수를 대폭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단위 학교에서는 사실상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점제의 시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학생들이 학년을 거듭할 때마다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에 맞춘 수요를 예측하기에도 한계가 있기에 어떤 과목의 수업과 교사를 배치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예산의 측면에서도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교 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것은 지금까지 일부 학교에서 해온 소수의 과목 수를 늘리는 시도와는 차원이 다르게 엄청난 비용이 요구된다.

또한 농어촌 학교와 수도권 학교 간 수업 구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수도권 학교보다 수업 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에 한계가 분명 존재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전국의 모든 학생이 같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워지며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의 수업 요구에 대한 분석을 위한 연구에서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목 수요를 조사하고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하여 고교학점제에서 과목 개설시 필요 교원수를 추산함으로써, 학생들의 교과목 수요와 교사의 과목개설 일치 정도를 살펴보았다.⁷⁾ 분석결과 기초 교과 영역에 해당하는 국어, 수학, 영어와 역사, 중국어, 한문 등의 교과목에서 학생수요에 비해 교사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 체육, 기술·가정 등의 교과목에서는 과목 개설이 가능한 교사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부분을 염두했을 때 현재 고등학교 교사 인력과 인프라로는 고교학점제 시행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교와 교사에게 안겨줄 부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3.2. 학생들의 원활한 과목 선택 가능성

학교가 수업의 다양성을 갖추었더라도 하여도 학생들의 실질적인 선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학생들이 좋아하고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할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위한 과목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다양한 선택과목들을 학교에서 제공한다고 하여도 학생들은 입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수하기 쉬운 과목으로 몰리면서 학생들의 선택이 획일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과목 선택을 할 수 있을만큼 성숙한지 고려해봐야 한다. 부모와 학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진로와 적성에 있어서 수동적인 선택을 해온 학생에게 이러한 과목선택권을 제시하는 것은 이상적인 생각일 수 있다. 주체적으로 교과를 선택하고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해나 의지가 부족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학생들의 준비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교과 선택권만 강조하는 것은 무책임한 접근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학습 요구를 외면하는 현재의 교육과정 운영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학생의 선택 역량을 고교학점제의 쟁점 중 하나로 제기하기도 한다.⁸⁾ 물론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게 생각해봐야 하지만 특정된 진로보다는 포괄적이고 넓은 수준의 진로 방향을 가진 학생들 같은 경우 과목 선택에 있어서 한계점은 분명 존재한다.

3.3. 내신의 절대평가로 인한 부작용 초래

고교학점제에 의한 내신의 절대평가는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대학입시에 있어 부풀려진 내신은 변별력을 갖지 못해 대학별 학생선발 기준으로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공교육의 선발 기능이 상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학생선발을 위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교서열화, 대학별 본고사, 논술, 면접 등 공교육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교육적인 요소를 전면에 등장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절대평가로 인해 대학입시에 있어 내신의 효력상실은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온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내신을 등한시함에 따라 교사에 대한 존경과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반감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교사와 학교에 의한 평가가 학생들의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와 학교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7) 허주 외,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수급 관련 쟁점,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제20권 8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15쪽.

8) 손찬희, 고교학점제 도입의 쟁점과 방안 탐색, 4차산업혁명 시대,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국회 대토론회 겸 KEDI 교육정책포럼자료집, 2017.

간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과교육뿐만 아니라 특기적성 및 인성 교육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게 된다.

3.4. 교육불평등 및 사회문제의 고착화

대학입시에 있어 내신의 중요성이 반감됨에 따라 사교육적인 요소가 강화되게 된다. 사교육은 대도시와 수도권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와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기본적으로 교육열과 대학입시 경쟁률이 높아 자녀의 유리한 대학입시를 위해 정주패턴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학입시에 필요한 사교육을 받기 위해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불리한 경제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대도시와 수도권으로의 이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학벌중심 사회에 있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된다.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게 되고 경제력에 의한 계급사회가 고착화된다. 또한 모든 학부모들이 자녀의 보다 나은 대학입시를 위해 사교육에 더욱 전념하게 됨에 따라 생활수준이 저하되고 자녀 교육을 마친 노년기에는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 저출산 노령화 문제도 사교육과 관련이 많다. 젊은 부부가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자녀를 키우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며 이는 사교육비의 부담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고교학점제에 의한 공교육의 불신은 일차적으로 지방 교육의 붕괴와 그에 따른 지방경제의 쇠락과 대도시 및 수도권의 집중 현상을 심화하여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현안인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 노령화, 교통체증, 환경오염, 노령층 빈곤 등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협소한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의 10%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기의 모든 문제가 야기된다. 협소한 공간에서 많은 인구가 거주하면서 경쟁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활비가 많이 들고 생활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3.5. 현 대입제도와의 충돌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와 고교 내신 절대평가, 각 대학의 학생선발권 자율성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학생들이 수능이나 내신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진로에 맞는 과목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입 제도가 여전히 수능과 고교 내신 중심의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대학들이 대입 전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내신 점수를 받기 유리한 쉬운 과목이나 국·영·수 중심의 수능 주요 과목에 학생이 몰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교육부가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발표한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의 정반대 방향인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이후 대입 제도가 계속해서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 방향으로 간다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 고교 현장의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다.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본래 취지대로 정착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2022년 이후 대입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는 2017년 대입 개편안 발표를 1년 미루고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음에도 여론에 휩쓸려 기존 대입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용두사미’ 결과를 냈던 것을 잊어선 안 된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필수적이다. 지금처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고교 내신이 상대평가인 체제에서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 전면 시행 원년인 2025년 입학할 학생들부터는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 등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지만, 이전 입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2028학년도 수능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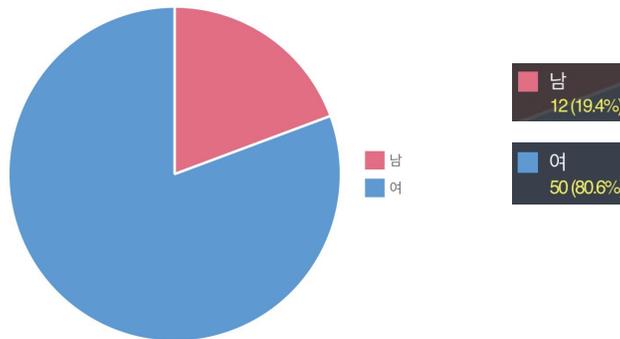
개편은 2024년, 성취평가제는 2023년에나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결국 2025년 고1이 되는 현 초5 이하가 아니라면 고교학점제에 맞는 평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2022~2024년 입학하는 현 초6~중2 학생들의 경우 일부 고교는 기존 수업방식, 또 일부 고교는 고교학점제로 수업을 듣는 과도기가 발생한다. 즉,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교육과정·대입제도가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4. 설문조사 결과분석

4.1. 응답자 인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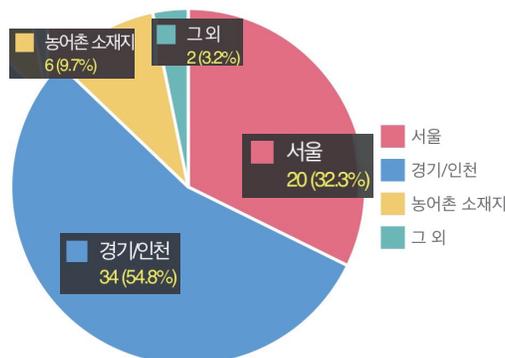
본 설문은 학력, 나이 등을 불문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이 참여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별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여성’이라고 택한 응답자가 50명으로 80.6%를 차지하였고 ‘남성’이라고 택한 응답자는 12명으로 19.4%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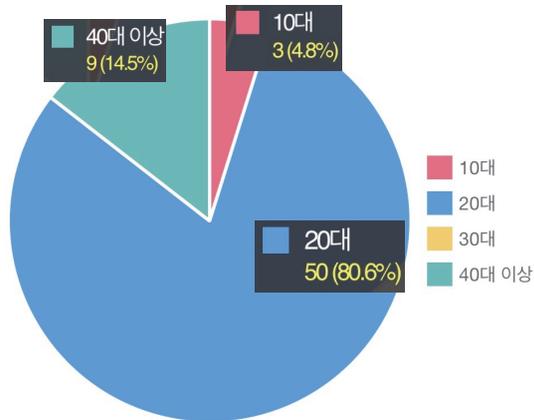
〈그림 5〉 성별에 대한 응답

응답자의 거주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경기/인천’이라고 택한 응답자가 34명으로 54.8%를 차지하였고 ‘서울’이라고 택한 응답자는 20명으로 32.3%, ‘농어촌 소재지’는 6명으로 9.7%, 그 외는 2명으로 3.2%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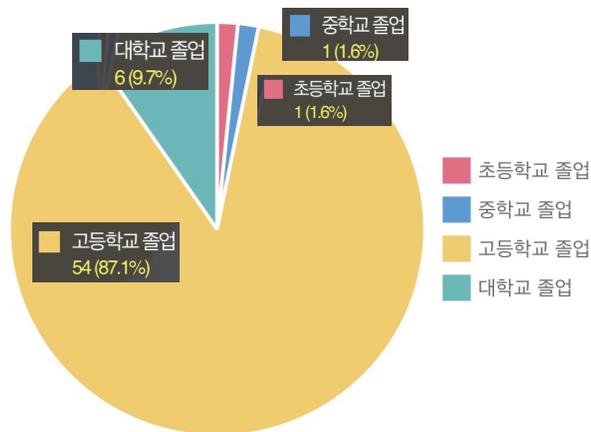
〈그림 6〉 거주지에 대한 응답

응답자의 연령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무응답 항목 '30대'를 제외하고 '20대'는 50명으로 80.6%, '40대 이상'은 9명으로 14.5%를 차지하였고 '10대'를 택한 응답자가 3명으로 4.8%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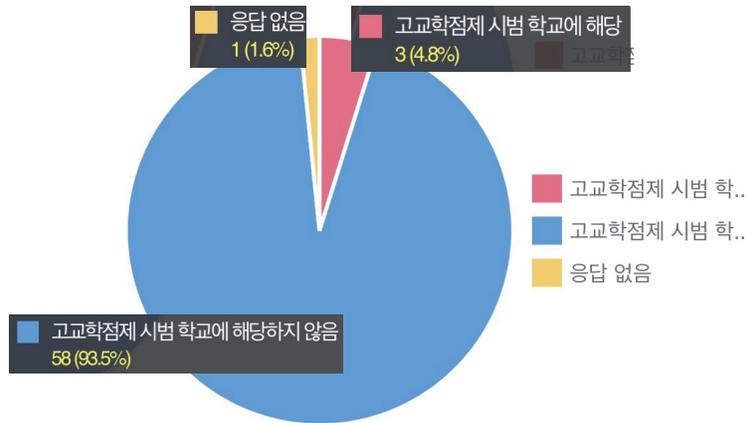
〈그림 7〉 연령에 대한 응답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고등학교 졸업'은 54명으로 87.1%, '대학교 졸업'은 6명으로 9.7%를 차지하였고 '초등학교 졸업'을 택한 응답자가 3명으로 4.8%, '중학교 졸업'은 1명으로 1.6%를 차지하였다.



〈그림 8〉 최종학력에 대한 응답

고교학점제 시범 학교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등학교 졸업 혹은 대학교 졸업을 선택한 응답자 중 '고교학점제 시범 학교에 해당'을 택한 응답자가 3명으로 4.8%를 차지하였고 '고교학점제 시범 학교에 해당하지 않음'은 58명으로 93.5%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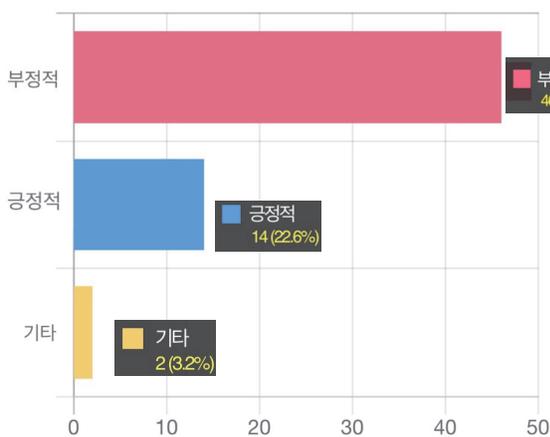


〈그림 9〉 고교학점제 시범 학교 여부에 대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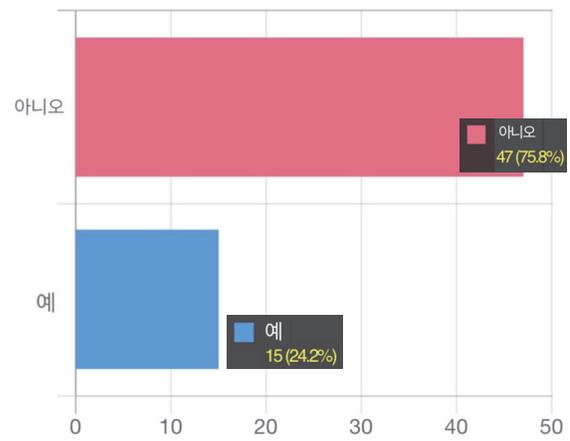
4.1. 필요성에 대한 결과분석

고교학점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고교학점제의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하였다. 아래 〈그림 10〉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전체 응답자 중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46명으로 74.2%를 차지했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14명으로 22.6%, 기타는 2명으로 3.2%를 차지했다. 〈그림 11〉은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전체 응답자 중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자가 47명으로 75.8%, ‘예’라고 답한 응답자가 15명으로 24.2%를 차지했다.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고교학점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고교학점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2025년에 전면적으로 도입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은 고교학점제를 꼭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0〉 고교학점제 인식에 대한 응답



〈그림 11〉 고교학점제 필요성에 대한 응답

4.2. 운영방법에 대한 결과분석

고교학점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설문을 진행하였다. 아래 <그림 12>는 “고교학점제 시행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전체 응답자 중 ‘이르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31명으로 50%를 차지하였고 ‘더 빨리 시행해야 한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25명으로 40.3%,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는 6명으로 9.7%를 차지하였다. <그림 13>은 “고교학점제 운영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전체 응답자 중 ‘이대로 시행해도 괜찮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22명으로 35.5%, ‘개선이 필요하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33명으로 53.2%를 차지하였으며 11.3%인 7명의 응답자가 기타를 선택하였다. ‘개선이 필요하다’를 선택한 응답자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문하였다. 그 결과 교사 수나 강의실의 부족, 학생들의 능동적인 진로결정 및 과목선택의 한계, 사회전반적 동의 불충분, 입시제도와외 괴리, 지역격차의 심화, 내신에 대한 부담감 증가, 학교별 운영방침의 차이 등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또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부탁한다는 질문에는 중학교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의 보호 아래에 있는 청소년인 만큼 절대적 자유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실사가 예정된 정책인 만큼 현장에 대한 끊임없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인기 있는 직업에 관한 수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포괄적인 시행이 절실히 보인다, 각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해 고교학점제가 필요할 듯싶으나 시행방안에 대한 다른 대책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림 12> 고교학점제 시행 시기 대한 응답



<그림 13> 고교학점제 운영과정에 대한 응답

그렇다면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가 가진 문제점들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

5.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5.1. 계열 구분의 필요성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대학 진학 준비와 취업 준비를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본질적으로 학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진학 준비 계열과 취업 준비 계열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학진학계열과 취업준비계열 교육과정이 분리되었고 그 사이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특성화고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려고 한다거나 일반고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이 아닌 취업으로 진로를 선택하려고 할 경우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고교학점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이라는 진로가 대학진학 못지않게 중요한 진로로 정당하게 인정되는 분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향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5.2. 학교 급간 연계 체제 구축

진로 및 직업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중학교 교육은 공통 교육과정 기간이지만 공통 교육과정에서 선택 교육과정으로의 이행을 준비시키는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기능을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 점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공통 교과 이외에 선택 교과목이 개설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 단계에서 진로 맞춤형 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고등학교 단계로 진급하기 전에 진로에 따른 과목 이수에 필요한 기초 학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 급이 높아짐에 따라 누적된 학습 결손을 보충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이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급 진급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 기초학력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5.3.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한 절대평가 도입의 해결과제

고교학점제의 시행으로 절대평가가 도입이 될 때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먼저 고교 서열화의 해소이다. 대학 입시 관련해서 보면, 내신 성적 상대평가 체제에서 불리한 곳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특목고나 자사고 등이다. 따라서 내신 절대평가는 이들 학교에 유리한 대입 구조를 만드는 셈이 되고 이로 인한 비판과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절대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도를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야 한다. 절대평가는 교사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기준에 대한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내신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절대평가를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내신 시험 문제를 쉽게 출제해서 100점을 양산하는 ‘내신 부풀리기’ 문제가 발생했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4. 수업별, 교사별 평가의 필요성

수업별, 교사별 평가는 고교학점제 시행에서 당연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교수 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의 원칙에 부합한다. 교수 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을 도식화해서 표현하면 ‘수업 = 평가’이며, 이것은 곧 수업과 평가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교사가 자신이 지도하는 수업의 학생 평가권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업별 교사별 평가는 당위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교사에게 수업별 평가의 자율권을 부여해야 창의적 수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년에 동일 과목을 여러 명의 교사가 수업한다. 그리고 학년별로 동일한 시험문제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본다. 이렇게 되면 그 시험은 자신의 수업 내용을 반영할 수 없고, 같은 종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 내용을 지식중심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업별 평가를 통해 교사에게 자율권을 준다면

교사는 독창적 수업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은 해당 수업에 더욱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행 배경을 현 시대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구조 및 직업세계의 변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변화, 디지털 세대의 변화된 학습 성향, 사회적 불평등 및 양극화로 교육격차 심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상이 요구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2020년과 2021년에 마이스터고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특성화고 대상으로는 전면 도입, 일반계고에서는 부분적으로 도입하게 되며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교학점제가 해외 및 국내에서 우수한 결과물로 남는 경우도 있지만 미처 인지하지 못한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은 존재한다. 첫 번째,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인프라의 문제이다. 학생들이 학년을 거듭할 때마다 학교가 학생들의 진로에 맞춘 수요를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예산적인 측면에도 엄청난 비용이 요구된다. 두 번째, 학교가 수업의 다양성을 갖추었다라고 하여도 학생들의 실질적인 선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 주체적으로 교과를 선택하고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해나 의지가 부족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학생들의 준비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교과 선택권만 강조하는 것은 무책임한 접근일 수 있다. 세 번째, 고교학점제에 의한 내신의 절대평가는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대학입시에 있어 부풀려진 내신은 변별력을 갖지 못해 대학별 학생선발 기준으로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공교육의 선발 기능이 상실된다. 네 번째, 대학입시에 있어 내신의 중요성이 반감됨에 따라 사교육적인 요소가 강화되게 된다. 또한 불리한 경제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대도시와 수도권으로의 이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학벌 중심 사회에 있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된다. 다섯 번째, 현 대입제도와 충돌한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고교학점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를 봤을 때 고교학점제는 계열 구분의 필요성, 학교 급간 연계 체계 구축, 절대평가 도입 시의 과제, 수업별, 교사별 평가라는 개선점을 적용하여 여유를 갖고 천천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교학점제는 긍정적이고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 제약 요인들도 많다. 따라서 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요인들을 잘 검토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점제 도입 요건, 운영 측면, 대학 입시와의 관련성 측면 등에서 살펴보았다. 학점제라는 제도의 도입 과정의 현재 단계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의 요건적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았지만, 장차 다양한 측면에서 쟁점이나 과제들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적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학점제 실행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도입환경의 적절성 문제,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체제 문제, 대학입시제도와의 관련성 문제, 과목 선택의 성격 문제에서 현재로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예상되지만, 운영 과정에서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와의 실효적 연계성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에 오히려 고교 교육과정 황폐화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교육부, 교육부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https://www.hscredit.kr/hsc/intro.do>>
구자역 외, 학점제 도입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1.
김정빈,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초 논의, 교육정책 토론회 자료집, 2017.
김홍겸·오현정,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고교학점제 운영의 개선점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22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111-139쪽.
손찬희, 고교학점제 도입의 쟁점과 방안 탐색, 4차산업혁명 시대,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1수업 2교사 제,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국회 대토론회 겸 KEDI 교육정책포럼자료집, 2017.
허주 외,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수급 관련 쟁점,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제20권 8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 학회, 2020, 651-672쪽.

부록

귀하의 성별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남
- 여

2. 귀하의 거주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서울
- 경기/인천
- 농어촌 소재지
- 그 외

3. 귀하의 연령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10대
- 20대
- 30대
- 40대 이상

4. 귀하의 최종학력을 입력해 주십시오.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졸업

5. 귀하의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고교학점제 시범 학교에 해당

고교학점제 시범 학교에 해당하지 않음

6.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적

긍정적

기타

7.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

8. 고교학점제 시행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르다

더 빨리 시행해야 한다.

기타

9. 고교학점제 운영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시행해도 괜찮다

개선이 필요하다

기타

9-1. 고교학점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고교학점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택배기사의 과도한 업무 현황으로 인한 과로사 해결 방안

경제금융학부 변예*

목 차

1. 서론
 2. 택배기사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 문제
 3. 택배기사의 과로사 예방 방안
 - 3.1. 기업적 측면
 - 3.1.1. 생활밀착형 택배 서비스 - 무인 택배함
 - 3.1.2. 택배기사 쉼터 마련
 - 3.1.3. 택배 경영의 신(新) 패러다임 - 슬로우 택배 운동과 모아모아 운동
 - 3.2. 정책적 측면
 - 3.2.1. 노동력 분산을 위한 정책 협의 - 실버 택배
 - 3.2.2. 과로사 예방 관련 법안 상정
 - 3.3. 기술적 측면
 - 3.3.1. 해외 드론 배송 사례와 한국형 드론
 - 3.3.2. 택배 물류 자동화
 4. 결론
- 참고 문헌

1. 서론

2020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2017년도부터 과로사로 평균 3명 정도의 택배기사가 사망했지만 2020년 상반기에만 평균 인원을 넘는 택배기사가 사망하였다. 2020년 사상 초유의 전염병 사태인 COVID-19로 무점포 인터넷 쇼핑 사용자는 급증하였고 택배 물류는 작년 동기 대비 20%가 증가하였다. COVID-19의 범유행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택배 물량에 지친 택배기사들에게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통합물류협회와 한국 우정본부가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면서 18개의 택배사가 공식적인 휴가를 보냈다. ‘택배 없는 날’은 택배 산업 28년 만에 처음 지정된 공식적인 휴가일이었지만 자체 배송망을 쓰는 업체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택배 업무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모든 택배기사의 공휴일이 아니었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기업과 정부에서는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에 관해 “심야 배송을 금지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상징적 선언을 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분류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충원할 것을 택배사들에 권고”하고, 대통령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이다.¹⁾ 단지 권고와 당부만 하고 강제력이 없다 보니 택배기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전과 달라진 점이 별로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된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에 대해 아직 아무런 해답이 없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본 연구는 기업적 측면, 정책적 측면, 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과로사 문제 해결 방안을 고안해 앞으로 더욱 많이 이용될 택배 서비스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의 질을 함양시켜줄 방안을 찾고자 한다.

2. 택배기사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 문제

택배란 단어는 일본의 ‘宅配便’(택배편)이란 소화물 운송 서비스에서 빌려온 명칭이다. 이는 기존의 화물 수송 형태와는 혁신적으로 다른 소화물의 문전배달 형식으로 신속, 정확, 확실하게 일관된 책임 아래 수송하는 형태로 소규모의 소량 화물에 대해 화주로부터 수송의뢰를 받아 화물의 접수, 포장수송, 배달 일체를 수송업자의 책임 아래 일관 서비스하는 수송 서비스를 말한다.²⁾ 택배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크게 ‘운수 및 창고업’으로 분류되고 그중에서 ‘소화물 전문 운송업’에 속한다. 택배업은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간 소화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체는 택배 물품 수집 및 배달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형성하며 육상, 수상, 항공 수송 수단이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³⁾

최근 홈쇼핑,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 경제 환경의 변화와 수요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매출액이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등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고, 지정시간 집하 배송, 심야 배송, 당일 배송 및 귀중품 배송 등 소비자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⁴⁾ 자세한 우리나라 국민의 택배 이용 횟수와 택배 물류량의 추이 통계자료를 통해 국내 택배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횟수는 연 65.1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 또한 2020년 33억 7천만 개로 조사되었으며 작년보다 20.9%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물동량 증가율은 18년도에는 9.6%, 19년도에는 9.7%였음을 고려하면 코로나로 인해 급증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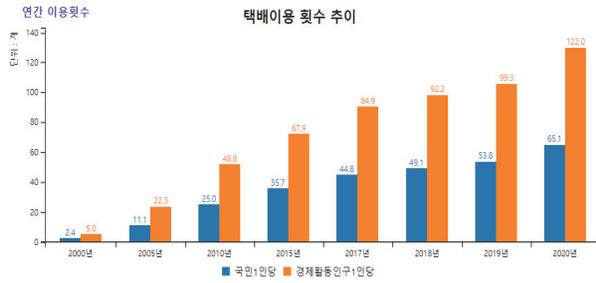
1) 하종강, 택배 노동자들이 화났다, 한겨레, 2020. 9. 22.,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3202.html#csidxe7eec32268a863f8116e0d1f32af08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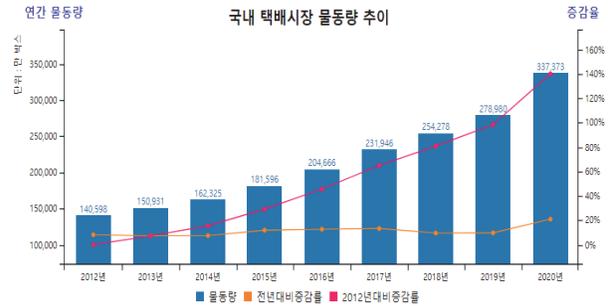
2)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물류용어사전, 〈<http://nlic.go.kr/nlic/dicEditDt.action>〉. 2021. 5. 24.

3)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http://kssc.kostat.go.kr/>〉, 2021. 5. 24.

4) 박경서, 한국택배산업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3쪽.



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생활물류통계](각 연도)
 <그림 1> 택배 이용 횟수 추이



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생활물류통계](각 연도)
 <그림 2> 국내 택배 시장 물동량 추이

증가하는 택배 이용과 함께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은 2017년에는 일 평균 10시간 12분, 2018년에는 일 평균 11시간 24분이 보고되어 노동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8월 조사된 연구에서는 일 평균 노동시간이 12시간 42분으로 일주일에 7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고 있다.⁶⁾ 이는 단지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아닌 예전부터 과도한 노동이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택배기사의 업무 과정을 보면 운송과 배달작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분류작업에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들은 점심시간에 제대로 된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한다. 설문조사 결과 약 25.6%는 아예 식사하지 않고 대부분이 컵라면이나 빵, 김밥으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택배기사의 휴식 시간은 자율적이지만 정해진 택배 시간과 많은 물량으로 인해 1시간조차 쉬지 못하고 대부분 시간을 일만 한다. 앞서 본 통계자료와 설문조사를 보면 그동안 발생한 택배기사 사망 문제는 심 없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사가 원인임을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는다.

세부 구성 작업	구성비 평균(%)
분류작업 구성비	42.8
운송·배달작업 구성비	50.2
집화작업 구성비	11.1
기타작업 구성비(고객관리, 사무업무 등)	8.5

출처: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그림 3> 전체 업무 중 세부작업별 구성비

	응답(명)	응답(%)
① 빵이나 김밥 등을 차에서 먹는다	207	22.2
② 주변 식당에서 사 먹는다	204	21.9
③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 등을 먹는다	93	10.0
④ 터미널에서 컵라면을 먹는다	86	9.2
⑤ 끼니를 거를 때가 많다	342	36.7
계	932	100.0

출처: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그림 4> 업무 중 식사 해결 방법 (복수응답)

5)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생활물류통계, <<http://nlic.go.kr/nlic/parcelServiceLogistics.action>>, 2021. 5. 24.
 6) 백희정 외, 택배기사의 업무활동시간과 건강장해, 산업보건 396호, 대한산업보건협회, 2021, 5쪽.

흔히들 과로사라 하면 건강한 사람이 과로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과로사란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과로로 인해 더욱 악화되어 사망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정신질환이 발생할 경우 인정되는 노동시간이 주당 60시간이다.⁷⁾ 이렇듯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은 과로로 사망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노동강도이다. 29년 전 택배 서비스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는 물류가 많지 않아 분류작업을 한 시간이면 끝냈지만 빠른 속도로 물류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분류작업에만 6~7시간이 소모된다. 여기서 문제는 분류작업이 공짜 노동이라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인력 추가 없이 물류가 많아도 충당된 인원만이 해오던 것이다. 택배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공짜로 해오던 일이므로 공짜로 하라는 상황이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단지 임금 상승만 한다면 과로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기에 택배기사들은 물류 분류 작업에 대체 인력을 투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의 문제로 택배 기업하고 합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3. 택배기사의 과로사 예방 방안

앞서 봤듯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해왔는데 얹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COVID-19로 급증한 택배 물량으로 과로사 또한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택배기사의 과로사 원인은 장시간 노동과 더불어 택배기사의 쉼터 수 또한 적다. 또한 택배기사 대다수가 개인 사업자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본 장에서는 이런 문제 속에서 택배기사의 노동강도를 줄일 방안과 근로환경 개선 위주로 해결 방안을 고안할 것이다. 이에 앞서 택배 선진국 국가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도입하면 좋을지 고안하며 실질적으로 업무강도를 줄일 방안 위주로 고찰해 볼 것이다.

3.1. 기업적 측면

택배기사는 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안전하게 배송지까지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집 안에 전달받을 사람이 없을 시 문밖에 놓고 갔다가 분실이 될 경우도 택배기사의 문제가 되어 버린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길 같은 경우 무거운 물건을 직접 들고 배송해야 하는 고충도 존재한다. 상기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한 것이 무인택배함 확대방안과 택배경영의 신 패러다임이다.

3.1.1. 생활밀착형 택배 서비스-무인 택배함

전 세계 택배 물량 규모 2위인 미국의 무인택배함 사례로 ‘스왑박스’가 있다. 스타트업 기업인 ‘스왑박스’는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된 자판기 형태의 무인 택배 보관함이다. 스왑박스는 물건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된 장소라면 언제 어디서나 화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⁸⁾

다음으로는 전 세계 택배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의 사례이다. 중국은 2017년 당시 택배보관함이 27만 1000개에 이르렀다. 중국의 대다수의 택배업체는 알리바바 그룹의 물류회사인 차이나오가 개발한 플랫폼을 이용한다. 중국의 스마트 택배보관함 역시 문자로 온 번호를 입력하거나 얼굴인식을 통해 택배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7) 박흥근 외,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토론회, 노동사회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2쪽.

8) 대담 외, 24시간 무인우체국 ‘스왑박스’- 고객을 찾아가지 말고, 찾아오게 하라, CLO, 2015. 6. 26.,

<<http://clomag.co.kr/article/1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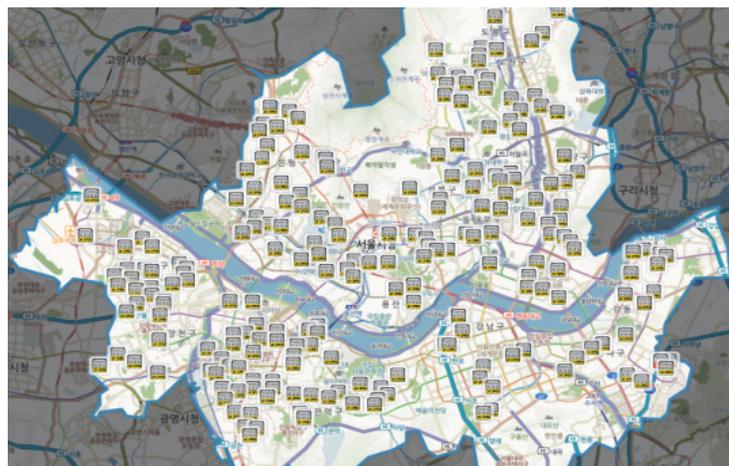
출처: <<http://clomag.co.kr/article/1189>>
 <그림 5> 스왑박스



출처: 시사 in- 중국 택배시장 '빛의 속도'로 질주
 <그림 6> 차이나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을 통해 주문을 하면 집으로 배송지를 설정하는 게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무인 택배함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2013년 7월 최초로 도입된 서울시 여성 안심 택배함이 대표적이다. 서울 권역에 261개의 여성 안심 택배함이 설치되어 있고 2018년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약 284만 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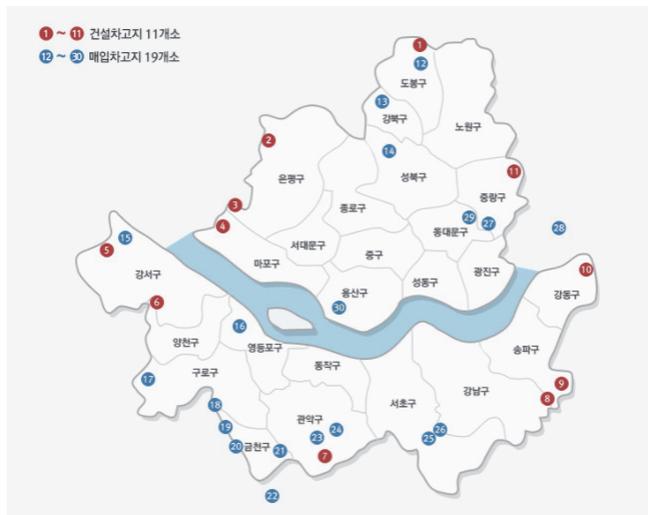
그다음으로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는 편의점 택배이다. 편의점 택배는 편의점 업체인 GS25와 CU가 포스트박스와 제휴해 택배 보관과 더불어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무인 택배함이 여성 안심 택배함을 제외하고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무인택배함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지하철 역내에 무인택배함이 한두 개씩 설치되어 있다. 이런 무인 택배함을 국가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것보다도 택배 기업에서 무인택배함을 만들어 제공한다면 홍보도 기업 내에서 이루어져 더욱 빨리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효과와 소비자의 기호에 따른 빠른 피드백으로 더욱 택배 무인함이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같은 경우 고층 아파트나 빌라 같이 밀집된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어 무인 택배함이 상용화된다면 택배기사의 노고를 줄임과 동시에 고객들도 자유롭게 택배 반품을 하거나 원하는 시간대에 찾아갈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출처: 함께서울
 <그림 7> 여성안심택배 위치도

3.1.2. 택배기사 쉼터 마련

현재 택배기사의 유일한 쉼터는 서브터미널이지만 물류 작업으로 컨베이어 벨트만 있어 휴식을 취할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 택배기사 같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는 서울에 3곳이 설치되어 있고 서울 외 지역은 광주에 1곳이 있다. 택배기사를 위한 쉼터는 화물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기에 더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한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전 자치구에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택배기사는 업무 중 휴식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실제 이용 빈도는 저조할 것으로 추정하지만 앞서 얘기한 사례들을 도입한다면 휴식할 시간적 확보는 보장이 될 것이다. 또는 택배기사의 쉼터 이용을 유발하도록 화물차량 정비를 받을 수 있는 정비소 혹은 주유소 내에 택배기사 쉼터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이는 부지의 문제로 도시 내에서는 실천되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버스 공영차고지 내에 버스 기사와 더불어 휴식할 수 있는 택배기사의 쉼터를 만드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서울시 버스 공영차고지는 30개다. 버스 차고지에 버스가 없는 시간대를 이용해 택배기사들이 휴식할 수 있게 해준다면 현재보다는 택배기사의 노동 질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출처: 서울시설공단

〈그림 8〉 버스공영차고지 위치 및 현황

3.2.3. 택배 경영의 신(新) 패러다임-슬로우 택배와 모아모아 운동

2장에서 봤듯이 택배는 신속하게 수송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신속을 넘어 새벽 배송, 로켓배송같이 소비자들은 빠른 배송을 추구해 속도가 기업만의 경쟁력이 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에 상반되는 성격인 슬로 택배를 고안했다. 요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쇼핑족들도 많이 증가하였다. 해외 직구의 가장 큰 단점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느린 배송기간이다. 기본 한 달이 걸리는 배송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는 것은 당장 불필요한 제품이라는 것이다. 국내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서도 1주일 뒤에 와도 큰 불편 없는 고객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배송이 느려지면 그만큼 택배기사의 노동업무 강도가 낮아져 휴식할 틈이 생기게 되는 효과가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택배기사의 업무량이나 강도가 얼마나 많고 힘든지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기업에서 슬로 택배 취지를 고객들에게 알리고 이를 이용했을 시 포인트 적립이나 택배비 500원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면 많은 고객이 참여할 거라 믿는다.

다음으로 제안한 방안은 모아모아 운동이다. 모아모아 운동이란 각각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한 상품들을 일정 기간 모아 한 번에 받는 운동을 뜻한다. 편리한 결제 시스템과 온라인 쇼핑 덕분에 한 곳에서만 상품을 주문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이트에서 하나씩 주문하거나 여러 번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다 보면 배송지는 똑같은데 사이트가 다르거나 주문 날짜가 달라 일주일에 몇 번씩 배송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다. 이런 경우 택배기사의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화물차량 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이어진다. 모아모아 운동 같은 경우 같은 택배사일 경우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가장 많이 이용되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로젠택배 같은 기업에서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로 예측한다.

택배 경영의 모토가 빠른 배송에서 느린 배송까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소비자도 빠른 배송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양해야 한다는 인식의 개선이 차츰차츰 생길 것이라 기대해 기업에서 택배 경영의 새로운 획을 그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3.2. 정책적 측면

3.2.1. 노동력 분산을 위한 정책 협의- 실버 택배

올해 4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 진입 금지'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 택배 차량 진입 금지 문제는 사실 이번에만 생긴 일은 아니다. 2015년 울산에서 한 아파트 주민들은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택배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등 예전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화제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실버 택배를 고안하였다. 실버 택배란 택배기사가 아파트 단지에 물건을 신고 오면 노인들이 전동카트 등으로 배송을 하는 것이다. 실버 택배의 큰 장점은 택배기사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방출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 노인 일자리 문제와 함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실버 택배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서 CJ대한통운이 20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2017년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이 발표한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업 50'에 선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⁹⁾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버 택배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과 연합해, 전동카트 구매 보조금을 지불하거나 시니어 택배기사 고용 인원을 지정해준다면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택배 기사의 노동 시간 감소로 휴식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로 전망한다.

3.2.2. 과로사 예방 관련 법안 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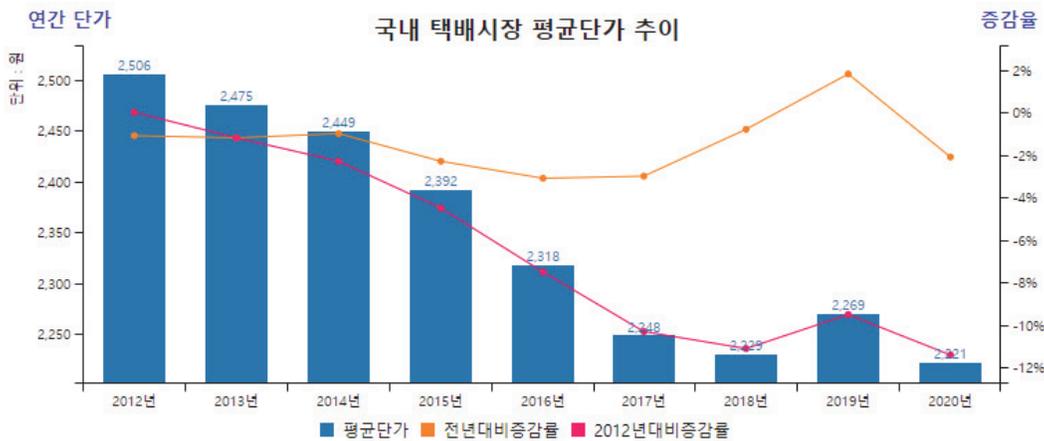
택배기사는 자영업자로 배송 건수로 수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류 작업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짜 노동이다. 정당한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시간 소모가 많이 되는 물류 작업이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다. 실제 CJ대한통운의 경우 15,000여 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5명당 1명'의 분류 인원을 투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추석 기간 동안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2시간 내외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¹⁰⁾ 예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직 이와 관련해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택배사에서 엄연히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아직 분류 작업에 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공짜 노동으로 택배기사를 몇십 년간 노동을 시켰는데 이제 와서 택배기사한테 물류 총당 인원 임금까지 지불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해 임금은 온전히 택배사의 몫으로 지정하는 법안

9) 김희진, 'UN이 인정한 착한 일자리'... CJ대한통운 '실버택배', 뉴데일리 경제, 2019. 9. 5.,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5/2019090500157.html>>

10) 박홍근 외, 앞의 글, 46쪽.

상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문제로 택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택배비는 감소하고 있다. 택배기사는 배송을 많이 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에 있다. 택배비가 낮아지면 물건을 더 많이 배송해야지만 수익이 생기다 보니 설 틈 없이 물류를 배송하는 것 또한 원인이다. 톨스토이의 명작 중에서 주인공은 걸어간 땅을 가질 수 있다는 말에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욕심을 부리다 결국 죽은 일화가 담긴 책이 있다. 이렇듯 인간의 욕심은 무한한데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라고 인식한다.



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그림 9〉 국내 택배 시장 평균단가 추이

먼저 택배기사가 스스로 물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배송비를 상승해야 한다. 하지만 분류작업에 인력이 투입되면 택배비가 증가할 것이고 결국 택배기사가 가져가는 비중은 적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백마진 금지법’이다. 택배를 시키면 평균 2,500원인데 2017년 국토교통부가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물과 택배사가 합의한 택배 금액은 1,730원이다.¹¹⁾ 그럼 770원이라는 돈이 백마진으로 다시 인터넷 쇼핑물과 택배사로 들어가는 것이다. 인터넷 쇼핑에서는 포장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는 제조원가에 포함해 택배비가 아닌 상품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맞다. 이를 근거로 ‘백마진 금지법’을 실행한다면 택배기사가 받는 택배 단가는 25% 이상이 증가한다. 이 법안의 중요성은 이런 수익구조가 투명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택배 인상을 안 해도 택배기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택배기사가 하루에 배송가능한 택배 수를 법적으로 200개 미만으로 정해 과도한 욕심으로 과로가 오는 것을 막는 것도 추가로 상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3. 기술적 측면

3.3.1. 해외 드론 배송 사례와 한국형 드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드론이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다. 미국 아마존은 2013년 8월 드론을 이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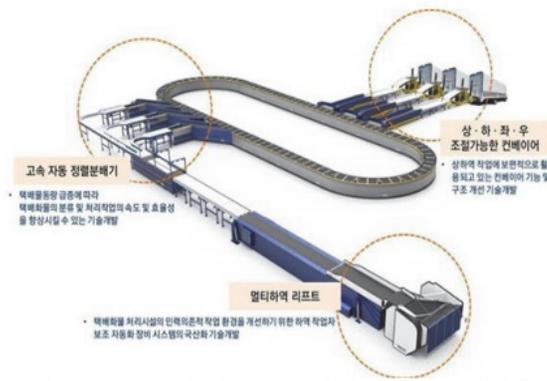
11) 윤정현, 2,500원 내는데 택배사엔 1,700원만...800원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나, 민중의 소리, 2021. 1. 26., <<https://www.vop.co.kr/A00001542875.html>>

운송하는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발표하였고 독일의 DHL은 2014년 자체 개발한 파슬콧터를 이용하여 독일 북부 노르텐시의 노르트다이호 항구에서 12km 떨어진 북해의 위스트 섬에 의약품을 배송하는 데 성공하였다. 2015년 2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B2C 쇼핑몰 타오바오는 물류회사 YTO 익스프레스와 제휴를 맺고 상품배송 테스트를 하였다. 중국의 도시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중심으로 한 시간 내의 반경에서 450명의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3일 동안의 택배 수송 시범 운행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내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사례들이 존재한다.¹²⁾ 국내에서도 CJ대한통운이 배송하는 드론을 개발하기도 하였지만 시연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다.

물류 시장의 싹으로 떠오르는 드론 배송의 기술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개발이 뒤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선진국의 기술에 의존보다도 우리나라만의 자체 기술력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아파트나 연립 같은 공동 주택으로 되어 있어 드론 배달에 더욱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드론 배송 시스템의 네트워크는 서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비스 이용자와 운영자 간의 신뢰성 보장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 드론 배송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배송의 신뢰성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정 중 하나이다.¹³⁾

3.3.2. 택배 물류 자동화

택배기사 업무의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배 물류 작업은 단순 노동이다. 이를 기술로 대체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정부 예산을 투입해가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택배 상, 하차 자동화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상하차, 분류, 배송 등 작업별 특성을 고려해 개발하고 있는데 이를 상용화한다면 택배기사가 택배를 실는 작업이 대폭 감소하고 그 대신 시간당 처리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¹⁴⁾



출처: ‘택배산업의 자동화 기술도입과 택배기사들의 영향’ 논문 내 사진 인용
 <그림 10> 택배 상하차 등 분류시설 개선 개념도

택배 기사한테 있어 물류 작업은 지금까지 공짜 노동이었다. 한시라도 빨리 자동화 기계가 도입되어 택배기사의 일이 감소하게 된다면 택배기사의 업무량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2) 왕도휘 외, 드론 물류배송 활용 사례와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60, 한국통신학회, 2016, 624쪽.
 13) 최성석 외, 블록체인을 이용한 드론 무인 택배 배송 시스템, 정보 및 제어 논문집, 대한전기학회, 2018, 191쪽.
 14) 박종식, 택배산업의 자동화 기술도입과 택배기사들의 영향, 우정정보 118, 우정정보경영센터, 2019, 31쪽.

4. 결론

우리나라 헌법 제 32조 3항에서는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엄연히 무시한 값싼 노동력이다. 택배업은 앞으로 더욱 발전되고 더 많이 이용될 레드오션인데 택배기사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택배 산업의 장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 작년부터 증가하는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택배 무인함을 상용화시켜 고객들의 이용 빈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택배기사의 쉼터 마련 대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가 이용할 수 있는 쉼터 마련 대안을 냈다. 또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을 슬로우 택배로 변환하자는 제안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택배 이용 인식개선이 되는 효과를 내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실버 택배 사업이 커질 수 있도록 기업과 협약을 통해 적극 지원을 해줘 사회적 가치와 택배기사의 배송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고안하였다. 또한 택배 기사한테 가장 필요한 물류 작업 인원 충원, ‘백마진 금지법’을 상정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기술적 측면에서 드론과 택배 물류 자동화 방안을 살펴보고 해외의 사례를 보며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과 비교해보며 보완점을 봤다.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전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택배기사의 노동 현황을 보고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당일 배송과 새벽 배송의 이면을 통해 인식 전환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 문헌

- 김희진, ‘UN이 인정한 착한 일자리’... CJ대한통운 실버택배, 뉴데일리 경제, 2019. 9. 5.,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5/2019090500157.html>>
- 대담 외, 24시간 무인우체국 ‘스왑박스’-고객을 찾아가지 말고, 찾아오게 하라, CLO, 2015. 6. 26.,
 <<http://clomag.co.kr/article/1189>>
- 박경서, 한국택배산업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박종식, 택배산업의 자동화 기술도입과 택배기사들의 영향, 우정정보 2019권 3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19-40쪽.
- 박흥근 외,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토론회, 노동사회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020.
- 백희정-전용일, 택배기사의 업무활동시간과 건강장해, 산업보건 396호, 대한산업보건협회, 2021.
- 양광모, 중국 택배시장 ‘빛의 속도’로 질주, 시사 in, 2019. 7. 10.,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28>>
- 왕도휘 외, 드론 물류배송 활용 사례와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60, 2016, 624-625쪽.
- 윤정현, 2,500원 내는데 택배사엔 1,700원만... 800원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나, 민중의 소리, 2021. 1. 26., <<https://www.vop.co.kr/A00001542875.html>>
- 최성석 외, 블록체인을 이용한 드론 무인 택배 배송 시스템, 정보 및 제어 논문집, 대한전기학회, 2018, 190-191쪽.
- 하종강, 택배 노동자들이 화났다, 한겨레, 2020. 9. 22.,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3202.html#csidxe7eec32268a863f8116e0d1f32af08f>>

참고 사이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https://www.nlic.go.kr/nlic/front.action>>

서울시설공단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main/>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함께서울 <<https://map.seoul.go.kr/spm/>>



청년세대의 자조적 표현의 유행과 의의

행정학부 신영*

목 차

1. 서론
 2. 자조적 표현의 현황
 - 2.1. 인터넷 방송으로 보는 자조적 표현
 - 2.2. 자조적 표현의 개념과 유형
 3. 자조적 표현의 유행의 이유
 - 3.1. 공감대와 동질감 형성
 - 3.2. 서로 간의 위로
 4. 결론
- 참고 문헌

1. 서론

만약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이 행복하냐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글로벌 여론조사업체인 입소스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는 조사 대상 28개국 중 21번째에 그쳐 상대적으로 불행한 나라에 속했다. ‘당신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묻은 결과 한국인 중 ‘그렇다(매우 행복하다+조금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은 54%에 그쳤다. 이는 조사 대상국 평균(64%)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특히 한국인 중 ‘매우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은 3%에 불과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¹⁾ 이것은 2011년 이후로 계속되는 하락추세이다. 그만큼 현대사회가 점점 살아가기 각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청년들은 이런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자조적 표현을 통해 자신들이 힘든 것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다양한 힘든 상황들과 사회문제가 있는 만큼 그것을 표현하는 많은 신조어와 표현들이 생겨났다. 대표적으로 인싸와 아싸, n포세대, 헬조선과 같은 단어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유명해진 단어가 되었고, 일상적으로는 <그림 1>과 같이 공부를 하지 않는 자신을 낮추는 표현들을 쓰기도 한다.



<그림 1>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자조적 표현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쓰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왜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 간의 급을 나누는 표현인데도 웃어넘기며, 필자와 독자 서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심지어 좋지 않은 표현임에도 <그림 2>처럼 뉴스에도 나오는 대중적 표현이 되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예전과 다르게 금방금방 자조적인 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자조적 표현이 특히 청년세대를 거쳐 인기를 타고 있는데, 부정적인 표현임에도 거부감없이 쓰이는 이유를 알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자조적 표현이 확산하는 것을 좋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확실히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자조적 표현들의 유형과 이 표현들이 왜 쓰이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1) 이상일, '세계 28개국 행복도' 조사, 한국 순위는?, 주간조선, 2021. 5. 18.,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574100006>



〈그림 2〉 뉴스에 나온 ‘헬조선’

2. 자조적 표현의 쓰임

자조란 한자로 스스로 자, 비웃을 조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자조적 표현은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뿐만이 아닌 재미, 깨달음, 공감을 주어야 자조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1. 인터넷방송

청년세대에서 흔히 말하는 ‘말의 유행’은 보통 어디서 시작될까? 정답은 비교적 대중적인 TV, 라디오가 아닌 개인 미디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청년세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른 플랫폼 보다 잘 캐치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특성 때문인지 인터넷 방송을 소비하는 주 소비층도 약 70%는 20대 이하이다.²⁾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인들은 카카오팟, 다음팟에서 방송을 시작한 방송인들이다. 대표적 예로 방송인 PAKA, 랄로를 보면 〈그림 3〉처럼 1년 사이에 6.9만에서 56.8만, 2.8만에서 28.7만의 큰 상승 폭으로 구독자가 많이 유입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오른쪽(랄로)채널의 구독자 수 추이, 왼쪽(PAKA)채널의 구독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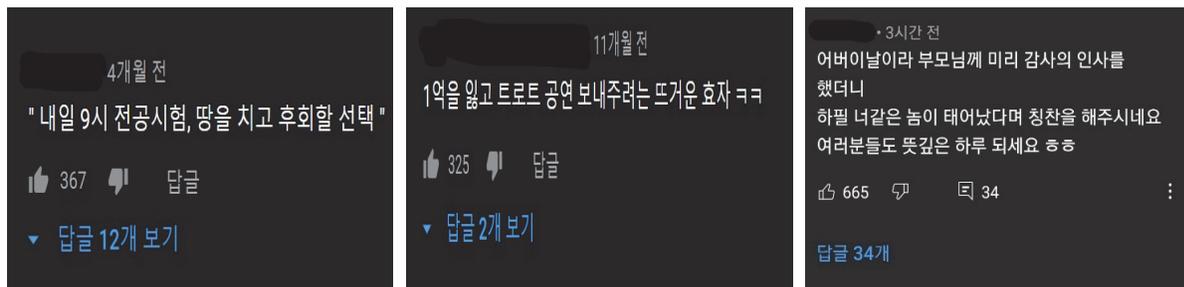
그렇다면 이 채널들의 성장의 바탕은 무엇일까? 바로 자조적 표현을 쓰며 시청자들과 많은 공감대를 얻었기

2) 닐슨코리아, 통신 네트워크에 따른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이용행태, 월간토픽, 2017. 4. 26.,
 〈http://www.koreanclick.com/insights/newsletter_view.html?code=topic&id=436&page=5&utm_source=board&utm_medium=board&utm_campaign=topic&utm_content=20170426〉

때문이다. 카카오팟, 다음팟의 방송 문화는 여타 다른 인터넷 방송처럼 콘텐츠제공자 위주의 상하관계와 다르게 방송인과 시청자가 대등하게 있는 수평적 관계에 있다. 이러한 방송의 주 시청자는 디씨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의 시청자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 커뮤니티의 성격은 자조적 표현이 보다 개방되어 있고 자주 쓰이는 성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송 플랫폼의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방송인들과 함께 자조적 표현을 쓰게 되며 많은 자조적 표현들이 생기게 되었다.

대표적인 표현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군’으로 1군, 2군으로 자신들이 인터넷 방송에 시간을 많이 쓰는 정도에 따라 급을 나누는 표현이다. 두 번째로는 팟수라는 단어이다. 다음팟+백수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방송을 보며 취업 걱정을 하지 않는 자신들을 비꼬며 만든 표현이었지만 인터넷 전반으로 방송을 보는 사람을 지칭하는 사람으로 그 의미가 넓어졌다. 비슷한 표현으로 이 시간... 다음팟... 직업이? 라며 늦은 시간에도 방송을 보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모두 비판적으로 놀리는 표현이 있다.³⁾

이러한 방송인들은 최근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관해 관심을 가지며 많은 공유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암호화폐 이용자는 300만 명을 넘었고, 그중 약 59% 2030 세대임을 말했다.⁴⁾ 방송인도 함께 비트코인 열풍에 편승해 투자에 실패했을 때 함께 자조적으로 ‘개미 털기’와 같은 표현들을 쓰며 자신들의 경험들을 공유하며 하나의 광장이 만들어졌다. 또한, 고정적이지 않은 수입과 불안정한 미래에 삶에 대해 같이 대화하며 부족한 자신들을 오히려 포용하며 다 같이 즐기는 문화가 자연스레 형성되었다.



〈그림 4〉 유튜브 람로(오른쪽 두 개의 댓글), 파 (왼쪽의 댓글) 채널의 시청자 반응들

댓글반응들을 살펴보면 청년들이 한 번쯤은 공감할만한 시험에 준비하지 않은 모습,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 때문인지 이곳 방송에서 자신들이 힘든 것을 마음껏 표출하며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었고, 그것에 재미가 붙여져 자조적 표현을 쓰는 방송인들의 인기에 발판이 되었다.

2.2 자조적 표현의 개념과 유형

자조적 표현에서 가장 대중적인 표현은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며 공감을 원하는 표현이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나 공부를 안 했어, 아 모르겠다.”, “밤을 새웠네...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등 가벼운 표현들 또한 자조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전술한 인터넷 방송 관련 자조적 표현도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다면 자조적인 노래와 문학이 있다.

3) 나무위키, 팟수, <<https://namu.wiki/w/%ED%8C%9F%EC%88%98#s-4>>, 2021. 5. 16.

4) 김동환, 이광재 의원 “암호화폐, 미래 산업으로 접근해야”, 코인데스크코리아, 2021. 4. 23., <<http://www.coindes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97>>

그중 특히 청년세대에게 인기 있는 것은 노래이다. 자조적 표현이 들어간 노래의 인기는 무시할 수 없다. 대표적 세 곡을 예를 들자면,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난 못났고 별 볼 일 없지”라는 가사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짝사랑을 노래한 10CM의 〈스토커〉는 음원이 발매되고 순위 상위를 달렸고 지금도 새벽이 되면 이 노래에 공감하는 사람들에 의해 차트에서 계속 역주행을 보여주며 ‘새벽 연금’이라는 단어를 만든 뮤지션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지금의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루저라고 지칭하는 빅뱅의 〈loser〉이다. 빅뱅은 인터뷰에서 직접 이 노래는 20대 청춘들을 대변하기 위한 곡이라고 밝혔다.⁵⁾ 또한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 김봉환은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지치고 버림받았다는 패배감을 “나도 그래. 나도 너와 같아”라는 입장에서 이 노래에 대중들이 공감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⁶⁾. 실제로 그 인기도 대단했는데, 2015년 가온차트 연간 2위, 2015년 5월 7일 미국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차트 1위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치열한 경쟁사회 속 자신들을 톱니바퀴, 하루살이에 빗대어 세상에서 자신들은 먼지 같다는 표현을 하며 그들 또래의 현실을 노래한 밴드 혁오의 〈위잉위잉〉 또한 지니 실시간 누적차트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집에서 땡굴 땡굴 할일 없어 빈둥대는 내 모습 너무 초라해서 정말 죄송하죠”,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등 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들이 취업, 연애, 인간관계에 흥미를 잃고 삶의 의욕마저 잃은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곡이다.

이렇듯 최근 이러한 자조적 노래들이 인기를 타는 것은 단순히 아티스트들의 음악성이 뛰어나서가 아닌 사회가 그만큼 힘들어졌고, #공감 #위로 #극복이란 카테고리가 들어간 책이 2020, 3월 18일부터 2021년 6월 현재까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노래 또한 청년들이 이 상황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헤쳐나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좋아하는 애가 내 친구랑 어제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노래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져나왔다. 한심하고 찌질한 나
2017.11.12 17:35

답글 5개 ▾

 241  5

제일 힘들때 빅뱅노래만큼 힘이되는게 없다
2018.11.26 21:46

답글 0개 ▾

 96  0

내 일상이랑 왜케 비슷하지 노래가...
2017.07.01 20:41

답글 1개 ▾

 197  1

〈그림 5〉 위로부터 〈스토커〉, 〈LOSER〉, 〈위잉위잉〉의 멜론댓글

5) 김예나, [인터뷰] 빅뱅 “‘루저’ ‘배배’, 뻘한 사랑 노래 아냐”, 한국경제, 2015. 5. 5.,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505051279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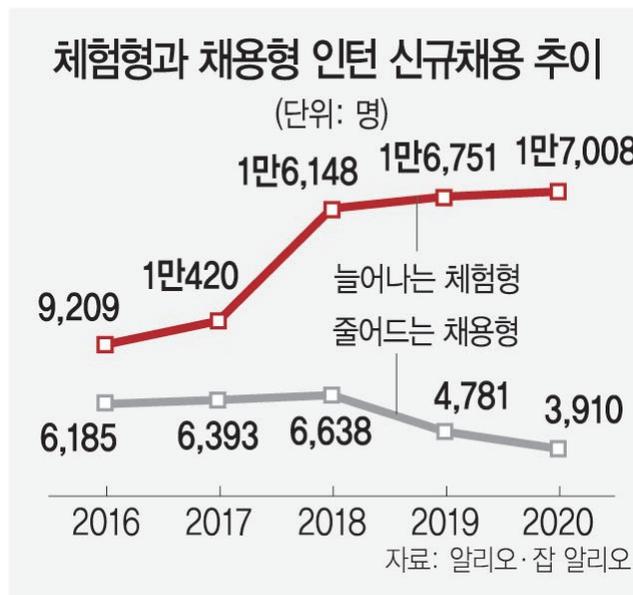
6) 더위키, LOSER(노래), <[https://wiki.thewiki.kr/w/LOSER\(%EB%85%B8%EB%9E%98\)](https://wiki.thewiki.kr/w/LOSER(%EB%85%B8%EB%9E%98))>, 2021. 5. 21.

2.2 자조적 표현의 유형분석

2.2.1 취업 관련

최근 우리나라의 취업률은 어떨까? 2021년 1월 청년취업률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41.1%으로 몇 년 전부터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률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청년 실업률이 3개월 연속 10%를 넘으며 그 심각성을 보여주었다⁷⁾. 이러한 불안정한 취업시장에 불만을 표하는 청년들에게서 다양한 표현들이 생겨났는데, 대표적으로 부장인턴, 이케아세대, 자소서 포비아, 열정페이, N포세대, 문송합니다라는 단어들을 분석하고 이 표현들의 의미와 사용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부장인턴’이란 계속되는 인턴생활을 하는데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계속 이리 돌고 저리 돌며 인턴생활만 계속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비슷한 단어로 티슈 인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 또한 정규직채용이 되지 않고 티슈처럼 잠깐 쓰고 버려지는 인턴들의 현실을 표현한다. 문제는 ‘체험형 인턴’인데, 정규직전환이 가능한 ‘채용형인턴’보다 올해 공공기관에서 체험형 인턴이 약 7배나 많은 숫자를 보여주었다⁸⁾.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의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능력개발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고용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과는 다르게 적자에 허덕이는 공공기관 한전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체험형 인턴을 지난해보다 5000명 늘린 2만 2000명을 뽑으며 단기일자리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⁹⁾.



〈그림 6〉 체험형인턴과 채용형인턴 일자리 수의 차이

7) 조희연, 쓰레기 치우고 식권 배부...공공기관 '티슈인턴'의 비애, 돈이보이는뉴스 머니에스, 2021. 5. 27.,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51817448039433>>

8) 방진혁, 우수 인력 찾는다더니... '단기 인턴' 더 늘린 공공기관, 서울경제, 2021. 3. 15.,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TEXVIVD>>

9) 최원영, 학교 방역·체험형 인턴...공공기관 쥐어뜯 임시 청년 일자리, TV조선뉴스, 2021. 3. 3.,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3/2021030390139.html>

또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부설기관 등 전체 공공부문 360곳에서 모집한 체험형 인턴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채용형 인턴은 2019년부터 급감하고 있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었다. 체험형과 채용형 인턴의 격차는 꾸준히 2017년 1.6배에서 2018년 2.4배, 2019년 3.5배, 2020년 4.4배 등으로 벌어지고 있다. 청년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회사에서 잡일을 도맡는 것이 아닌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다음 표현은 '이케아세대'이다. 이케아세대란 현재 청년세대가 이케아가구처럼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은 좋다는 것을 뜻한다. 즉, 청년세대들이 교육수준과 스펙은 뛰어나지만, 고용은 저렴하니 쓰고 잠깐 쓰고 버리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 표현은 586세대의 취업상황과 대비를 이뤄지며 나타났는데, 586세대와 달리 현재 자신들은 유례없는 최고의 스펙을 쌓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것을 한탄하고 있다.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586세대가 "모든 면에서 행운을 타고났다"란 평가를 받는 세대라고 분석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취업의 용이함이었는데, 1990년은 고도성장의 막바지를 달리던 때로 당시 경제성장률은 9.8%를 이루었다. 따라서 기업들이 더욱 성장을 하기 위해 앞다퉈 대졸 인재를 찾아 보니 취업준비생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 되었다. 한 586세대인 A 씨는 "취업이 잘 되다 보니 요즘 대학생들처럼 별도의 스펙을 쌓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라고 했다.

또한, 명문대 졸업 예정자들은 학점이 나빠도 원하는 기업을 골라서 갔다.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교수 추천서에 자신의 이름만 쓰면 면접전형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학교 앞 호프집으로 학생들을 불러 모아 지원을 독려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1990년 전체 실업률은 2.4%로, 당시엔 청년 실업률을 집계하는 것의 필요를 느끼지도 않아 따로 집계하지도 않았다¹⁰⁾. 현재 상황과는 너무도 다른 상황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 586세대와 20·30세대를 이어주려는 많은 책이 나오며 자칫 세대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문제를 서로의 세대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함께 성장하자는 움직임 또한 이뤄지고 있다.



〈그림 7〉 586세대에 대한 책

10) 성수영·서민준, 추천서에 이름 쓰면 취업, 집 샀더니 몇 배 뛰어나...천운을 타고난 586, 한국경제, 2019. 10. 1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01311471>>

또 다른 취업 관련 표현에는 ‘자소서 포비아’라는 표현이 있다. 자소서 포비아란 자소서 쓰는 게 두려워 쓰지 않는 상황을 뜻한다. 최근 서류전형부터 직무 적합성 평가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며 글쓰기에 두려움이 생기는 구직자들이 많아지고, 구직자들의 전체적 스펙이 상향되어 자소서를 써도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이번에도 안될 거야”라는 마음가짐으로 상처받기 싫은 심리가 들어가 있다. 실패의 쓴맛을 좋게만 느끼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구직자, 88.1% 자소서포비아 겪어

※ 신입직 구직자 2,158명 대상 조사, 자료:잡코리아X알바몬

Q. 자소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복수응답)



JOBKOREA × albamon

〈그림 8〉 자소서포비아의 이유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신입직 구직자 2,158명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준비 현황 관련 설문조사에서 조사결과 설문에 참여한 구직자 중 88.1%가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를 작성할 때 막막하거나 한계를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구직자 49.7%는 지원하려는 기업의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입사지원을 포기했던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무려 약 90%의 구직자가 서류전형에서 고전하고 있으며 취업시장이 매우 좁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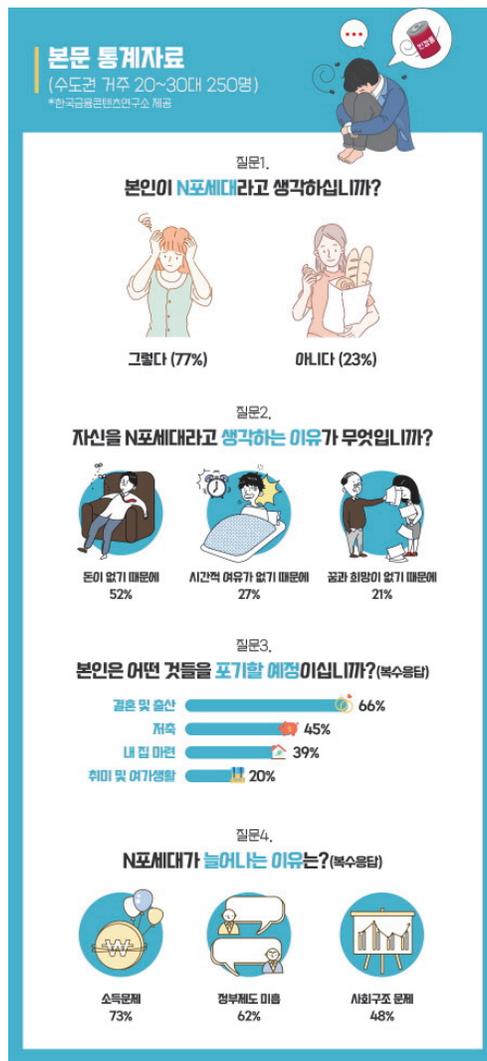
다음 표현으로 ‘열정페이’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 줬다는 구실로 청년 구직자에게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의미한다. 청년들이 턱없는 급여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청년들에게 이뤄지는 부당대우가 사회 곳곳에 당연시되고 있어 빠르게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열정페이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직업군인 패션업계에서는 2014년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한글패션’으로 유명한 이상봉 디자이너는 직원들의 급여로 월에 견습 10만 원, 인턴 30만 원, 정직원 1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모두 야근수당을 포함한 급여라는 것에 첫 번째 논란이 일었고, 성수기에 의무야근을 시키고, 추가 급여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두 번째 논란이 일었다. 한국적인 소재를 디자인 재료로 사용해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유명한 디자이너였음에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¹²⁾.

11) 잡코리아X알바몬 통계센터 press, 구직자 88.1% ‘자소서포비아’ 겪어, 잡코리아, 2020. 4. 6., 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6610

12) 김지민, “아직도 열정페이 지급하나요???” 변하지 않는 패션업계 부당대우, 언제까지 이어질까, 모바일한경, 2019. 2. 19.,

마지막으로 ‘N포세대’와 ‘문송합니다’를 살펴보자. 먼저 ‘N포세대’는 취업뿐만이 아닌 2030 청년들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N 가지를 포기, 즉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단 것을 뜻한다. 두 번째로 ‘문송합니다’라는 단어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뜻으로 이과생에 비해 문과생의 취업률이 심각하게 떨어질 때 문과생들이 자조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서로 취업이 안 될 때 사용하는 표현이란 점이 같은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4,158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서 올해 졸업생의 44.5% 정도가 취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5년간 졸업생의 실제 취업률이 62.6~64.5%인 것과 비교하면 비관적인 수치를 보인다¹³⁾.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만이 아닌 청년들의 심리적 상태도 비관적이다.



〈그림 9〉 N포세대 설문결과

위 통계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30대 수도권 거주 응답자 중 77%의 청년들이 본인을 N포세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돈이 없기 때문에(52%)',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13) 이정혁, 올해 4년제 대졸자 절반 이상은 무직 상태, 머니투데이, 2021. 5. 20.,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902189896A&category=AA006&sns=y>>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0409494522096&MS2_T>

(21%)' 등의 이유가 대표적이었으며, 어떤 것을 포기할 예정인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결혼 및 출산'(66%)이 1위로 가장 많았고, '저축'(45%), '내 집 마련'(39%) 등이 뒤를 이었다. N포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로는 1위로 '소득문제'를, 2위로 '미흡한 정부제도'를 꼽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신을 'N포세대'라고 칭하는 젊은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과 정부, 사회적인 경제 제도 개선의 희망을 잃고 스스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⁴⁾.

2.2.2 투자 관련

현재 남녀노소 할것없이 주식 투자열풍은 불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국내 상장법인 투자자 수가 약 920만 명을 기록하며, 1년 사이 300만명(48.5%)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제활동인구의 절반 가까이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¹⁵⁾. 갑자기 이런 주식투자가 왜 관심을 받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현재 심상치 않은 경기상황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46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오르며 2012년 4월 2.6% 상승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림 10〉 통계청 202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또한 서울의 집값은 30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은 3분위 소득·3분위 주택가격일 때 숨만 쉬고 일만 했을 때 16.8년으로 집계됐다. 이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¹⁶⁾. 계속 경제상황이 힘들어지며 자신들의 급여로는 부족하다 느낀 사람들이 투자에 눈길을 돌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많은 자조적 표현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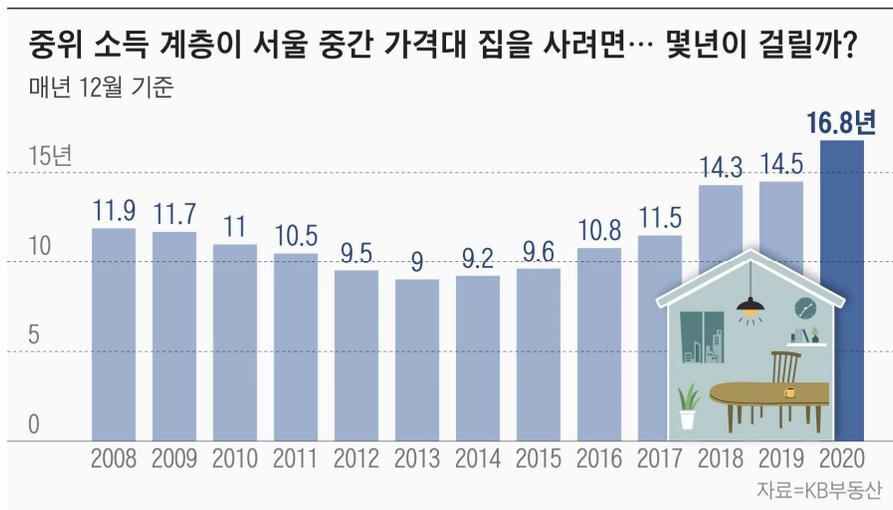
첫 번째로 '개미'라는 표현은 평범한 개인투자자인 자신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세력에 비해서 보잘것없다

14) 이재철, "이번 생애에 돈 모으기는 끝났어..."를 부르짖는 청년들, N포세대를 위한 현실적인 1억 모으기 방법은?, 파이낸스투데이, 2021. 6. 22.,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254>>

15) 김고은, 주식투자 열풍, 주식콘텐츠 훈풍, 한국기자협회, 201. 3. 24.,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9089>

16) 박영준, 5월 소비자물가 2.6% 뛰었다...9년 1개월 만에 상승률 '최고', 세계일보, 2021. 6. 21.,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02507140?OutUrl=naver>>

며 재미라고 낮추는 표현이다. 두 번째로 ‘자선사업가’라는 표현인데, 돈을 잃으면 자신이 자선사업가라고 자조적으로 말하며 투자에 실패한 자신들을 ~억 쓴, ~천 쓴이라는 돈의 단위로 말하기도 한다. 마지막 표현은 ‘벼락거지’이다.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의 값이 쉬지 않고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다면 그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 올라 결국 사지 못하며 심리적인 손해를 보았다는 표현이다. 이번 생은 집을 사기 망했다는 ‘이생집망’, 수도권에 집이 너무 비싸 ‘월세거지’가 되었다는 부동산 관련 신조어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이 현상을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오르는 현상을 보면서 실망감과 좌절감, 공포와 불안 등을 소셜 미디어 등에 표출하면서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 분석을 내놓았다¹⁷⁾.



<그림 11> 서울의 집값



<그림 12> 서울 아파트 가격의 그래프

17) 백윤미, “벼락거지, 부동산블루,청무피사”...집값 급등에 ‘신조어 공장’된 부동산 시장, 조선일보, 2020. 12. 7.,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7/2020120701131.html>

2.2.3 게임 관련

최근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바로 게임업계 연쇄파동이라 불리는 하나의 게이트이다. 바로 리니지m, 페이트 그랜드 오더, 메이플스토리 등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임들에게 게임의 유저들이 <그림 13>과 같이 트럭시위와 불매운동을 하며 기업에 타격을 주었던 사건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나라 게임의 역사를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국의 게임 기업들은 게이머들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은 월정액 모델, 부분 유료화 모델에 대한 유저의 결제 태도가 좋지 않고, 게임을 공짜로 즐기려는 유저가 많아지면서 업체들이 내놓은 교육지책이다”며 “게임사도 서버비나 마케팅비 등을 회수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¹⁸⁾.

주목할 것은 소비자들의 소비를 당연하게 여기는 ‘결제 태도’, ‘회수’라는 단어를 쓰며 소비자들을 돈벌이로 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태도가 드러났다. 그러므로 게이머들은 자신들을 자조적으로 낮추면서 이러한 상황을 불만 아닌 불만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여기서 나온 단어들이 난민, 개돼지, 사료, 먼제게임, 썸창이라는 단어를 알아보자.



<그림 13>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확률조작 사건에따른 트럭시위

먼저 난민이란 단어는 자신의 게임이 운영진들의 실수 등으로 인해 신뢰를 잃은 게임에서 탈출한 게이머들을 지칭한다. 유명한 예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는 유료재화의 확률조작사건으로 인한 파동으로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으로 ‘피난’ 왔다는 표현을 썼다. 이 문제가 불거지며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이 공개된 확률을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확률조작 국민감시법’ 발의에 나설 예정임을 보여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일러주었다.

18) 권오용, 코로나에도 역대급 실적 게임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일간스포츠, 2020. 2. 23.,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97735&ctg=16&tm=i_b)



〈그림 14〉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제9차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는 하태경 의원

다음 자조적 표현은 ‘개돼지’이다. 앞서 말한 ‘난민’이란 표현과 다르게 게임운영이 엉망인 게임을 계속 붙잡고 하는 게이머인 자신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료’라는 표현이 생겼다. 바로 게임에 운영 문제가 일어났을 때 게임사 측에서 사과보상을 게임 내 재화로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더는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있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하며 ‘개돼지’인 우리에게 뿌리는 ‘사료’라고 부른다.

3256721	일반	이번 신준역에 페그오름 매출 좀 땀겨웠는데 사료 뿌려...	○○ (121.129)	20:14	77	6
3254769	일반	이거 사료 안주지?	○○ (223.39)	06.05	60	0
3252921	일반	말할 사료 진짜 레전드이긴하네 [1]	○○ (220.79)	06.03	148	0
3250138	일반	이게임 보통 사료 어떻게 모음? [4]	○○ (183.103)	06.01	65	0
3250089	일반	9일날 사료 주는거마름? [2]	Penyo	06.01	57	0
3250070	일반	신준픽업동안 기본적인것만 해두면 사료 로 10연차 가능...	○○ (223.38)	06.01	38	0
3250053	일반	신준픽업끝나기전에 혹시 추가 사료 있음?? [3]	○○ (223.38)	06.01	47	0
3248649	일반	남들 이걸 한달 사료 얼마나쯤 벌금? [5]	○○ (218.48)	06.01	104	0
3248001	일반	무료 사료 이해가 잘 안되는데	○○ (220.124)	06.01	79	0
3247940	일반	신준 픽업 끝날때까지 사료 주는거 없지??	○○ (49.143)	06.01	18	0

〈사진 12〉 디시인사이드 페이트 그랜드 오더 갤러리 사료키워드 검색결과

마지막 표현은 ‘면제게임’이다. 면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면제되는지 궁금할 텐데, 바로 군대이다. 자신이 플레이하는 게임이 정상이 아닌 면제게임, 공익게임으로 낮추며 쓰인다. 자신 또한 게임 때문에 본업을 미루고 게임에만 열중한다는 사람을 뜻하는 ‘겜창’으로 부르며 낮추는 문화가 몇몇 게임에 남아있다.

2.2.4 인터넷 문화 관련

특정 분야에서 쓰이는 자조적 표현이 있는 반면 인터넷 전반에서 쓰이는 자조적 표현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험생, 이생망, 흙수저, 인싸 아싸, 호갱, 현망진창이라는 표현이다.

‘험생’은 험오스러운 인생, ‘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했어, ‘현망진창’은 현생+영망진창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별로 좋지 않다고 자조적으로 표현한다.

다음 표현은 ‘흙수저’로 이미 사회계층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다. 부모님의 부가 크다면 ‘금수저’, 작다면 ‘흙수저’로 사회적 계급을 나눈다. 비슷하게 사람들 간의 급을 나누는 ‘인싸 아싸’라는 표현은 사회적 관계가 넓은 사람을 ‘인싸’, 즉 인사이더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아싸’, 아웃사이더로 부르는 표현 또한 존재한다.

마지막 표현은 ‘호갱’으로 좋지 못한 소비를 하지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비트코인, 음식점, 휴대전화 가게, 명품등 많은 소비 부분에서 쓰이고 있는 표현이다. 최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고객이 ‘호갱’당한 사례는 바로 애플 코리아의 정책에서 드러났는데, 애플 고객센터는 서비스 평가와 직원 교육을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되지만, 정작 소비자는 녹음을 회사 정책상의 이유로 못 하게 했다.

다른 에피소드로 가로수길 애플스토어에서 책임자가 미국인인데, 영어를 할 줄 아느냐면서 황당한 소리를 하고, 2년 전 아이폰 배터리 불량 문제 또한 검찰 수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고 6만 명이 넘게 낸 손해 배상 소송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멈춰있다. 프랑스에선 330억 원대 벌금을, 이탈리아에선 130억 원대 과징금을, 미국에선 합의금을 1,200억 원 넘게 내며 우리는 K-호갱이라며 네티즌들은 자조적으로 표현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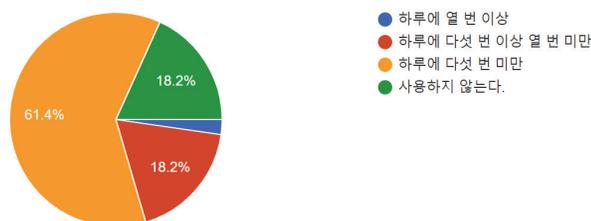
〈그림 12〉 JTBC 뉴스 캡처

3. 청년들의 자조적 표현에 대한 생각

2021년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13일간 상명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받은 청년들의 자조적 표현에 대한 생각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45명의 응답이 있었고, 이 응답들이 현재 청년들의 생각을 충분히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조적 단어, 자기를 낮추는 어조의 사용빈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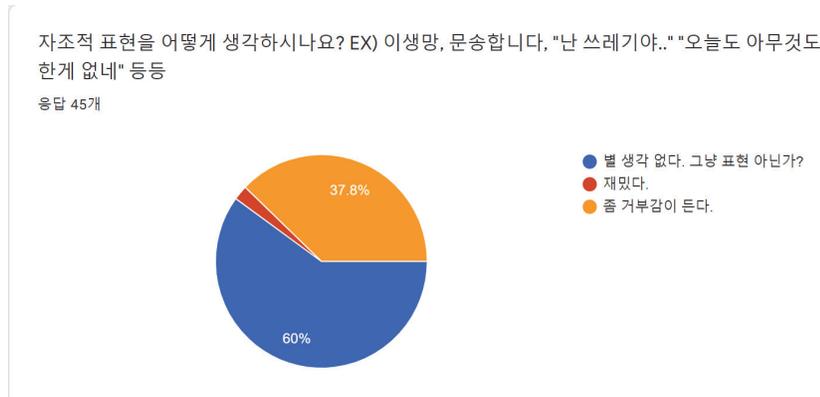
응답 44개



〈그림 13〉 자조적 표현의 사용빈도 조사

19) 성화선·김나한, ‘K-호갱’ 취급?...소비자 불만 쏟아져도 애플은 ‘모르쇠’, JTBC뉴스, 2020. 12. 14.,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83737>

먼저 현재 자신이 자조적 표현을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하루에 다섯 번 미만이 가장 많은 27명을 차지하며 61.4%를, 하루에 다섯 번 미만은 8명,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8명으로 18.2%를, 하루에 열 번 이상은 단 한 명으로 2.3%를 차지하였다.



〈그림 14〉 자조적 표현에 대한 생각 조사

다음 설문조사로는 학생들이 자조적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거부감이 든다는 응답이 17명으로 37.8%를, 별 생각이 없다는 사람은 27명으로 60%를, 마지막으로 재밌게 느끼는 사람은 단 한 명으로 2.2%를 차지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의외로 학생들이 자조적 표현을 빈번하게 쓰지 않고, 오히려 거부감이 든다는 사람이 조금씩 생긴다는 통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어떠한 자조적 표현을 쓰냐는 응답에는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자신이 쓰는 자조적 표현을 보여주었다. 대부분 자신이 의지가 없어 하지 못한 일, 능력부족을 탓하는 자신을 떠올리며 자책하는 표현이 가장 많았다.

나는 여기서 자조적 표현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학생의 말을 감명 깊게 보았는데, 자신의 자존감을 위해 최대한 자제한다는 내용을 보여주었다.

4. 결론

자조적 표현은 부정적인 말투를 쓴다고 하여 꼭 나쁜 것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힘든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휴식처가 될 수 있단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너무 심해진다면 부정적 표현이 만연함으로써 설문조사에서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듯이 사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단어들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현상을 알려주는 등대, 사이렌 같은 역할 또한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조적 표현을 보고 모두가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며 재밌게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경각심 또한 가질 사람이 되길 바란다.

참고 문헌

권오용, 코로나에도 역대급 실적 게임업체가 긴장하는 이유는, 일간스포츠, 2020. 2. 23.,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97735&ctg=16&tm=i_b>

- 김고은, 주식투자 열풍, 주식콘텐츠 훈풍, 한국기자협회, 201. 3. 24.,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9089>
- 김동환, 이광재 의원 “암호화폐, 미래 산업으로 접근해야”, 코인데스크코리아, 2021. 4. 23.,
 <<http://www.coindes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97>>
- 김예나, [인터뷰] 빅뱅 “‘루저’ ‘배배’, 뻔한 사랑 노래 아냐”, 한국경제, 2015. 5. 5.,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505051279k>>
- 김지민, “아직도 열정페이 지급하나요???” 변하지 않는 패션업계 부당대우, 언제까지 이어질까, 모바일한경, 2019. 2. 19.,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902189896A&category=AA006&sns=y>>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D%8C%9F%EC%88%98#s-4>>
- 닐슨코리아, 통신 네트워크에 따른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이용행태, 월간토픽, 2017. 4. 26.,
 <http://www.koreanclick.com/insights/newsletter_view.html?code=topic&id=436&page=5&utm_source=board&utm_medium=board&utm_campaign=topic&utm_content=20170426>
- 더위키, LOSER(노래), <[https://wiki.thewiki.kr/w/LOSER\(%EB%85%B8%EB%9E%98\)](https://wiki.thewiki.kr/w/LOSER(%EB%85%B8%EB%9E%98))>, 2021. 5. 21.
- 박영준, 5월 소비자물가 2.6% 뛰었다…9년 1개월 만에 상승률 ‘최고’, 세계일보, 2021. 6. 21.,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02507140?OutUrl=naver>>
- 방진혁, 우수 인력 찾는다더니… ‘단기 인턴’ 더 늘린 공공기관, 서울경제, 2021. 3. 15.,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TEXVIVD>>
- 백윤미, “벼락거지, 부동산블루, 청무피사”…집값 급등에 ‘신조어 공장’ 된 부동산 시장, 조선일보, 2020. 12. 7.,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7/2020120701131.html>
- 성수영·서민준, 추천서에 이름 쓰면 취업, 집 샀더니 몇 배 뛰어…천운을 타고난 586, 한국경제, 2019. 10. 1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01311471>>
- 성화선·김나한, ‘K-호갱’ 취급?…소비자 불만 쏟아져도 애플은 ‘모르쇠’, JTBC뉴스, 2020. 12. 14.,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83737>
- 이상일, ‘세계 28개국 행복도’ 조사, 한국 순위는?, 주간조선, 2021. 5. 18.,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574100006>>
- 이재철, “이번 생에 돈 모으기는 글렀어…”를 부르짖는 청년들, N포세대를 위한 현실적인 1억모으기 방법은?, 파이낸스투데이, 2021. 6. 22.,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254>>
- 이정혁, 올해 4년제 대졸자 절반 이상은 무직 상태, 머니투데이, 2021. 5. 2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0409494522096&MS2_T>
- 잡코리아X알바몬 통계센터 press, 구직자 88.1% ‘자소서포비아’ 겪어, 잡코리아, 2020. 4. 6.,
 <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6610>
- 조희연, 쓰레기 치우고 식권 배부…공공기관 ‘티슈인턴’의 비애, 돈이보이는뉴스 머니에스, 2021. 5. 27.,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51817448039433>>
- 최원영, 학교 방역·체험형 인턴…공공기관 쥐어뜯 임시 청년 일자리, TV조선뉴스, 2021. 3. 3.,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3/2021030390139.html>



판타지와 로맨스판타지 장르 한국 웹소설의 근황

수학교육과 신영*

목 차

1. 서론
 2. 한국 웹소설 시장의 발전과정
 - 2.1. 웹소설의 근황과 플랫폼 체제
 - 2.2. 웹소설의 특징
 - 2.3. 각 소재와 이로 인한 전개방식
 3. 판타지 장르와 소재의 결합양상
 - 3.1. 판타지 장르 속 회귀
 - 3.2. 판타지 장르 속 빙의
 - 3.3. 판타지 장르 속 환생
 4. 로맨스판타지 장르와 소재의 결합양상
 - 4.1. 로맨스판타지의 장르의 정의
 - 4.2. 로맨스판타지 장르 속 회귀
 - 4.3. 로맨스판타지 장르 속 빙의
 - 4.4. 로맨스판타지 장르 속 환생
 5. 연구방법과 결과분석
 - 5.1. 연구대상과 의문점
 - 5.2. 독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회빙환 소재
 - 5.3. 기존 작품에 활용된 소재와 전개방식을 모방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
 6. 결론
- 참고 문헌

1. 서론

독서를 하는 방식은 과거의 그것과 비교하여 많이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과거에는 종이책을 통하여 독서가 이루어졌다면, 현재에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채 독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 덕분에 사람들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채 언제 어디서나 독서를 가능하게 만들어 준 것이다. 이러한 독서의 한 분야로 웹소설이 크게 부상하고 있고 국내에서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용어로서의 ‘웹소설’이 정립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다. 네이버에서 ‘네이버 웹소설’이라는 플랫폼을 2013년 출시한 후 비로소 본격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이전에는 인터넷소설 혹은 온라인소설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었다.¹⁾

연구자는 개인적으로 웹소설을 좋아하고 웹소설계의 발전은 타 업계와 비교하였을 때 여러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웹소설의 발전과정, 장르의 특성, 소재와의 결합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근황을 내다보는 과정을 통하여 향후 웹소설계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웹소설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를 웹소설의 하위 장르인 로맨스 장르와 판타지 장르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웹소설의 여러 하위 장르 중에서 판타지와 로맨스판타지를 선택한 이유는 두 분야가 웹소설계에서 양대 산맥을 구성할 정도로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맨스판타지 장르와는 달리, 순수 로맨스 장르는 현 시점에서 잘 집필된 작품을 찾아보기 어렵고 독자들에게도 생소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연구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두 장르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 회귀와 빙의 그리고 환생 소재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추가적으로 현 상황으로 인해 해당 장르와 소재를 바탕으로 한 소설들의 한계와 향후 웹소설계의 전망은 어떤가에 대해서 탐구한다. 또, 설문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현재의 웹소설 독자들은 웹소설계가 기존의 유명한 작품들의 흐름과 비슷하게 구성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내비추었는가에 대해 서술한다.

2. 한국 웹소설 시장의 발전과정

2.1. 웹소설의 근황과 플랫폼 체제

한국 웹소설 시장은 짧은 기간 동안 인기 힘들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였다. 콘텐츠 진흥원에 의하면 2018년 웹소설의 매출 규모는 약 4천억 원의 규모이며 이는 당대 기준 5년 전 규모인 100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40배가 성장한 수치라 할 수 있다.²⁾ 이는 종이책 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장점으로 부각된다. 오랜 불황이었던 종이책 시장과는 달리, 웹소설을 비롯한 문화산업은 모바일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웹소설의 경우에는 문피아, 네이버, 카카오페이지 세 플랫폼을 합쳐 약 20억가량의 상금을 두고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역대 대형 공모전이 시장에 형성되었으며 현재 웹소설 연재에 뛰어드는 후발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서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³⁾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웹소설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한다. 간단하게는 시장 진입 전에 작가와 독자가 직접 소통하는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차원에서부터 웹소설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ebook 사업자 등의 단계로 구분한다. 한국 웹소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플랫폼이 매우 다양하고 그 수가 점점 확장한다는

1) 고민정, 한국 웹소설의 플랫폼 성장과 가능성, 전자출판연구 13권 1호, 한국전자출판학회, 2019, 33쪽.

2) 김기중, ‘하루 5분’ SNS 하룻 쓰윅~ 4000억 시장 펼친 웹소설, 서울신문, 2019. 5. 2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27025004#csidxa44be>>

3) 고민정, 앞의 글, 39쪽.

점이다. 많은 웹소설 플랫폼 중 본문에서는 조아라, 문피아, 네이버 웹소설, 카카오페이지 4개의 플랫폼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상술한 네 플랫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웹소설 플랫폼들이다.

조아라는 2000년 11월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최초의 웹소설 플랫폼이며 원한다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다. 2018년 기준 50만가량의 누적 작품 수를 가지고 있고 2016년 매출 162억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약 30% 성장했다. 하루 평균 2600편의 이야기가 등재되고 일평균 조회 수가 950만에 달할 정도로 활동이 많다. 타 플랫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이나, 웹소설 전문 사이트임을 고려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업적이다. 남녀 성비가 엇비슷하기 때문에 판타지 장르와 로맨스 장르 모두 수요가 많다.

문피아의 시작은 무협 전문사이트 '고무림'으로 2006년 문피아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는 과거의 인기만은 못하지만 여전히 무협 장르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플랫폼이다. 남성 독자의 비율이 꽤나 높고 판타지와 무협 장르 중심이다. 문피아의 경우 비평판을 통한 자체 검수와 오랫동안 지속해서 이용하는 성숙한 독자들 덕분에 그만큼 성숙한 작가와 좋은 작품이 많다. 문피아는 2019년에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와 공동으로 '제5회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네이버 웹소설은 국내 최고의 검색엔진 네이버 산하의 웹소설 플랫폼이다. 네이버 웹소설의 작품은 타 플랫폼의 형식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대화의 앞에 캐릭터의 삽화를 작게 삽입한다는 것이다. 시나리오에서 인물의 이름을 명시함으로써 누구의 대사인지 알려주는 것과 같이 삽화만으로 발언의 주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으나 타 플랫폼의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특이한 방식임은 변함없다. 네이버 웹소설은 여성 독자들의 비중이 높으며 로맨스 장르의 웹소설이 많다.

카카오페이지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등에 업고 쉬운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웹소설계의 절대강자이다. 콘텐츠 유료결제가 인색한 국내에서 일일 결제가 10억 원을 돌파했으며 이는 1년으로 환산했을 때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국내 최고에 달한다.⁴⁾ 카카오페이지는 웹툰, 만화, 장르소설, 일반 단행본 등을 제공하는 카카오의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으로 201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양한 장르들이 인기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로맨스판타지 장르와 판타지 장르가 대세다. 카카오페이지는 '기다리면 무료' 시스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2016년 후반 '기다리면 무료'라는 이름으로 신규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것이 큰 성공을 거둬 카카오페이지가 웹소설 플랫폼의 선두주자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2. 웹소설의 특징

웹소설의 글은 회차별로 분절되어 연재되고 가독성이 짧은 문단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로 인해 작품의 유기성보다는 흥미와 긴장감에 좌우되며 이 시장성과 맞물려 작품성보다는 상업성을 추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웹소설이 가진 특징 중 하나는 장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로맨스 서사를 기본 골격으로 판타지, 무협 서사를 포괄하기도 하고 대중문화의 다양한 소재와 모티프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때 웹소설계 내에서 인기를 얻은 서사구조나 소재는 여러 창작자에 의해 반복 및 변주의 과정을 거쳐 공식을 형성하고 이는 클리셰('Cliché', 진부한 표현이나 고정관념을 뜻하는 프랑스어)⁵⁾로 기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개별적인 웹소설이라 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단위를 가리키는 특정 모티프(Motif)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정 모티프를 선호하지 않는 독자는 자발적으로 해당 모티프를 내포하고 있는 작품을 피하기도 한다. 즉, 작가만의 개별적인 개성과 감성보다 반복적인 클리셰를 통해 형성된 장르의

4) 박수호, 하루 매출 10억 돌파 카카오페이지, '깜짝 실적'일까, 이제 시작일까?, 매경프리미엄, 2019. 9. 24., <<https://www.mk.co.kr/premium/behind-story/view/2019/09/26708/>>

5) pmg 지식엔진연구소, 클리셰, 박문각, 네이버 지식백과, 클리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3062&cid=43667&categoryId=43667>>, 2021. 5. 13.에서 재인용.

공식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⁶⁾ 클리셰의 예시로는 악역이 주인공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계획에 대해 떠벌리고 이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웹소설이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최근에는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의 소재를 자신의 글에도 적용하는 작가들이 많아졌다. 이 때 많이 쓰이던 소재로는 회귀와 빙의, 환생이 대표적이며 이 셋의 앞 글자를 하나씩 따서 ‘회빙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이 꽤나 있었는데 이 단어가 기사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었다는 것까지 생각해본다면 웹소설이 미치는 영향력은 이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⁷⁾ 회귀와 빙의 그리고 환생은 그렇다면 어떠한 소재이고 전개가 어떻게 되기에 독자들이 이렇게나 열광하는 것일까?

2.3. 각 소재와 이로 인한 전개방식

세 소재가 가지는 각각의 특징은 무엇이며 소재들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회귀’는 사전적으로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웹서사에서의 회귀는 사전적 정의를 따르면서도 묘하게 다르다. 과거를 지향하면서도 특정한 과거 한 시점에 놓여있는 자신이 ‘되는’ 것이 바로 작가와 독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회귀이다. 타임머신을 통한 시간이동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은, 시간 이동을 통해 과거로 가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나’는 이미 존재하는 데 반해 회귀구조에서는 ‘나’의 의식만 과거 ‘나’의 몸으로 이동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시공간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⁸⁾ 대체로 회귀는 주인공의 죽음 혹은 죽음 직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귀 소설의 궁극적 목표는 복수 혹은 생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빙의’는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옮겨붙는다는 의미이다. 웹서사에서 말하는 빙의는 이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 주인공(빙의의 주체)은 소설 속 특정한 등장인물(빙의의 대상)의 인격을 대신 차지하고 육신 역시 주인공의 것으로 자리 잡는다. 이 과정이 소설(책) 속 인물에게 빙의하는 것 같다 하여 책빙의물 혹은 빙의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⁹⁾ 여기서 말하는 ‘~물’은 과거에는 양식을 요구하는 ‘장르’보다 더 느슨하게 쓰이는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추리소설’과 ‘추리영화’를 ‘추리물’이라는 상위어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웹소설의 장으로 넘어오면서 성격이 꽤나 바뀌었고 쓰임도 증가했다. 과거의 그것과 완전히 반대의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즉 ‘~물’은 웹소설의 하위 장르를 지칭하는 장르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전 시기에는 없었던 새로운 장르를 지칭할 때 쓰이는 명칭으로 변모했다고도 볼 수 있다.¹⁰⁾ 회귀와 달리 빙의는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주인공 혹은 독자로 하여금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주지 않는다. 또한 빙의한 주인공의 목표는 아무 일에도 연관되지 않고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환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이후의 삶을 말한다. 웹서사에서는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데, 대개는 몸에서 몸으로 의식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죽은 사람의 몸에 있던 의식이 그대로 유지된 채 새로 태어나는 몸에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태어난 주인공은 지금의 몸을 현생이라고 인식하고 이전의 삶을 전생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6) 오하영·조수연, 웹소설 키워드를 통한 이용 독자 내적 욕구 및 특성 파악,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4권 2호, 한국정보통신학회, 2020, 159쪽.

7) 김재현, [월간중앙] 이슈분석-3대 키워드로 읽는 웹소설의 세계, 중앙일보, 2020. 12. 17., <<https://news.joins.com/article/23947599>>

8) 김미현, 웹소설에 나타난 ‘회귀와 환생’의 욕망코드: 인과계층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미래연구 4권 2호, 미래학회, 2019, 160쪽.

9) 유인혁, 한국 웹소설 판타지의 형식적 갱신과 사회적 성찰-책빙의물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6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20, 78쪽.

10) 김준현, 웹소설 장에서 사용되는 장르 연관 개념 연구, 현대소설연구 7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9, 127쪽.

회귀와 환생은 모두 인물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물이 죽음을 맞이하거나 죽음을 경험하기 직전에 회귀를 통해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고 '나'가 아닌 타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공통점을 공유한다. 빙의의 경우 주인공이 원래 몸의 주인을 밀어냈기 때문에 타인이라는 점은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이것이 환생에 적용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만약 환생을 한 주인공이 해당 삶을 자신의 삶이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이 타인의 삶을 빼앗았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자기불신으로 이어져 전생과 현생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회귀와 빙의는 주인공이 미래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큰 이점을 공유한다. 회귀 이전과 회귀 이후 사이의 기간은 회귀를 한 주인공에게 있어 자신이 한 번 겪었던 현재이자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인공은 다른 인물에 비해 보다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빙의를 한 주인공은 회귀자보다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을 가능성이 더 높다. 회귀자는 오직 자신을 중심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반면, 빙의자는 제3자의 시선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정보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판타지 장르와 소재의 결합양상

3.1 판타지 장르 속 회귀

판타지 장르의 웹소설에서 회귀가 사용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다. 회귀구조를 가진 웹소설은 작품의 특성 상 여러 편을 읽은 후 해당 장르만의 문법을 터득해야 작품의 이해가 수월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판타지 장르와 회귀를 결합한 유명한 작품에는 근서 작가의 『내가 키운 S급들』¹¹⁾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문피아에서 약 2200만의 조회수를 달성하였다. 자신을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한 동생을 살리는 것으로 해당 작품은 시작된다.

「후회할지도 모른다. 아니, 틀림없이 후회할 거 같다. 그럼 후회하지, 뭐. 이미 후회로 덧칠 코팅까지 해 댔는데 하나 더해 봐야 별차이 있겠냐. “야, 소원석. 시간을 돌리는 건 되냐?” (...) [시간을 되돌리시겠습니까?] “어.” (...) 지독한 피 냄새도 깨끗이 사라졌다. 입고 있는 옷 또한 바뀌었다. ‘...진짜 과거로 돌아온 건가?’」

-웹소설 『내가 키운 S급들』 중

해당 작품의 사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웹소설 독자들이 회귀라는 소재와 모티프, 더 나아가 이 클리셰에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를 몸소 실감할 수 있다. 회귀의 주된 이유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과거에도 알았다면'이라는 판타지적 가정이며 정서적인 요인으로는 '후회'라는 감정이다. 안상원의 연구에 의하면 회귀 모티프를 다루는 소설은 대부분 1화에서 3화 안에 자신의 회귀 사실을 밝히고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밝힌다고 하는데, 이때 자살하거나 살해당하는 등 죽음의 과정이 고통스러울수록 복수와 회복 욕구가 정당화된다고 분석한다. 또 회귀 전 삶에서 주인공이 죽은 후, 주인공과 관계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주인공이 누명을 썼던 것이 밝혀지게 되고, 주인공을 믿지 못했던 이들이 자책하거나 파멸하는 모습이 묘사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런 요소들은 독자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흥미와 쾌감을 주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회귀라는 장치의 정당성을 입증한다고 연구자는 보고 있다. 즉, 독자들의 반응과 개입으로 회귀구조라는 독특한 플롯이 생성되었고 발전했다는 것이다.¹²⁾

11) 문피아 <<https://novel.munpia.com/121553>>

3.2 판타지 장르 속 빙의

회귀와 마찬가지로 빙의 소재 역시 웹소설계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다. 빙의물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것은 2018년이다. 소설 속의 엑스트라로 ‘빙의’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원작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소설 속의 악역으로 빙의하는 경우로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작’에 빙의한 주인공은 촌촌하게 짜인 판과 각본을 두 눈으로 마주하게 된다. 빙의 소재가 사용된 판타지 작품을 꼽으라면 싱송 작가의 『전지적 작가 시점』¹³⁾이 가장 유명할 것이라 생각된다. 네이버 시리즈에서 약 1억 4천만의 조회수를, 문피아에서는 약 5천만의 조회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 작품은 삼류 작가의 소설을 완독한 주인공 ‘김독자’가 살아가는 세계와 소설 속 세계가 융합된 상황에서 펼쳐나가는 사건에 대해 다룬 작품이다. 김독자는 자신이 읽은 창작물 내부의 인물로 빙의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그 창작물 속의 인물이 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작품은 빙의 소재가 사용되었다 할 수 있다.

「그 순간 내가 시계를 본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다. PM 7:00. 틱,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멈추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 8612 행성계의 무료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메인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장르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 기시감을 느끼기엔 정황의 디테일이 부족했다. 지하철 급정거야 드물지만 종종 있는 일이니까. 그럼에도 왜일까. 나는 익숙한 소설의 서두가 자꾸만 떠올랐다. 하지만 말도 안 된다. 그럴 리가 없잖아? (...) 틀림없었다. 이걸, 내가 아는 그 전개였다. 말려야한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다. 조그맣고 귀엽게 생긴 CG 덩어리의 말을 사람들이 들을 리가 없었으니까.」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 중

중심인물로 빙의하지 않고 상황이 좋아 봐야 주변인물에 빙의한 상황이기도, ‘원작의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어드벤처를 빙의한 주인공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원작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고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원작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전개로 이어진다. 빙의물에서 원작의 내용을 방치하는 것은 빙의한 주인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최악의 경우에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작품의 전형적인 전개를 가로막거나 수정하는 것은 ‘빙의’한 주인공이 수행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된다. 즉 클리셰를 비트는 것이 작가의 의도를 넘어, 주인공에게 당면한 목표로 나타나게 된다.¹⁴⁾

3.3 판타지 장르 속 환생

회귀, 빙의, 환생의 소재는 ‘회빙환’이라는 단어로 묶이면서도 그 안에서 더 선호되고 그러지 않는 소재가 존재한다. 세 소재 중에서 제일 덜 활용되는 소재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독자들은 환생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는 전생과 현생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없다면 환생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작품의 개연성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때문이다. 환생 소재를 주 소재로 사용한 작품으로는 이환 작가의 『정령왕 엘퀴네스』¹⁵⁾를 예시로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사실은 ‘인간으로 잘못 태어난 물의 정령왕’ 이었다는 설정을 가진 이 작품은 카카오페이지에서 100만 명이 넘게 조회한 작품으로

12) 김미현, 앞의 글, 163쪽.

13) 네이버 웹툰, 장르소설, <<https://series.naver.com/novel/detail.nhn?productNo=3400123>>

14) 유인혁, 앞의 글, 79~88쪽.

15) 카카오페이지 <<https://page.kakao.com/home?seriesId=47030989>>

2015년부터 연재한 꽤나 유서 깊은 밀리언셀러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모년 4월 26일. 나는 죽었다.’ ……」라고 하니가 웬지 분위기 있어 보이는 것이, 얼마 전에 봤던 만화영화의 시작 부분을 따라 해 본 것뿐이지만 꽤나 탁월한 문장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눈 앞에 죽은 내 모습이 딱하니 보이고 있었으니까. (…) 평범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평범함이란 세상의 그 어느 일보다 쉽고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아침, 아니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내 생각엔 변함이 없었다. 방금 전의 그 ‘사고’를 당하기 전까진. (…) “어디에 있긴요, 바로 제 앞에 앉아계시지 않습니까.” “네?” 대체 무슨? 아레히스의 앞이라면 나밖에 없는…… 에에엑? 서, 설마? 순간 당황하는 나를 보는 아레히스의 표정이 무척이나 오만하게 보였던 것은 나만의 착각이었을까? 그는 승기를 잡은 장군처럼 의기양양한 포즈로 입가에 씨익 미소를 띠었다.」

-웹소설 『정령왕 엘퀴네스』 중

환생이라는 모티프의 도입 없이는 작품을 전개함에 있어 부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작품의 서사를 환생 소재의 도움을 빌려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다른 소재를 사용해서 이 서사를 풀어나가려 했더라면 특정 부분에서 막히거나 매끄럽지 못하게 연결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당면했다면 그러한 전개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단일적인 소재가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 회귀와 환생이 함께 사용되거나 회귀와 빙의가 함께 사용되는 등 둘 이상의 소재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작품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4. 로맨스판타지 장르와 소재의 결합양상

4.1 로맨스판타지 장르의 정의

로맨스판타지 장르와 회빙환으로 일컬어지는 모티프들을 결합하기 전에, 로맨스판타지라는 장르가 정확히 어떤 장르인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로맨스판타지’는 로맨스 장르와 판타지 장르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장르이다. 이러한 결합은 장르의 경계를 느슨하게 하여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이를 넘어 새로운 장르를 구성하고 독자층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거듭나기도 하고 로맨스판타지가 바로 대표적인 경우이다. 2014년 6월을 기점으로 로맨스판타지 장르를 여러 플랫폼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연애보다 모험에 비중을 둔 ‘판타지’와 연애를 중심으로 하는 ‘로맨스’ 사이의 간극을 작가와 독자가 모두 확연하게 가를 수 어렵다는 것이 당대의 의견이었다. 이후 중세 서양을 배경으로 하되 마법과 정령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펼쳐지는 여성 인물의 모험과 사랑을 다룬 소설들을 ‘로맨스판타지’라는 항목으로 구성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여성의 욕망을 긍정하고 여성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모험을 떠나며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로맨스 장르에 비해 다양하게 등장한다는 것이 로맨스판타지 장르의 특징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택당하는 수동적인 입장보다 상대방을 ‘선택’하고 독점적인 관계를 단절하며 같은 성별과도 로맨틱한 관계를 형성한다. 자신의 성취와 노력에 따른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욕망의 추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에서 독자들 역시 대리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로맨스 장르는 개성이 다른 두 인물이 우연한 계기로 사랑에 빠진 후 오해와 이해를 거듭하며 그 사랑을 이루는 형태이다. 반면 로맨스판타지 장르의 경우 조금 다른데 사랑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

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판타지 소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물’ 소재가 로맨스판타지에서도 등장하는데, 회귀와 환생 그리고 빙의의 소재 역시 로맨스판타지 장르에서도 흔히 쓰이는 소재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인공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애쓰거나, 위협에 빠진 가족을 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회복하고 삶을 복구하고자 애쓰는 등 일정한 미션이 부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한 번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위협에 빠졌다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 역시 서슴지 않는다. 그것이 상대의 죽음을 자초할지라도 말이다. 이러한 복수와 투쟁 그리고 싸움은 판타지 세계관에서 등장인물들이 겪는 모험과 결이 비슷하다. 따라서 로맨스판타지 장르에서 모험이자 보상은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은 주변 환경을 타파하고 인정받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좌절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며 투쟁하기도 한다. 사랑을 이루는 것 외에도 자신의 삶을 확장하는 인물들의 등장한다는 점에서 로맨스판타지는 기존 로맨스 서사에 모험을 추가했다 할 수 있다.¹⁶⁾

4.2 로맨스판타지 장르 속 회귀

회귀 모티프가 가장 먼저 활용된 장르는 로맨스 장르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로맨스 장르 중에서도 중세를 기반으로 한 마법세계를 다룬 로맨스판타지 장르인데, 이는 위에서 서술한 로맨스판타지의 정의와도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 가능하다. 작품의 외부와 호응하면 회귀 소재는 당대의 독서욕망과 시대정서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귀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간절한 주인공의 열망 빛 회귀 후의 삶의 재편성이라는 점에서 예측 가능한 서사 구축한다. 단편적인 예시로 카카오페이지의 로맨스판타지 장르에서 인기 1000위에 해당하는 작품 중 회귀 모티프가 활용된 소설은 상위 100위권 중 36편 가까이 해당되고 반복되는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모티프의 작품이 10여 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다. 독자층을 꾸준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해당 모티프의 주 서사과정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대중문화 이해를 꾀할 필요가 있다.¹⁷⁾

로맨스판타지 장르의 주인공이 회귀를 하는 과정은 대부분 정해진 수순이 있다. 우선, 주인공은 개인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자신의 손에 있던 관계나 권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것이 회귀 모티프의 시작점이다. 이후, 대부분의 소설은 1-3회 안에 자신의 회귀 사실을 밝히고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밝힌다. 이후에는 과거(회귀 전)의 지식이 지속적으로 현재(회귀 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영향은 보통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래의 정보를 바탕으로 실수를 회복하고 적의 음모를 피하거나 역공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를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복수와 회복 욕구의 정당성이다. 과거에는 열심히 살았음에도 보답받지 못한 채 죽었고,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을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회귀 후의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증 받는다. 또한 주인공과 적대세력 사이의 긴장관계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돕고 더 나아가 그들의 싸움 자체를 정당화한다. 평행우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 회귀 전의 세계관에서 주인공의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우가 있다. 주로 주인공이 누명을 썼고 그를 믿지 못한 이들이 자책하고 파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독자들에게 심정적인 쾌감을 제공하고 회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회귀한 주인공은 결국 과거와는 다른 결말을 맞이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아있게 된다. 회귀 전 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하는 시점을 지나면 그 이후는 주인공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이 부분은 깊게 다루어지지 않고 에필로그의 형태로 행복한 미래를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된다.¹⁸⁾

카카오페이지에서 완결한 작품인 산소비 작가의 『악녀는 모래시계를 되돌린다』¹⁹⁾는 제목에서 이 작품이

16) 안상원, 한국 웹소설 ‘로맨스판타지’ 장르의 서사적 특성 연구, 인문콘텐츠 55호, 인문콘텐츠학회, 2019, 220~225쪽.

17)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회귀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0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8, 283-287쪽.

18) 안상원, 앞의 글, 2018, 289-291쪽.

회귀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다. 악녀라는 수식어가 붙은 귀족가의 수양딸인 ‘아리아’가 성녀의 탈을 쓴 여동생이자 입양으로 귀족이 된 그녀와는 달리 날 때부터 귀족가의 여식이었던 ‘미엘르’의 계략에 휘말려 사형을 당하는 것으로 작품은 시작된다. 이후 우연한 계기로 과거로 회귀한 아리아가 명칭했던 과거의 자신에서 벗어나 미엘르와 그에 가담한 세력들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작품의 주요 내용이다.

「악녀를 처단할 심판의 알림이었다. 기사의 검 또한 바람을 가르고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자 가녀린 소녀의 목과 몸이 순식간에 분리되어 하나의 생명이 허무하게 꺼졌다. (...) 어째서일까. 아리아는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잔상이 수차례 들며 정방향인지 역방향인지 알 수 없는 모래시계의 모래가 떨어지고 있다는 착각만이 들 뿐이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 다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는 예전으로……. 저 모래시계처럼’ (...) ‘설마…….’ 믿을 수 없는 가능성에 눈을 뜬 아리아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나같이 젊고 앳된 얼굴을 한 사람들 속에서 그녀마저 작고 연약한 몸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살아 있어……!’ 꿈이나 환각이 아니었다. 그러기엔 놓친 유리컵에 의해 상처를 입은 다리가 따끔거렸다.」

-웹소설 『악녀는 모래시계를 되돌린다』 중

4.3 로맨스판타지 장르 속 빙의

로맨스판타지 장르와 빙의 모티프는 회귀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자주 활용되는 모티프이며 그 적용 또한 꽤나 빠른 편에 속한다. 존재감 하나 없던 엑스트라가 주인공이 되어 ‘원작’에서의 장벽을 넘어 ‘연애’와 생존을 결합하며 자기계발적인 면모를 선보이는 모습은 해당 장르의 주요 소비층인 여성독자들로 하여금 많은 흥미를 유발하는 데 일조하였다. 빙의물의 서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등장인물이 자신이 사전에 알고 있던 ‘원작’의 조연 혹은 엑스트라로 깨어난 것을 인지한다. 이후 빙의자는 원작 속의 비극적 운명을 벗어나거나 엑스트라로서 절명을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이 비극적 운명은 주로 주인공과 주변인의 불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등장인물은 책 속 지식을 활용하지만 결과적으로 원작의 서사는 비틀리고 갈등을 겪는다. 그럼에도 주인공은 노력 끝에 바라는 바를 성취하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행복한 결말은 주인공 개인만이 아니라 주인공이 사랑하는 연인과 주변인, 넓게는 텍스트 세계를 구원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⁰⁾

등장인물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세계에서 ‘생존’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알고 있는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소설세계로의 초대는 갑작스럽고 위기 상황이 자신의 잘못과는 관계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생존 세계의 폭력성과 연결된다. ‘빙의’된 인물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세계에 그대로 던져지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여 운명을 바꿔야 한다. 특히 이 운명이 목숨을 구하는 것과 관계있을 때 절실함은 더해지며 자신을 구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자조의 논리가 드러난다. 이 자의식은 역설적이게도 ‘도와줄 곳 없는’ 자기를 자원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21세기 한국사회의 고독과 피로 그리고 생존경쟁을 강력하게 환기한다. 작품에서 빙의 전 삶에서의 이력을 소개하는 것이 그 근거라 할 수 있다. 주인공들은 가족을 잃은 고아이자 가난에 허덕이던 취업준비생이거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홀로 살아가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현실세계에서 마주했던 고통은 빙의 후에도 유사하게 반복된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일상에서 마주하는 괴로움과 불편 등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²¹⁾

19) 카카오페이지 <<https://page.kakao.com/home?seriesId=49916730>>

20)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책빙의물’의 특성 연구-로맨스판타지 장르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6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0, 94-95쪽.

21) 안상원, 앞의 글, 2020, 108쪽.

로맨스판타지와 빙의가 만난 작품들의 경우는 의외로 정해진 클리셰가 있었다. ‘원작’에 빙의한 주인공이 엑스트라라면, 주인공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어떻게든 원작 주인공 커플과 엮이지 않고 조용하게 지내자고 마음을 먹는 부류가 있다. 반대로 중심인물이나 주변인물에게 일어날 비극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뒤편을 놓음으로써 원작에서의 전개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자고 부류가 있다.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외부인이 원작에 개입한 이상 원작은 어떻게든 틀어지게 되고 그 중심에는 주인공이 빙의한 엑스트라가 있는 것은 필연적인 일일 것이다.

반면에 주인공이 악녀로 빙의하는 경우도 있다. ‘원작’에서의 악녀는 남자 주인공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여자 주인공을 질투하는 데 눈이 멀어 마지막에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주인공이 빙의를 한 시점에서 악녀라는 인물을 바라보면 사정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악녀에게는 남아 있는 선택지가 악녀라는 길 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으며 사실은 악녀라는 이미지 자체가 모함과 거짓인 경우도 있었다. 주인공의 빙의한 인물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원작’ 속의 인물과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인물이 다르다는 것을 주인공이 인지하였을 때의 충격과 독자들이 받는 충격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달슬 작가의 『악당의 아버지를 꼬셔라』²²⁾는 현대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하여 창작물 속의 세계에 빙의한 것으로 시작된다. 자신이 읽은 소설에서 직접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주인공들의 부모님 세대의 인물에게 빙의하게 된 것이다. 부모님 세대가 모두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는 것을 알았던 주인공은 어떻게든 원작의 비극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된다.

「이 남자가 내가 왜 이러는지 알면 단번에 수락할 텐데! 나는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대신 속으로 짹짹 외쳤다. 당신이 엘라드 영애랑 결혼하면 틀림없이 무시무시한 악당을 낳을 거라니까! 그 여자가 당신 아들을 사악한 흑마법사로 키울 거고, 당신은 마흔 줄을 넘기기도 전에 아들한테 살해당할 거라고! 내가 당신 구해주려는 거라니까? (...) 책 속 세상으로 떨어진 지 어언 1년. 그리고 원작이 시작되기 약 20년 전. 이 세계의 불쌍한 조연 둘을 어떻게든 구해 보려는 내 처절한 노력은 악당의 아버지에게 무참히 차이는 것으로 시작됐다. (...) 그러니까, 이걸로 완벽하게 판명이 난 것이다. 이 세계가 내가 죽기 직전까지 읽었던 〈브리즈니는 행복하고 싶어〉 속의 세계라는 것이. 그리고 내 앞에 앉은 테제비아 언니의 배 속에..... “브리즈니.....” 원작의 여주인공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웹소설 『악당의 아버지를 꼬셔라』 중

4.4 로맨스판타지 장르 속 환생

환생이라는 모티프 자체가 다루기 까다로운 만큼, 환생 소재를 주 소재로서 활용하는 작품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타지 장르와는 다르게 로맨스판타지 장르는 여성의 모험서사와 사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하는 독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고, 환생은 결국 주인공의 죽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서사이기 때문이다. 환생의 모티프를 사용했으면서 로맨스판타지 장르의 조건을 만족하는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띤다. 주인공은 한국인 성인 여성이며 모종의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여 환생을 하게 된다. 전생의 기억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눈을 뜨고 낯선 풍경과 정체 모를 사람들로 인해 당황한다. 무어라 말을 하려 하지만 아기의 몸이 되어버렸기에 말을 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이 때 환생한 주인공의 신분은 최소 후작가의 여식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왕족이거나 황족인 경우도 있다. 주인공의 아버지가 왕이거나 황제라면 그들은 폭군일 가능성이 높고 주인공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친부를 조련하고자

22) 카카오페이지 <<https://page.kakao.com/home?seriesId=51304000>>

한다. 처음에는 살아남고자 한 행동이었지만 나중에는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반려자도 찾아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타 모티프들과는 달리 환생 모티프를 사용한 로맨스판타지 장르의 소설들은 꽤나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생의 기억을 온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생에서의 주인공들은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일정 나이가 지나면 발음이 뭉개지거나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것인데, 어린아이인 주인공을 귀엽게 나타내고자 하는 이유 때문인지 여주인공은 어느 정도 성장하여도 계속 혀 짧은 소리를 내거나 과장되게 표현하는데 해석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독자의 몰입을 방해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로맨스판타지 장르에서는 첩 제도가 허용되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한 명의 남성에게서 어머니가 다른 자식이 여럿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의 경우라면 동생이 생겼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걱정하여 경계를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주인공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들은 그녀의 애교에 함락되어 동생바보가 되곤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독자들이 있다. 다른 사례로는 여주인공이 사생아 혹은 버려진 아이라는 설정일 때 여주인공을 낳고 방치한 아버지가 뒤늦게 딸바보가 되었다는 이유로 과거를 세탁하고 옹호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일부 독자들이 있어 이들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한다.

윤슬 작가의 『황제의 외동딸』²³⁾은 환생 소재를 사용한 로맨스판타지 장르의 웹소설 중에서 꽤나 유명한 작품에 속한다. 웹소설로 약 165만의 조회수를, 웹툰으로는 500만에 육박하는 조회 수를 달성한 작품으로 카카오페이지 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다. 현대를 살아가던 주인공이 사고로 인해 폭군 황제의 딸인 공주로 환생하여 펼쳐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폭군 육아물’이라는 하위 장르를 유명하게 만든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흐릿하지만 끝자락을 겨우 붙든 내 마지막 기억은, 낮선 남자가 예리한 칼로 내 배를 찌르고, 나는 처음 보는 남자의 무자비한 손길에 제대로 저항 한 번 못 해 보고 죽었다는 사실이었다. 아, 나! 기분 더럽네! 하필 죽어도 묻지마 살인으로 죽냐. “응아으.” 순간 치민 짜증에 멧대로 입을 벌렸지만 나오는 건 말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짜증나’라고 말하고 싶었을 뿐인데, 도리어 이도 없는 잇몸이 생으로 부딪히는 느낌에 미간을 찌푸린다. 뭐지 이 이상한 목소리는? 고민도 잠깐. 그제야 미련하게 다시 깨달았다. 아, 맞아. 이제 나 애새끼였지. 뭔가 참담한 심정이었다. 죽자마자 환생이냐. “어머, 우리 공주님께서 언제 깨셨담.” 그러게. 근테 넌 언제 온 거니?」

-웹소설 『황제의 외동딸』 중

5. 연구방법과 결과분석

5.1. 연구대상과 의문점

연구자는 회귀, 분석, 환생 세 소재들 중에서도 어느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이며 제일 더 활용되는 소재인 것이 무엇인가에 의문을 가졌다. 또 현재 한국 웹소설계의 트렌드는 무엇이고 웹소설 속 소재와 전개방식 그리고 등장인물의 특징 등과 같은 것들이 다양해지지 않고 대성을 거둔 작품의 흐름과 비슷하게 구성되는 것에 대해 독자들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 설문조사 결과 25명의 인원이 대답에 응해주었다. 표본이 적은 만큼 객관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에는 조금 아쉬우나, 연구자가

23) 카카오페이지 <<https://page.kakao.com/home?seriesId=46803116>>

가진 의문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웹소설 독자들도 가지고 있다는 의문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5.2. 독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회빙환 소재

단어 회빙환을 들어본 적 있냐는 질문에 18명의 인원이 긍정을, 나머지 7명의 인원이 부정을 하였다. 결과를 설문문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연구자의 실수로 인해 회빙환의 뜻을 미리 노출시키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회빙환의 뜻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20명의 인원이 제대로 된 뜻을 답으로 제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회빙환이라는 단어에 대해 독자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 뜻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는 회귀, 빙의, 환생의 소재가 웹소설 내에서 사용된 빈도를 독자의 판단에 맡겼을 때의 결과이다. 이 결과는 절대적 수치가 아닌 상대적 수치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표 1〉 소재와 빈도의 관계

	회귀	빙의	환생
많음	15	14	13
보통	7	8	4
적음	3	3	8

답변자들의 질문 해석이 연구자가 의도했던 방향과는 조금 달랐기에 원했던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으나, “적음”의 카테고리를 보았을 때 환생 소재가 회귀 소재나 빙의 소재와는 다르게 더 사용된 빈도가 적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연구자의 의견과 부합하는 부분이었으며 연구자 혼자서 이러한 의견을 가진 것이 아닌 독자들 역시도 공감하는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설문자들이 주관적으로 대답한 현재 한국 웹소설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현재의 웹소설은 소설 속 주인공이 독자를 대신하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리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주인공이 굉장히 강하거나 유능한 ‘먼치킨’물이라 부르는 형태의 소설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설문자들은 대답했다. 대리만족을 실행하거나 먼치킨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공이 이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경우는 회귀소재나 빙의소재를 활용하였을 때 주로 가능하기 때문에 환생소재에서는 보기 드문 전개 방식이었고 이러한 점에서 환생소재가 덜 활용되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하지만 소재가 겹치거나 전개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이전에 유행했던 것들과의 병합을 통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독자들도 있었다. 특히나 과거의 웹소설과 비교했을 때 신선함이 많이 줄어든 것이 아쉽다는 평이 있었다.

5.3. 기존 작품에 활용된 소재와 전개방식을 모방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

설문자들에게 웹소설의 소재와 전개방식 그리고 인물의 특징이 다양해지지 않고 기존의 작품 중 유명한 작품의 흐름과 비슷하게 구성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부정적인 답변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긍정과 부정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유행을 선두하고 이를 따라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 답변자가

있었다. 웹소설계 역시 엄연한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를 선택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었다. 그 외로는 당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의견을 내비친 독자도 있었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시도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추가적으로 덧붙였다. 클리셰로 자리매김을 하더라도 언젠가 루즈함을 느끼게 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중립적인 의견도 종종 확인 가능했다. 그 외로 해당 소설을 집필할 때 특정 작품을 보고 매우 감명을 받았기에 해당 소재를 활용하여 창작하는 경우이거나 작가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타 작가의 작품을 도용해야지만 창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의견 또한 존재하였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흐름에 탑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작가만의 특별함이 없고 이미 다 예상을 가게 만드는 전개는 오히려 독자에게 역효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짜증 나지만 모방은 창조 어머니이기 때문에 작가의 개인적인 역량이 중요하다는 답변을 남겨준 설문자가 있었는데 이 의견 역시 앞에서 말한 바와 의미하는 바가 같았다. 특히 양산형 판타지 소설의 약자인 ‘양판소’라는 용어를 언급하면서 찍어낸 것과 같은 소설들이 많아진 현실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독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정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야기의 심도 있는 전개보다는 소재 하나로 이목을 끌고 후반에 가서는 소재의 고갈로 인해 용두사미의 결과를 거두게 된 소설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의 산물이며 복사와 붙여넣기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물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독자도 있었다.

6. 결론

한국 웹소설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국내를 대표하는 4개의 웹소설 플랫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판타지 장르와 로맨스판타지 장르, 회귀모티프와 빙의모티프 그리고 환생모티프 총 2가지의 장르와 3가지의 모티프가 결합했을 때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연구한 내용과 현재 웹소설 시장의 상황과 같은 실질적인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의 웹소설 분야의 전망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장르 자체로 두고 봤을 때는 판타지와 로맨스판타지 모두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웹소설 시장은 이미 많이 확대되었지만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활동적인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미디어매체를 통한 여가생활의 증가는 필연적이고 이는 곧 웹소설 시장 역시 호황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판타지 장르는 대대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장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로맨스판타지 장르 역시 많은 여성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웹소설의 장르에는 한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로맨스판타지 장르가 여성 주인공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여성 독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으면 한다.

모티프적인 측면에서는 회귀와 빙의는 앞으로도 꾸준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술한 싱송 작가의 작품 『전지적 독자 시점』은 한 작품 안에 회귀와 빙의라는 모티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 작품은 2021년 6월 기준 누적 조회 수 약 1억 6천만의 수치를 달성하였으며, 작년에는 웹툰으로도 런칭될 만큼 인기가 좋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 외에도 여러 플랫폼은 회귀와 빙의를 모티프를 다룬 원작 웹소설을 바탕으로 웹툰의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 각색된 작품을 보고 매력을 느낀 사람은 원작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원작의 팬 역시 각색된 작품 또한 찾아보는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회귀와 빙의 모티프의 한계는 어디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회귀를 다룬 작품은 많아봤자 1~2명의 인물이 회귀를 했으며,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건을 소수만 겪는다는 점은 빙의 역시 다르지 않았다. 작품에서 사용된 소재와 내용만 달랐지

큰 틀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회귀를 하거나 서로 다른 시공간의 인물이 같은 시간대로 회귀를 하는 등의 전개에 대한 의문과 함께 회귀와 빙의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한다.

환생 모티프에 대해서는 선부르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현재와 비슷하거나 침체기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타지 장르와 모두 로맨스판타지 장르 모두 딱히 특별한 작품을 찾을 수 없었던 모티프가 환생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작품의 전개가 환생 모티프로 인한 작품을 찾는 것은 어려웠다. 환생 모티프에 대해서 다시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술한 두 모티프와는 다르게, 환생 모티프는 단독적으로 사용되었을 때의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회귀와 빙의는 미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지만, 환생은 그러한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환생 모티프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두 모티프들과 공통되면서도 차별되는 환생 모티프만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 고민정, 한국 웹소설의 플랫폼 성장과 가능성, 전자출판연구 13권 1호, 한국전자출판학회, 2019, 32-41쪽.
- 김기중, ‘하루 5분’ SNS 하둣 쓰윅~ 4000억 시장 펼친 웹소설, 서울신문, 2019. 5. 2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27025004#csidxa44be>>
- 김미현, 웹소설에 나타난 ‘회귀와 환생’의 욕망코드: 인과계층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미래연구 4권 2호, 미래학회, 2019, 155-185쪽.
- 김재현, [월간중앙] 이슈분석 - 3대 키워드로 읽는 웹소설의 세계, 중앙일보, 2020. 12. 17.,
 <<https://news.joins.com/article/23947599>>
- 김준현, 웹소설 장에서 사용되는 장르 연관 개념 연구, 현대소설연구 7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9, 107-137.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 박수호, “하루 매출 10억 돌파 카카오페이지, ‘깜짝 실적’일까, 이제 시작일까?”, 매경프리미엄, 2019. 9., 24. <<https://www.mk.co.kr/premium/behind-story/view/2019/09/26708/>>
- 안상원, 한국 웹소설 ‘로맨스판타지’ 장르의 서사적 특성 연구, 인문콘텐츠 55호, 인문콘텐츠학회, 2019, 219~234쪽.
-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회귀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0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8, 279-307쪽.
-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책빙의물’의 특성 연구-로맨스판타지 장르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6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0, 87-120쪽.
- 오하영·조수연, 웹소설 키워드를 통한 이용 독자 내적 욕구 및 특성 파악,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4권 2호, 한국정보통신학회, 2020, 158-165쪽.
- 유인혁, 한국 웹소설 판타지의 형식적 갱신과 사회적 성찰-책빙의물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6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20, 77-102쪽.



케이팝의 현황과 글로벌 성장 전략 분석

: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를 중심으로

글로벌경영학과 유소*

목 차

1.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 2.1. 케이팝의 정의
 - 2.2. 케이팝 글로벌 성장에 관한 선행 연구
3. 케이팝 현황
 - 3.1. 외국에서의 케이팝 현황
 - 3.2. 케이팝 가수 실태
4. 방탄소년단(BTS)
 - 4.1.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성장
 - 4.2.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인
 - 4.2.1. 설문조사 결과
 - 4.2.2. 해외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
 - 4.2.3.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 4.2.4.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전략
5. 블랙핑크(BLACKPINK)
 - 5.1. 블랙핑크의 글로벌 성장
 - 5.2. 블랙핑크의 성공 요인
 - 5.2.1. 설문조사 결과
 - 5.2.2. 해외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
 - 5.2.3. 외국인 멤버를 통한 현지화
 - 5.2.4. 고급화 전략
6. 케이팝의 글로벌 성공 전략
 - 6.1. 일반적인 전략
 - 6.2. 특수적인 전략

참고 문헌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방법

‘한류 열풍’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한류의 성장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키워드는 바로 ‘케이팝’이다. 2세대 아이돌인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를 시작으로 현재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를 선두로 하여 해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덕분에 케이팝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가기 위해 많은 케이팝 아이돌들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과는 다르게, 현재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의 뒤를 이을만한 케이팝 가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3세대 대표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의 대표 아이돌 그룹’이라는 타이틀 또한 가지고 있다. 현재는 3세대가 끝나 4세대로 넘어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4세대를 대표할 아이돌’,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다음으로 ‘한국을 대표할 아이돌’이 필요하지만 눈에 띄는 아이들은 없다. 이 문제는 앞으로 케이팝의 글로벌 성장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중심으로 성공 전략을 분석하여 새롭게 나아갈 미래의 4세대 아이돌이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6월 3일부터 4일, 2일간 불특정 다수의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진출 성공의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는 나이라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적절하다 판단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글로벌 성공 여부와 성공 요인에 관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지와 네이버 폼 총 2가지를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가장 많은 성공 요인으로 뽑혔던 ‘노래와 춤’, ‘사람의 인성’ 부분은, 성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 판단하여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공 요인과 관련 논문과 여러 기사 자료의 참고를 통해 글로벌 성공 전략을 분석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케이팝의 정의

케이팝(K-POP)은 한국(Korea)과 대중음악(Popular Music)을 더한 말로, 2012년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된 의미로는 ‘pop music from South Korea(한국의 대중음악)’이며, 한국 내에서는 보통 해외에서 유명한 한국의 음악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케이팝으로 불리는 노래는 대부분 댄스 음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케이팝은 글로벌시장에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댄스 음악’으로 정의할 수 있다.¹⁾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진영은, “어느 나라 가수가..., 어느 언어로 노래하느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외국 회사가 기획한 한국 국적의 가수, 한국 회사가 기획한 외국 국적의 가수. 어느 것이 케이팝이죠?”²⁾라는 물음을 던졌다. 이처럼 케이팝의 정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하고 있다. 초반에는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어가 사용되고 한국인이 향유하고 있는 가요가 케이팝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에 들어서, 많은 케이팝으로 불리는 노래에는 작곡가, 안무가 등 이미 업계 전반에 걸쳐 외국인들이 다수 참여하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케이팝,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BC%80%EC%9D%B4%ED%8C%9D&ridx=0&tot=14>〉, 2021. 5. 20.

2) 김영욱, 전설의 무대 아카이브 K, SBS, 2021. 3. 7., 〈<https://programs.sbs.co.kr/enter/archivek/about/67377>〉, 유튜브, 우리가요, ARCHIVE-K, [아카이빙각] Q. 세계로 가는 첫 관문?/A.대한민국!, 2021. 3. 20.,

〈<https://www.youtube.com/watch?v=s0nyHZY8IsI>〉에서 재인용.

고 있다. 무엇보다 아이돌 그룹 안에는 일본인, 중국인 멤버나 재외동포 출신 멤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화된 지 오래이다. 한국의 여자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TWICE)’가 바로 그 경우인데 총 9명의 멤버 중 1명은 대만인, 3명은 일본인으로 반이 외국인인 경우에 속한다. 이뿐만 아니라 2017년에 데뷔한 남자 아이돌 그룹 ‘EXP 에디션(EXP EDITION)’은 멤버 전원이 미국인이었고,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 학생들의 실험으로 탄생한 그룹이지만, ‘외국인 케이팝 그룹’이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점은 외국인에게 케이팝이 새로운 장르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알게 하고, 더 이상 케이팝이 ‘한국 아이돌 그룹의 댄스 음악’이 아닌, ‘한국의 문화에서 기원된’, ‘한국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2.2. 케이팝 글로벌 전략에 관한 선행 연구

케이팝의 급속한 성장은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다. 김주연, 안경모(2012)는 <아시아국가에서의 K-pop 이용행동과 K-pop으로 인한 국가호감도 및 한국 방문의도 변화>에서 타국의 케이팝 선호 요인을 분석하고, 선호도와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을 통해 현지 분석과 대응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조병철·심희철(2013)은 <K-POP 한류의 성공요인분석과 한류 지속화 방안 연구>에서 스마트 미디어 기술을 중심으로 생태계(Ecology) 구축을 통한 케이팝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활성화를 위하여 방안과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최서원, 임성준(2019)은 <3세대 K-Pop 아이돌의 전략 분석: EXO, 트와이스,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에서 한국 아이돌의 발전 및 변화 과정을 세대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당시 3세대 대표 그룹 엑소, 트와이스, 방탄소년단의 전략 분석을 통해 향후 케이팝 발전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승연, 장민호(2019)는 <K-pop 음악의 글로벌 성공 요인 분석>에서 케이팝의 글로벌 성공에 대한 음악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필요한 음악적 요소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인혜·권상집(2021)은 <K-POP 패러다임을 넘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한국형 문화 혁신에 의한 가치 창출>에서 방탄소년단보다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성장과 독자적인 가치 창출에 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3. 케이팝의 현황

3.1. 외국에서의 케이팝 현황

<표 1> 한국 연상 이미지: 연도별 분석

	2016년(6차)		2017년(7차)		2018년(8차)		2019년(9차)		2020년(10차)	
1순위	한식	12.5%	K-Pop	16.6%	K-Pop	17.3%	K-Pop	18.5%	K-Pop	16.8%
2순위	K-Pop	12.1%	북한/북핵	8.5%	한식	9.9%	한식	12.2%	한식	12.0%
3순위	IT산업	10.2%	IT산업	7.7%	IT산업	6.9%	드라마	7.8%	IT산업	6.9%
4순위	드라마	9.9%	드라마	7.6%	드라마	6.8%	IT산업	7.3%	한류스타	6.6%

<표 1>3)은 한국 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를 조사한 것으로, 케이팝은 2017년도 이후 4년째 1위를 차지

3)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2021 해외한류실태조사, 2021, 18쪽.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가별 한국 연상 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영국, UAE에서 모두 1위로 케이팝을 선택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식과 0.2%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한류 열풍’ 속 케이팝은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요소 중 하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음악 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일본	277,262	320,599	367,335	65.1	14.6
중화권	98,362	109,931	111,962	19.8	1.8
동남아	55,876	64,737	69,386	12.3	7.2
유럽	6,247	8,552	7,038	1.2	△17.7
북미	2,105	5,468	7,151	1.3	30.8

<표 2>⁴⁾의 케이팝, 즉 음악 산업의 현재 수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16년도에는 4억 4,257만 달러, 17년도에는 5억 1,258만 달러, 18년도에는 5억 6,424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표 2>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 동남아로의 수출액이 97%를 차지하며 현재 아시아에 편중되어, 케이팝의 아시아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북미 지역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전년 대비 증감률은 150%가 넘어갈 정도였다. 이는 앞으로, 케이팝 가수들이 북미에 있어서 더 큰 수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나라의 케이팝 현황을 소개하자면, 유럽 국가 중 그리스에서는 K-pop에 대한 인기가 커지면서 현지 라디오 방송인 Music 89.2 채널에서 매주 일요일 일정 시간에 케이팝을 소개하고 있으며, 음악전문채널 MAD TV에서는 매주 월요일-금요일 일정 시간에 뮤직비디오를 상영한다.⁵⁾ 미국에서도 케이팝의 확산을 위해 매년 ‘K-Pop WORLD FESTIVAL’이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북캘리포니아 지역 각 대학 학생들의 케이팝 동호회가 활성화되고 있다.⁶⁾

3.2. 케이팝 가수 실태

보통 아이들을 구분할 때 ‘N세대 아이돌’이라는 말을 한다. 이는 당시 세대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대표가 되는 아이들을 말한다. 그 때문에 정확한 연도 구분이 없고, 시간이 갈수록 경계가 희미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존재하며, 4세대 아이돌이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이중, 본격적인 글로벌화가 시작되는 2세대부터 4세대라고 대두되고 있는 아이들을 중점으로 소개하겠다.

2세대 아이들은 2000년대에 활동하여 본격적으로 동남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인피니트(INFINITE), 미스에이(miss A), 에이핑크(Apink) 등이 있다. 엑소와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2.5세대로 분류되고 있지만, 3세대의 시작이 엑소의 ‘오르렁’이며, 방탄소년단은 그 이후에 인기를 끌 수 있었기 때문에 3세대 아이돌로 구분 짓기도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음악 산업백서, 2020, 156쪽.

5) 한국국제교류재단, 2020 지구촌 한류현황 III 유럽, 2020, 12쪽.

6) 한국국제교류재단, 2020 지구촌 한류현황 II 아메리카, 2020, 84쪽.

주로 2010년대 이후로 구분되는 3세대 아이돌에는 대표적으로 트와이스(TWICE), 워너원(Wanna One), 아이콘(iKON), 세븐틴(Seventeen), 레드벨벳(Red Velvet), 블랙핑크(BLACKPINK) 등이 있다. 3세대의 특징은 [SIXTEEN 서바이벌]을 통해 데뷔한 트와이스(TWICE), [프로듀스101] 시즌2를 통해 데뷔한 워너원(Wanna One) 등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데뷔하기 전부터 인지도를 쌓고, 성장하는 스토리를 보여줌으로써 활동 당시 큰 인기를 이끌었다. 3.5세대 아이돌은 보통 3세대 아이돌의 대표로 구분된 아이돌의 소속사가 등장시킨 신인돌이 대부분이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있지(IZTY), HYBE 엔터테인먼트의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YG 엔터테인먼트의 트레저(TREASURE), SM 엔터테인먼트의 에스파(aespa) 등이 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대의 구분은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4세대 아이돌의 명확한 구분은 나오지 않고 있다. 2.5세대이지만 3세대로 구분되는 엑소와 방탄소년단처럼, 현재 4세대 아이돌의 대표 주자로서는 그래미에서 선정한 ‘우리가 알아야 할 한국의 다섯 라이징 아티스트’⁷⁾로 구분되는 분위기로 스테이씨(STAYC), 엔하이픈(ENHYPEN), 있지(IZTY),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에이티즈(ATEEZ)가 있다.

4. 방탄소년단(BTS)

4.1.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성장

<표 3> 방탄소년단 주요 성과 및 영향력(2021. 6. 4.기준)

	내용
음악적 성과	앨범 《LOVE YOURSELF 轉 'Tear'》(2018) 빌보드 200 1위
	앨범 《LOVE YOURSELF 結 'Answer'》 (2018) 빌보드 200 1위
	앨범 《MAP OF THE SOUL : 7》 (2019) 빌보드 200 1위
	수록곡 <Dynamite> (2020) 빌보드 핫100 차트 1위 2주 연속 달성
	수록곡 <Life Goes On> (2020) 빌보드 핫100 차트 1위
	수록곡 <Butter> (2021) 빌보드 핫100 차트 1위
영향력 확대	美 Time지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안에 선정
	트위터 팔로워 수 2,971만 명 달성 (2021.05.17. 기준)
	2018년 미국 뉴욕 UN 본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행사에서 연설
	2020년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올해의 글로벌 레코딩 아티스트 1위
	2020년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노미네이트

방탄소년단은 2013년도에 데뷔한 HYBE 엔터테인먼트(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소속 대한민국 7인조 보이 그룹으로 해외 케이팝 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케이팝 아이돌’ 1위 그룹⁸⁾으로 선정되었다. 방탄소년단 하면 빌보드 차트 순위도 빼놓을 수 없다. <표 2>를 제외한 다른 성과를 살펴보자면

7) Ashlee Mitchell, 5 Rising Korean Artists To Know Now, Grammy awards news, 2021. 5.

31.<<https://www.grammy.com/news/5-rising-k-pop-artists-know-now-stayc-enhypen-itzy-tomorrow-x-together-atee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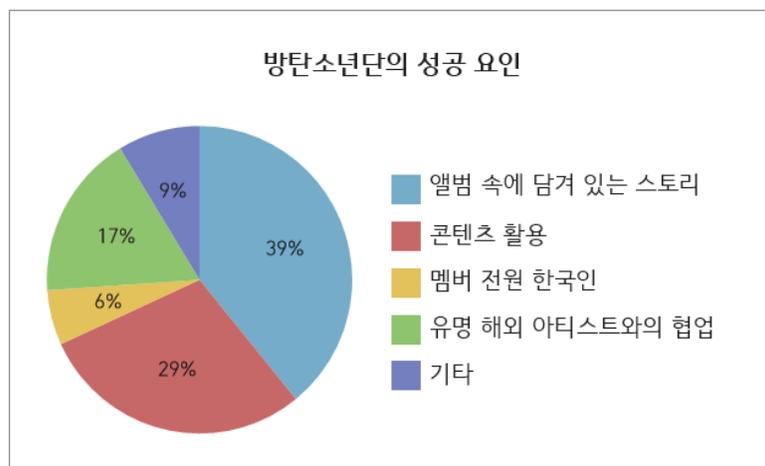
8) 한국관광공사, 가장 선호하는 K-pop 스타 설문조사, 보도자료, 1쪽.

비영어권 최초로 ‘핫100’, ‘아티스트 100’, ‘빌보드 200’ 차트에서 동시에 1위를 달성하였고, ‘아티스트 100’에서 1위를 15주, 그룹 중 가장 오래 차지하였다. 또한, 최근 나온 신곡 〈Butter〉까지 ‘핫백’ 차트 1위의 곡이 되면서, ‘핫백’ 1위의 곡이 4곡이나 있는 아시아 최다 그룹이 되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시장에서 《MAP OF THE SOUL: 7》은 판매량 64만 6천 장을 기록하며 실물 앨범 판매량 1위에 올랐으며, 실물 앨범 이외의 판매량을 더하였을 때는 67만 4천 장을 기록하며 종합 판매량 2위에 올랐다. 또한 《BE》도 판매량 25만 2천 장을 기록하며 실물 앨범 판매량 5위를 기록하였다.

4.2.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인

4.2.1. 설문조사 결과

<차트 1>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인 설문조사 결과



<차트 1>은 ‘노래와 춤’, ‘성격과 외모 등의 사람 인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결과이다. ‘앨범 속에 담겨 있는 스토리’는 《화양연화》, 《WINGS》 등 방탄소년단만의 스토리텔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 54개의 표를 받으며 39%를 차지한다. ‘콘텐츠 활용’은 트위터, V앱 등 SNS를 잘 활용하여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간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 40개의 표를 받으면서 29%를 차지하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유명 해외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총 24표를 받으며 17%를 차지하게 되었고, ‘멤버 전원 한국인’은 한국인으로 된 멤버 구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로 총 8표를 받으며 제일 적은 6%를 차지하였다. 마지막 기타에서는 총 12표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으로는 ‘여러 콘텐츠로 일상을 공유함으로써 팬들에게 친근감을 준 것, 타 아이들과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연예인은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동 떨어진 분위기에서 SNS로 쉽게 볼 수 있다는 점, 그 뒤에 노래와 춤이 알려진 것 같다’, ‘멤버들끼리의 케미’,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영어 노래’ 등이 있다.

4.2.2. 해외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

설문조사 결과에서 17%를 차지하고 있는 ‘해외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은 케이팝과 팝의 결합으로 연결되고, 이는 해외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방탄소년단과 해외 아티스트의 협업은 방탄소년단을 해외에서 한 층 더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세계적인 DJ 스티브 아오키(Steve Aoki)와의 협업으로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리믹스 하여 탄생된 <MIC Drop(Steve Aoki Remix)>는 빌보드 핫100 차트에 28위에 올랐으며, 이에 빌보드 측은 “방탄소년단이…(중략)…자신들의 기록을 깼다. 핫 100 차트 TOP 40위로 진입한 최초의 케이팝 그룹이 됐다.”⁹⁾라고 하였다. 당시 <DNA>로 핫100 차트 85위로 첫 진입 하였고, <강남스타일>을 제외한 케이팝 가수로서는 처음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아이튠즈 TOP SONGS 차트에서 케이팝 그룹 최초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등 전 세계 47개국, 주변국을 포함해 총 60개 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¹⁰⁾ 이후 방탄소년단의 행보는 ‘케이팝 그룹 최초’라는 수식어가 당연히 붙을 정도로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고, 이런 점을 보아 스티브 아오키와의 협업은 방탄소년단의 해외 성장의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에도 스티브 아오키와는 수록곡 <전하지 못한 진심>과 <Waste it on me>를 탄생시켰다. 특히 <Waste it on me>는 가사 전체가 영어로 된 최초의 곡으로 전 세계 66개국에서 아이튠즈 1위를 휩쓸었다.

미국의 유명 싱어송라이터 할시(Halsey)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는 빌보드 핫100 차트 8위로 올라 바로 전 앨범의 곡 <Fake Love>의 10위라는 기록¹¹⁾을 깨고, 새로운 기록을 세운 곡이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라우브(Lauv)와 수록곡 <Make It Right>을, 체인스모커스(The Chainsmokers)와 수록곡 <Best Of Me> 등 많은 해외 유명 아티스트와 협업을 진행했다.

4.2.3.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K-pop의 성공 요인은 SNS”라고 할 정도로 SNS는 케이팝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 역시, 노래와 춤, 성격을 제외한 성공 요인 중 ‘SNS를 통한 콘텐츠 활용 및 커뮤니케이션’이 29%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방탄소년단은 현재 다양한 SNS 채널을 유형에 따라 잘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표 4>¹²⁾에 정리된 트위터, 유튜브, V앱(V-Live)이 있다.

<표 4> 방탄소년단의 SNS 플랫폼 활용 방식

	트위터	유튜브	V앱
콘텐츠 활용 방식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일상, 메시지 공유	촬영 현장, 노래/안무 연습 및 뮤직비디오, 방송 출연 영상	방탄소년단과 팬과의 실시간 소통, 자체 예능 프로그램
플랫폼의 특성	140자 이내 짧은 메시지와 영상을 통한 파급효과, 콘텐츠 속도용이	문자가 아닌 영상 중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및 팬덤 확보용이	팬과의 실시간 소통 창구로 활용

9) Gary Trust, BTS Earns Highest-Charting & First Top 40 Hot 100 Hit for a K-Pop Group With 'MIC Drop', Billboard News, 2017. 12. 4. <<https://www.billboard.com/pro/bts-mic-drop-k-pop-billboard-hot-100/>>

10) 정리해주는 남자, 방탄소년단 '마이크 드롭' MIC DROP (영상) 47개국 아이튠즈 1위, 티스토리, 2017. 11. <<https://xsns.tistory.com/935>>

11) Tyler Aquilina, BTS and Halsey's 'Boy With Luv' becomes highest Billboard Hot 100 debut for K-pop group, Billboard News, 2019. 4. 22. <<https://ew.com/music/2019/04/22/bts-and-halsey-boy-with-luv-billboard-hot-100/>>

12) 이민혜·권상집, K-POP 패러다임을 넘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한국형 문화 혁신에 의한 가치 창출, Korea Business Review 제25권 제1호, 한국경영학회, 2021, 65쪽.

방탄소년단은 데뷔 이전부터 블로그와 트위터를 이용하여 팬들과 소통을 시작하였고, 해외 일정을 진행 중이거나 휴가 중에 있어도 트위터에 일상 사진을 올리는 등의 노력을 했다. 방탄소년단의 주 소통 공간인 만큼 많은 팬들이 트위터에 몰려있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계정’ 순위에서 4년째 1등을 거머쥐고 있다. 아이돌이라고 하면, ‘TV 속 특별한 스타’라는 이미지가 대부분이었던 당시와는 다르게, 방탄소년단은 ‘나와 SNS로 연결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동일시하여, 팬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런 이미지는 ‘방탄소년단만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다음 설명할 스토리텔링 전략을 성공시키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Bangtan Bomb’ 채널을 운영하는데, 그곳에서 방탄소년단의 촬영장 밖이나 비하인드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업로드한다. 또한, 시상식 등에서 진행한 특별 무대의 전체적인 안무영상을 업로드 하는데, 이 영상들은 ‘내 기준 오지는 안무들’, ‘방탄밤 레전드 모음’, ‘보자마자 현웃 터진다는 전설의 영상’ 등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다양하고 많은 유튜브의 영상에 많은 소스로 사용된다. #bongtanbomb 만 검색해도 연관 동영상이 4.1천 개가 넘어갈 정도이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V앱에서는 ‘AMA 시상식 이후’, ‘빌보드 핫100 1위 이후’ 다음 공식 일정을 진행하는 대신 팬클럽(ARMY)에게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 감사함을 전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Hope on the street’, ‘꿀 FM 라디오’ 등 멤버들이 팬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팬들과의 소통의 폭을 넓혔다. 특히 ‘달려라 방탄’¹³⁾ 등의 자체 예능 콘텐츠를 구성하여 굳이 다른 방송사의 예능에 출연하지 않아도 팬들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끊임없이 제공한다. 방탄밤처럼 V앱에서 진행된 콘텐츠 모두 유튜브에서 ‘달려라 방탄 레전드 장면’, ‘달려라 방탄 대유잼 모먼트 모음’ 등 짧게 재밌고 귀여운 하이라이트만 다시 편집되어 재확산 된다.

4.2.4.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전략

설문조사의 54표의 가장 많은 표를 받으며 39%를 차지한 ‘앨범 속 담겨 있는 스토리’ 즉, 스토리텔링 전략은 방탄소년단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방탄소년단은 우선, 스토리텔링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방탄소년단의 ‘학교 3부작’, ‘청춘 3부작’,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는 소년에서 청년으로,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성숙한 어른이 되는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그 안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가지는 고민, 어려움, 압박감 등 사회적 문제를 풀어내면서 응원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이는 한국 안에서만 적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민혜·권상집은 “BTS가 한국적 특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시장의 수많은 팬들과 공감할 수 있는 주체가 된 이유는 그들이 K-POP의 댄스와 자극적인 랩을 버리고 다양한 메시지를 제시해 팬과의 공감, 소통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¹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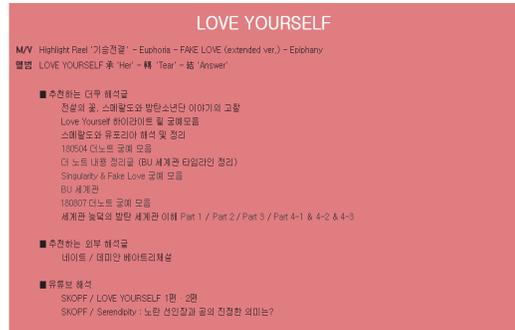
그다음은 방탄소년단의 특별한 세계관에 팬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시켰다. 방탄소년단의 스토리는 시리즈에서 시리즈로, 멤버별로 캐릭터를 부여하면서도 스토리가 계속 연결이 된다. 그러한 연결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떡밥’이다. 이는 팬들에게 다음 뮤직비디오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며, 뮤직비디오를 돌려보도록 ‘유도’한다. 떡밥의 발견 유무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봄날’ 뮤직비디오의 영상은 그저 일곱 소년들이 기차여행을 하는 듯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하지만 뮤직비디오 봄날을 시청한 외국인 한 명은 <그림 1>¹⁵⁾의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나무에 신발을 매단 건 죽음을 의미해. 그래서

13) 달려라 방탄: 게임, 폰트, 야의 활동 등 여러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리얼 버라이어티

14) 이민혜·권상집, 앞의 글, 65쪽.

15) 출처: 방탄소년단 ‘봄날’ 뮤직비디오

죽은 사람이 돌아왔을 때 다시 그 신발을 신고 걸어갈 수 있는 거지.”¹⁶⁾ 이렇듯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 한국인만이 아닌, 외국인 또한 뮤직비디오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림 2>¹⁷⁾와 같이 많은 해석본이 생겨나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림 1> 뮤직비디오 장면, 나무에 걸려 있는 신발 (왼쪽 그림)
 <그림 2> 방탄소년단 뮤비 해석본 모음 (오른쪽 그림)

5. 블랙핑크(BLACKPINK)

5.1. 블랙핑크의 글로벌 성장

<표 5> 블랙핑크의 주요 성과(2021. 6. 4.기준)

	내용
음악적 성과	앨범 《SQUARE ONE》 (2018) 빌보드 200 40위
	앨범 《KILL THIS LOVE》 (2019) 빌보드 200 24위
	앨범 《THE ALBUM》 (2020) 빌보드 200 2위
	수록곡 <뚜두뚜두> (2018) 빌보드 핫100 차트 55위
	수록곡 <Kill this love> (2019) 빌보드 핫100 차트 41위
	수록곡 <Lovesick Girls> (2020)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 2위
	멤버 로제 솔로곡 <On The Ground> (2021)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 1위

블랙핑크는 2016년도에 데뷔한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4인조 걸그룹으로, <표 3>과 같이 놀라운 미국 진출을 보이고 있다. 특히, 블랙핑크는 ‘유튜브 퀸’이라고 불릴 정도로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2016년 8월 8일 첫 데뷔 이후, 2017년 1월 31일에는 봄바야, 4월 11일에는 불장난, 4월 15일에는 휘파람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억뷰가 넘어서며 데뷔 8개월 만에 1억 뷰 뮤직비디오를 3개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발매된 ‘뚜두뚜두’는 10일 만에, ‘Kill this love’는 62시간 만에, ‘How You Like That’은 공개 32시간 만에 1억 뷰를 넘겼다. 또한, 2020년 10월 4일에는 우리나라 유튜브 채널 최초로 구독자 수가 5천만 명을 돌파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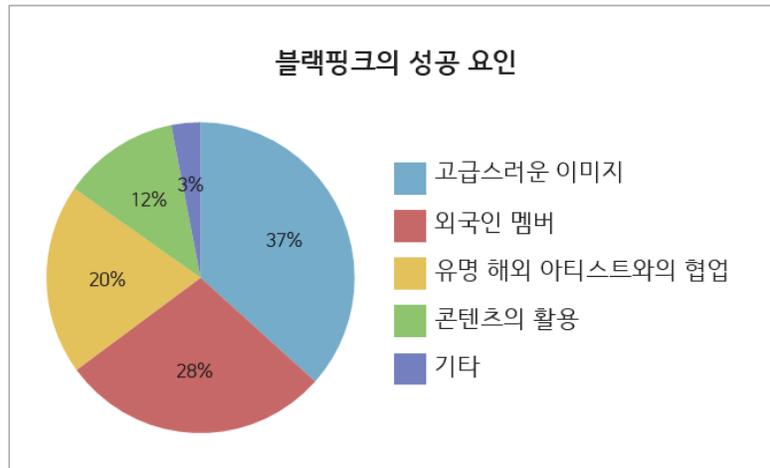
16) 유튜브, 국방 “이 노래만 들으면 눈물이 나...” bts 방탄소년단 봄날을 본 해외반응 리액션.
 17) theqoo 사이트, 방탄소년단 뮤비(세계관), <<https://theqoo.net/>>

성과를 이루었다.

5.2. 블랙핑크의 성공 요인

5.2.1. 설문조사 결과

<차트 2> 블랙핑크의 성공 요인 설문조사 결과



<차트 2> 또한 '노래와 춤', '성격과 외모 등의 사람 인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결과이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총 48개의 표를 받으며 37%의 압도적인 이유로 꼽혔다. 다음 '외국인 멤버'는 전원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멤버가 섞여서 구성된 그룹인 점을 의미하고 총 37개의 표를 받으며 28%를 차지하였다. '유명 해외 아티스트와의 협업'은 총 26개의 표로 20%를 차지하면서 방탄소년단의 성공 결과와 같이 3위를 차지한다. '콘텐츠의 활용'은 총 16개의 표로 12%를 차지하며 방탄소년단에 비해 높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마지막 기타는 총 4개의 표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으로 '블랙핑크의 신선한 이미지. 쉐인 이미지의 노래와 춤은 소화하기 어려운 것들 투성이지만 성공해내는 점, 그리고 노래의 중독성 또한 성공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 사료됨', '팝송 같은 음악' 등이 있다.

5.2.2. 해외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

두아 리파(Dua Lipa), 셀레나 고메즈(Selena Gomez), 카디비(Cardi B), 레이디 가가(Lady GaGa) 등 협업을 진행한 아티스트들의 라인업 때문에, 블랙핑크와 해외 아티스트의 협업은 많은 이슈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26표라는 적지 않은 표를 받을 수 있었고, 해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인 셀레나 고메즈(Selena Gomez)와의 협업으로 탄생된 <Ice Cream(with Selena Gomez)>는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3위¹⁸⁾에 올랐다. 당시 블랙핑크의 가장 좋은 순위였던 <How You Like That>의 33위 결과를 훌쩍 넘어섰다. 또한, 글로벌 200 차트에서는 8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팝송 라디오 에어플레이 차트에서 32위를 차지하며 데뷔 이래 최초 진입을 성공했다. 미국 라디오 방송은 비영어권 아티스트에 대한 장벽이 높아 현지의 대중적 인기를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블랙핑크가

18) Gary Trust, Blackpink Hits New Hot 100 High With Debut of Selena Gomez Collab 'Ice Cream', Billboard News, 2020. 9. 8., <<https://www.billboard.com/pro/blackpink-hits-new-hot-100-high-ice-cream/>>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음을 알려준다. 동시에 카디비(Cardi B)와 협업하여 같은 앨범에 수록된 〈Bet You Wanna(Feat. Cardi B)〉는 앨범 발매 첫날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50 차트에 4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가졌다.

이 외에도 저스틴 비버와 토리 켈리의 히트송을 프로듀싱한 Jorgen Odegard를 비롯해 ojivolta, TEDDY, Jon Bellion, 24 협업¹⁹⁾으로,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On The Ground〉를 탄생시켰고, 빌보드 핫100에서 70위로 오르면서 한국 여자 솔로가수 중 최고 순위를 차지하였다.

5.2.3. 외국인 멤버를 통한 현지화

현지화 전략은 현지인 멤버를 그룹에 소속시킴으로써 원활한 소통을 노리는 것이다. 블랙핑크의 경우는 실질적인 외국인 멤버는 한 명이지만,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외국에서 살다가 왔다. 소개를 해보자면, 멤버 리사는 태국 출신 외국인, 제니는 뉴질랜드 유학생, 로제는 호주 이민, 마지막으로 지수는 한국 토박이이다. 이 때문에 멤버들 중 영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은 없고, 이러한 조합은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중동 어디에든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특히 태국에서의 인기는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는 형님’²⁰⁾ 프로그램에 출연한 블랙핑크는 그곳에서 “리사에 대한 반응이 어때?”라는 질문에, “(태국) 공항에서 걸을 수가 없다”, “공항에 있는 모든 (층에) 사람이 꼭 차 있다”, “고속도로를 딱 타면, 리사 사진이 여기에 있고..., 이곳저곳 다 있다”라고 답하며 태국 안에서의 리사 인기를 표현했다.



<그림 3> 아는 형님 방송 캡처(251회) (왼쪽 그림)

<그림 4> 태국 팬사인회 구름 인파 (오른쪽 그림)

<그림 4>²¹⁾와 사례로 보면, 리사는 YG색조화장품 브랜드 문샷(moonshot)의 모델로 태국의 대표적인 쇼핑몰인 ‘이브앤보이’와 ‘센트럴월드’에서 양일 동안 팬사인회를 열었는데, 실제 초대된 인원은 200여명이지만, 양일 모두 1만 명 이상의 구름 인파가 몰려들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쇼핑몰인 ‘카사블랑카몰’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연출되었다.²²⁾ 또한 ‘블핑하우스’²³⁾ 방송 3회에서는 태국 여행을 즐기기 위하여 블랙핑크가

19) 함현선, 블랙핑크 로제, 앨범 트랙리스트 공개... 실력과 해외 프로듀서 협업, 웨이코노미, 2021. 3. 21., <<https://www.webeconomy.co.kr/news/article.html?no=109807>>

20) 아는 형님은 정규 출연자는 학생, 게스트는 전학생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되는 JTBC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21) 황혜진, 블랙핑크 리사, 태국 인도네시아 팬사인회에 상상초월 구름 인파, 뉴스엔, 2018. 8. 13., <https://news.v.daum.net/v/20180813101038419?s=print_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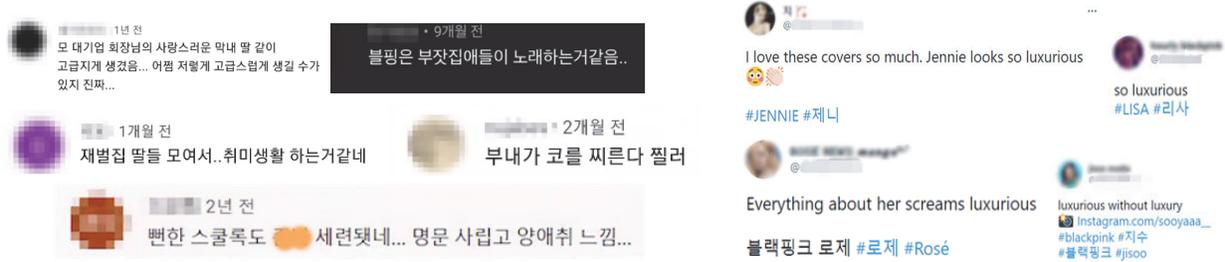
22) 위의 글.

태국 공항에 도착하였는데, 늦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에는 수많은 태국 팬 인파로 가득차 일대가 마비될 정도였다.

5.2.4. 고급화 전략

설문조사 결과에서 37%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블랙핑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성공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블랙핑크 멤버 전원의 귀티 나는 분위기와 이미지는 앨범과 콘셉트에서도 드러났다. 빌보드의 한 스태프는 “어떤 콘셉트의 곡이든 그들만의 멋과 스타일이 묻어있다”라고 말했다. 본인들이 가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다양한 콘셉트 안에 잘 녹였으며, 많은 콘셉트를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완벽한 결과물을 위하여 공백 기간은 길어지지만 그만큼 뮤직비디오, 의상 등 많은 부분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지켜내어 좋은 성적과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국 팬들은 <그림 5>²⁴⁾와 같이 ‘부잣집 애들이 노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전했고, 외국 팬들은 블랙핑크를 언급할 때 ‘Luxurious(고급스럽다, 호화스럽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림 5> 블랙핑크 무대 영상 댓글 캡처 (왼쪽 그림)

<그림 6> 트위터 안 블랙핑크 언급 캡처

이런 고급 이미지는 명품브랜드의 모델로 발탁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블랙핑크 멤버 4인 모두, 백화점 1층에 입점된 명품 화장품 모델로 선정되었다. 멤버 제니는 아모레퍼시픽의 럭셔리브랜드 헤라(HERA), 지수는 프랑스 명품브랜드 디올(Dior), 리사는 글로벌 메이크업 브랜드 맥(M.A.C)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되며 여성 케이팝 아이돌 스타가 발탁된 첫 사례를 장식하였으며, 마지막 로제는 입셀로랑 뷰티 모델로 선정되었다. 블랙핑크 4명의 멤버는 모두 고급스러우면서도 럭셔리한 이미지로 글로벌 패션·뷰티 브랜드의 품격에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패션·뷰티업계 모델 영입 1순위에 올랐다. 이런 식으로 많은 고급 브랜드의 모델로서 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해외에서 블랙핑크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6. 케이팝의 글로벌 성공 전략

6.1. 일반적인 전략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사용한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외국인 멤버 영입을 통한 현지화’, ‘해외

23) 블핑하우스는 블랙핑크의 첫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24) 유튜브, 블랙핑크 BLACKPINK 마지막처럼 AS IF IT'S YOUR LAST 댓글 모음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 전략은 사실 다른 아이돌 또한 많이 사용하였다.



<그림 7> 세븐틴 위버스 언급 캡처 (왼쪽 그림)

<그림 8> 애니메이션과 결합된 트와이스의 뮤직비디오 (오른쪽 그림)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현재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어 가고, 이를 통한 홍보가 쉽게 성공하면서 많은 아이돌이 커뮤니케이션에 힘을 주고 있다. HYBE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위버스(Weverse)'라는 팬 커뮤니티 어플을 출시하였고, 이곳에서 V앱, 팬카페, 유튜브 등 따로 분리되었던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았을 뿐더러, 트위터보다 쉬운 회원가입과 아이돌과의 소통이 자유롭다. 아이돌 멤버가 직접 글을 쓰거나 팬들이 쓴 글을 보면서 댓글을 직접 쓰기도 한다. HYBE 엔터테인먼트가 여러 회사를 인수 병합을 진행하면서 위버스를 사용하는 아이돌과 팬이 늘어나고 있다. 이 앱을 통하여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이돌로 세븐틴(Seventeen)이 있는데, 멤버가 많은 데다 멤버 전원이 위버스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멤버의 글과 댓글 알림이 100개 이상 와 있는 경우도 많아서 팬들은 '세븐틴 단독방에 초대된' 느낌이 든다고도 한다.

'외국인 멤버를 통한 현지화' 또한 이미 많은 엔터테인먼트가 활용하고 있다. (여자)아이들의 멤버 민니는 태국 국적의 화교, 우기는 중국 출신, 슈화는 대만 국적을 가지고 있다. 갓세븐의 멤버 뱀뱀은 태국 국적, 잭슨은 홍콩 국적, 마크는 대만계 미국인이다. 이 외에도, 우주소녀, 프리스틴, CLC, NCT, 펜타곤 등의 아이돌이 있다. 트와이스(TWICE)의 경우는 일본인만 3명인데, 이는 주요 활동국가, 타겟 국가가 바로 일본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활동곡을 일본어로 바꾸어 싱글로 일본에 데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달리 트와이스는 일본 현지 스태프와 함께 오리지널 싱글을 제작하였다. 특히 일본 앨범 중 'Candy pop'은 한국의 트와이스와 일본의 트와이스를 구분하는 결정적 트랙으로 일본의 색이 강하다.²⁵⁾ 무엇보다 <그림 8>²⁶⁾과 같이 애니메이션과 결합한 뮤직비디오는 일본의 많은 애니메이션 팬들 또한 저격할 수 있었다. 이후 트와이스는 '한국인, 대만인 멤버가 있는 걸그룹'이라고 일본에 인식되며 일본 시장 진출에 성공하였다.

마지막 '해외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은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전략이 겹친다. 두 아이돌 그룹 모두

25) 최서원·임성준, 3세대 K-Pop 아이돌의 전략 분석 : EXO, 트와이스,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연구 제35호 4집,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9, 76쪽.

26) 출처: 트와이스, 'Candy Pop' 뮤직비디오

유명한 해외 아티스트와의 작업을 통해 현지 시장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그 성적은 다시 한번 아이돌의 인지도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해외 아티스트와 협업을 통해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면, 성공이라는 좋은 결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위 전략들은 특정 아이돌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가수들 또한 성공시킨 사례가 분명 있는 것을 보아, 위 세 가지 전략은 방향만 잘 잡는다면 다른 케이팝 가수들 또한 해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6.2. 특수적인 전략

다른 케이팝 아이돌 중에서도 유독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성공한 이유는, 그들만의 특별한 전략 때문이다. 그들만이 가진 이미지와 실력으로, 다른 아이돌도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략에서 그들만이 성공하는 ‘특수적인 전략’으로 변화하였다.

방탄소년단의 ‘스토리텔링 전략’의 포인트는 바로 ‘공감’이다. 사회적 문제를 바탕으로 응원과 희망을 이야기하며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쌓아 올린 이미지 덕분이다. 활발한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동떨어진 스타’가 아닌 ‘친구’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비슷한 일에 힘들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던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블랙핑크는 ‘친구 이미지’의 방탄소년단과 확연히 다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블랙핑크가 쌓아 올린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사람들의 동경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오직 ‘블랙핑크만이 소화할 수 있는 콘셉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콘셉트에 있어서 이를 소화하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급화 전략’이 성공할 수 있던 것이다.

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케이팝 진출 성공 대표자인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글로벌 성장 전략을 분석하였다. 방탄소년단은 ‘스토리텔링 전략’을 중심으로, 블랙핑크는 ‘고급화 전략’을 중심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었으며, 두 그룹 모두 공통적으로 ‘해외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성공 요인으로 두고 있다. 이 외에도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외국인 멤버를 통한 현지화 전략이 있다. 큰 성공의 중심이 된 ‘스토리텔링 전략’과 ‘고급화 전략’은 그들만이 이뤄낸 전략으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조사는 고작 100명의 대상과 제한된 문항 안에서 진행한 것이기에 더 많은 의견이나 전략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냈다. 다른 케이팝 아이돌 또한 ‘해외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외국인 멤버를 통한 현지화’ 일반적인 전략을 사용했지만,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처럼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강력한 한방’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케이팝 아이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전략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본인들만의 새롭고 특별한 이미지를 구축해야만 하며, 구축해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전략이나, 새로운 특별한 전략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영옥, 전설의 무대 아카이브 K, SBS, 2021. 3. 7.,
 <<https://programs.sbs.co.kr/enter/archivek/about/67377>>, 유튜브, 우리가요, ARCHIVE-K, [아카이빙각] Q. 세계로 가는 첫 관문?/A.대한민국!, 2021. 3. 20.,
 <<https://www.youtube.com/watch?v=s0nyHZY8IsI>>에서 재인용.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2021 해외한류실태조사, 2021.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음악 산업백서, 2020.
- 이민혜·권상집, K-POP 패러다임을 넘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한국형 문화 혁신에 의한 가치 창출, Korea Business Review 제25권 제1호, 한국경영학회, 2021, 57-77쪽.
- 정리해주는 남자, 방탄소년단 '마이크 드롭' MIC DROP (영상) 47개국 아이튠즈 1위, 티스토리, 2017. 11., <<https://xsns.tistory.com/935>>
- 최서원·임성준, 3세대 K-Pop 아이돌의 전략 분석 : EXO, 트와이스,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연구 제35호 4집,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9, 57-93쪽.
- 한국관광공사, 가장 선호하는 K-pop 스타 설문조사, 보도자료.
- 한국국제교류재단, 2020 지구촌 한류현황 III 유럽, 2020.
- 한국국제교류재단, 2020 지구촌 한류현황 II 아메리카, 202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케이팝,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BC%80%EC%9D%B4%ED%8C%9D&ridx=0&tot=14>>, 2021. 5. 20.
- 함현선, 블랙핑크 로제, 앨범 트랙리스트 공개... 실력과 해외 프로듀서 협업, 웨이코노미, 2021. 3. 21.,
 <<https://www.webeconomy.co.kr/news/article.html?no=109807>>
- 황혜진, 블랙핑크 리사, 태국 인도네시아 팬사인회에 상상초월 구름 인파, 뉴스엔, 2018. 8. 13.,
 <https://news.v.daum.net/v/20180813101038419?s=print_news>
- Ashlee Mitchell, 5 Rising Korean Artists To Know Now, Grammy awards news, 2021. 5. 31.,
 <<https://www.grammy.com/news/5-rising-k-pop-artists-know-now-stayc-enhypen-itzy-tomorrow-x-together-ateez>>
- Gary Trust, BTS Earns Highest-Charting & First Top 40 Hot 100 Hit for a K-Pop Group With 'MIC Drop', Billboard News, 2017. 12. 4.,
 <<https://www.billboard.com/pro/bts-mic-drop-k-pop-billboard-hot-100/>>
- Gary Trust, Blackpink Hits New Hot 100 High With Debut of Selena Gomez Collab 'Ice Cream', Billboard News, 2020. 9. 8.,
 <<https://www.billboard.com/pro/blackpink-hits-new-hot-100-high-ice-cream/>>
- Tyler Aquilina, BTS and Halsey's 'Boy With Luv' becomes highest Billboard Hot 100 debut for K-pop group, Billboard News, 2019. 4. 22.,
 <<https://ew.com/music/2019/04/22/bts-and-halsey-boy-with-luv-billboard-hot-100/>>



부캐(부캐릭터)의 활용 사례를 통한 성공적인 부캐 마케팅 홍보 방안 연구

글로벌경영학과 이선*

목 차

1. 서론
 2. 방송에서의 부캐 사례
 - 2.1. 놀면 뭐하니?
 - 2.2. 피식 대학과 빵송국
 3. 기업에서의 부캐 사례
 - 3.1. 빙그레
 - 3.2. 큰맘할매순대국
 4. 부캐 마케팅 홍보 방안
 - 4.1.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와 세계관
 - 4.2. 몰입할 수 있는 환경
 5. 결론
- 참고 문헌

1. 서론

부캐란 본래 게임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온라인 게임에서 본래 사용하던 계정이나 캐릭터 외에 새롭게 만든 부캐릭터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이후 일상생활로 사용이 확대되면서 '평소의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나 캐릭터로 행동할 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즉, 게임이 상황에 맞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여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의미로 부캐가 사용된다.¹⁾ 처음에는 방송에서 부캐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관심을 얻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캐는 하나의 장르가 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방송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²⁾. 이후 많은 사람들이 부캐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다 보니 기업은 이를 활용한 부캐 마케팅 전략을 사용한다. 특히 많은 식품업계 기업들이 부캐를 마케팅의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다. 부캐를 통해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부캐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방송과 기업의 부캐 사례들을 조사하여 이를 방송과 기업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많은 부캐들 사이에서 경쟁우위를 얻을 수 있는지를 분석해보고 부캐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멀티 페르소나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2. 방송에서의 부캐 마케팅

2.1. 놀면 뭐하니?

방송에서 부캐를 가장 잘 활용한 프로그램은 MBC의 <놀면 뭐하니?>다. 처음으로 드림에 도전하는 '유고스타'를 시작으로 트로트 신인가수 캐릭터인 '유산슬'로 인하여 부캐라는 것이 예능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후에 '썩쓰리' 프로젝트인 '유두래곤(유재석)', '린다G(이효리)', '비룡(비)'와 같은 부캐 등을 기획했다. 2020년 여름 썩쓰리의 열풍은 대단했다. 썩쓰리가 음악중심에 출연하자 작년 최고 시청률인 2.1%를 기록했다는 점과 썩쓰리 덕분에 '놀면 뭐하니?'가 2020년 7월 5주차 비드라마 부문에서 4.93%의 점유율로 4위에 올랐고 출연자 화제성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통해 부캐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재석, 이효리, 비는 국내에서 탑 연예인들로 이들이 모인 것만으로 충분히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원인으로 부캐의 역할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방송에서 부캐의 효과는 매번 같은 캐릭터를 보여주는 지루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캐릭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철저하게 자신의 본 캐릭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웃음을 유발한다. 김현식 평론가는 '부캐' 현상에 대해 "시청자와 출연자 간 일종의 거대한 '역할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걸 알면서도 시청자들이 속아주는 과정, 모두가 그 사람인 걸 아는데 아닌 척 천연덕스럽게 시치미를 떼는 연예인들의 모습이 웃음 요소로도 작용한다"라고 말했다.³⁾ 이로 인하여 시청자들은 새로운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되었을 것이 분명하고, 더 많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기성 방송인들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의 흥미를 돋우는 동시에 공감을 끌어내는 셈이다.⁴⁾

1) pmg 지식엔진연구소, 부캐, 박문각, 네이버 지식백과, 부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62926&cid=43667&categoryId=43667>>에서 재인용.

2) 김종은, 최준 ->매드몬스터, 개그계에 부는 부캐 열풍, 네이트 뉴스, 2021. 5. 13.,

<<https://news.nate.com/view/20210513n25608?mid=n1101>>

3) 김보영, 유산슬이 열고 린다G로 꽃피운 '부캐의 세계', 이데일리, 2020. 6. 1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92246625802704&mediaCodeNo=258>>

4) 김가연, [김가연의 시선 비틀기] '린다g', '다비이모'...방송가 부캐 열풍, 인기 이유는, 아시아경제, 2020. 8. 6.,



<그림 1> 왼쪽부터 유드래곤, 린다g, 비룡/놀면 뭐하니?에 나온 mbc 음악중심 '썩썩리' 캡처 사진

2.2. 피식 대학, 빵송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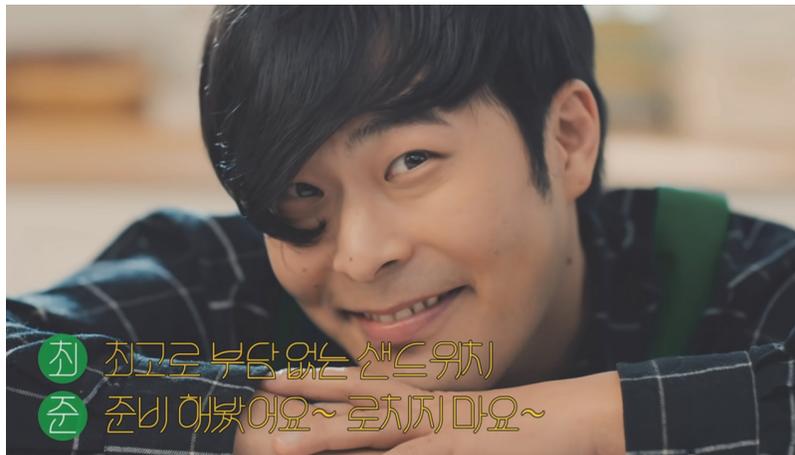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피식대학과 빵송국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 현재 세대는 개그콘서트가 아닌 '피식 대학과 빵송국'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들의 인기는 대단하다. 피식 대학은 kbs와 sbs 출신 공채 개그맨 3명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고 빵송국은 kbs 공채 개그맨 2명이 결성한 유튜브 채널이다. 처음엔 무명 개그맨들이라 300~400의 적은 조회 수만 나오던 이 채널들이 인기를 얻게 된 계기는 바로 부캐로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여러 가지 세계관을 가진 부캐를 만들고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한다. 진입 장벽이 낮은 유튜브 덕분에 사람들이 영상을 접하는 방법이 매우 쉽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영상을 보았고 sns로 입소문이 퍼져 많은 관심을 받았다. 콘텐츠 사례로 피식 대학의 'b대면 데이트'와 빵송국의 '매드 몬스터'가 있다. b대면 데이트는 코로나 19로 인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것을 활용한 콘텐츠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조합의 남자들과 비대면 소개팅을 진행하는 콘셉트로서 소개팅녀의 시점에서 각 인물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는 카페 사장 역할을 맡은 김해준이다. b대면 데이트에서 '최준'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독특한 헤어 스타일과 느끼하고 능글맞음을 보여주는 특이한 캐릭터이지만 사람들은 이런 특이한 캐릭터의 매력에 빠졌다. 유명한 최준의 유행어인 '준며들다(최준에게 스며들다)'를 보여주듯이 많은 광고 업체들이 광고 모델로 최준을 쓰고 있다. 써브웨이, 하이마트가 그 예시이다. 써브웨이는 최준이라는 캐릭터를 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특징을 제품과 연관 지어 캐릭터에 대한 관심을 제품으로 확장했다.⁶⁾ 본 광고는 무려 390만이라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성과 사랑을 받았다. 이로 인해 브랜드 제품을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에게 알렸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 호감도를 상승시켰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80611032317513>>

5) 추동훈, 김갑생할머니김 진짜 나왔다... 유튜브 모시는 광고업계, 매경프리미엄, 2021. 5. 15.,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1/05/30173/>>

6) 다량어, [모델 선정이 좋은 광고] 써브웨이: 최준의 노부담 로스트 치킨_철이 없었죠. 준이가 좋아 써브웨이로 식사를 하러 갔다는 게,,, 2021. 3. 18., <<https://adbite.tistory.com/320>>



<그림 2> 최준/ 서브웨이 광고 캡처 사진



<그림 3> 최준/ 하이마트 광고 캡처 사진

매드 몬스터는 방송국 콘텐츠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부캐이다. 방송국을 운영하는 광범과 이창호가 아이돌 부캐인 탄과 제이호라는 2인조 보이 그룹을 만들었다. 탄은 오디션에서 춤만 12시간을 보여주어 신발이 다 타버려서 이름이 '탄'이다.⁷⁾ 제이호는 하버드와 MIT 영어 교육과에 합격했으나 진학하지 않고 영어를 매우 잘하는 아이돌 캐릭터이다. 매드 몬스터는 '내 루돌프'라는 제목의 음원을 냈을 뿐 아니라 스노 앱 필터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얼굴을 보정한 뮤비도 찍었다. 이 뮤비는 조회 수가 600만 회가 넘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더 나아가 아이돌 그룹들이 하는 브이 앱과 같은 라이브 방송, 빙고 프리스타일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며 팬들과 소통한다. Mnet에서 방영 중인 음악 차트 프로그램인 '엠 카운트다운'에서 얼굴이 잘생겨지는 보정 필터를 넣어서 컴백무대도 했다. 정덕현 평론가는 “놀면 뭐하니?의 유재석 부캐들이 패턴화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다. 새로운 얼굴을 찾는 대중적 욕망이 있는 만큼 무명 개그맨들의 부캐에 대해 시청자들의 정서적 지지 현상도 생길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⁸⁾

7) 나무위키, 탄

〈[https://namu.wiki/w/%ED%83%84\(%EB%A7%A4%EB%93%9C%EB%AA%AC%EC%8A%A4%ED%84%B0\)](https://namu.wiki/w/%ED%83%84(%EB%A7%A4%EB%93%9C%EB%AA%AC%EC%8A%A4%ED%84%B0))〉

8) 이지영, 유재석, 김대희만 있나... 무명 개그맨 띄우는 유튜브 '부캐', 중앙일보, 2021. 3. 1.,

〈<https://news.joins.com/article/24002317>〉



<그림 4> 매드 몬스터 노래 '내 루돌프' 뮤비 캡처 사진



<그림 5> '엠카운트 다운' 매드 몬스터 공연 캡처 사진

3. 기업의 부캐 마케팅 사례

3.1. 빙그레

현재 빙그레는 빙그레 왕국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부캐 마케팅을 하고 있다. 처음은 인스타그램에서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빙그레우스)'라는 왕자님 캐릭터로 시작하였다. 웹툰에 나올 만한 그림체의 외모, 느끼한 왕자님 말투 등 캐릭터의 특징들은 충분히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했다. 빙그레우스 캐릭터로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은 빙그레는 꾸준히 자사의 상품과 관련한 다른 캐릭터를 만들고 있다. 빙그레 왕국 세계관 속에서 빙그레 제품들을 캐릭터화를 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빙그레 제품들을 광고하고 있는 것이다. '투게더리고리경(투게더)', '웅떼 메로나 부르장(메로나)'이 그 예이다. 이러한 부캐 마케팅을 통해 빙그레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기업을 소비자들에게 성공적으로 홍보했다. 빙그레우스 등장 전 인스타그램의 게시물당 월 평균 3천 개였던 인터렉션(좋아요+댓글 수) 수치는 등장 후에 8천 개로 2배 이상의 결과를 얻었고 팔로워 수도 9만 명에서 15만 명까지 늘었다. 식품 기업 인스타그램 중 가장 많은 팔로워 수와 인터렉션 수치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부캐 마케팅이 도움을 주었다.⁹⁾

9) 스파클인터랙티브, "내 안에 부캐 있다"... 부캐 마케팅 전성시대, 브런치, 2020. 9. 2.,



<그림 6> 빙그레우스/ '빙그레' 인스타그램 사진 <그림 7> 옹떼 메로나 부르장/ '빙그레' 인스타그램 사진

부캐 마케팅으로 크게 성공한 빙그레는 더 나아가 '패션 브랜드'를 만들었다. 빙그레 제품인 '꽃게랑'을 활용하여 해외 명품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패션 브랜드 '꼬뜨게랑'을 만들었다. 이 브랜드는 힙합 패션 브랜드로 MZ세대를 타깃으로 티셔츠, 가방, 선글라스 등 다양한 패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 브랜드가 빙그레에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부캐 마케팅을 통해 목표였던 '오래된 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젊고 변화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그림 8> 꼬뜨게랑/ '인스타그램' 사진

3.2. 큰맘할매순대국

큰맘할매순대국은 bhc가 운영하는 브랜드이다. 2020년 10월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큰맘할매순대국은 '순자'라는 부캐를 만들어서 순자의 일상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큰맘할매일기', '큰맘려의 고민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큰맘해결소' 등의 코너와 시즌 이슈를 접목한 메뉴 및 유머 콘텐츠를 운영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큰맘할매순대국 관계자는 "개인 관심사를 바탕으로 삶의

<<https://brunch.co.kr/@ny9176/12>>

영역을 확대하려는 라이프스타일이 정착하며 소비자들 역시 자신만의 부캐를 찾는 추세"라며 "식품·외식업계에서는 색다른 재미 요소로 브랜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소비 주체인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부캐 창출에 적극 동참하는 모양새"라고 전했다(10)



<그림 9> 순자/ 큰맘할매순대국 인스타 그림 사진

방송과 기업의 부캐 콘셉트가 시청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는 이유는 일상생활의 ‘멀티페르소나’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멀티페르소나란 ‘다중적 자아’라는 뜻으로, 개인이 상황에 맞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여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뜻하고, ‘페르소나’는 그리스 어원의 ‘가면’을 나타내는 말로 ‘외적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한다.¹¹⁾ 오늘날에는 심리학에서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성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¹²⁾ 과거에 가면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는 용도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재엔 그 사람의 숨겨진 또 다른 가능성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나 자신’을 뜻하는 Muself(단수)가 아니라 myselfs(복수)로 ‘다중 자아’로 진화하게 된다는 의미다. 하루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Z세대인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퇴근 후 자신의 정체성이 매우 다르고, 특히 현대인들은 취미 생활에 더 시간을 내 새로운 자신을 찾으려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멀티페르소나의 개념과 더욱더 가깝다.¹³⁾ 멀티페르소나의 형태는 sns를 통해 대중화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계정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 안에서 ‘더 진짜 나’를 보여줄 여러 계정을 만들어 활동한다. 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계정, 자신의 대외활동을 기록하는 계정 등 주제는 다양하다. 현재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은 과거와 다르다. 과거엔 이름, 직장, 대학 등으로 자신을 표현했다면 요즘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즉 정체성이 다원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MZ세대(1980년대~200년대 초반 출생)가 멀티페르소나를 쉽게 받아들이는 세대이다.

10) 임재인, bhc 큰맘할매순대국, ‘부캐 마케팅’으로 소통강화에, sr타임즈, 2020. 10. 26.,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6770>>

11) pmg 지식엔진연구소, 멀티페르소나, 박문각, 네이버 지식백과, 멀티페르소나, 2019. 12. 18.,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93772&cid=43667&categoryId=43667>>에서 재인용.

12)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20, 서울: 미래의창, 2019, 193쪽.

13) 신현지, 너도 나도 ‘부캐’ 만들기 연예계 강타한 ‘부캐’ 열풍, 서울시립대 신문, 2020. 7. 14.,

<<https://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2121>>

4. 부캐 마케팅 홍보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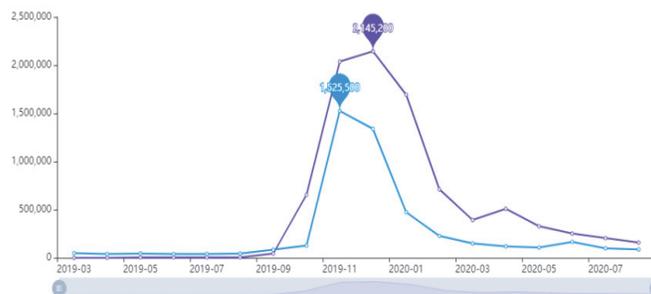
4.1. 캐릭터와 세계관

성공한 ‘부캐’들은 대부분 캐릭터 자체의 희소성과 그 캐릭터의 정체성을 백분 활용할 수 있는 기획력이 만나 빛을 발했다.¹⁴⁾ 또한 대부분의 부캐들은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활동한다. 세계관은 게임의 시나리오를 이루는 시간적, 공간적, 사상적 배경이다.¹⁵⁾ 요즘엔 세계관은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세계관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열광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세계관 구축은 중요하다. 세계관이 체계적으로 구축된다면 지속적인 관심을 끄는 것이 가능하다. 시간이 지나도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부캐의 열풍 속에서 많은 방송과 기업들이 부캐를 만들다 보니 캐릭터의 의미와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복잡한 설정과 세계관으로 만든 캐릭터를 선보이고 있다.

관련 사례로 인사혁신처에서의 핑수를 따라 한 캐릭터인 ‘핑수’가 있다. 이는 저작권법 논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정부 기관의 마스코트를 패러디 캐릭터로 만들었다는 것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또한 CJ제일제당은 햇반의 캐릭터로 ‘짬알이 패밀리’를 선보였고, 동원F&B는 ‘다량이’를 출시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방송의 경우에는 부캐끼리 세계관을 충돌시키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미 방송에는 너무 많은 부캐들이 있다. 이들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지게 두고 또 다른 부캐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부캐들의 세계관을 합쳐 신선한 재미를 주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디즈니의 마블처럼 세계관을 합치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에는 자사의 제품과 연관시킬 수 있는 부캐를 기획하고 실제 제품 출시와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캐를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기업의 제품이 떠오르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꾸준히 부캐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4.2.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우선 성공적으로 부캐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선 소비자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현재 소비자들은 단순히 하게 보기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들이 부캐의 스토리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 <놀면 뭐하니?>의 짹짹의 경우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룹명뿐만 아니라 각 멤버의 활동명까지 시청자들이 정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부캐에 몰입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아래는 핑수와 유산슬의 검색량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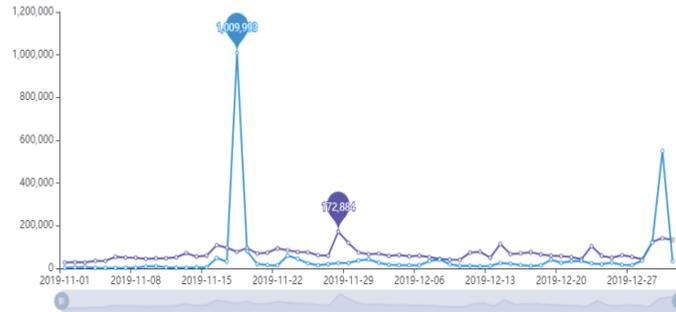


<그림 10> AI 마케팅솔루션 '마대리'를 통해 살펴본 핑수(보라색)와 유산슬(파란색)의 월별 검색량 그래프

14) 김보영, '가장 무도회'가 된 예능, 방송가 '부캐 열풍 왜?', 방송문화, 15권 4호, 한국방송협회, 2020, 245쪽.

15) 이재진, 게임용어사전: 기관/용어, 세계관, 2013. 12. 12., 네이버지식백과, 세계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28679&cid=42914&categoryId=42915>)에서 재인용.



<그림 11> AI 마케팅솔루션 '마대리'를 통해 살펴본 핑수(보라색)와 유산슬(파란색)의 일별 검색량 그래프

그래프에 보이듯 전반적으로 고르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핑수(보라색)보다 유산슬(파란색)이 엄청난 검색량을 얻게 된 순간이 있다. 파란색 표가 가장 높은 2019년 11월에는 ‘유산슬’이 아침마당에 출연했고 그다음으로 높은 2019년 12월에는 ‘유산슬’이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부캐를 선보이기 위해선 신선한 이벤트를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매번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선호한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새롭지 못하고 익숙한 것들은 잊힌다. 2019년 11월에 높은 검색량을 만들어낸 ‘핑수 굿즈(다이어리)’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또 부캐를 사람들이 익숙한 상황에 두어야한다. ‘아침마당’, ‘연예대상’은 일부러 만들어낸 가상의 상황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매우 익숙한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부캐를 연결한다면 자연스럽게 부캐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주게 되어 사람들이 부캐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5. 결론

부캐와 멀티 페르소나라는 개념은 갑자기 생겨난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항상 존재했던 표현이다. 부캐는 한국인들이 한 사람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⁶⁾ 과거와 다르게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마케팅 업계에서 2020년 소비자의



<그림 12> 핑수 다이어리 사진 / 교보문고

16) 정덕현, ‘부캐’의 세계가 열린다, 광고정보센터 매거진, 2020. 8. 13.,
 <<http://www.koreacf.or.kr/journal/column/show.do?ukey=542190>>

핵심 트렌드로 ‘멀티 페르소나’를 제시할 만큼 개개인이 지닌 다원성에 주목해야 한다. 부캐 마케팅의 핵심 소비자들은 현재 소비의 주축이 된 MZ세대이다. 이 세대는 디지털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아이디나 캐릭터의 개념에 익숙하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때문에 부캐를 받아들이기 매우 쉬운 세대다. 따라서 방송과 기업들은 다양해진 소비 형태와 이들의 트렌드에 주목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 부캐의 전망은 긍정적인 편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꾸준히 줄 수 있는 캐릭터와 세계관 그리고 이러한 부캐에 몰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조화롭게 작용한다면 마케팅의 측면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멀티페르소나의 시대, 인간의 다원성은 확장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정체성의 기반은 매우 불안정해졌다.¹⁷⁾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의 어떤 욕망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런 욕망이 미래에 어떤 또 다른 트렌드를 만들지 고민하고 예측해야 한다

참고 문헌

- 김가연, [김가연의 시선 비틀기] ‘린다g’ ‘다비이모’... 방송가부캐열풍, 인기 이유는, 아시아경제, 2020. 8., 6.,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80611032317513>>
-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20, 서울: 미래의창, 2019.
- 김보영, ‘가장 무도회’가 된 예능, 방송가 ‘부캐 열풍 왜?’, 방송문화, 15권 4호, 한국방송협회, 2020, 240-246쪽.
- 김보영, 유산슬이 열고 린다G로 꽃피운 ‘부캐의 세계’, 이데일리, 2020. 6. 1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92246625802704&mediaCodeNo=258>>
- 김중은, 최준 ->매드몬스터,개그계에 부는 부캐 열풍, 네이트 뉴스, 2021. 5. 13., <<https://news.nate.com/view/20210513n25608?mid=n1101>>
- 김지민·장준서, 범람하는 ‘부캐’의 세계... 언제까지 주목받을까?, 매거진 한경, 2020. 9. 1.,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009010144b>>
- 다랑어, [모델 선정이 좋은 광고] 서브웨이: 최준의 노부담 로스트 치킨_철이 없었죠. 준이가 좋아 서브웨이로 식사를 하러 갔다는게,,, 2021. 3. 18., <<https://adbite.tistory.com/320>>
- 마대리매거진, 멀티 페르소나- 부캐 마케팅을 위한 3단계 비즈니스 전략, 네이버 블로그, 2020. 9. 24., <<https://blog.naver.com/datamarketing/222098368028>>
- 백지우·정서현·채은주, 2020 마케팅 트렌드: 멀티 페르소나, 마케팅 54권 4호, 한국마케팅연구원, 2020, 56-63쪽.
- 스파클인터랙티브, “내 안에 부캐 있다”... 부캐 마케팅 전성시대, 브런치, 2020. 9. 2., <<https://brunch.co.kr/@ny9176/12>>
- 신현지, 너도 나도 ‘부캐’ 만들기 연예계 강타한 ‘부캐’ 열풍, 서울시립대 신문, 2020. 7. 14., <<https://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2121>>
- 이지영, 유재석, 김대희만 있나... 무명 개그맨 띄우는 유튜브 ‘부캐’, 중앙일보, 2021. 3. 1., <<https://news.joins.com/article/24002317>>
- 임재인, bhc 큰맘할매순대국, ‘부캐 마케팅’으로 소통강화, sr타임즈, 2020. 10. 26.,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6770>>
- 정덕현, ‘부캐’의 세계가 열린다, 광고정보센터 매거진, 2020. 8. 13., <<http://www.koreacf.or.kr/journal/column/show.do?ukey=542190>>

17)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20, 서울: 미래의창, 2019, 193쪽.

추동훈, 김갑생할머니김 진짜 나왔다... 유튜버 모시는 광고업계, 매경프리미엄, 2021. 5. 15.,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1/05/30173/>〉

참고 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나무위키 〈<https://namu.wiki/>〉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 활용 방안 연구

지능데이터융합학부 정지*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정보취약계층의 의미
 - 2.2 정보취약계층의 범위
 3.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 현황
 - 3.1 노인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술 현황
 - 3.2 장애인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술 현황
 4.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 문제
 - 4.1 노인의 간편결제 서비스 기술 문제
 - 4.2 장애인의 키오스크 기술 문제
 5.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 방안
 - 5.1 노인을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기술 마련
 - 5.2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의 기술 마련
 6. 결론
- 참고 문헌

1. 서론

대부분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또, 빅데이터가 삶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고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 사람들은 빅데이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을까? 이 빅데이터에 경각심을 알리고자 한다.

아날로그 환경에서 생성되던 데이터에 비해 빅데이터는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이다.¹⁾ 현대인들에게는 뭘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인터넷은 수많은 데이터를 남기게 된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그만큼 인터넷 사용이 많아질수록 빅데이터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는 것도 당연하다.

현재의 빅데이터 환경은 과거와 비교해 데이터의 양은 물론 질과 다양성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²⁾ 이런 관점에서 빅데이터는 산업혁명 시기의 석탄처럼 IT와 스마트 혁명 시기에 혁신과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다.(Mckinsey, 2011)

2015년 이후 pc와 모바일 사용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남기는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쇼핑으로 예를 들어볼 수 있다. 예전에는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만 데이터가 저장되었다. 반면 현재는 물건을 사지 않았더라도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어떤 상품을 찾고 있고, 무슨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얼마 동안 그 사이트에 머물렀는지도 다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 은행과 같은 금융거래, 자료 검색, 이메일 등 하루의 대부분을 인터넷과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정보가 폭발하는 이유이다.

또한, 이런 인터넷이나 pc 데이터 같은 민간분야 이외에 공공분야에서도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센서와 기상청으로부터 수집한 기후 데이터, 병충해 등의 정형 데이터와 웹의 병해충 관련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여 병해충의 발생 경위와 정보를 공유한다.³⁾ 또 농민들에게 농약 살포 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외에도 CCTV, 무인항공기, 스마트폰, 인공위성 영상 등을 통해 재난 상황을 조회하고 실시간 트윗 정보, 과거 재난 이력, 시뮬레이션 등을 빅데이터 메뉴로 분류하여 예방, 대응, 복구 등에 있어 과학적 재난 관련 수행도 지원한다.

이처럼 데이터 없이 정보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정보화의 혜택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받는 것은 아니다. 즉,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정보격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민간 기업은 물론 공기업까지 사람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늘리면서 '디지털 정보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 즉, 정보취약계층의 불이익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취약계층의 의미

정보격차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하는 현상이다.⁴⁾ 여기서 그렇지 못한 자를 정보취약계층이라고 정의한다. 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1) 정용찬, 빅데이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네이버 지식백과, 빅데이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91554&cid=42171&categoryId=42183>>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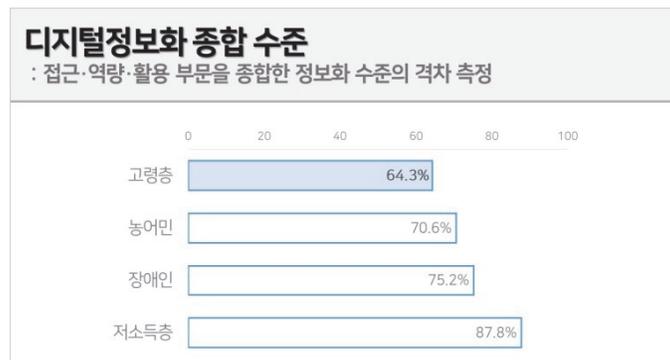
2) 위의 글.

3) 비비디바비디님의 블로그,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11종

정보 사회 이전의 사회에서도 계속 제기되어 왔던 심각한 문제지만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정보 격차는 사회 불평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보화가 이루어지면서 연령이나 연봉, 학력, 직업, 거주지 등의 차이에 따라 정보의 접근에 한계가 생긴다. 또, 정보격차는 기술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낼 때, 일반적으로 장애인, 노인 등 물리적, 인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다.

2.2 정보취약계층의 범위

〈표 1〉 정보화 수준의 격차 측정5)



〈표 1〉을 보면 결과적으로 정보취약계층은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64.3%로 가장 낮다. 이 글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범위를 노인, 장애인으로 좁혀볼 것이다.

3.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 현황

3.1 노인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술 현황

노인은 다른 연령에 비해 다양한 보건 의료 문제에 노출된다. 즉,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질환을 가지고 사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집중형 건강관리 모형을 도입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공단의 전 국민 보건의로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건강관리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로·복지 서비스로 연계,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 실증·보완하기 위해 실시된다.6) 노인 집중형 건강관리 모형 대상자 유형은 크게 △건강증진·기능유지군 △만성질환군 △퇴원하는 이행기 환자군 △요양병원 장기입원군 △입원 치료 반복군 5가지로 분류된다.7) 집중형 건강관리 모형의 장점은 기존에 인지하지 못한 건강위험을 가진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

4) 두산백과 두피디아, 정보 격차, <<https://www.doopedia.co.kr/>>, 네이버 지식백과, 정보 격차,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01081&cid=40942&categoryId=32828>>에서 재인용.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2019.
 6) 김은영, 공단,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본격 추진...대상자 발굴 나서, 청년의사, 2018. 8. 29.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762>>
 7) 김대영, 7월부터 빅데이터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실시, 한의신문, 2019. 5. 30.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113>

다. 또한,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이를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도 없다는 점에서 유일하다.

보도자료
5월 31일(금) 조간(5:30, 12:00 이후 보도)

발 표 일	2019. 5. 30. / (총 11개)	담당부서	케어나타케어추진단
단 장	임 호 권	전 화	044-202-3690
담당자	최 의 령	전 화	044-202-3691
		전 화	044-202-3692

빅데이터 활용해 대상자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한다

- 7월부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실시 -

-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지역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실시
 -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 건강검진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전문기관 구성원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개발 협의체' 운영을 통해 노인 및 장애인 모형 개발
 - 노인 모형은 5개 유형, 장애인 모형은 7개 유형으로 분류
 - (노인형) ① 건강증진-기능유지군, ② 만성질환군, ③ 퇴원하는 이환기 환자군, ④ 요양병을 장기입원군, ⑤ 입원후로 반환군
 - (장애인형) ① 만성질환관리군, ② 평가-강진필요군, ③ 생애주기 건강관리필요군, ④ 재활중립필요군, ⑤ 재활중립 및 만성질환 관리군, ⑥ 재활이요기관 퇴원예정군, ⑦ 시급회소예정군
- 노인-장애인 모형에서 지자체가 희망하는 대상자 유형을 선택해 서비스를 실시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
 - 사전 개인정보 활용 동의 획득, 정보 제공범위 최소화, 별도 정보관리 지침 및 대상자 동의 철회장치 마련 등
- 전 국민 보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건강관리 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보건 의료-복지 서비스 집중 제공을 통한 건강관리 패러다임 전환 기대

OPEN | 119 | 129

<그림 1> 집중형 건강관리 모델8)

‘케어닥’은 올해 간병인 매칭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보험사 등과 협업해 노인 돌봄과 연계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였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수도권과 부산 중심이었던 매칭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보험사, 헬스케어 기업 등과 제휴해 노인 건강관리 영역까지 사업 분야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케어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요양원과 요양 시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검증된 간병인을 매칭함으로써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9)



<그림 2> 케어닥10)

활동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경우 교통사고가 잦다. 실제로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빅데이터 활용해 대상자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한다, 2019. 5. 30.

9) 변은영, [스타트업 소식] 케어닥, 다방, 아놀자 외, 데일리팝, 2020. 7. 9.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45863>>

10) 케어닥 홈페이지 <<https://carecoordi.kr/>>

의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그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57.06%가 노인이었다. 이에 울산시는 노인보호구역 입지선정과 관련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였다.¹¹⁾ 노인복지시설, 교통사고, 유동인구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인보호구역 우선 선정지역 100곳을 도출해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활용하였다.¹²⁾



〈그림 3〉 노인 보호구역¹³⁾

2020년, 경북도는 음성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시스템으로 독거노인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는 사업을 추진 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노인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현황에는 건강증진이나 안전을 위한 기술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3.2 장애인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술 현황

장애인용 셔틀버스의 최적 노선을 산출하는 데도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장애인과 노령층이 무료로 이용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80% 이상이 고령층이었다. 그래서 서울시는 신용카드사의 장애인 복지 카드가 결제된 장소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주로 가는 장소와 위치를 알아낸 후 노선과 정류장을 바꾸었다고 한다.



〈그림 4〉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노선¹⁴⁾

- 11) 이상길, 빅데이터 활용 노인보호구역 입지선정, 울산제일일보, 2021. 1. 6.,
 <<http://www.uje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364>>
- 12) 박미영, 울산시, '교통 빅데이터' 맞춤형 행정 적극 활용, 보안뉴스, 2021. 1. 1.,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93898>>
- 13) 이상문, 울산시 오는 2022년까지 노인보호구역 128개소 확대 지정, news1 뉴스, 2019. 3. 36.,
 <<https://www.news1.kr/articles/?3580034>>
- 14) 고영득, 서대문구, 장애인 복지지도 제작···화장실·셔틀버스 알려줘, 경향신문, 2020. 9. 23.,
 <<https://m.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009231039001#c2b>>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안내방송이나 대피 방송은 거의 음성으로 제공된다. 하지만, 청각장애 인들은 이를 들을 수 없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음성을 문자로만 바꿔 표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청각장애는 대부분 선천적이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닌 수어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어 사용 실태조사’(2017) 결과, 청각장애인의 26.9%가 문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응답자도 42.6%나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지난해부터 청각장애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문자와 함께 수어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안내방송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수서와 동탄, 지제 등 총 3개 SRT 고속철도역사와 SRT 열차 내 응급 음성 안내방송이 제공되고 있다.¹⁵⁾ 앱 사용자가 SRT 역에 방문할 경우 위치 정보를 통해 수어 안내 여부를 물어보며, 사용자가 직접 안내받을 시설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는 ‘사회 현안 해결 지능 정보화 사업’의 2020년 계속 과제로, 2019년 SRT 열차에 적용한 ‘청각장애인 지능형 문자-영상 변환 안내 서비스’를 다중이용시설로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2년 연속 추진하고 있다.¹⁶⁾



〈그림 5〉 스마트폰에 응급 안내 수어가 표출되는 모습

장애인들은 대부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다. 하지만 자동응답 전화(ARS)에 신청이 많아지면 하염없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 하지만 스마트폰 앱이 나오면서 자동으로 배차가 이루어지고 차량의 위치, 도착 예정 시간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앱이 가능해진 것은 콜택시를 운영하며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기시간 예측 서비스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신청자에게 맞는 차량 유무와 대기 순서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차량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도 이루어진다. 이후 대기시간이 기존 상담원이 직접 차량을 배차할 때 걸리던 27.4분보다 3분가량 단축되었다.¹⁷⁾ 또한, 전화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15) 디지털팀, AI 청각장애인의 ‘귀’가 되다, 조선일보, 2021. 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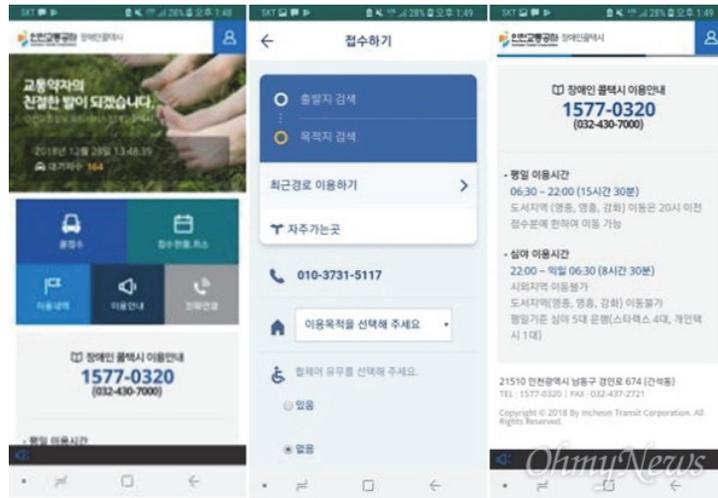
<https://www.chosun.com/special/future100/fu_general/2021/01/06/TNMPFKS2NJGDFISWIJFELBSB4Q/>

16) 이인경, SR, 역사 내 수어영상 응급안내 서비스 시범 운영, 레일앤뉴스, 2020. 9. 11.,

<<http://www.railn.kr/news/articleView.html?idno=778>>

17) 원낙연, 빅데이터, 장애인삶 불편 줄여주는 ‘최첨단 효자’네, 한겨레, 2016. 2. 1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9800.html>



〈그림 6〉 장애인 콜택시 스마트폰 앱¹⁸⁾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의 현황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 대중교통에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교통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많다. 하지만 수도권에 집중되거나 아직 많이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4.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 문제

4.1 노인의 간편결제 서비스 기술 문제

요즘은 ‘현금 없는 사회’로 불리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수많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를 애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면 편안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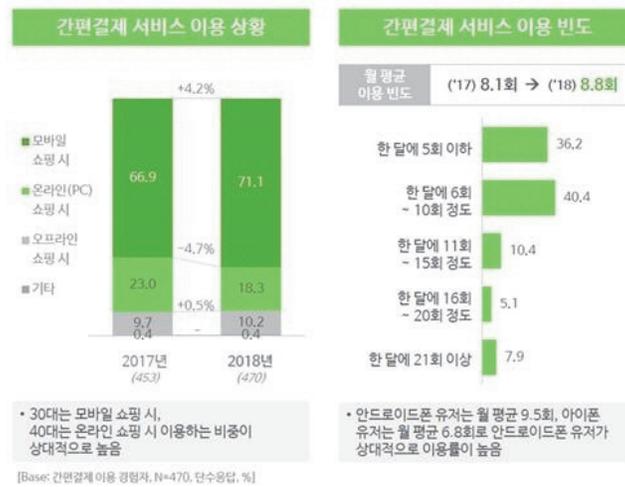


〈그림 7〉 간편결제 서비스 중 ‘카카오페이’¹⁹⁾

18) 이한기, 인천시, “장애인 콜택시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세요”, 오마이뉴스, 2019. 1. 1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6579〉

19) 이재은, “노인은 더 비싼 값 치르세요”... ‘실버택스’, 머니투데이, 2019. 3. 12.,

〈표 2〉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설문



〈표 2〉를 보면 월평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빈도가 8.8회나 된다. 주로 모바일 쇼핑을 할 때 서비스를 이용한다.

시장조사기관 오픈서베이에 따르면 만20~59세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 4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3%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삼성페이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89.3%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페이도 89.1%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 ‘편리함’(74.0%·중복응답)을 꼽았다. ‘추가 혜택이 많아서’라는 응답도 38.9%로 뒤를 이었다. 오픈서베이는 “네이버페이와 페이코는 ‘추가 혜택’ 때문에, 삼성페이는 ‘신뢰도’와 ‘많은 가맹점 수’ 때문에 이용되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밝혔다.²⁰⁾

간편결제 데이터는 가장 양질의 데이터라 할 수 있다. 결제 정보로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는 빅데이터가 많이 누적될수록 개인 맞춤형 마케팅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노인들의 일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빠르게 사회가 정보화되어 가고 있지만, 노인들은 그 속도를 쉽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간편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서비스가 보편화되어가고 있지만, 노인층들은 이 모바일 지급 서비스에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바일 지급 서비스를)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응답했다. 그래서 대부분 노인층들은 오프라인에서 현금을 사용해 결제를 주로 한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만 파는 ‘온라인 전용 물품’이 있다. 또한, ‘쿠팡’, ‘11번가’와 같은 쇼핑 앱에 제공되는 할인이나 적립을 이용해 물건을 더 싸게 살 수도 있지만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의 혜택도 쉽게 받지 못한다. 온라인으로도 직접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물품 금액을 입금하는 ‘무통장 입금’의 방법을 이용하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기기를 조작하여 배송을 시키는 것도 어렵고, 심지어 그 입금의 방법을 지원하는 곳도 점점 사라지는 추세이다. 이렇게, 같은 상품을 젊은 층보다 더 비싸게 지불하는 것을 ‘실버텍스(Silver Tax)’ 현상이라고 부른다.²¹⁾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기본적인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는 노인층에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림의 떡’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31112580394707>〉

20) 손지영,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8명 ‘만족도 높아’, 매일경제, 2018. 11. 18.,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8/11/721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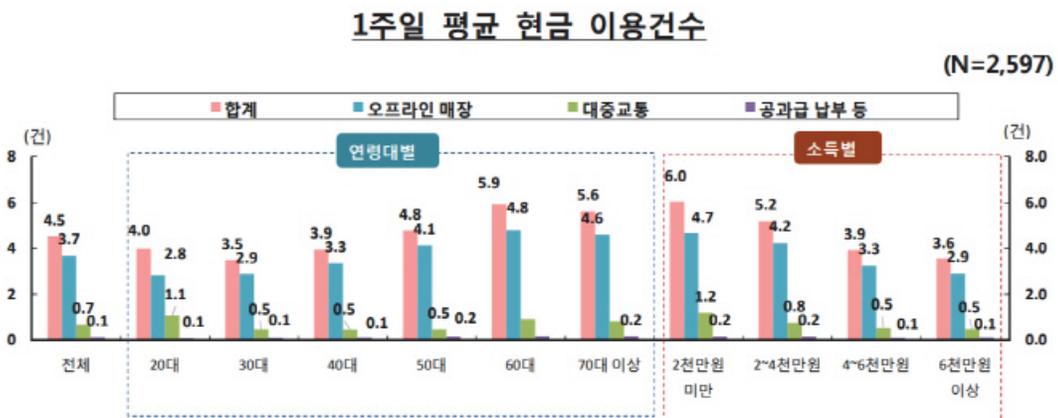
21) 이재은, 앞의 글.

〈표 3〉모바일 금융 서비스 연령별 이용경험 비율



〈표 3〉을 보면 60대 이상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은 약 10%밖에 되지 않는다. 10명 중 1명이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아 보일 수 있지만 20~30대의 경우 약 80%로 이용 경험 비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연령별 1주일 평균 현금 이용 건수



〈표 4〉를 보면 노인층의 현금 사용량은 여전히 높았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 시점에서 지갑 속에 있는 현금 보유액을 조사해 보니 60대 고령층은 평균 10만 3,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²²⁾ 20대의 현금 보유액이 4만 4,000원이었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²³⁾ 여러 문제점을 보아,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정보취약계층을 배려하지 않고 제공한다면, 정보격차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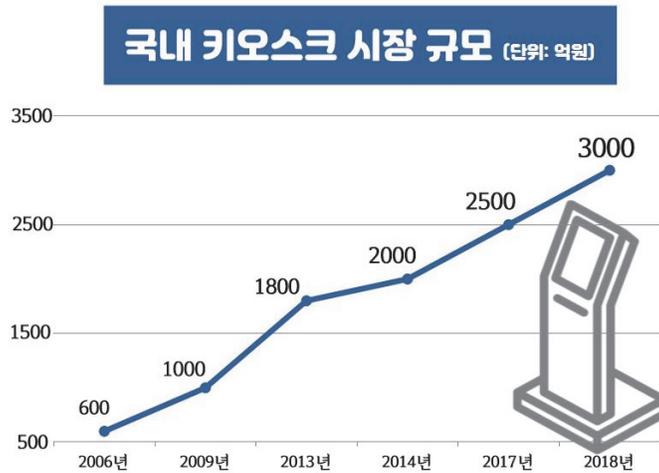
4.2 장애인의 키오스크 기술 문제

무인화 사회가 오면서 ‘언택트(untact)’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 많은 무인화 기계들이 도입되었다. 그중,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한 키오스크 기술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22) 김정현, 간편결제? 못 들어봤다...현금사용 주 6회” 노인 간편금융 소외 여전, 이데일리, 2019. 5. 1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30166622487608&mediaCodeNo=257>

23) 위의 글.

〈표 5〉 국내 키오스크 시장 규모의 증가²⁴⁾



〈표 5〉를 보면 키오스크의 사용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키오스크 기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피할 수 없게 이용해야 할 것이다. 키오스크는 외식 산업을 넘어 영화관, 교통, 편의점 등의 다양한 업계로 차츰 사용구역을 넓히고 있다. 심지어 무인 판매점이 늘어나고 있어 그 계산을 맡아줄 키오스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림 8〉 롯데리아의 셀프 오더 타임

〈그림 8〉을 보면 사람 대 사람으로 주문하는 방식을 아예 취급하지 않고 키오스크를 이용해야만 하는 음식점들도 증가하고 있다. 신영증권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롯데리아는 전국 1,350개 매장 중 826곳(61.1%)에, 맥도날드는 전국 420개 매장 중 250개 매장(59.5%)에 키오스크를 뒀다, KFC는 전국 모든 매장에 도입했다.

24) 유근범, 무인화 시대,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명대신문, 2019. 11. 25.,
 <<https://news.mju.ac.kr/news/articleView.html?idxno=4994>>



〈그림 9〉 ‘장애인 접근성’ 고려 키오스크

〈그림 9〉를 보면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해서 만든 키오스크는 21곳 중 1곳으로 매우 적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발급용 기기 같은 키오스크는 전체의 약 59%, 은행 자동화기기에서는 약 93%의 기기가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돼 있긴 하지만 이 둘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철도공사나 공항 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기차역과 공항에 설치된 키오스크 대부분은 장애인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전국 공항에 설치된 175대의 기기 중 장애인이 쉽게 쓸 수 있는 기기는 단 4대뿐이다.²⁵⁾

키오스크의 사용은 기계 조작에 서툰 장년층이나 노년층에도 불편함이 크다. 더욱이, 신체적인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키오스크는 단지 ‘유리 벽’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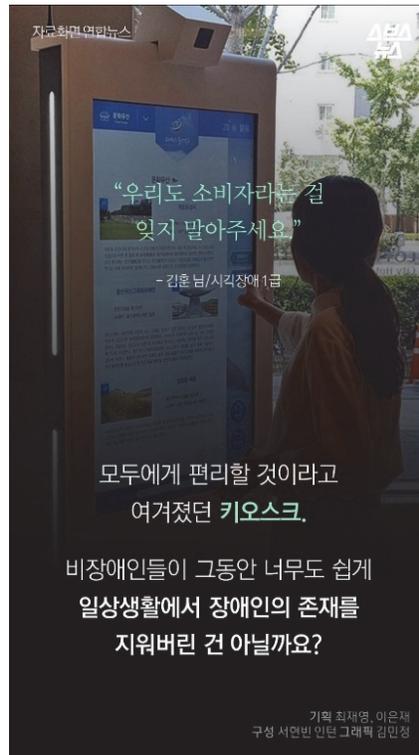


〈그림 10〉 청와대 국민청원²⁶⁾

〈그림 10〉과 같이 “언택트 흐름이 점점 거세지고 이 시국에 저희 같은 기술 소외계층은 도대체 어디에 고충을 호소해야 합니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삶의 질은 역발전하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세상을 언제까지 살아내야 한단 말입니까.”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달라지는 건 딱히 없었다.

25) 박현철, 편리한 키오스크의 역설: 디지털 소외계층, 송대시보, 2019. 3. 4., <<http://www.ss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856>>

26) 백민, ‘키오스크로 단절된 일상’ 시각장애인 호소, 에이블뉴스, 2020. 12. 16.,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1216093312884762>>



〈그림 11〉 키오스크의 숨겨진 모습²⁷⁾

시각장애인들은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메뉴와 가격도 알 수 없고, 어느 곳을 터치하고 어떤 것이 터치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그림 12〉 키오스크 이용: 휠체어 사용자²⁸⁾

또한, 〈그림 12〉와 같이 휠체어 사용자에게 키오스크는 너무 높기에 손에 닿기 너무 어렵다. 아무리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상이지만 정보취약계층을 배려하지 않는 기술은 달갑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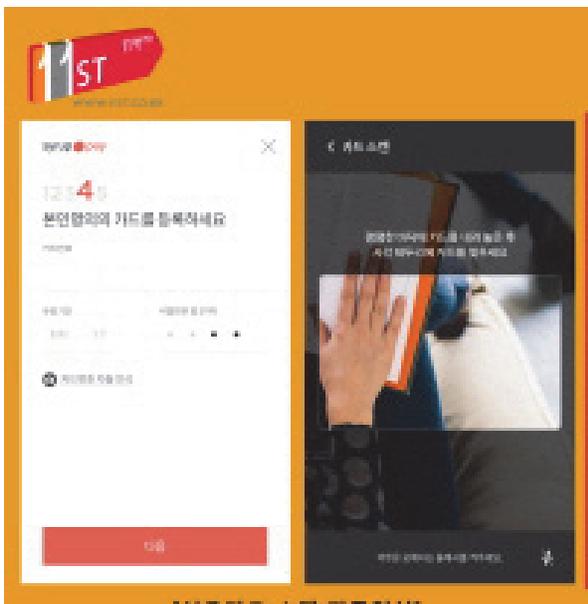
27) 서현빈·이은재·최재영, “이거 편하세요?”... 장애인 배려 없는 키오스크 ‘불편한 진실’, SBSNEWS, 2017. 10. 1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34780>

28) 박현철, 앞의 글,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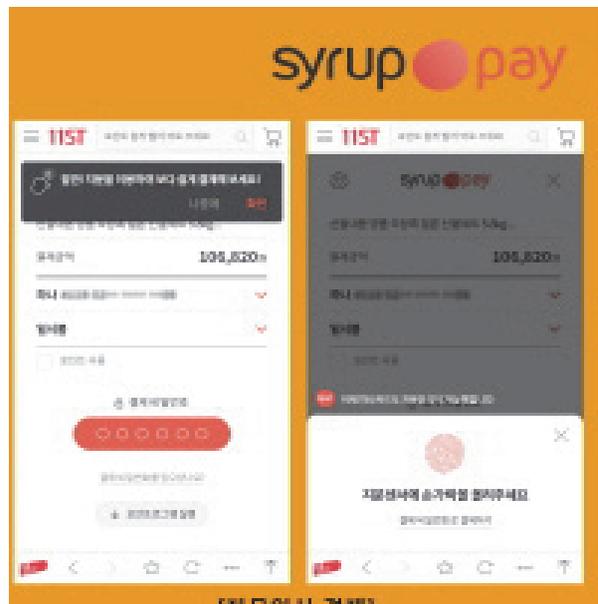
5.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 방안

5.1 노인을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기술 마련

노인을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기술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때, ‘그냥 현금을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더 큰돈을 주고 살 가능성이 크고, 키오스크에는 대부분 현금을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같은 사회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아무리 서비스를 만든다고 해도 이미 현금 사용에 습관화된 노인층들은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대부분 노인층은 고유한 것을 계속 가져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좀 더 편한 간편결제 서비스 대신 더 불편하더라도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편함’으로 노인층들의 이목을 끌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금 사용보다 간편결제 서비스가 어떤 점으로 이목을 끌어 사용하게 할지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방안으로 우선 ‘실버페이’라는 이름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만들고, 현금 사용보다 더 유리한 혜택들을 그 속에 집어넣는 것이다. 60대 이상 노인층들에 우편으로 체크카드를 하나씩 제공하고, 그 우편 속에 간편결제 서비스가 현금 사용보다 좋은 점을 나열한다.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는 1,000원에 파는 과자 ‘000’을 오프라인에선 1,500원에 팔고 있어요.’, ‘실버 페이를 이용하면 오프라인의 상품들도 종류와 관계없이 다 살 수 있어요.’, ‘실버 페이를 통해 첫 구매 시, 가격과 품목에 상관없이 5000원을 할인해드려요’ 등을 출력하여 동봉한다. 또, 이런 간편결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해당하는 앱도 설치해야 하고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계 조작에 능숙하지 못한 노인층들이 많기 때문에 ‘실버페이’ 사용 설명서를 실제 앱 실행 화면을 인쇄하여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설명서가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앱을 설치한 후에 음성 안내를 이용해 주세요’라는 문구도 우편에 같이 동봉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이나 카드를 등록할 때에는 앱에서 자동으로 설명하는 소리가



〈그림 13〉 간편결제 서비스 카드 등록29)



〈그림 14〉 간편결제 서비스 결제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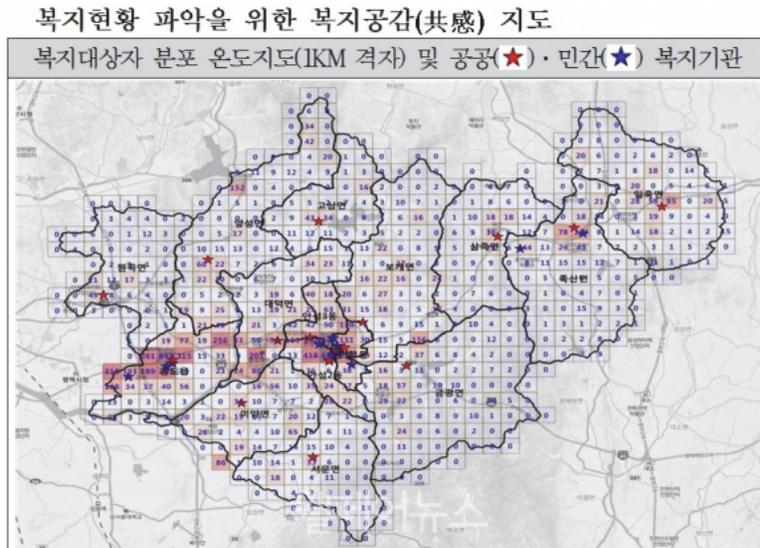
29) 배윤경, 진화하는 간편결제..신용카드 사진 찍어 등록하고 지문으로 결제, 매일경제, 2016. 5. 16.,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6/05/349600/>〉

30) 배윤경, 앞의 글, 2016.

나오게 한다. 예를 들면 처음 ‘실버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안내 음성을 원하신다면 소리를 키워주세요. 원하시면 확인 버튼을, 필요 없으시다면 거절 버튼을 눌러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사용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 후부터 “계정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라는 등의 안내 음성을 제공한다. 또한, ‘실버 페이지’를 이용할 때, 노인층들이 주로 구매하는 품목 데이터를 미리 수집...분석하여 실버 페이지를 이용해 구매할 경우 품목에 할인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서비스를 마련한다. 원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층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맞춤 데이터가 많이 모여 있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그렇게 시작한 뒤에 실버 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면 동시에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며 품목을 계속 추가해 나간다. 데이터를 빠르고 많이 수집하기 위해 ‘실버 페이지’로 첫 구매를 할 때 가격에 상관없이 5,000원을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또, 카드 등록을 할 땐 보통 카드번호, 카드 유효 날짜 등 입력해야 할 것이 많다.

〈그림 13〉과 마찬가지로 카드를 더 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게 카메라로 카드를 인식하여 모든 번호를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는 서비스로 도입해야 한다.

또, 결제할 때도 가장 간편한 지문인식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한 번에 결제가 되도록 돕는다.



〈그림 15〉 복지 사각지대를 찾기 위한 복지 공감 지도³¹⁾

그러나 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림 15〉처럼 여러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복지혜택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내는 것처럼, 60대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스마트폰이 없는 노인을 찾아내어 스마트폰을 제공해드린다. 그러기 위해 이 간편결제 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 서비스 기대효과는 노인층과 청년층, 중장년층의 세대 간극을 줄일 수 있다. 여러 공통 대화 주제들이 생길 것이고, 노인층들도 정보화된 삶에 같이 살 수 있다. 또, 이 간편결제 서비스가 상용화된다면 노인분들이 자주 구매하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상품을 만들려는 노력이 많아진다. 그러면 새로운 기업들이 많아져 청년층의 취업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

31) 정두리, 복지사각지대, 빅데이터로 빈틈없이 찾아낸다, 웰페어뉴스, 2019. 1. 25.,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7444>〉

5.2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기술 마련

먼저,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 점자 키패드와 음성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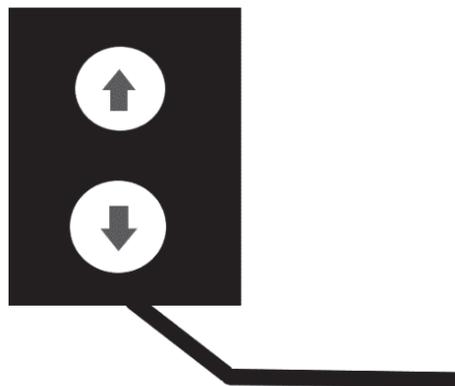


〈그림 16〉 점자 키패드³²⁾

〈그림 16〉과 같은 점자 키패드를 키오스크 하단에 공간을 추가하여 설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글씨를 확인할 방법은 오직, 점자만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아무 점자나 누르면 인식하여 음성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메뉴로 떡볶이를 선택했다면 “떡볶이를 선택하셨습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 메뉴를 드릴까요?”라고 음성으로 나오면 점자를 이용해 ‘확인’을 누르면 주문이 되는 등의 모든 안내 사항을 음성 서비스로 도입하여 확실한 주문을 돕는다.

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키오스크에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리모컨과 레일을 마련한다.

키오스크와 연결된 높이 조절 리모컨



〈그림 17〉 키오스크 높이 조절

32) 장우리, ‘손끝의 편리함’ 무인단말기, 시각장애인은 못닿는 ‘유리벽’, 연합뉴스, 2019. 10. 13.,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2049300004>>



〈그림 18〉 키오스크 레일의 모습

↑ 버튼을 누르면 레일을 따라 올라가고, ↓ 버튼을 누르면 레일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다.



〈그림 19〉 키오스크 옆모습과 호출 벨

이렇게 키오스크 옆에 리모컨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그곳에 리모컨을 꽂아 둔다. 또, 휠체어 사용자 뿐만 아니라 키오스크의 조작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호출 벨을 두고, 해당 직원이 와서 키오스크의 사용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0〉 키오스크 글씨 크기 조절

또한, <그림 20>처럼 글씨를 더 크게 볼 수 있게 +, - 버튼을 둔다.

키오스크에 각종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얻는 기대효과는 장애인들도 더 주문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즉, 키오스크 앞에 소외된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6. 결론

빅데이터는 신제품의 경쟁력을 예측하고, 각종 위험을 미리 점검하여 예방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이 있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민간 분야 이외에 공공분야에도 빅데이터 기술은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정보취약계층이 있다. 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이 있으며 해당 학술적 예세이는 노인, 장애인으로 좁혀 보고 있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기술에는 집중형 건강관리 모델, 케어닥, 노인보호구역 설정, 장애인 셔틀버스 노선도, 장애인 콜택시 앱, 지하철 안내방송 수어 애니메이션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필요한 기술들이 많다. 하지만, 발전되는 빅데이터 기술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도 많다. 예를 들어, 간편결제 서비스가 많이 상용화되면서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노인층들이 겪을 수 있는 소외나 불편, 키오스크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주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심각한 문제 상황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로 실버 페이저 도입하고, 키오스크에 점자 키패드를 추가하거나 키오스크 높이 조절 리모컨 마련, 글씨 크기 조절, 호출 벨과 같은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방안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정보격차의 문제들은 더 많을 것이다. 즉, 아직 빅데이터를 이용해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마련할 수 있는 기술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보에 소외되고 있는 계층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모두에게 필요한 안목이다. 쉬워 보일 수 있으나 그렇게 입장 바꾸어 생각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다. 쉽지 않은 만큼 더욱 노력해야 한다. 어떤 점에 불편을 겪고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것은 정보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의 몫이다. 물론, 정보취약계층이 내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문제 상황에 해결책을 주는 것도 정보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의 몫이다. 우리가 평소애 별생각 없이 편하게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겐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소외되는 계층이 있다면 그 소외를 막을 수 있게 또 다른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정보취약계층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빅데이터 기술들이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온 만큼 소외되는 계층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그 기술들을 배척하는 것보다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일 좋은 것은 기술자들이 기술을 마련할 때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서 이 기술로 인해 불편을 겪을 사람은 없을지 고려해서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늘어날 것이며, 우리가 이용하는 데이터가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받는 혜택 또한 다양해질 것이다. 이제는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는 세상이 열린 것이다. 다가올 4차산업혁명에서 성공하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며,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 빅데이터에 이미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빅데이터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참고 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2019.
- 김대영, 7월부터 빅데이터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실시, 한의신문, 2019. 5. 30.,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113>
- 김은영, 공단,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본격 추진...대상자 발굴 나서, 청년의사, 2018. 8. 29.,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762>>
- 김재생,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활용사례,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2권 제1호한국콘텐츠학회, 2014, 14-20쪽.
- 김정현, 간편결제? 못 들어봤다...현금사용 주 6회” 노인 간편금융 소외 여전, 이데일리, 2019. 5. 1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30166622487608&mediaCodeNo=257>>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 디지털팁, AI 청각장애인의 ‘귀’가 되다, 조선일보, 2021. 1. 6.,
 <https://www.chosun.com/special/future100/fu_general/2021/01/06/TNMPFKS2NJGDFISWJFELBSB4Q/>
- 박미영, 울산시, ‘교통 빅데이터’ 맞춤형 행정 적극 활용, 보안뉴스, 2021. 1. 1.,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93898>>
- 박현철, 편리한 키오스크의 역설: 디지털 소외계층, 송대시보, 2019. 3. 4.,
 <<http://www.ssu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856>>
- 백민, ‘키오스크로 단절된 일상’ 시각장애인 호소, 에이블뉴스, 2020. 12. 16.,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1216093312884762>>
- 변은영, [스타트업 소식] 케어닥, 다방, 야놀자 외, 데일리팝, 2020. 7. 9.,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45863>>
- 변현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현황 및 실행방안 제안,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집 4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3-25쪽.
- 비비디바비디님의 블로그,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11종.
- 손지영,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8명 ‘만족도 높아’, 매일경제, 2018. 11. 18.,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8/11/721813/>>
- 유근범, 무인화 시대,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명대신문, 2019. 11. 25.,
 <<https://news.mju.ac.kr/news/articleView.html?idxno=4994>>
- 원낙연, 빅데이터, 장애인삶 불편 줄여주는 ‘최첨단 효자’네, 한겨레, 2016. 2. 1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9800.html>
- 이상길, 빅데이터 활용 노인보호구역 입지선정, 울산제일일보, 2021. 1. 6.,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364>>
- 이인경, SR, 역사 내 수어영상 응급안내 서비스 시범 운영, 레일앤뉴스, 2020. 9. 11.,
 <<http://www.railn.kr/news/articleView.html?idxno=778>>
- 이재은, “노인은 더 비싼 값 치르세요”... ‘실버택스’, 머니투데이, 2019. 3. 1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31112580394707>>

이한기, 인천시, “장애인 콜택시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세요”, 오마이뉴스, 2019. 1. 1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6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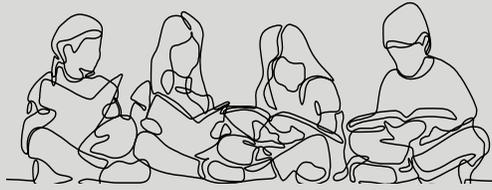
한건희·진서운, 빅데이터에 대한 소개와 활용사례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6, 한국자료분석학회, 1337-1351쪽.



2021학년도 1학기
상명 에세이 경진대회

비평적 에세이 부문

상명
대학교





너에게, 그리고 나에게

: 〈윤희에게〉를 보고 참을 수 없어진 내가

경영학과 최은*

오랜만에 너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아. 이제 피약별이 드리우고 후덥지근해져서 벌써 여름이 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는 것 같네. 생일 편지 이후로는 처음이지? 영화를 보고 어쩐지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돼서 너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 봐.

임대형 감독님의 ‘윤희에게’라는 영화 알아? 작년, 19년 겨울에 개봉했다는데 나는 눈이 녹고도 한참이 지난, 이번 늦봄에 이 영화를 처음 봤어. 영화에서는 눈이 소복하게 쌓여있어서 이 더운 날에 벌써부터 겨울이 그리워지더라. 너한테 이 영화를 꼭 얘기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윤희에게는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사정으로 학창 시절에 헤어진 윤희와 준이라는 두 명이 만나기까지의 여정이야. 일본 오타루에서 사는 준이 한국에 사는 윤희에게 써둔 편지를 준의 고모가 우연찮게 보는 것으로 시작해. 준이 써놓고도 용기가 나질 않아 보내지 못한 편지들 중 하나였는데, 그 편지는 고모가 우연히 발견해 우체통에 넣으면서 윤희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가게 되었어.

평범하다고 말할 법한 윤희는 어딘가 그들이 저 있는 것처럼 보여. 이혼한 남편과는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딸 새봄에게 너희 엄마는 사람을 외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 새봄이 윤희에게 엄마는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물어볼 정도로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삶을 권태롭게 보내. 편지를 썼던 준도 마찬가지로 행복한 일상은 아닌 것 같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살다 보면 뭐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질 때가 있지 않느냐며, 언제 어떻게 돼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덕분에 너한테 편지를 쓰고 있다고 했으니까 말이야. 윤희처럼 어딘가 공허해 보이기까지 했어. 준이 그렇게 써내려 갔던 편지는 윤희에게 도착해. 도착한 편지는 새봄에게 먼저 발견되고 몰래 내용을 읽게 되는데, 한 번도 엄마의 과거 얘기를 듣지 못했던 새봄은 윤희에게 “엄마는 아빠 만나기 전에 연애해 본 적 없어?”처럼 이것저것 캐묻기도 해. 새봄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본으로, 그러니까 준이 살고 있는 오타루로 졸업여행을 가자고 말하면서 이야기가 흘러가. 윤희는 딸의 제안에, 이 답답하고 준의 말처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현실에, 마음에 앙금처럼 남아있는 준이 살던 곳으로 고민 끝에 여행을 가게 되는 거지. 실은 새봄이 윤희와 준을 만나게 하겠다는 계획으로 시작된 비밀스러운 여정이었지만 말이야.

일본에 도착한 모녀가 여행하면서 지내는 모습은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아늑한 숙소에서 이불을 두르고 있고, 보안 눈 위를 걷는 등 잔잔한 재미를 주는 것 같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윤희가 새봄이 담배를 피우는 걸 알고 있었다거나, 새봄이 경수라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대화를 하는 장면도 있었어. 그러다 새봄과 윤희는 오전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행을 보내기로 해. 새봄이 경수와 함께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겠지. 윤희는 그 시간에 편지에 적힌 주소지, 준의 집 앞까지 찾아가지만 출근하는 준의 모습을 보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줘. 편지를 보내지 못했던 준처럼 윤희도 아직 용기를 낼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 그 사이에 새봄은 준의 고모 마사코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고, 준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결국 다음날 준과 저녁 식사를 하자는 약속까지 하더라. 새봄은 윤희에게도 여행 마지막 날에 자기와 저녁 식사를 하자고 약속을 잡아놓고는 자신은 쑥 빠지고, 윤희와 준의 만남을 성사시켜 줬. 둘은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반대를 바라보고 있다가, “윤희니?” 하고 준이 나지막하게 묻는 것을 기점으로 겨울밤의 한 장면에서 둘이 시선을 마주해. 학창 시절, 헤어지고 난 이후부터 시작된 긴 여정이 막을 내린 거야. 영화는 준과의 만남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윤희가 준에게 쓴 답장이 독백으로 흐르면서 끝나게 돼.

이렇게 새봄을 통해서 윤희와 준이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내용만 보면 사실 단조롭고 밋밋해 보여서 지루할 수도 있는 영화야. 그럼에도 나를 벅차서 참을 수 없는 기분으로 만든, 이 영화는 어쩐지 울고 싶게 만드는 힘을 가졌어.

영화를 준의 편지로 시작해서 윤희의 편지로 마무리하는 처음과 끝의 구성은 탄탄하다는 느낌을 주면서, 큰 여운을 몰고 왔어. 초반에 준의 편지를 독백으로 들려주면서,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소식들을 말해주거나 둘의 과거를 어렵짐작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은 게 좋았어. 자주 다투던 부모님이 결국 이혼해서 스무 살에 아버지를 따라 일본에 왔고, 얼마 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고모와 함께 오타루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너와도 잘 어울리는 곳이라 분명 너도 고모와 나처럼 오타루를 좋아할 거라는 말을 덧붙이며, 준은 가끔 윤희의 꿈을 꾸게 되는 날이면 편지를 쓰곤 했지만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을 윤희에게 그 편지들을 부칠 수 없었다는 시간들을 설명해. 윤희에게서 도망쳤던 자신과 여전히 도망치고 있는 자신이 비겁하다고 말하면서, 머지않아 자신은 또 처음인 것처럼 이 편지를 다시 쓰게 될 거라며, 바보 같고 미숙한 걸까, 하지만 아무래도 좋다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해. 너는 나에게 동경의 대상이었고 너를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는 고백도 해. 흔한 회상 장면도 없이 과거를 예들러 말하면서, 이 둘이 어떤 관계였을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전개와 친구 이상의 진한 감정이 배어나는 편지가 이 영화 도입부의 묘미였어.

준의 편지에 모호하게 적힌 과거를 후반에 윤희의 편지로 단단하게 마무리 지어. 둘의 관계를 정확히 하고, 이별과 부재가 어떤 연유에서였는지 알 수 있더라. 윤희가 준에게 쓴 편지에서는 자신 역시 가끔 네 생각이 났고 네 소식이 궁금했다며, 너와 만났던 시절에 자신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고, 그렇게 충만했던 시절은 또 오지 못할 거라며 과거를 회상해. 그러다 돌연 “그때 너한테 헤어지자고 했던 내 말은 진심이었어. 부모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가 병이 걸린 거라고 생각했고, 난 억지로 정신병원에 다녀야 했으니까.” 이어지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담하게 전해. 자연스럽게 과거에 어떻게 이별을 했을지, 그 지독한 상황이 그려지는데 독백으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딱딱할 정도로 평온했어. 그걸 듣는 내가 오히려 더 울고 싶어지더라. 이후 윤희는 오빠가 소개해 주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고, 불행했던 과거를 빌미로 핑계 대고 싶은 건 아니라며, 그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자신도 너처럼 도망친 거라고, 자신에게 주어진 여분의 삶이 별이라 생각했다고 고백해. 둘이 만나기 전까지 윤희가 살아가는 모습이 왜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암울해 보였는지 알겠더라. 그동안 스스로에게 벌을 주며 살았던 것이었어. 준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다고 했던 것처럼 윤희도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잘못된 게 없다고, 자신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라는 독백이 이어지는 동안 흘릴 뻔한 눈물을 잡았어. 결국 마지막 “추신, 나도 네 꿈을 꿬.”에서는 잡던 눈물을 놓쳤지만. 앞서 궁금하게 만든 과거를 마지막에 알려주면서, 뒤늦게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전개가 큰 여운으로 남아 영화를 보는 모두를 울게 만들었을 거라 생각해.

둘이 만나기 전과 후로 달라진 모습도 마음을 울렸어. 윤희와 새봄이 여행을 가기 전까지는 윤희와 준이 무언가 결핍된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줘. 새봄을 통해서 여행을 가고, 둘이 다시 마주했을 때 살포시 웃던 미소가 그보다 선명해 보일 순 없었어. 서로의 부재를 채우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마주했다는 용기를 가진 두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웠던 거야. 이후 둘이 다시 함께 한다는 확실한 해피엔딩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에 돌아와 묘하게 밝은 기운으로 새롭게 살아가려는 윤희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

영화에서 보여주는 둘은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어. 이미 지나가 버려서, 아직 따뜻할 정도로 온기가 남아있는 재를 그러쥐고 있는 느낌에 가까웠을 거야. 하지만 난 이만큼이나 절절한 사랑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힘겨웠지만 담담하게, 비밀스럽지만 솔직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이 영화를 보고 내가 다 참을 수 없는 기분을 느꼈어. 둘은 너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들이 되기도 하겠지.

그러다 곳곳에 녹아있는 차별을 보면서 입 안이 쓰게 느껴졌어. 영화에서는 여자로서, 퀴어로서 차별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 오빠만 대학에 보내 미안하다고 윤희에게 사준 필름 카메라, 준을 사랑한다고 말해 억지로 정신병원에 다녀야 했다고 적힌 윤희의 편지까지. 여자라는 이유로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하고, 동성이라는 이유로 정신병으로 취급당해 사랑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모습 말이야. 영화 초반에 친척이 준에게 결혼은 왜 안 하냐고, 괜찮으면 한국 남자 소개해 주겠다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부담 없이 한번 만나지 않겠냐고 끈질기게 묻는 장면이 나와. 준은 거절하다 결국 됐다고 하지 않았냐고 대뜸 화를 내지. 이 장면을 곱씹으면서 거창하고 과격한 혐오 표현으로 당하는 차별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표현에 은밀하게 숨어서 드러나는 차별도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하는 말로 여자에게는 “남자 친구 있어?”라거나, 남자에게는 “여자 친구 있어?”라고 묻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 그래도 요새는 통용해서 애인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추세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자가 애인이 있다고 하면 군대는 다녀왔냐고 물어보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과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만의 ‘다름’의 문제는 아닐 거야. 다양한 다름이 존재하고, 인식을 개선하려고, 다름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현대에서도, 다양한 다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라 생각해. 가령 이성 커플에게 결혼은 당연한 권리지만, 동성 커플 앞에서는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이 돼. 하지만 이성 커플은 결혼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 이처럼 각자의 특권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밀한 차별을 떨칠 수 없는 게 아닐까 싶어. 이뿐만 아니라 각자 하나의 존재로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다름을 인정한다는 말로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으려는 표현도 중요한 것 같아. 우리의 표현을 자신의 상황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으로서 다양한 다름을 답을 수 있도록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윤희에게’를 보고 느낀 이 마음을 잊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너한테나마 얘기해 봐. 내가 깨달은 걸 너에게 얘기해주고도 싶었어. 아마 이 편지는 부치지 못하려나. 민망하기도 하고, 이 길고 혼자 주절거린 장문을 너에게 보낼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아. 너에게 슬쩍 윤희에게 봤냐고 너무 좋으니까 한 번 보라는 투박한 말만 건네고 말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내가 용기 낼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너도 이 편지를 읽고 새로운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긴 편지 읽어줘서 고마워. 모쪼록 건강하게 잘 지내.

하나의 내가, 하나의 너에게



리틀포레스트는 시골생활 판타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 영화 <리틀포레스트>를 보고

융합경영학과 김도*

“나는 리틀 포레스트를 보는 동안 많은 사람에게 있어 휴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의 영화를 보는 순간만이라도, 연애, 취직의 걱정거리는 잊고 해원과 친구들의 특별한 사계절을 보고 있으면 조금씩 여유가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¹⁾ 한국판 리틀포레스트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걱정 그리고 그것의 해소에 대한 임순례 감독의 바람이 이 영화를 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임순례 감독이 그리고자 한 내용은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듯하다.

이 영화의 키워드는 시골, 대자연, 슬로라이프, 행복이다. 하지만 이 영화의 치명적인 실수는 감독이 그리고자 했던 주제 무엇 하나 제대로 표현된 것 없이 단순한 캠핑 먹방에 그쳤다는 것이다. 일본 원작의 경우 촬영 스태프가 현지에 머물며 4계절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촬영하고 촬영 이동 중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곳을 발견하면 차를 멈춰 세우고 촬영을 하는 등 감독과 촬영 스태프가 작품의 정체성을 명확히 인지하여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는 원작의 중요한 테마이기도 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찰이 가능했다. 하지만 한국판의 경우 자연의 경관보다는 등장인물의 관계성에 더 주목하였고 특별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았다. 또한 요리에 쓰이는 식자재를 재배하는 과정을 깊이 있게 묘사하여 음식에 스토리를 더해 실제적인 시골의 모습을 관객들에게 전달한 원작과 달리 한국판의 해원은 그저 무념무상으로 먹방 찍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이 영화가 당초 목표로 했던 휴식은 도시생활에 지친 젊은이들이 갖는 시골생활에 대한 공상과 로망으로 포장된 판타지에 지나지 않음을 뜻한다.

이번 한국판 영화의 아쉬운 점 첫 번째는 스토리 구성에 있다. 임순례 감독은 일본 원작 영화와 달리 등장인물 3명 간의 관계성에 집중했다. 영화 초반부터 해원과 은숙, 그리고 재하 사이의 미묘한 러브라인이 형성되고 함께 요리를 해서 먹고 술을 마시는 등 등장인물 3명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주로 비추어지다 보니 주인공 해원이 어떠한 목적으로 시골에 왔는지, 또 시골을 다시 떠날 때도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성장스토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영화 말미 해원이 다시 시골로 돌아오며 영화가 마무리되는데 어떠한 과정을 겪고 해원이 다시 시골로 왔는지도 관객에게는 밝혀지지 않았다.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시골로 돌아왔다면 시골에서의 제2의 성장스토리가 그려져야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일본 원작 영화감독 모리준이치 감독의 산케이뉴스 인터뷰를 보면 “나는 시골에서의 사람들의 생활을 그리고 싶었다. 그 의미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생활의 일부로서 감자나 감을 따다거나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²⁾라고 말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작 영화의 경우 여름과 가을, 겨울과 봄을 나누어 촬영한

1) 한국판 리틀포레스트 일본 공식사이트, 2021. 4. 19. <<http://klockworx-asia.com/little-forest/about.html>>

2) 藤井克郎, 観客の顔を意識して撮った日本の原風景橋本愛主演「リトル・フォレスト」の森淳一監督, 産経NEWS, 2015. 2. 22. p.2.

4부작 구성으로 각 2부작씩 나누어 2회에 걸쳐 개봉할 정도로 각 계절의 아름다운 풍경, 음식의 재배하는 과정, 조리하는 과정의 상세한 묘사를 통해 하나의 요리가 탄생하기까지의 스토리를 상세히 담았다. 그 때문에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울 정도의 사실주의적인 영화구성으로 시골 생활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꼭 한 번 보아야 할 영화로도 평가받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판은 한국만의 4계절의 아름다운 경치를 담아냈다고 하기에, 그렇다고 영화적인 스토리를 담아냈다고 하기에 부족한 어중간한 영화에 그쳤을 뿐이다.

두 번째는 음식의 조리과정을 생략한 스토리의 빠른 전개이다. 이 영화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소개되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배춧국과 주인공이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먹은 김치전과 감자전이다. 극 중 주인공이 처음으로 시골에 내려와서 해먹은 음식이 고춧가루를 넣은 배춧국인데 한국판에서 그려진 부분은 단지 마당에 있는 배추를 가져와서 끓이고 먹는 장면이 전부다. 그리고 주인공이 밤에 친구들과 막걸리를 먹으며 함께 먹는 감자전과 김치전은 아예 조리 과정조차도 소개되지 않는다. 그저 웃고 떠들고 즐기는데 이용되는 먹거리의 소재로 전략한 기분마저 든다.

만약 원작이었다면 배추를 심고 재배하여 조리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하나 조명하였을 테고 감자를 심고 정성스럽게 키우고 보존하여 겨울의 필수 식량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통하여 시골에서의 식생활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렸을 테지만 한국판은 영화 한 편에 원작 4부의 구성을 모두 담아야 했기 때문에 식재료의 재배과정과 조리 과정은 과감히 생략되었다. 원작에서 그리고자 했던 자연이 주는 작물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가꾸고 키워서 요리에 사용하는 모습을 임순례 감독은 과감히 생략하여 주인공의 먹방을 찍기에 몰두하였다는 인상이자.

하나의 음식이 완성되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 식생활에 빠질 수 없는 김치를 담그는 데에도 배추 씨앗을 심고 흙을 잘 덮어주고, 잎이 자라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배추를 확인하며 잎에 들러붙은 배추벌레 알을 제거하여 정성스럽게 키운 배추를 수확하고, 김치의 재료로 사용한다. 이때 배추에 고춧가루를 바르고 잘 숙성시켜 식탁 앞에 내놓기까지의 어머니의 고생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비가 와서 배추가 모조리 망가져 한해 농사를 접어야 하는 농민도 있을 수 있다. 시골 생활을 단순히 먹고 즐기 위한 소재를 그리기 위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더욱이 일본 원작이 그리고자 했던 자연의 아름다움과 존경의 마음이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 위한 하나의 놀거리의 장에 그쳤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힐링의 소재로 전략해버린 농촌사회. 최근 부쩍 늘어난 캠핑족, 그리고 제주도 한 달 살기 등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힐링이 필요할 때면 답답한 도시를 떠나 시골을 찾는다. 작중의 주인공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추구하는 편안함과 휴식은 시골에 분명 존재한다.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소비하고 나면 재빠르게 다시 도시로 돌아온다. 시골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소비의 한 문화가 된 것이다.

나는 이번 영화를 통해 우리가 시골을 단순히 소비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숨길 수 없다. 처음 이 영화를 보기 전 한국판 리틀포레스트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대학 정원 미달 사태와 사라져가는 지역사회와 농촌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이 영화가 바라보는 농촌은 지금의 우리 젊은이들의 시각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시골로 내려온 혜원은 마치 캠핑 온 캠핑러처럼 묘사되고 맛있는 음식을 친구들과 먹고 술을 마시며 한 해를 보내고 다시금 서울로 올라가는 모습은 지금의 우리가 휴가철에 시골로, 해외로 떠나서 마음껏 소비하는 모습과 닮아 있다. 이 영화가 그리고자 한 것은 그저 휴가철 우리의 모습일 뿐이다. 잠깐 즐기다 떠나면 그만일 뿐일 시골의 모습, 그저 그 정도로 역할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시골을 이용하여 '힐링'이라거나 '휴식'이라고 하는 감성을 자극하여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상업 영화에 그쳤다.

맛있어 보이는 음식과 밝은 색감이 두드러지는 예쁜 영상을 통해 애써 낭만적인 시골의 풍경을 묘사하여 시골에서의 생활이 마치 모두 저렇게 아름답고 예쁘기만 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 영화에 소개된 꽃을 꺾어 장식한 파스타는 마치 그 상징처럼 다가오는데 이 영화처럼 아름다운 시골의 모습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꽃을 얻기 위해 흘린 땀과 수고, 노동의 가치가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진정한 리틀 포레스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참고 문헌

한국판 리틀포레스트 일본 공식사이트, 2021. 4. 19.,

〈<http://klockworx-asia.com/little-forest/about.html>〉

藤井克郎, 観客の顔を意識して撮った日本の原風景橋本愛主演「リトル・フォレスト」の森淳一監督, 産経NEWS, 2015. 2. 22. p.2.



억압된 존재의 가치를 통해 본 그레고르의 삶

: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조형예술학과 반윤*

차라투스트라에게 손을 뺀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는 누구이길래 니체의 사상을 그렇게 잘 보여주는가 하는 단순한 궁금증이었고 시중에 널린 니체를 해석한 책들은 호기심을 더 자극했다. 사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고 우매한 대중이 되어 혼나는 느낌을 받아 인상을 쓰며 금방 덮어버렸다. 그런데 자꾸 생각났고 읽어나가며 천천히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 책은 1883~1885년 저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대표 저서이며 그의 개성적인 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다. 1부에서 4부까지 인간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한다. 환희와 열정에 대하여, 새로운 우상에 대하여, 벗에 대하여, 창조하는 자의 길에 대하여, 자유로운 죽음에 대하여, 자기 극복에 대하여, 방랑자, 그림자, 정오에, 일깨움 등 총 80개의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학자인 니체의 이 책이 매력적인 점은 문학과 철학의 경계에 있다는 데에 있다. 자기에, 운명애(amor fati), 힘에의 의지, 영원회귀 같은 핵심 사상을 문학적인 표현 방식으로 풀어낸다. 주인공인 ‘차라투스트라’가 10년간 혼자 살다가 인간 세상에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하려 내려오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니체가 실제로 10년간 홀로 살았다는 사실에서 차라투스트라가 니체 본인을 투영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자서전적 성격과 문학적 허구성이 동시에 있는 본인의 책에 관해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로 나는 인류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물을 안겨 주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뻔뻔함에 끌려 읽다 보면 막상 난해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해 불가, 어려움, 추상적. 이 수식어들은 『차라투스트라는 말했다』에 붙는 평가다. 단번에 문장은 물론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조차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어렵고 잘 읽히지 않을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들여보려고 한다. 그의 말년 저서 『우상의 황혼』에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 보자면, 서구가 숭배해온 우상이 황혼에 임박했음을 고지하고 니체는 이 황혼을 앞당긴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가치의 재평가’ 혹은 ‘새로운 가치 창조’ 과정을 통해 이룬다고 한다. 이는 니체의 모든 저서와 니체의 삶의 핵심 가치이며, 개성적인 방식으로 한 단어에 자신의 사상과 오랜 고찰을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즉,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에 들어 있는 특수한 의미와 시적이기까지 하는 언어의 향연을 읽어내며 그 의미를 단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두 번째 이유는 문화 기반에 관련한 것이다. 기존 서구 사회에서 지배적이었던 관념에의 도전이 이 책을 포함한 니체의 저서가 주는 의미다. 그런데 서구의 문화적인 배경과 사고방식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그의 글과 그의 글에 따라오는 평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대표 사상 중 하나인 ‘신은 죽었다’가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기독교 기반 문명에서 수 세기를 살아온 19세기 유럽인에게는 오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기반이 흔들린 일이었다. 종교적 독단이 알아차릴 수도 없을 만큼 뿌리 깊이 녹아있던 당시 시대 상황에서 느끼는 바와 지금의 우리가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니체가 당시 서구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관을 깨뜨린 망치 같았을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문체에 있는데, 니체의 문체는 섬세하면서도 강하다. 외치듯이

내뱉은 어투로 ‘인간 쓰레기’ 같은 직설적인 단어도 거침없이 사용한다. 계속해서 외치고 질문하는데 이런 문체를 통해 경쾌한 관점의 전환을 더 경쾌히 이루어내고, 이런 문체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편안하게 읽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니체의 저서에서 어렵고, 진입 장벽이 높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해하기 힘들다는, 대중서로서는 치명적인 맹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사랑받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한다. 모든 고전이 그렇듯,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인간 모두를 이야기한다. 고전이 되는 기준은 시대와 배경을 넘나들 수 있는가에 있다. 달리 말하면, 오래된 책이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어서 오래도록 읽히는 것이고, 니체의 저서들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사는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넘어선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후대의 사람들 역시 그 시대의 가치관으로 이전 세대를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 시대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예술이라면 명작으로, 곧 고전으로 남는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차라투스트라의 이야기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데다가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느낀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인간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감정과 생각이기 때문인데, 이것 중 일부는 불편하거나 추악한 모습이고 우리는 이것들을 심연에 숨기며 살아간다. 그런데 차라투스트라는 그 존재를 부정하고자 깊은 곳에 감추어 둔 것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린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위선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신의 관점과 사고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인간의 진실한 모습이자 동시에 색다른 시선과 새로운 발상을 던져준다. 차라투스트라를 만나 대화를 나눠보면 깨닫지 못했던 본연의 진리를 새로이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철학은 인간, 나 그 자체, 사람과 이 사람 사는 세상, 우리를 담고 있다. 얼핏 보면 난해하다는 데에 멈출지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도의 이성으로 머리를 싸맨 어렵고 정교한 이론이 아니라, 감성과 함께 인간에게 아주 가까이 접근한 서사시다. 니체는 철학을 인간의 예술이라고 표현한다. ‘산다는 것은 예술’이라고 말한다. 그 어떤 것보다 철학에 대한 니체의 접근을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해주는 니체 자신의 말이며, 그는 그렇기에 인간의 예술을 언어로 그려냈다. 실제로도 시를 쓰고 곡을 쓴 것처럼 그에게 예술가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듯하다.

이 책을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하면 ‘경쾌한 관점의 전환’과 ‘아이가 되기 위한 움직임’이다. 먼저 경쾌한 관점의 전환은 니체가 인간이 살면서 마주할 거의 모든 것을 의심하며 시작된다. 한 손엔 청진기를 들고 세상을 스스로 진단하고, 다른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진단한 바를 치료한다. 그리고 치료의 과정은 기존의 관념을 깨부수고 관점을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특히나 고독과 인간사회, 선과 악, 오류와 진리, 정신과 신체, 아름다움과 추함, 자기애와 자기 경멸 같은 다층적인 대립 요소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많은 대립 요소 중 선과 악에 관해서도 기존의 시각과 다른 관점을 전달하는데, 선과 악의 이분법적 대립이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추가로 선악의 가치판단 자체에도 오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진정한 세상은 이분법적인 선악의 가치판단을 넘어서 있다고 한 것이다. 또한 서구 문명은 신체와 정신 중 이성을 지탱하는 정신을 항상 더 위대한 가치로 보았다. 요즘도 이러한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데, 니체는 오히려 이성이 몸의 도구라고 말한다. 여러 저서에서 그간 2천 년 역사의 서구 사회가 맹목에 가깝게 지지해온 칸트 사상과 기독교 기반 문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니체는 기존 서구 사회의 가장 단단한 사상이자 벽이었던 형이상학이 자유로운 정신을 가둔다고 보았고, 그렇기에 근대 이성의 기초가 된 칸트를 향한 비판을 일삼았을 것이다. 또 다른 대립 요소인 오류와 진리, 자기애와 자기 경멸은 서로 평강히 상반된 개념처럼 보이지만 그 경계를 허물면서 인간의 오만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에 대한 니체의 태도를 잘 볼 수 있는 문장이 있다. “만물의 가치는 그대들에 의해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투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깨어나서 귀를 기울여라, 그대들 고독한 자여!” 그저 수용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주관적인 태도로 세상을 판단하고 특수한 의미를 새로이 부여하라는 니체의 말이다. 프리

드리히 니체가 주는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끊임없는 시도와 실패, 그리고 이어지는 깨달음 역시 차라투스트라와의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낙타에서 사자-아이로 이어지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 이것은 이상향을 위한 움직임의 과정이다. 낙타는 인내심이 큰 정신이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독한 사막을 걷는다. 고독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정신은 사자가 된다.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는 사자의 힘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자는 자유 정신을 쟁취하고자 하는 상태이며 정신은 여기에서 마지막 주인을 찾는다. 사자도 이루지 못하는 일은 새로운 가치의 창조이고 마지막 주인은 바로 아이다. 오직 아이만이 할 수 있는 까닭은 아이가 순진무구함이며 새로운 출발이고 망각이자, 최초의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낙타-사자-아이의 순서로 이어지는 인간상은 굉장히 추상적인 비유처럼 보이지만, 인내-자유-창작의 순서로 이어지는 인생의 과정이며 니체가 추구한 바람직한 성장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마 차라투스트라의 방랑도 낙타에서 아이가 되기 위한 움직임일 것이고, 독자에게 제시하는 삶 역시 이와 같을 것이다.

세상을 전복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프리드리히 니체가 음악, 시, 미술 등 예술, 더 넓게는 시대 전반에 미친 영향은 실로 대단했다. 그런 데다가 그는 인간 그 자체를 깊이 있게 사유했기 때문에 그가 지닌 시대적 한계가 잘 예상되지 않지만, 그에게서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을 볼 수 있다. 제1부 ‘젊은 여자와 늙은 여자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남자는 영혼의 바닥이 악하기만 할 뿐이지만, 여자는 그 영혼의 바닥이 저열하기 때문이다”, “남자의 행복은 ‘나는 원한다’는 데 있다. 여자의 행복은 ‘그가 원한다’는 데 있다. (중략) 그러므로 여자는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표면의 깊이를 발견해야만 한다.” 21세기인 지금도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와 오랜 시간에 걸쳐 고착된 성 역할 고정관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니체는 1844년에 태어났고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그의 저서가 집필되었다. 시대를 고려하면 어색하지 않은 사고방식이며 세상에 절대적인 ‘옳음’은 없다고 생각하나, 요즘의 시선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지성을 통해 현대로의 이행을 이끈 사람조차 시대적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공부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해준다. 이 사실을 알고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사고방식을 배운다면 폭넓은 시야로 깊이 있는 사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욱 바람직한 가치판단을 통해 혐오와 비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건강한 비판의식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은 젊은 시절엔 난해한 책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인간과 삶을 경험한 중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해가 된다고들 한다. 이 사실 역시 니체의 저서가 철학 이론서가 아닌 삶을 노래하는 서사시라는 것을 잘 설명해준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몇십 년 뒤 인생이 황혼기를 맞이하는 시기나 방황의 순간에 큰 힘이 되어주리라고 믿는다. 차라투스트라는 니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매한 대중부터, 이상적인 인간상인 초인까지 다양한 인간상을 마주하며 이상적인 자아를 향해 나아가는 여행을 한다. 자신이 고독을 통해 깨달은 바를 설교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인간들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나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불안정한 존재다. 누구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때로는 불안 때문에 크게 방황한다. 이런 자신의 감정과 삶에 대한 사유는 그 자체로 철학이다. 철학자의 이론이나 사상을 이해해야만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필연적으로 철학을 삶에 그림자로 드리우고 있다. 인간인 나, 삶을 살아내는 나, 집단에 속한 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나, 불안한 나를 진실하게 투영하는 그는, 인간 모두를 대변하는 차라투스트라다.



편의점을 통해 본 현대의 삶 속 적절한 공백

: 김애란 「나는 편의점에 간다」를 읽고

국어교육과 김단*

「나는 편의점에 간다」를 처음 읽을 때 떠오르던 작품이 있었으니, 그건 하성란의 「곰팡이꽃」이었다. 「곰팡이꽃」의 등장인물들 역시 이 작품 속 인물들과 같이 서로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인 교류가 아니라 그들이 구매하고 사용하는 물건들을 통해 파악한다.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봉투를 뒤져 각 세대원이 버린 쓰레기들을 통해 그들의 생활방식과 취향, 성격을 파악하는 모습을 통해 평범한 일상 속에 은폐된 단절된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다. 「나는 편의점에 간다」는 비록 쓰레기가 아니라 편의점에서 인물들이 구매하는 물건을 통해 상대에 대해 파악한다는 설정이나, 구매 물품 목록으로 환원되는 주인공을 통해 사회 속에서의 개인의 존재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느꼈다. 직접적인 대화가 아닌 내 구매명세를 통해 '나'라는 사람을 분석한 누군가가 '이맘때쯤 이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소비 패턴상 지금쯤 필요하실 것 같은데'라고 말을 걸어오는 상상에 미치자 내 존재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까지 했다.

그러나 작품을 다시 읽어보자 이전과는 다른 부분에 집중할 수 있었다. 세븐일레브의 직원이 '나'의 정보에 관해 물은 뒤로 다시 그 편의점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대목에서 편의점이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지, 취업은 언제 할 것인지 등 명절마다 받는 일명 '명절 잔소리' 질문들에 진저리를 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적당히 관심을 주길 원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 가까워지면 불편함을 느끼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나' 사이의 거리를 보며 편의점과 가족 간의 공통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가족을 잃어버린 이방인들에게 편의점은 가족의 일상을 구매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말¹⁾에 공감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현실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느꼈다.

특히, 동생의 상경과 친구의 응급상황이 동시에 일어나 당황하는 '나'가 집의 열쇠를 맡길 대상으로 큐마트의 청년을 떠올린 부분에서 그 청년이 그저 아르바이트생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나'에게 매일같이 생활필수품을 건넨 그였기에 '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생각했던 것이다. 자신의 일상 속에 누군가가 자리 잡고 있으며 나에게 대해 알고 있다는 점에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사랑과는 또 다른 신기한 감정이라고 느꼈다. 이 역시 한날 마트 직원이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큐마트 청년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바코드를 벗어나면 상대에게 더 이상의 관심도 궁금증도 가지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적당한 공백을 유지하려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의지할 곳도, 나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도 없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물밀 듯 들어왔다 파도처럼 빠져나가는 곳에서 사람이란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할 것이다. 개인의 존재 의미가 바코드의 검은 줄 몇 개에 담긴다는 점이 안타까우면서도 씁쓸하게 느껴졌다.

1) 권유리아, 김애란 소설에 나타난 친밀감의 착시와 연극적 가족 진리, 동북아 문화연구 제48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159쪽.

처음과 마지막에 비슷한 내용을 담은 표현 방식은 유독 여운을 남기는 요소로 작용했다. 수미상관은 운문 문학에서 나타나는 표현이지만 이 소설 역시 처음과 마지막 문단에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편의점의 의미와 적당한 거리를 필요로 하면서도 관심을 갈구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고 느꼈다. 다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점은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파일 속 작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의 작품 마무리가 다르다는 점이었다.

큐마트,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는 모른다. 편의점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물이다, 휴지다, 면도날이다. 그리하여 나는 편의점에 간다. 많게는 하루에 몇 번,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는 편의점에 간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사이 내겐 반드시 무언가 필요해진다.²⁾

큐마트,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는 모른다. 편의점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물이다, 휴지다, 면도날이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이 고통을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결핍 없는 곳에서 목 놓아 우는 자에게 물을지어다. 그 길뿐이다.³⁾

위의 내용은 2019년 개정판이고, 아래의 내용은 2005년 초판의 내용인 듯한데 완전히 마무리가 달랐기에 주제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판의 경우 소설의 시작과 마지막을 함께하는 말을 통해 타인과의 공백을 유지하되 적당한 관심과 적당한 무심함을 기대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담은 소설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초판의 경우 단순히 개인 간의 거리감이 아니라 관심을 받지 못하는 현실로 인한 스스로에 대한 고통이 담겨 있다고 해석되었다. 결핍 없는 곳은 어디인지, 목 놓아 우는 자들은 '나'와 같은 사람들인지 또는 그보다 더 궁핍한 상황에 놓인 또 다른 사람들인지 궁금해졌다. 마지막의 '그 길뿐이다'라는 말은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며 그러한 상황에 체념하는 마음이라고 느꼈는데, 그렇다면 초판과 개정판에서 전하고픈 메시지가 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초판 발행 후 14년이 지나 마지막을 바꾸었다는 것은 그만큼 작가가 담고자 했던 주제와 가까운 내용으로 변화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초판과 개정판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던 것일지, 내가 해석한 내용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나는 마지막 문단의 편의점에 방문하지 않는 사이에 필요해지는 무언가가 '나'의 진정한 존재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편의점에서 소비의 주체가 되어 물건을 구매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존재가 그저 상품 구매 목록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전부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구매 내역을 알고 있기에 스스로를 잘 아는 존재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삭막해진 현대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인과관계가 드러나는 표현 역시 작품의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비디오방에서 섹스를 하고 컵라면을 나눠 먹는 학생들과 그들을 혼낸 선생, 아이를 낙태하고 우유를 사러 온 여자와 아이를 배게 한 남자, 꾸중을 듣고 담배를 사러 온 백수가 여전히 담배가 떨어진 백수로 남아있는 모습 등을 시간 차이를 두고 나타냄으로써 변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삶과 메마른 일상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각각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그저 '손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곳, 굳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편의점이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낱알이 보고하고 싶진 않지만 스스로가 구매의 주체가 됨으로써 사회 속에서 살아있음을

2) 김애란, 달려라, 아비, 파주: 창비, 2005, 240쪽.

3) 김애란, 나는 편의점에 간다, 문학과사회 제16권 제3호,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23쪽.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편의점은 존재 가치를 지닌다. 지나친 관심에는 거리를 두려 하지만 자신에게 무관심한 대상에게선 묘한 서운함을 느끼는 ‘나’의 모습 역시 현대인들의 아이러니한 심리를 잘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소비의 현대적 의미와 구매 목록으로 환원되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로 편의점을 선택한 것은 작품 집필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도 과연 효과적인 판단이었다고 느낀다.

김애란 작가는 스무 살에 처음 만난 서울의 모습이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대학 시절 집이 아닌 방, 방이 아닌 칸에 사는 친구들의 안부에 귀 기울였고, 젊음의 삶을 다룰 때 ‘방식’보다 ‘공간’에 방점을 둔다고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다.⁴⁾ 이 작품을 읽고 나니 작가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자취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독자가 대사가 아닌 인물의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며 ‘편의점’이라는 공간을 소재로 그들을 풀어아가는 점이 그 근거이다. 편의점이라는 공간은 관대하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도, 그렇다고 그들에 대해 모르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점은 ‘나’에 대해 알 수 있지만 정작 ‘나’에 대해 아는 것은 없다는 역설적인 성질을 가지고, 이러한 점을 날카롭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공간을 보는 작가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의 ‘나는 편의점에 가지만 편의점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물, 휴지, 면도날에 있다’라는 내용에서 편의점을 바라보는 작가의 생각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편의점에 간다’가 아닌 ‘편의점이 나를 가게 만든다’라는 점에 주목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나’는 편의점이 자신에 대해 안다고 오해한 점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아마도 ‘나’는 자신이 편의점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에 의해 소비하게 되는 것이며, 소비를 통해 쌓은 정체성은 그저 특정 소비자층의 구매 정체성에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 순간 수많은 ‘나’들이 편의점에서 찾았다고 생각한 정체성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게 된다. 따라서 ‘나는 편의점에 간다’라는 제목 뒤에는 ‘그러나 그곳엔 내가 없다’와 같은 의미가 생략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현대 사회에서 편의점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급속하게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편의점에서 구매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취향을 편의점에 제공하고 편의점은 그들 각각을 구매 목록으로 환원한다. 편의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구매 행동을 통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작품 속 ‘나’와 같은 자취생들의 경우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사는 그 잠시 동안 사람을 만나는 일이 즐거운 한편 불편함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편의점이란 공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나는 편의점에 간다」는 현대인들이 갈망하는 ‘적절한 공백’에 대해 고민해보게 하는 작품이 아닐까 싶다.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수많은 ‘나’ 속에 내가 없었음을 느끼는 공간으로서의 편의점. 나를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나를 정말 알고 있는 것인지, 혹은 나를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내게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었다.

4) 서강대학교 블로그 ‘서강소식’, 김애란 작가 초청 강연회, ‘소셜, 삶을 담는 그릇’, 〈SG Story〉, 2020. 1. 21, <<https://blog.naver.com/sogangpr/221780133962>>

참고 문헌

- 권유리아. 김애란 소설에 나타난 친밀감의 착시와 연극적 가족 진리, 동북아 문화연구 제48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151-168쪽.
- 김애란, 달려라, 아버, 파주: 창비, 2005.
- 김애란, 나는 편의점에 간다, 문학과사회 제16권 제3호,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1155-1176쪽.
- 서강대학교 블로그 '서강소식', 김애란 작가 초청 강연회, '소설, 삶을 담는 그릇', <SG Story>, 2020. 1. 21., <<https://blog.naver.com/sogangpr/221780133962>>



한바탕 울 만한 곳을 찾아서

: 연암 박지원 『열하일기』를 읽고

컴퓨터과학과 이선*

요동 천 리의 광활한 들판 앞에선 박지원은 한바탕 크게 울 만한 자리를 찾았다. 굴곡진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조선 땅에서 벗어나 저 멀리 산해관에 이르는 지평선을 보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상에 절로 눈물이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저 지평선이 펼쳐진 광경에 압도되어 박지원이 드디어 울 만한 자리를 찾았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배 속에서 나와 첫울음을 터트리듯이 박지원은 어머니의 땅에서 나와 넓고 새로운 세상에서 첫울음을 터트리하고자 한 것이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았기에 연암 박지원은 이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이후 5개월간 새로운 세상을 돌아다니며 최대한 경험하고 즐기다 돌아갔다. 아마 여행길에 오른 사람 중 연암만큼 호쾌하게 즐기다 온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연암은 그러한 자신의 두 번째 삶을 그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묵혀두지 않고 자세히 글로 남겨 모두가 그 즐거움과 새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게 240년이 지나 우리는 다시 그의 두 번째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연암의 삶은 조선에서도 비범했다. 좋은 가문에서 출생했으나 집안 사정은 넉넉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남달라 18세 때 광문자전을 집필하고 이후 여러 한문소설을 지었으나 과거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러 실용 학문을 섭렵했고 나중에는 지금의 탑골공원 인근으로 이사하여 주변 실학자들과 교류하며 ‘백답파’를 이루었다. 그러다 그의 가문이 속해있던 노론 벽파가 탄압을 받으면서 연암은 잠시 황해도에서 은거하기도 했으나 그를 박해하던 홍국영 일파가 몰락한 이후에는 건륭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단에 끼어 여행길에 오를 평생일대의 기회를 잡게 된다. 이는 사절단의 단장인 박명원이 그의 인척이었기에 가능했다.

아무런 관직이나 임무도 없이 말 그대로 폼사리 겨 갈 수 있던 연암은 사절단원 중 가장 한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일정 중에 하는 일이라곤 열심히 문물을 경험하고 청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며 필담을 나누는 것과 말과 글로 사람들을 끝없이 웃게 해주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연암의 이러한 한가한 일정 덕분에 열하일기는 기존의 여행록들과는 달리 색다르며 유쾌한 면이 돋보인다. 특히 한번은 진지한 논설을 펼치다가도 혹 들어오는 유머는 기습적으로 웃음을 터트리게 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실용적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진지한 논설을 펼치다 자신을 ‘낮은 선비’라 자칭하며 기왓조각과 똥 덩어리를 ‘중국의 장관’이라며 소개한다. 연암은 중국인들이 이런 하찮은 것들조차 유용하게 쓰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예시로 하고많은 예시들 중 굳이 기왓조각과 똥덩어리를 든 것인데 이는 아무리 보아도 그의 유머가 녹아있는 듯하다. 거기에 그의 장난기는 여정 내내 이어지는데 흡사 수학여행을 간 학생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일 정도이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열하일기에서 연암과 함께 오르는 여행길은 지루할 틈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암이 마냥 술과 농담으로 여정을 보낸 것은 아니다. 열하일기의 분량을 보면 알겠지만, 그 방대한 분량에서 대부분은 보고들은 견문과 대화록이 차지하고 있다. 열하일기를 그저 여행기로 치부하기에는 그 학문적 깊이와 넓이가 남다르다. 연암이 청나라 상인과 행인에서부터 고위 관리들까지 만나며 대화한

내용을 보면 무엇이든 알아가겠다는 의지가 보일 정도로 꼬치꼬치 물어보는 장면이 많다. 연암은 아주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그가 수례의 제도에 관해 쓴 글을 보면 청나라에서 본 여러 수례기구를 보고서에 준할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여 조선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였다. 혹자는 그래서 열하일기를 ‘문명비판서’라고도 하는데 아무래도 연암은 조선인으로서 접할 수 있던 청나라의 모든 지식을 담고자 했던 것 같다. 거기에 은근슬쩍 끼워넣은 허생전과 호질과 같은 소설을 보면 그가 열하일기에 담고자 했던 뜻이 드러난다. 물론 그는 풍자와 인용을 통해 은근히 그 뜻을 내보인다. 연암은 젊은 시절부터 소설을 통해 꾸준히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비판해 왔지만, 그 대안은 명확히 제시한 적이 없다. 그러나 열하일기에 이르면 그가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 청나라의 문물들을 스쳐 지나가듯 언급되는 조선에 대한 비판들과 함께 일종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연암이 북학파의 대부로서 평가되는 이유는 열하일기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그렇다고 연암이 마냥 청나라를 옹호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그는 황제가 판첸라마를 지극히 대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연암 역시 유교 이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불교를 우대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본 듯하다. 또한 한족 여인들이 전족을 하는 풍습도 좋지 않게 보았다. 이렇듯 연암에게 있어 청나라는 답안지가 아니었다. 그는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소개함으로써 조선 양반층의 각성과 전환을 요구했지만 동시에 조선이 청나라의 길이 아닌 조선의 길을 가기를 원하였다. 비록 그 길은 신분사회가 유지되는 길이였지만 생산력을 늘리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여 덕을 바로 세우는 길이였다. 신분제가 공고하던 시대에 연암은 실학자로서 가장 현실적인 길을 제안하였지만 다른 개혁가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바람은 그저 열하일기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연암이 압록강에서 사절단을 따라 북경으로 그리고 황제가 머무는 열하로 떠나 판첸라마를 접견하고 다시 북경으로 돌아오면서 열하일기의 여정은 마무리된다. 그 이후에는 청나라에서 보고 들은 온갖 잡다한 정보들이 소개되며 청나라 문인들과의 필담이 주를 이룬다. 조선으로 돌아온 연암은 자신이 청나라에서 수집한 정보들과 필담, 여행담을 종합하여 열하일기를 작성하였다. 열하일기는 그의 생전에 출간되지 못했지만 여러 양반에 의해 필사되어 유행처럼 퍼져 나갔는데 특히 열하일기 특유의 참신하고 유머러스한 문체는 조선 문단에 큰 충격을 주었다. 얼마 뒤 당시 임금이던 정조는 문체반정을 일으키고 열하일기를 주축으로 하는 소위 ‘불순한 문체’를 금지하고 중국의 오래전 문체인 ‘고문’으로 되돌아가게 것을 명하였다. 정조가 보기에 연암의 문체는 유교의 권위에 반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열하일기는 금서가 되었고 조선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열하일기는 산들바람으로 끝나고 말았다.

연암은 요동별판에서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고 한바탕 울 만한 곳을 찾았다. 그리고 다른 양반들 역시 자신의 글을 읽고 새로운 탄생에 준하는 각성에 이르기를 원하였다. 자신이 청나라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류한 것처럼 조선의 양반들도 우정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교류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조선의 지배층은 스스로 한바탕 울 만한 곳을 찾지 못했고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조선은 새로운 탄생에 준하는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했고 조선의 신분 갈등은 점점 더 커졌다. 연암이 사망한 19세기 초부터 조선은 세도정치와 함께 기울어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변화하는 시대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이 몰락하면서 오히려 연암의 열하일기는 더욱 중요해졌다. 그의 혜안이 옳았다는 것이 점차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21세기에 이르러 다시 찾아온 위기는 18세기의 연암이 상상도 하지 못한 위기이다. 그럼에도 그의 글이 지금까지 고전으로서 널리 읽히는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한바탕 울 만한 곳을 찾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마치 천진난만한 학생처럼 새로운 세상을 돌아다니던 연암은 남들이 무시하던 사람들로부터도 배우고 교류하며 직접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다니던 개혁가였다. 그리고 개혁가가 되기에 앞서 편견을 깨게 해주는 각성을 보여주었다. 열하일기는 그 본보기로 계속 남을 것이다.



예언 속도를 중심으로 본 엔트로피 법칙

: 제레미 리프킨 『엔트로피』를 읽고

식품영양학과 이소*

『엔트로피』는 문명 비평가로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제레미 리프킨이 쓴 책이다. 제레미 리프킨의 주된 문제의식은 과학 기술의 변화가 경제, 노동, 사회,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엔트로피』는 그의 이론적 관심이 잘 나타나 있는 저서이다.

정보화 사회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현대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나아가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문제도 같이 갖고 있다.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 급속한 에너지와 자원의 고갈, 환경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들이 인류의 종말 더 나아가서 우주의 종말로 이어지는 위험한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가기 위해 다시 발전하고 노력한다.

엔트로피의 개념은 통신,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심지어 예술에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식되었다. 제레미 리프킨은 엔트로피 법칙을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고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증가한 것으로 이해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하여 에너지와 물질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에너지를 더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종말과 그리고 사용할 물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물질 혼돈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기계론적인 세계관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물질만능주의와 과학만능주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산업시대를 통해서 고에너지 사회를 지속해 그 결과로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엔트로피에 거대한 분수령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결론이다.

리프킨이 제시하는 다양한 분석과 논리 전개는 체계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의적인 확대 해석을 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엔트로피 법칙으로 이야기했을 때 인류의 종말이 가까이 온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제레미 리프킨이 직접적으로 기간을 예측하지 않았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나온 예언들이 엄청난 설득력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 예측하면 오해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그가 써온 책들을 통해서 보여준다.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저서 『소유의 종말』을 통해 자본주의가 물건을 소유하는 시대에서 접속하는 시대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현재 오늘날에서는 접속 대신 구독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콘텐츠를 구매하지 않고 구독하려는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구독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그의 책이 나오고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소유의 종말은 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제레미 리프킨의 예언이 감히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그는 2002년 자신의 저서 수소혁명을 통해 화석연료가 고갈 위기에 직면하면서 수소가 인류발전에 새로운 동력원으로 부상한다고 했으며, 늦었지만 현재 그의 예언대로 우리는 수소의 시대로 가고 있다. 세 번째로 그는 원유 생산량과 관련하여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세계 석유 생산이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이 또한 들어맞았지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제레미 리프킨의 예측과 뉴턴 이후 기계론적 문명에 대한 통찰은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지만 석유가 20년 뒤 고갈될 것이라고 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다.

현재에서도 이 늦은 예언이 들어맞는 일이 있었다. 제레미 리프킨은 이미 2014년에 바이러스에 관한 섬뜩한 예언을 한 바 있고, 그것이 오늘날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현실화되고 있다.

만약 그의 예언에 대해서 후에 인류의 종말이 온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저엔트로피 사회라는 뜻이다. 저엔트로피 생활방식은 검약과 물질주의 대신에 개인적이고 내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태도, 생태적인 관심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유기농법, 노동집약적 소규모 전환, 도시규모의 축소, 수송방식의 변화, 생활 활동의 축소, 다국적 기업의 소멸, 적정기술의 사용, 세계인구의 축소 등으로 저엔트로피의 사회현상이 가능하다. 엔트로피를 낮춰야 더 오랫동안 에너지를 더 오랫동안 쓸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발전은 멈춰야 할 것이다. 엔트로피도 코로나 19처럼 어느 순간 나중에 모두의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칠 존재이기 때문이다.

『엔트로피』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며 엔트로피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해 볼 여러 문제들을 제시해준다.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행되는 변화의 시대에 혼란과 무방향성에 대해 리프킨은 엔트로피의 개념은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한다. 그의 책 『엔트로피』는 이런 그의 사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자유의 탈을 쓴 억압의 현실,

: <미안해요, 리키>를 감상하고

행정학부 이하*

‘인간은 자유다. 인간은 자유 그 자체다.’라고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장 폴 사르트르는 말했다. 또한, 현대인 대부분은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당당히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가? 우리의 현실은 사실 자유롭지 않을지도 모른다. <미안해요, 리키>는 자유라는 포장된 틀을 썼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부조리한 현실적인 사회의 모습을 그려낸다.

2019년에 개봉한 켄 로치 감독의 <미안해요, 리키>는 ‘자유’라는 굴레 아래에서 오히려 억압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함을 보여준다. 리키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택배 프랜차이즈 아래의 자영업을 시작한다. 기대를 안고 새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근무 시간, 근무량, 근무 방법 모든 면에 일상에 있어서 실상 그가 누리는 자유는 없었다. 자유를 빙자한 책임과 억압만 따를 뿐이었다. 가중되는 책임과 별점, 그에 따라 사업 성공은커녕 되려 늘어나기만 하는 빚에 그와 그의 가족은 지쳐가고 서서히 무너지고 만다.

켄 로치 감독은 2019년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에서 본 작품을 통해 유럽 영화 관객상을 수상받는다. 사회의 부조리함을 직면하여 표현하고, 현실적인 노동자 계층의 삶을 표현한 점에서 유럽 관객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한국의 한 비평가는 현실을 날카롭게 해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서적으로 설득시키는 데 망설임이 없는 영화라고 작품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남겼다.⁵⁾ 수많은 사람에게 극찬을 받는 영화로 언급되는 이유는 삶의 고단함에 대한 공감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자유에 대한 열망, 끝없는 경쟁 속 기댈 수 없는 각박한 사회가 곧 우리가 영화를 찾고 위로받고자 하는 하나의 배경이다.

이제는 미안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해결 과제

사회 구조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받는 것은 특정 노동자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유를 얻지 못한 채 살아가는 ‘미안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은 우리가 자신에게, 그리고 사회 속 또 다른 리키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한 세 가지의 과제를 제시한다. 각각의 과제를 고려하며 작품을 감상한다면, 작품에 더욱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자유’는 주어지지 않고 개인이 부담할 ‘책임’만 가득한 사회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리키가 택배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은 그의 자유라는 안내를 받는다. 그러나 현실은 마음대로 일정을 조정하

5) 송경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되묻는 일갈, 네이버포스트 씨네플레이, 2019. 12. 20.,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121134&memberNo=31724756&searchKeyword=%EC%98%81%ED%99%94%20cg&searchRank=120>>

는 것, 동료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심지어 화장실 갈 잠시의 시간을 허가받지도 못한다. 자본주의 아래 암묵적으로 발생한 사회의 모순점이다. 자유 속에서 살아갈 권리를 갖지만, 자유를 누린다면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진정한 자유일까? 아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닌, 그저 자유의 껍데기만 가진 것이다. 작품은 자유가 존재하면 행복이 비례하여 증가하여야 하지만 되려 고통이 증가하는 사회적 구조를 지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장된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여야 한다. 사회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변화하지 않는다. 대가가 필요 없는, 자유 자체로 행복한 사회를 위해 변화를 희망하며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부조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자세를 키워내는 것이 영화와 관객에게 남긴 첫 번째 과제이다.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잃은 청소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리키와 자유를 갈망하는 그의 아들 세브와 갈등하는 장면이 다수 등장한다. 세브는 반항을 하며 학교에 가지 않고, 벽에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열망을 표현하곤 한다. 더불어 대학에 가면 빛을 지고, 원하지 않는 곳에 취업하고, 현실을 잊기 위해 취한다고 세브는 말한다. 세브는 어쩌면 부조리한 현실을 그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렸을지도 모른다. 그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세브의 모습이 나타난다. 암울한 현실 앞에서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였다. 청소년이 자유를 꿈꾸며, 반항이 아닌 진정한 삶에 대해 공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고안하게 된다. 청소년이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의 삶에 대하여 논의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과제이다.

끝으로, 변화하지 않는 사회 아래에서 결국 지쳐가는 개인을 확인할 수 있다. 전개와 샷의 구도를 살펴본다면 몰락하는 개인의 모습을 더욱 실감 나게 관찰하며 공감할 수 있다. 작품은 하나의 인물과 그의 행동을 멀리서 관찰하는 구도로 전체적인 촬영을 진행했다. 추가적인 감정선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레벨 구도에서 고정되지 않고 흔들리는 촬영기법을 지속해서 연출한다. 이를 통해 한 명의 삶을 멀리서 관찰하는 듯한 시점으로 공감하며 작품에 몰입할 수 있다. 더불어 벤을 운전하는 리키의 표정을 클로즈업 한 장면이 반복적으로 연출된다. 영화가 전개될수록 같은 구도에서 촬영된 그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눈물을 흘린다. 한 집안의 가장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인 리키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고 뒤에도 벤을 운전하는 그의 심정이 두드러진다.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현실 속, 한 명의 작은 사람인 리키가 짊어져야 하는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다. 그러나 사회는 변화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벤을 운전해야 하고, 단말기 기계 아래에서 살아가야 한다. 한 개인이 무너짐에도 결국 사회는 변화하지 않는 점이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마지막 과제이다.

우리 삶을 투영한 하나의 거울, 리키의 삶

실제 현대 사회 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 생각하게 만든다. 사회의 부조리함을 영화 속에 잘 담아냈고, 진정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란 어떤 것인지 명확히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자유로 인한 행복보다 책임으로 인한 부담감이 큰 삶이 리키의 눈빛 속에서 느껴진다. 그를 고단하고, 외롭고, 암울하도록 등 떠민 것은 누구일까? 그의 자유를 직접 억압한 직장 상사인 몬드리도, 반항하는 아들 세브도, 그 누구도 아니다. 행복을 강조하지만, 행복할 여지를 주지 않는 사회 구조가 그를 등 떠밀었다. 영화의 배경은 해외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도 매우 비슷하다. 영화 속 상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어쩌면 이미 자유의 탈을 쓴 억압에 세뇌되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과연 리키가 아닐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

참고 문헌

송경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되묻는 일갈, 네이버포스트 씨네플레이, 2019. 12. 20.,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121134&memberNo=31724756&searchKeyword=%EC%98%81%ED%99%94%20cg&searchRank=120>〉



배제를 넘어 연대의 역사학으로

역사콘텐츠 채재*

우리는 원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쓴다. 자기소개서는 여러 출처에 기반해서 적혀진다. 내가 아는 나, 그리고 잊었다 하더라도 일기나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과거의 발자취, 그리고 주변의 평가 등을 종합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곳에 적절한 배경과 이력들을 적절히 취사선택해서 적는다. 자기소개서를 통해 면접관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떤 목적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과거의 사실들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지원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 면접자를 평가하고 그 처우를 결정한다.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따르면 역사가는 이 비유에서 면접자이고 면접관은 역사가의 목적과 이해 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다. 역사가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과거의 사실들을 재구성하고 거기서 서열을 나누고 각각 개별 사건들과 인물들 간의 유기적인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서 ‘역사’를 구성한다. 그리고 면접관인 사람들은 이렇게 구성된 ‘역사’를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한다. 즉 역사는 사실 ‘역사소개서’인 것이다. 이러한 현재에서 과거를 구성한 역사소개서는 그렇게 미래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실마리가 되어준다.

그러면 역사소개서를 쓴 면접자와 그것을 평가하는 면접관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를 쓰고, 평가할까?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전제를 먼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저 단순한 개인의 시도라고 치부하는 것만큼 환상과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카의 논의를 더욱 보충할 때, 개인으로 시작하여 집단이 구성된다는 사회계약론의 환상과 다르게 인간은 처음부터 온전한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현생 인류가 진화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지구에 나타났을 때, 이미 그들은 집단으로 존재했다. 오랜 양육기 동안 사회공동체에서 나고 자라는 인간의 의식은 언제나 분리된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고 비록 개인주의가 그 안에서 나타나 발전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체 속의 개인’에 불과하다. 책에서 지적했듯이 로빈슨 크루소도 표류하기 전에 이미 사회에 충분히 녹아든 인간이었다. 이렇듯 사회적인 영향은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처해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처한 사회를 분석해야만 한다. 또 그 사람의 목적이 향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존재해왔는지도 당연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카가 줄곧 비판해왔던 랑케(그리고 그와 생각을 같이하는 액턴)의 실증주의도 결국은 유럽인의 기준에 입각한 역사의 완성이라는, 사회적으로 탄생한 목적에 전제한 것이었다. 실증주의의 문제점은 그 실재하는 역사가의 목적을 은폐시키고 역사를 고전 물리학의 연구대상과 같이 인간의 의식과 분리된, 정복 가능한 의식 세계 외부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에 있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에서 여러 현실에 맞부딪혀 이러한 단순한 도식은 이미 지양되고 불확정성의 원리로 대체된 지 오래다. 역사학도 진정으로 과학성을 획득하여서 일반이론을 제공하고 후대에 교훈을 주려고 한다면, 여러 기존의 것들을 무마시키는 현실들이 나타났던 만큼 마땅히 극복되어야만 할 것이다.

역사학은 현실의 관점을 정립하고 과거를 보게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구상하는 것을 카는 책에서 지적하였는데 기존의 서구중심주의 역사학의 가장 큰 치명적인 위험은 그저 하나, 인류의 역사를

서구 중심적인, 더 정확히 말하면 서유럽 백인 남성 부르주아들의 미래에 수렴시켜 그들에게 헌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저항하는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자민족 중심적인 서술로 귀결되고 결국 거기서부터 배제되는 이가 생겼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타자를 배제하는 역사학은 여전히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빈자, 이민자, 주변부 저발전 국가 등을 배제시키는 행동의 논리적 근거로 기능한다.

카의 생전에도 소위 기존의 역사에 냉소적인 시선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그건 서구 중심주의적 역사학을 반대로 뒤집은 것에 불과하다. 모든 것을 담보하는, 자연과 같이 당연한 인류의 선형적 진보를 상징하던 서구의 환상이 세계대전의 충격으로 벗겨져 그저 실망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카가 말한 역사가의 사회적인 인간이라는 특성과 거기서 비롯되는 목적성은 황폐한 이론과는 달리 배제적 사상들을 본질적으로 논박할 수 있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한다. 그는 역사를 자연을 가장한 장막을 걷고 그 속에 숨어있는 사람을 보여줬다. 그렇게 역사는 완성 가능한 의식세계 외부의 대상이 아닌, 꾸준히 논박 가능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하여금 서구중심주의적인 역사학의 헤게모니에 정면으로 도전하려고 하였다. 이는 당시에 아시아를 비롯한 비유럽 지역에서의 역사적 진보를 바라보면서 내린 결론이기도 했다. 물론 그가 서구중심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이 글 곳곳에서 보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의 역사학은 서구 중심적인, 타자를 배제하는 역사학에서 벗어나려 하는 기념비적인 첫걸음은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후학의 이점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그 경치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카의 시도를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타자를 배제하지 않고 모두와 연대해나가며 밝은 미래의 전망을 그려나가는 그런 역사학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급속한 발전과 함께 등장한 인류의 위기는 점점 심화되어 점점 배제의 정치에서 탈피할 것을 촉구하게 만든다. 우리가 입사해야 할 곳은 사회의 모순에 고통받아 시름하며 소외받는 자들이다. 랑케가 서구 유럽이라는 면접관에게 소개서를 제출한 것과 반대로 우리는 그 소개서에 배제되었던 사람들에게 알맞은 소개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1학년도 1학기 상명 에세이 경진대회 수상작 모음집

저 자: 2021학년도 1학기 상명 에세이
경진대회 수상자

편 찬: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발행처: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발행일: 2022년 2월 9일

* 본 도서의 저작권은 저자와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에 있습니다.

